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8권 제1호 (통권 94호) / 2023. 3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통권 94호), 2023년 3월호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 고세일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Law in Church Communities | Se-il Ko
- 037 취향과 기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취향간의 갈등 해결 | 김종원
Taste and Christianity | Jong Won Kim
- 053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의 문체와 그 판본에 나타난 “성령(聖靈)” 어휘 유래 고찰 | 소은희
The study on the early 19-20th Century Chinese style of 12 bibles
and their corresponding editions, and the origin of the term “Holy Spirit” | Eun-Hee So
- 077 한국어교육의 문화 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 이 란
Exploratory Study towards Integration of Korean Education
with Cultures: Focusing on Korean Education for Missionary Purposes | Ran Lee
- 10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삶과 종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종교교과의 목적을 중심으로 | 정문선
A Critique of the Subject, ‘Life and Religion,’ in 2022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n Aims of Religious Education | Moon-Sun, Jung
- 123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권태경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 Tae Kyoung Kwon
- 145 OECD가 제시한 미래역량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한 시도 | 강영택
An attempt at Christian understanding
of future competency education presented by the OECD | Young Taek Kang
- 169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 이국운
Liberal Democracy and the Church Politics | Kuk-Woon Lee
- 199 케노시스 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동화 이해 | 정덕희
A Study on the Work by Jung-Saeng Kwon in terms of the *Kenosis*:
Exploring *God Lives Next Door to Me* | Deok Hee Jung
- 221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 김성원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 Sung-Won Kim
- 249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정미란
Subjective cognition of spiritual care among Christian college nursing students | Miran Jung
- 273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교과 건강영역 | 박영진
Physical Education Lesson Planning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 Young Jin Park
- 297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 최용준
A Research on Abraham Kuyper’s View of State focusing on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 Yong Joon (John) Choi
- 315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그림책 프로그램 연구 | 지상선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 Sang-Sun Ji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Law in Church Communities

고 세 일 (Se-il Ko)**

ABSTRACT

When we think of laws in social communities, we may consider them as burdens to “do or not do.” Also, we might think of our social reality: “the rich are innocent, the poor are guilty.” This reality concerning laws might influence brothers’ and sisters’ perspectives of laws in church communities as well. However, ironically many laws in pre-modern and modern societies have come from Bible, the Word of God.

If we look at laws in the Bible, there are law about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at God spoke to Adam and Eve, the Ten Commandments, and laws of God which God gave Israelites after God had saved them from Egypt in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there are scenes in which Jesus criticizes the Pharisees concerning laws of God. In addition, the Apostle Paul provides two different views of laws of God.

The present negative perspective of laws of God in church communities might be influenced by the Reformers or by misunderstanding their ideas. However, their slogan “by Faith alone,” is not contracting to laws of God. The contrasting opinions of laws and grace of God may come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entire Scriptures,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We can interpret laws and gospel of God with harmony. Particularly moral law of God can provide norms of practice in church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21일 최종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9일,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고치고 다듬은 것으로, 2020년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은 논문임을 밝힙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5호, seilko@cnu.ac.kr

communities. When we interpret laws of God in this way, we can restore the heart of the early churches in Acts 2:43-47. Also we can see and check laws of our world with laws of God.

Key words: law, gospel, commandment, moral law, gospel of John

I. 들어가는 말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실과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교회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법’을 좋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좋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대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의 저자는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설명하면서, ‘교회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곽윤직·김재형, 2015: 165 ; 김준호, 2017: 694-695 ; 김형배 외, 2016: 122 ; 박동진, 2016: 63-64 ; 백경일, 2022: 639-640 ; 송덕수, 2021: 620-623 ; 양형우, 2022: 132 ; 윤형렬, 2013: 148 ; 정기웅, 2015: 212-213 ; 지원립, 2022: 112-114 ; 홍성재, 2016: 140-142). 예를 들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은 교회와 지교회 사이의 비법인사단의 탈퇴를 살피면서, 사회의 상당성을 잃은 선교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지를 다룬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교회공동체의 판례 사안을 바라보면, 교회공동체는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 교회공동체의 분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판례 사안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법원은 18세기에는 목시신탁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다가, 19세기 말 이후에는 교단준중원칙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황규학, 2014: 40-70 ; 120-143).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분열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다툼이 교회공동체의 분열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봉상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법은 신약성경에서 좀 더 강화되었고, 어떤 법은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법이 구원과 관계있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봉상, 2018: 6).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성경은 ‘복음’이라는 사고도 옳지 않다. (Gupta, 2020: 57-58; McGraw, 2016: 76). 또한 하나님의 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구약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함께 복음이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김형익, 2018: 27, 31).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 이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한다. 중심이 되는 본문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둘째, 성경과 근대법의 관계를 말한다. 셋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넷째, 교회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을 말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덕법에 대해서 말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II. 성경과 하나님의 법, 계명

1. 하나님의 법이라는 용어

나는 성경에서 율법(律法)을 잘못된 번역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옮겼는지 모른다.²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서 사람들의 만든 법을 구별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법률’(法律)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율법(律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교회공동체에서는 율법이 일상의 삶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본성서협회(日本聖書協會)의 신공동역성서(新共同訳聖書, 1988)와 중국의 환구성경공회(環球聖經公會)의 신역본성경(新译本聖經, 1992)도 모두 율법(律法)으로 옮긴다. 이러한 점은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예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규례’로 옮기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규는 예로 든 규칙이라는 뜻이고, 규례는 지켜야 할 법이라는 뜻으로 ‘율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쓴다. 따라서 ‘예규’와 ‘규례’는 ‘율법’과 ‘법률’의 관계와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법’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여긴다. 율법과

-
- 1)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세부 주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큰 관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밝힌다.
 - 2) 신약성경에서 쓰는 그리스어 νόμος(노모스)를 보통 ‘율법’으로 옮긴다. 그런데 νόμος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관습, 규칙, 원칙, 규범, 둘째, 제정법의 총체, 법,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거룩한 기록의 총체, 신성한 규정(sacred ordinance). Bauer's & Danker, 1979: 677-678.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쓰는 히브리어 토라(תּוֹרָה)는 좀 더 다양한 뜻을 갖는다. 첫째 지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도 ① 사람의 가르침, ② 하나님의 가르침, ③ 예언하는 가르침의 총체, ④ 메시아 시대의 가르침을 뜻한다. 둘째, 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뜻도 세부에서는 ① 구체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특별한 법, ② 법의 총체를 뜻한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뜻한다. 따라서 히브리어 토라를 단순히 ‘율법’이라고 옮길 때, 말하는 사람의 ‘토라’와 듣는 사람의 ‘토라’가 다른 개념일 수 있다. (Brown, et al., 1906: 435-436). 히브리어 토라를 70인역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옮길 때 쓴 단어가 노모스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시기에 그리스어 노모스는 영어의 law에 상당히 가까운 말이었다. (Jobes & Silva, 2015: 91-92).

법률처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모두 법(law, loi, Rechte)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도 로마서 7:22은 ‘하나님의 법’으로 갈라디아서 6:2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마서 7:22과 갈라디아서 6:2에서 말하는 ‘법’을 ‘율법’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O’Donovan은 모든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O’Donovan, 2014: 28). 그밖에 시편 37:31과 이사야서 1:10이 “하나님의 법”으로 옮긴다. 시편 37:34은 “주님의 법”으로, 시편 40:8은 “주님의 법”으로 옮긴다. 예레미야서 5:4-5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옮기고 있다. 신명기 17:14-18은 이스라엘 왕들의 법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목을 “이스라엘 왕도”라고 옮긴다. 또한 갈라디아서 5:23은 “막을 법(νόμος, 노모스)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살아가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쓰고,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는 ‘율법’으로 쓴다는 것을 밝힌다.³

2. 성경과 근대법의 관계

자연법은 실정법 없이 또는 실정법과 충돌할 때에도 구속력이 있다. (Seelmann, 윤재왕 역, 2010: 186). 자연법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 자연법은 약속의 도덕적 구속력에 대한 객관적 기초를 제시한다. (Hogg, 2011: 76). 칼뱅은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구속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새겨진 법질서로 말미암아 정의와 선한 정부가 나온다고 한다. (Gordon, 이재근 역, 2018: 224). 또한 칼뱅은 성문법은 단지 자연법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Calvin, 문병호 역, 2009: 56).

그런데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관련성이 있다. 라렌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 일정한 지배구조가 필연적으로 있는데, 이런 지배구조의 관계에는 언제나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은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법치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Larenz, 양창수 역, 1995: 137-138). 현대 사회의 많은 법은 근대 사회를 표본으로 한 것이고, 표본의 근간을 합리성에 둔다. 근대사회 이후에 사회공동체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설명한다.

동양의 법가 사상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 유가(儒家) 사상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측면에서 인(仁)과 예(禮)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법가(法家) 사상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측면에서 법(法)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철학에 바탕을 둔다. 배원달 교수는 “법가(法家)는 전국

3) 개역개정 성경본과 견주어, 새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 성경 인용은 새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대에 출현하여 유가(儒家)로 대표되는 자연법적인 예(禮)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정법의 우위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배원달, 1989: 675).

현재에 쓰고 있는 많은 법 제도가 성경에서 나왔다. 근대와 현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근대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본질 문제로 ‘인권(human rights)’을 다룬다. 성경에서 인간은 창조영역에서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와 관련해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1:27).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다. 그러나 이 부분을 깊이 탐구하지 않아도,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독특하다. 성경은 이 독특한 가치를 여러 곳에서 말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여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26). (Grove et al., 2022: 4768). 또한 한동구 교수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 또는 황제와 같은 존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땅 위에 사는 신(神)의 대리자로 인식했다고 설명한다.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황제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한동구, 2020: 152). 그런 점에서 인권의 근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거는 인권에 대한 어떤 근거보다 강력하다. 공두현 교수는 르네상스를 거친 뒤, 18세기 칸트 철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 개념이 실천이성 능력을 갖는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공두현, 2022: 854).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자연의 법 계명이 실천이성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다. (Aquinas, 이진남 역, 2022: 137).

일반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을 잔인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디나가 당한 것에 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동해보복’을 고려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출애굽기 21:23-25은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을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작은 부상에 대해서 죽이는 보복을 피해자가 당한 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동해보복의 사상은 고대 사회에서 전환점이 되는 혁신하는 법이었다.

형사소추에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신명기 19:15)은 오늘날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

거로 삼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혼할 때,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 말씀(신명기 24:1-4)도 각국에 이혼을 제한하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법원도 여전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포도를 딸 때 또는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떨어진 것을 줍지 않도록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레위기 19:10, 23:22). 돈을 꾸어주어도 돈을 갚도록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담보물의 경우여도 돈을 빌린 채무자를 보호하는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22:25-26). 이러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소비자주를 위한 민법 규정이다. (김형배, 1997: 523-525 ; 박동진, 1086-1087 ; 송덕수, 2022: 241-242 ; 한삼인, 2011: 363-368).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08조는 전2조의 규정(제606조와 제607조)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 (김형배, 1998: 82-87 ; 김형배, 1997: 405-421 ; 김형배, 2007: 4-5 ; 하경호, 2013: 471-473). 또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범으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각국의 법에서 긴급 구조의무를 규정하는 현행법(예를 들어, 상법 제882조~제895조)이 되었다. 예를 들어, 상법 제882조는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인정한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민법 제734조~제740조).

3. 성경 속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시고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Beasley-Murray는 하나님의 법의 명령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Beasley-Murray, 2020: 247).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언약’과 관련해서도 현행 계약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법(私法)의 중심이 되는 민법에는 두 책임 체계가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맺고,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contracts, contrats, Verträge)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불법행위’(torts, délits, Unerlaubte Handlungen)이다. 계약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책임이 ‘계약책임’이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다.

‘언약’을 ‘계약’과 구별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이런 시각은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반면에 ‘계약’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이해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⁴은 계약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이다. 둘째는 기독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셋째는 법률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둘째와 셋째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별해서, 계약의 두 번째 정의를 ‘언약’으로 개념 정의하고, 세 번째 개념을 ‘계약’으로 본다면 언약과 계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ברית”(브리트)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다. (최종태, 1999: 319-320). 또한 히브리어 브리트를 “약속”과 “협약”과 같은 말로 옮길 수도 있다. (김선종, 2015: 108). 히브리어 브리트의 어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단어는 ‘언약’과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언약’과 ‘계약’은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언약’도 둘 사이에 약속하고, 그 약속에 구속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속성에 비추어 보면, ‘언약’과 ‘계약’의 출발점은 같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창세기 15:5-21),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는 언약(창세기 21:22-34), 사라의 장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헷족이 맺는 언약(창세기 23:1-20), 야곱과 라반이 맺는 언약(창세기 31:43-56). 이러한 성경의 언약은 계약의 기초가 된다.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2:16-17),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맺는 언약의 말씀(창세기 9:9-17),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12:1-3; 17:1-10),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6:3-5),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8:13-15)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에 도덕적인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의 격언뿐만 아니라, 계약을 법의 죄사슬로 인식한 로마법의 사고, 계약법에서 인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을 적용하는 근원으로서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를 인정하는 것, 고의의 불법행위에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

4)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마지막 확인: 2022년 12월 11일).

496조의 원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도덕 가치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약의 구속력’의 법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 제527조). 법학에서는 율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A.D. 170-223)가 말한 정의 개념을 자주 인용한다. “정의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돌려주려는 영원한 의지”라고 설명한다.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에서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마태복음 22:21; 마가복음 12:17; 누가복음 20:25)에서 라는 말씀에서 율피아누스의 정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법에 도덕 관념이 남겨져 있는 현상을 현승종 교수와 조규창 교수는 고대 로마법이 다른 고대 국가법처럼 법과 종교가 서로 구별되지 않고, 법과 종교를 같은 말로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때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종교 의무의 이행을 뜻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도 법과 도덕이, 이집트를 비롯한 동부 여러 국가에서도 법과 종교가, 중국에서는 법과 윤리가 서로 결합한 형태의 포괄적인 행위규범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중세의 게르만법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 (현승종·조규창, 1996: 209).

Fried 교수는 ‘약속으로 계약’이라는 도덕적인 계약이론을 주장한다. (Fried, 1981: 1-6). 또한 이러한 약속으로 계약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신뢰로서 계약이론이 등장했다. (고영남, 2000: 174-275). 그런데 계약법에서 약속 이론과 약속 이론을 비판한 신뢰 이론 모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도덕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계약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계약법 이론에서 법의 경제적 분석에 따른 이익과 효능의 측면으로 이전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예를 들어, Scott & Kraus, 2013: 775-779). 또한 이런 약속으로서 계약은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을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국내법이 된다. (헌법 제6조 제1항). 그런 측면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협정도 이러한 약속으로서 언약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창세기 21:22-24),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창세기 31:43-52)이 맺는 평화협정(창세기 26:26-31)은 이러한 언약의 기초가 된다.

4. 교회 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

(1)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접근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명기 29:29, 30:10, 31:11-13, 32:46-47, 33:4; 여호수아기 1:7-8, 22:5, 열왕기상 2:3; 열왕기하 23:24; 역대지상 29:15; 역대지하 31:21; 에스라기 7:25; 느헤미야기 8:8-9, 9:3; 시편 1:2, 119:44; 잠언 28:7, 29:18; 이사야서 42:21; 예레미야기 9:13, 31:33; 학개서 2:11과 말라기서 2:7, 9; 4:4이 그렇다. 구약성경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신명기 10:16, 30:6; 예레미야기 4:4, 9:26; 에스겔서 44:7), 신약성경 사도행전 7:51과 로마서 2:29도 이런 구약성경의 태도를 따른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신다(마태복음 5:17-18, 20, 7:12, 22:37-40, 23:23; 마가복음 12:30-31; 누가복음 10:27-37, 16:17; 요한복음 7:19, 8:17, 10:34).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겉모습에만 충실한 것을 나무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겉모습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에 담긴 진정한 뜻을 잃는 것을 경계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5:17)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적과 진정한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마태복음 5:21-47).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ἐσθε οὖν ὑμεῖς τέλειοι)”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5:48).

(2)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자의 영향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시각은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좋게 평가하여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32번 말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16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 번 말하고, 2:19에서 두 번 말하고, 2:21에서 한 번 말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여섯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 5, 11, 13, 17, 23과 24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하고, 3:10, 12, 19에서는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1에서는 세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두 열여섯 번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4:4-5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4:21에서는 두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모두 네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5:3-4, 14, 18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한 번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네 번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2, 13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은 3:19, 21; 4:4, 5; 6:2이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2:16, 19, 21; 3:2, 5, 10, 11, 12, 13, 17, 23; 4:21; 5:3, 4, 18; 6:13이다. 갈라디아서 3:24; 5:14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지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상황에서 적용하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권연경 교수는 이들이 보편적인 도덕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계명에만 몰두한 것으로 설명한다. (권연경, 2013: 149).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는 총체이다. (DeSilva, 2018: 417).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일어난 매로우 논쟁이 그러하다. 이 매로우 논쟁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에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각 진영의 논거로 오랫동안 다투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두 입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두 주장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Ferguson, 정성목 역, 2019: 14-16). 또한 Kaiser 교수도 하나님의 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가 오랜 논쟁의 대상인 것을 밝힌다. (Kaiser, 1990: 298).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사고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Johnson, 2019: 56;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지훈, 2017: 155-171 참조).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도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사고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로마서 5:1을 읽고, 루터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복음 3:15).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포하신다. 그런데 루터도 규율과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 (Luther, 1520: 414).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관행으로 여기던 악습을 선행으로 장려하던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선행’이라는 책을 써서, 삶의 실천 측면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루터가 거부한 것은 성유물 수집, 면죄부 구매, 성인 숭배와 성인에 대한 성인 묘지 순례, 사제가 따로 집전하는 사적 미사를 위한 기부,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의 혼인 금지 등의 행위로 공적을 쌓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했다. 루터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선행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좋은 선행과 구별해야 한다고 여겼다. (Hendrix, 손성현 역, 2017: 198). 또한 루터의 95개 반박문의 42-45조에서 선행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95개 반박문 44조는 “선행을 통해 사랑은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더욱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죄부로는 선하게 될 수 없고, 오직 형벌에서 벗어날 뿐이다.”라고 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9: 52).

또한 루터는 영적 생활의 실천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중요함을 말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7: 51-197).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이다. 루터는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7: 197). 그러면서 루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라는 로마서 7:22이다. (Luther, 1520: 415).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아도, 신약성경의 구원의 개념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11:1-14:31).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출애굽기 15:22-26),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만나, manna)을 주신다. (출애굽기 16:1-36). 다시 하나님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water)을 주게 하신다. (출애굽기 17:1-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모이게 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9:4). 그리고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시고(출애굽기 20:1-17),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 (출애굽기 21:1-23:33).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열개를 보아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하나님의 법의 필요성과 마르키온의 영향

Barclay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훈육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가장 나쁜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Barclay, 1972: 64). 하나님의 법은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대치시키는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킨다. 마르키온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신약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 마르키온(Marcion)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결함 있는 신으로 바라보았다. (McGarath, 홍병룡 역, 2011: 193). 이것이 마르키온의 사교(marcionism)이고, 그러한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Gard는 마르키온의 이원론

(dualism)과 가현설(Docetism)을 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이단이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마르키온의 교리 일탈을 비난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마르키온의 영향은 명시적으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Gard, 2010: 209-210).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뜨린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17:1-26).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다는 정체성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나온다. 요한복음 3장(3:35); 5장(5:17-23, 26-27, 30, 36-37, 43), 6장(6:27, 32, 40, 44-45, 57, 65); 8장(8:16, 18-19, 28-29, 38, 42, 54-55); 10장(10:15, 18, 25, 30, 32, 36-38); 12장(12:26, 49-50), 13장(13:3); 14장 (14:6, 7-11, 16, 20-24); 15장(15:1-2, 9-10, 15-16, 24); 16장(16:3, 15, 23, 26-28, 32); 17장(17:1-2, 4-5, 7-10, 18, 21-23, 26); 18장(18:9, 11)과 20장(20:17, 21)이다.

(4) 실천 요소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말하는 개별 내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לְשָׁנָה, Jubilee)에 대한 법(레위기 25:8-55),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법은 그 내용 자체가 축복이고(출애굽기 22:21; 23:9, 12; 레위기 19:10, 33-34; 23:22; 25:6, 35, 47; 신명기 10:19; 14:21; 23:7), 사랑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종과 이웃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셨다는 것이다(출애굽기 20:10). 복음과 하나님의 법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실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복음’으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King, Jr., 2020: 225).

홍지훈 교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뜻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의롭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홍지훈, 2017: 149). 이러한 루터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여, 1577년 루터파 일치신조 6항에는 “그리스도인과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권하지 말고,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율법을 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훈, 2017: 151).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동은 1527년부터 시작되었

는데, 당시 루터의 동료였던 요한 아그리콜라가 중심 역할을 한다. (손규태, 2004: 145-149).

문홍선 박사는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믿음으로’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Schreiner 교수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문홍선, 2008: 2). 존 스토틀 목사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윤리를 든다. 그리스도인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면에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유대인의 성적표를 그리스도인의 성적표와 견줄 때, 유대인의 성적표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의 주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또한 ‘율법주의자’라는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과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Stott, 정옥배 역, 2017: 100-101).

루터는 “모든 성서와 신학 전체의 인식은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바른 인식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했다.” (홍지훈, 2017: 153).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값어치 없는 엄청난 소중함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20; 요한복음 21:24; 사도행전 1:8).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때 내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다.

5.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

(1) 요한복음의 새 계명의 뜻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영어 law, 헬라어 νόμος)을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계명’(영어 commandment, 헬라어 ἐντολή)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34-35).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12-17에서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 사랑”(신명기 6:5)과 “이웃 사랑”(레위기 19:18)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37-40, 마가복음 12:29-31과 누가복음 10:26-28도 새 계명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 계명’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새 계명’이 뜻하는 바를 세상의 교회가 아닌, 좁은 뜻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Haenchen, 1984: 117-118). 그러나 Keener는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Keener, 2003: 923). Edwards는 새 계명의 뿌리가 레위기 19:18에 있다고 한다. (Edwards, 2004: 136). Carlson-Thies과 Chang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Carlson-Thies, 2021: 201 ; Chang, 2014: 264). Hartley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전형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한 예로 든다. (Hartley, 1992: 318). Chang은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하는 변화(ongoing conversion)에 대한 소명으로 여긴다. (Chang, 2014: 269).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벽을 허물고, 자신을 다시 낮은 자세로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는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한다. Perry는 사랑의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Perry, 2008: 241).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arson, 1991: 436). 따라서 이는 Estrada 교수가 말하는 교회공동체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개념과 연결된다. (Estrada, 2019: 299). 그런 측면에서 Borchert는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모델로 평가한다. (Borchert, 2002: 96).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구절은 모두 12개이다. (요한복음 1:17, 45; 7:19, 23, 49, 51; 8:5, 17; 10:34; 12:34; 15:25; 19:7). 이 12개의 구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① 화자(narrator)는 요한복음 1:17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은 두 개념을 상반되게 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은혜의 연속성을 말한다. (Michaels, 2010: 90).

② 요한복음 1:45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이 있다.

③ 요한복음 7:51에서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의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

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맥락을 본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뜻으로 쓴다.

④ 요한복음 7:49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5). 또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한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무리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적인 뜻으로 쓴다.

⑤ 예수님은 요한복음 7:19, 23; 8:17; 10:34; 15:25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쓰신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요한복음 7:19).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한복음 7:23).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요한복음 8:17). 이는 신명기 17:6과 19:15를 인용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뜻으로 쓰지 않으신다.

Scar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긍정의 관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저주로 바꾸었다. 따라서 아무도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담은 “네가 해야 한다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고난으로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처음의 흠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바꾸셨다.” (Scar, 2018: 18).

Loader는 마가, 마태와 누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연속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Loader, 2002: 123, 260, 379). Meier는 신약성경에서 쓰는 하나님의 법의 깊은 뜻은 구약성경의 칠십인역 (Septuagint) 성경과 같다고 설명한다. (Meier, 2009: 39).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Thompson, 2015: 300).

(2)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계명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모두 7개이다. (12:49-50; 13:34; 14:15, 21; 15:10, 12). 요한복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① 요한복음 12:49-50.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신다. (Ferguson, 2016: 168).

② 요한복음 13:34.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요한복음 13:1, 34; 14:15; 15:12-13, 17). 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Thompson, 2015: 295).

③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신다. Keener는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요한복음 12:49),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으신다. (요한복음 10:18; 14:31). Lincoln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다. (Lincoln, 2005: 388). 이런 측면에서, 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기능한다. Van der Merwe은 요한복음에 지키도록 명백히 말하는 세 개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아버지가 주신 일을 마치려고 ...’, ‘내 계명을 지켜라.’ (Van der Merwe, 2022: 3).

④ 요한복음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यो,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요한복음 15:9)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기초이다(요한복음 15:12). (Keener, 2003: 926).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는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은 늘 상호관계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4; 5:23). (Kanagaraj, 2013: 141).

⑤ 요한복음 15: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다.

⑥ 요한복음 15: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을 때, 요한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날마다 삶과 연결시킨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제자들의 의무와 연결시킨다. (Michaels, 2010: 758-759).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13:8-10)와 갈라디아서(6:2)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다.

(3) 구약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뜻

계명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계명’을 쓰고 있는 절을 살펴보면, 모두 74개의 절이 있다. 영어 성경가운데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직역을 바탕으로 한 성경 본으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NRSV를 기준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절을 살핀다. 성경 순서대로 계명이 나온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창세기 26:5
- (ii) 출애굽기 20:6; 24:12; 34:28
- (iii) 레위기 26:3, 15
- (iv) 신명기 4:13; 7:9; 8:2; 10:4; 17:20
- (v) 여호수아기 22:5
- (vi) 열왕기상 2:3; 6:12; 8:58; 9:6; 18:18; 열왕기하 17:34, 37; 18:6; 23:3
- (vii)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17:4; 19:10; 34:31
- (viii) 에스라기 7:11; 9:10, 14
- (ix) 느헤미야기 1:7, 9; 9:13-14, 34; 10:29
- (x) 욥기 23:12
- (xi) 시편 19:8; 78:7; 89:31; 112:1; 119:6, 10, 19, 21, 32, 35, 47-48, 60, 66, 73, 86, 9, 98, 115, 127, 131, 143, 151, 166, 172, 176
- (xii) 잠언 3:1; 13:13; 19:16
- (xiii) 전도서 12:13
- (xiv) 다니엘서 9:4-5

위에서 말한 구약성경에 ‘계명’을 포함하는 절을 분석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구별하지 않고 쓴다. (창세기 26:5; 출애굽기 24:12; 17:39; 역대지하

19:10; 느헤미야기 9:13-14).

②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20:6; 레위기 26:3; 신명기 4:13; 7:9; 8:2; 17:20; 여호수아기 22:5; 열왕기상 2:3; 6:12; 8:58; 9:6; 17:34, 39; 18:6; 23:3;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34:31; 에스라기 9:10, 14; 느헤미야기 1:7, 9; 9:34; 10:29; 욥기 23:12; 시편 78:7; 89:31; 119:6, 10, 32, 60, 115, 166, 176; 잠언 3:1; 전도서 12:13).

③ 언약과 계명의 관계를 말한다. (레위기 26:15; 신명기 4:13; 7:9).

④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쓴다. (역대지하 17:4; 시편 119:66, 73, 86, 151; 잠언 19:16; 다니엘서 9:4-5).

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한다. (시편 19:8; 112:1; 119:35, 47-48, 98, 127, 131, 143, 172; 잠언 13:13).

⑥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계명을 말한다. (시편 119:19).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의 많은 요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양떼와 목자에 대한 요한복음 10:1-21은 에스겔서 34:15, 23과 37:24의 요소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 (Heilmann, 2018: 493). 구약성경에 있는 계명의 용례를 분석하면서, 요한이 사랑의 새 계명을 구약성경의 계명에 관한 질들과 의도적으로 관련하여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6.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도덕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이 폐기되었다는 사고(Scar, 2018: 3-4)는 하나님의 법을 단순한 ‘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있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Casselli, 2016: 90). 하나님의 법을 3개의 범주로 나눈다. (Ferguson, 2016: 171-173).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이다. 이는 근대 사회 이후 각국의 민법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는 제사에 대한 ‘제사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도덕’을 뜻하는 영어 단어 ‘moral’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외에 “성품과 행동의 선함을 가르치거나 보여줌 또는 성품과 행동의 선함을 교정함”이라는 뜻을 갖는다. (Bruce et al., 2000: 1144). 그런 뜻에서 ‘moral’이라는 단어를 ‘성품’ 또는 ‘품성’으로 옮길 수 있다. (Takebayashi, 2002: 1605). 따라서 ‘도덕법’(moral law)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이라는 뜻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18절에서 제사법과 도덕법을 구별한다. (Schreiner, 1989: 59). 도덕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법의 총체이다. (Voif, 2006: 157). 언약신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넣어두신 선과 악에 대한 기본개념을 도덕법으로 이해한다. (Sailhamer, 김윤희 역, 2013: 727). George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법이 모세의 언약과 견주어 시기에 앞선다고 한다. (George, 1994: 342).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다. William은 신약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한 가장 현저한 예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찾으러 온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마태복음 19:16-22)에 나온다고 한다. (William, 2017: 57). Rom-Shiloni는 십계명을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한다. (Rom-Shiloni, 2019: 135). 도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고는 1646년의 웨스터민스회 공회에서 인정되었다. 제14장 제5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그리고 교회의 장전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감리교 교회와 장전 제6조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반대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예법과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도덕이라 일컫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20: 35-36). 법의 세 구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Kaiser 교수는 삼위일체 개념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Kaiser, 1990: 289-290).

III. 맺는말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폐기했거나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과 하나님의 법이 상반된다는 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34-35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 사이의 관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첫째, 요한복음의 ‘새 계명’은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은 긍정적인 뜻으로 쓴다. 셋째, 요한복음에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넷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에 관한 절들은 요한복음의 새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이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일치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계명’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

님의 법'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율법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옳다. '율법적'이라는 표현을 많은 경우 부정하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은연중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율법적'이라는 말을 부정의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글을 쓸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쓰고, 띄어 쓰고, 붙여 쓰고 하는 약속이 '문법'이다. 문법을 어려워 한다. 반대로 문법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글을 쓴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길까? 이러한 원리는 세상의 교통법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무너지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창세기 1:2).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생기게 하셨다. (창세기 1:3).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둡고 무질서한 곳에 빛을 주셨고, 질서를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우월하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그런 상태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태도를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생기는 자기 연민(나르시시즘)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요한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한다. (요한1서 5:3-5).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반대로 보는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에 빠진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의 세 구분에 따른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 2:43-47의 초대 교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근대와 현대 사회에 많은 법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법도 하나님의 법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현재 교회 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한다. 그런데 홍성수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기초가 되는 “차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유, 분야, 판단기준과 예외와 같은 많은 논점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홍성수, 2022: 819).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갈 때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힘을 얻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을 점검하는 힘을 갖는다.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지금 민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영남 (2000).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o, Y. N. (2000).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Classical Theory of the Contract Law - On the basis of the Reliance Theory in Anglo-American Law*.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곽윤직·김재형 (2015). **민법총칙**. (제9판). 서울: 박영사.
- [Kwak, Y. J. & Kim, J. H. (2015). *General Part of Civil Law*. Seoul: Parkyoungsa.]
- 기독교대한감리회 (2021).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 [The Korean Methodist Church (2021). *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 Seoul: Kmc.]
- 공두현 (2022).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간존엄의 미래. in 윤진수·한상훈·안성조 편저 (2022) **법의 미래**. 서울: 법문사, 850-864.
- [Kong, D. H. (2022). Demographic Changes and the Future of Human Dignity. in Yoon, J. S. Han, S. H, and Ahn, S. J. (Ed.) (2022). *The Future of Law*. Seoul: Bupyoungsa.]
- 권연경 (2013).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Kwon, Y. K. (2013). *How do we read Galatians*. Seoul: Scripture Union Korea.]
- 김선종 (2015). 에스겔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 9(1), 107-131.
- [Kim, S. J. (2015). Covenant Theology in the Book of Ezekiel. *Canon&Culture*, 9(1), 107-131.]
- 김윤희 역 (2013). **모세 오경 신학 -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 Sailhamer, J. (2009).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서울: 새물결플러스.
- [Kim, Y. H. (2013).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 Revelation, Composition, Interpretation*. Seoul: Holy Wave Plus Publishing. Trans. Sailhamer, J. (2009).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 김준호 (2017). **민법강의**. (제23판). 서울: 법문사.
- [Kim, J. H. (2017). *Lecture of Civil Law*. (23rd ed.). Seoul: Bupmunsa.]
- 김형익 (2018). **율법과 복음: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 서울: 두란노서원.
- [Kim, H. I. (2018). *Law and Gospel: A Journey from Bondage to Freedom*. Seoul: Duranno.]
- 김형배 (1997). **채권각론: 계약법**. 서울: 박영사.
- [Kim, H. B. (1997). *Law of Obligations - Special Parts: Law of Contracts*. Seoul: Parkyoungsa.]

- 김형배 (1998). **채권총론**. (제2판). 서울: 박영사.
- [Kim, H. B. (1998). *Law of Obligations – General Parts*. Seoul: Parkyoungsa.]
- 김형배 (2007). **노동법**. (제3판). 서울: 박영사.
- [Kim, H. B. (2007). *Labor Law*. (3rd ed.) Seoul: Parkyoungsa.]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서울: 신조사.
- [Kim, H. B., Kim, K. W. & Kim, M. S. (2016). *Lecture of Civil Law Study*. (15rd ed.). Seoul: Shinjosa.]
- 문병호 역 (2009). **기독교 강요**, Calvin, J.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 씀사.
- [Moon, B. H. (200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Seoul: lifebook. Trans. Calvin, J.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Geneva: Basile AE.]
- 문홍선 (2008). **율법과 복음에 관한 새 관점에 대한 비판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Moon, H. S. (2008). *The Criticism and Study of “New Perspective” of Law and Gospel*.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동진 (2016). **계약법강의**. 서울: 법문사.
- [Park, D. J. (2016). *Lecture of Contract Law*. Seoul: Bupmunsa.]
- 백경일 (2022). **민법총론**. (제3판). 서울: 고래시대.
- [Paik, K. I. (2022).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23rd ed.). Seoul: Parkyoungsa.]
- 배원달 (1989). 법가사상에 관한 연구 - 상양(商殃)과 한비(韓非)를 중심으로 -. **안동문화총서**, 1(1), 667-690.
- [Pae, W. D. (1989). A Study on the Beopga Thought – Focusing Sanggang and Hanbi. *Andong Culture Journal*, 1(1), 667-690.]
- 손규태 (2004).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hn, G. T. (2004). *The Theology and Ethics of Martin Luther*.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손성현 역 (2017). **마르틴 루터: 새 시대를 펼친 비전의 개혁자**, Hendrix, S. H. (2017). *Martin Luther: Visionary Reformer*. 서울: IVP.
- [Sohn, S. H. (2017). **Martin Luther**. Seoul: IVP. Trans. Hendrix, S. H. (2017). *Martin Luth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송덕수 (2021). **민법총칙**. (제6판). 서울: 박영사.
- [Song, D. S. (2021). *General Part of Civil Law*. (6th ed.). Seoul: Parkyoungsa.]

- 송덕수 (2022). **채권각론**. (제6판). 서울: 박영사.
- [Song, D. S. (2022). *Law of Obligations - Special Parts*. (6th ed.). Seoul: Parkyoungsa.]
- 양창수 역 (1995). **정당한 법의 원리**, Larenz, K. (1979). *Rich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서울: 박영사.
- [Yang, C. S. (1995).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Seoul: Parkyoungsa. Trans. Larenz, K. (1979).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München: C. H. Beck.]
- 양형우 (2022). **민법의 세계**. (제13판). 서울: 정독.
- [Yang, H. W. (2022). *World of Civil Law*. (13rd ed.). Seoul: Chungdok.]
- 윤재왕 역 (2010). **법철학** (제2판), Seelmann, K.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서울: 세창출판사.
- [Yoon, J. W.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Seoul: Sechang Publisher. Trans. Seelmann, K.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München: C. H. Beck.]
- 윤형렬 (2013). **민법총칙**. (제4판). 서울: 법영사.
- [Yoon, H. R. (2013). *General Part of Civil Law*. (4th ed.). Seoul: Bupyoungsa.]
- 이재근 역 (2018). **칼뱅**, Gordon, B (2009). *Calvin*. 서울: IVP.
- [Lee, J. G. (2017). *Calvin*. Seoul: IVP. Trans. Gordon, B. (2009). *Calvi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이진남 역 (2022).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8 법**, Aquinatis, T. (1485). *Summa Theologiae*. 서울: 바오로딸.
- [Lee, J. N. (2022). *Summa Theologiae*. Seoul: Pauline. Trans. Aquinatis, T. (1485). *Summa Theologiae*. Basel: Michael Wenssler.]
- 정기웅 (2015). **민법총칙**. (제4판). 서울: 법문사.
- [Chung, K. W. (2015). *General Part of Civil Law*. (4th ed.). Seoul: Bupmunsa.]
- 정성묵 역 (2019). **온전한 그리스도**, Ferguson, J. B. (2016). *The Whole Christ*. 서울: 두란노.
- [Chung, S. M. (2019). *The Whole Christ*. Seoul: Doryanno. Trans. Ferguson, J. B. (2016). *The Whole Christ - Legalism, Antinomianism, & Gospel, Assurance -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Crossway.]
- 정옥배 역 (2017).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Stott, J. (1991).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 Preparing for the coming King*. 서울: IVP.
- [Chung, O. B. (2017). *The Lecture of 1&2 Thessalonians*. Seoul: IVP. Trans. Stott, J. (1991).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 Preparing for the coming Kin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조봉상 (2018). **왜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서울: 포도나무출판사.
- [Cho, B. S. (2018). *Why should the New Testament Church keep laws?* Seoul: Grape Tree Publisher.]
- 지원림 (2022). **민법강의**. (제19판). 서울: 홍문사.
- [Ji, W. R. (2022). *Lecture of Civil Law*. (19th ed.). Seoul: Hongmunsa.]
- 최종태 (1999). 결혼으로서의 시내산 언약. **Acts신학과 선교**, 3, 287-341.
- [Choi, J. T. (1999). The Sinai Covenant as Marriage. *Acts Theology and Mission*, 3, 287-341.]
- 최주훈 역 (2017).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 Luther, M. (1529). Der Große Katechismus. 서울: 복 있는 사람.
- [Choi, J. H. (2017). *Der Große Katechismus*. Seoul: BokItnewsaram. Trans. Luther, M. (1529). *Der Große Katechismus*. Zwickau: Johannes Herrmann.]
- 최주훈 역 (2019).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Luther, M. (1517). 95 Theses. 서울: 감은사.
- [Choi, J. H. (2019). *95 Theses*. Seoul: Kameunsa. Trans. Luther, M. (1517). *95 Theses* Wittenberg: Hans Lufft.]
- 하경호 (201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경영법률**, 23(2), 471-503.
- [Ha, K. H. (2013). Legislative tasks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23(2), 471-503.]
- 한동구 (2020). 고대 이스라엘의 인권사상. **현상과 인식**, 44(1), 141-158.
- [Han, D. G. (2020). Thought of Human Rights in Ancient Israel. Phenomenon and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4(1), 141-158.]
- 한삼인 (2011). **계약법**. 서울: 화산미디어.
- [Han, S. I. (2011). *Law of Contracts*. Seoul: Hwasanmedia.]
- 현승중·조규창 (1996). **로마법**. 서울: 법문사.
- [Hyun, S. J. & Cho, K. C. (1996). *Roman Law*. Seoul: Bupyoungsa.]
- 황규학 (2014).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Hwang, K. H. (2014). *A Comparative Study on Church Property Ownership*.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홍병룡 역 (2011).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 McGrath, A. (2009). *Heresy*. 서울: 포이에마.
- [Hong, B. R. (2011). *Heresy*. Seoul: Poiema. Trans. McGrath, A. (2009). *Heresy*. New York: Harper Collins.]

- 홍성수 (2022). 차별금지사유,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차별금지 법정책의 미래. in 윤진수·한상훈·안성조 편저 (2022) **법의 미래**. 서울: 법문사, 818-834.
- [Hong, S. S. (2022). How can we determine prohibited discrimination grounds - Future of anti-discrimination legal policy. in Yoon, J. S. Han, S. H, and Ahn, S. J. (Ed.) (2022). *The Future of Law*. Seoul: Bupyoungsa.]
- 홍성재 (2016). **민법총칙**. (제6판). 서울: 대명문화사.
- [Hong, S. J. (2016). *General Part of Civil Law*. (6th ed.). Seoul: Daemyungmunwhasa.]
- 홍지훈 (2017). “고발하는 율법”과 “살리는 복음”: 마틴 루터의 율법과 복음 구별하기. **신학과 교회**, 8, 149-183.
- [Hong, J. H. (2017). Accusing Law and Saving Gospel: A Distinguishing Law and Gospel by Martin Luther, *Theology & Church* 8, 149-183.]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Supreme Court Decisioin 2021Me14258 Decide June 16, 2022.]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27688 Decided August 11, 2022.]
- Barclay, W. (1972). *The Old Law & The New Law*. Edinburgh: The Saint Andrew.
- Bauer's, W. & Danker, F. W. (1979).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asley-Murray, G. R. (1999).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6. Grand Rapids: Zondervan.
- Borchert, G. L. (2002). *John 12-21: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5b. Nashville: Broadman & Holman.
- Brown, F. Driver, S. & Briggs, C. (1906).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 Bruce, N., Pickett, J. P. & Leonesio, C. (2000).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Carlson-Thies, S. (2021). Love God Totally,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How Religious Freedom Enables Us to Obey both Great Commandments in our Time.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48(2), 200-216.

- Carson, D. A. (1991).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 Casselli, S. J. (2016). *Divine Rule Maintained: Anthony Burgess, Covenant Theology, and the Place of the Law in Reformed Scholasticism*.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 Chang, W. (2014). The Love Commandment (John 13:34-35). *Asia Journal of Theology*, 28(2), 263-282.
- DeSilva, D. A. (2018). *The Letter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Edwards, M. (2004). *John: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Oxford: John Wiley & Sons.
- Estrada III, R. G. (2019). *A Pneumatology of Race in the Gospel of John: An Ethnocritical Study*. Eugene: Pickwick.
- Ferguson, S. B. (2016). *The Whole Christ: Legalism, Antinomianism, and Gospel Assurance: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Crossway.
- Fried, C. (1981). *Contract as Promise: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Fung, R. Y. K. (2018).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Gard, D. L. (2010). The Church's Scripture and Functional Marcionism.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4(3-4), 209-224.
- George, T. (1994). *Galat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0. Nashville: B&H.
- Gupta, N. K. (2020). *A Beginner's Guide to New Testament Studies: Understanding Key Deba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aenchen, E, R. Funk W. & Busse U. (1984). *John 2: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7-21*. Philadelphia: Fortress.
- Hartley, J. E. (1992).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 Heilmann, J. (2018). A Meal in the Background of John 6:51-58.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2), 481-500.
- Hogg, M. (2011). *Promises and Contract Law - Comparative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bes, K. H. & Silva, M. (2015).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Johnson, T. K. (2019). *Law and Gospel: The Hermeneutical and Homiletical Key to Reformation*

- Theology and Ethics.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3(1), 53-70.
- Kaiser Jr., W. C. (1990). God's Promise and His Gracious Law.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3, 289-302.
- Kanagaraj, J. J. (2013). *John: A New Covenant Commentary*. Cambridge: Lutterworth.
- Keener, C. S. (2003).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 King Jr., J. B. (2020). Toward law-gospel harmony in Lutheran theology and ethic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59(3), 225-232.
- Lincoln, A. T. (2005).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ew York: Continuum.
- Loader, W. R. G. (2002).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A Study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 Luther, M. (1520). The Freedom of a Christian. in Russell, W. R. & Lull T. (Ed.) (1989).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cGraw, R. M. (2016). The Threats of the Gospel - John Owen on what the Law/Gospel Distinction Is Not.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1), 79-111.
- Meier, J. P. (2009). *A Marginal Jew -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 4: Law and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 Michaels, J. R. (2010).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 O'Donovan, O. (2014). Flesh and Spirit. in Elliott, H. M. & Hafemann, S. J., Wright N. T. and Frederick, J. (Ed.) (2014). *Galatians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Perry, J. M. (2008).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in Witte Jr., J. & Alexander F. S. (Ed.) (2008). *Christianity and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om-Shiloni, D. (2019). The Decalogue. in Barmash, P. (Ed.) (2019). *The Oxford Handbook of Biblic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ar, D. P. (2018). The second question and answer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clearly used this framework for preaching the Reformation faith.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82(1-2), 3-18.
- Schreiner, T. R. (1989). The Abolition and Fulfillment of the Law in P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1(35), 47-74.
- Scott, R. E. & Kraus, J. S. (2013). *Contract Law and Theory* (5th ed.). New Providence: LexisNexis.
- Takebayashi, S. (2002). *Kenkyusha's New English-Japanese Dictionary* (Sixth ed.). Tokyo:

Kenkyusha.

Thompson, M. M. (2015). *John: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Van der Merwe, D. G. (2022). The concept and activity of 'obedience' in the Gospel of John. *Verbum et Ecclesia*, 43(1), 1-9.

Voif, M. (2006). *Free of Charge: Giving and Forgiving in a Culture Stripped of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William S. M. (2017). *An Introduction to Biblical Law*. Grand Rapids: Eerdmans.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Law in Church Communities

고 세 일 (충남대학교)

논문초록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실과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법’을 좋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좋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대답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현재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의 저자들은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런 교회공동체의 판례 사안을 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공동체는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현대 사회의 많은 법은 근대 사회를 표본으로 한 것이고, 표본의 근간을 합리성에 둔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여러 법 제도는 성경의 법에 근거를 둔다. 현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서 법의 관점을 본다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시고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을 제시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의 사고를 오해한 것에서 나왔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도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반대로 보는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의 3중 구분에 따른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 2:43-47의 초대 교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법도 하나님의 법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주

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힘을 얻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길 때, 여러 민법 교과서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 분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주제어: 하나님의 법, 복음, 율법, 계명, 도덕법, 요한복음

취향과 기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취향간의 갈등 해결*

Taste and Christianity

김종원 (Jong Won Kim)**

ABSTRACT

This paper is a try to resolve conflict between various tastes, which are under the influence of subjectivism, from Christian point of view. In order to do it, firstly, I will look into the origin of the concept 'taste' and its developments. After that, I will identify good taste with virtue and show that Christian virtues play the same role as tastes by revealing that there are belief-systems behind both tastes and virtues. Finally, I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astes through comparing belief-systems.

Key words: Taste, Christianity, Empiricism, virtue, conflict resolution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22일 최종수정, 12월 31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23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나사렛대학교(Korea Nazarene University) 오웬스 교양대학 조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kjw@kornu.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 진리에 관한 객관주의가 쇠퇴하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주된 사상으로 영향을 발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들을 통해 자신만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도구적 이성의 객관적인 사용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경우 포괄적 진리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가 위협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그 해의 단어로 ‘탈진리(post-truth)’가 등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post-truth’란 ‘대중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과 관련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오늘날은 거리낌 없이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나열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신념을 관철시키도록 현실을 수정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탈진리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일례로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딥페이크 기술과 초정보와 초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매체 발달은 그 부작용으로 가짜 뉴스와 같은 허위정보를 산출하여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2016년에 미 대선과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여러 주장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사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진리의 시대에 사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 할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적 취향을 바탕으로 거짓된 신념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신념을 대중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탈진리 시대의 특징이라면 탈진리의 시대는 곧 취향의 시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과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부되던 많은 것들이 문화 상대주의의 영향을 거쳐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수학과 같이 기계적인 진리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주장이 ‘취향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었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곳곳에 편재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이성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견해도 단지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나타내는 취향이라는 이름아래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취향에 대한 강조가 보여주는 이러한 탈진리 시대의 특성은 전통 종교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정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며 종교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어떤 가르

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결국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늘날 취향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만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주관적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사라진 현대의 갈등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취향 개념을 분석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품성과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대적 갈등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취향 개념의 변천사

오늘날 개인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만능키로 사용되는 취향(taste)은 어떠한 개념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 이 절에서는 원래 미(味)각을 지칭하던 취향(taste) 개념이 어떻게 그 범위가 확장되어 미(美)적 취향을 지칭하는 말로 변하고 마침내는 미적 취향뿐만 아니라 도덕적 취향을 포함한 다양한 취향까지 아우르게 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이 미적 취향을 미학 연구에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자면 취향에 해당하는 ‘Taste’는 5가지 감각 중에서 미(味)각에 대응하는 감각작용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따르면 미각은 원래 촉각의 일종으로 혀의 촉각을 통해 얻는 감각이었다(Carruthers, 2013: 109). 혀의 표면에서 신경을 거쳐 당시에 최종 수용기관으로 생각되던 심장에 도달하여 달콤함과 같은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味)각작용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Bacon, 1937: 18).

그렇다면 왜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하필이면 미(味)각에 대응하는 감각작용인 취향이 오늘날 우리의 선호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는가? 동양에서는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良藥苦口)는 말이 존재하지만, 서양에서는 고대와 중세에 걸쳐 맛과 신체에 필요한 영양은 조화를 이룬다고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맛은 열기와 냉기 그리고 건조함과 습함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즐거운 맛이란 이 요소들이 한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것을 감각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Carruthers,

2013: 112). 이처럼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내 몸에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먹기도 좋고 내 몸에도 좋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맛있다는 감각작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었고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즉각적인 감각작용이기에 시각작용과 청각작용처럼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맛을 지칭하던 취향(taste)이 판단과 결합하여 사용되게 되었는가?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이 미(美)를 파악하는 기관으로서 미감을 상정하였고 아름다움의 판단근거를 취향에 두었으니 취향의 시대라고 불렸던 18세기보다는 이전에 취향과 판단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판단은 중세 이전 시기에는 취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맛을 느끼는 것과 관련에서는 옳고 그름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주된 생각이었다. 서서히 판단이 취향과 결합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에 히브리적 전통이 서양사상에 유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사상가들은 성경적 비유에 따라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달콤함이라는 맛을 신을 아는 것과 결합시켜 신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Carruthers, 2013: 125).¹ 인간은 신이 주신 감각을 통해 신을 알고 신과 교제해야 하는데 이때 신을 파악하게 하는 여러 영적인 감각들(spiritual senses) 중 대표적인 감각이 바로 미각(taste)이었다. 영적인 취향(taste)이 성경과 신에 대한 묵상을 도구로 삼아 신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방식이었다(Coolman, 2004: 38). 이처럼 히브리 사상에서 ‘달콤함의 취향’이란 신과 신적 지식을 알게 하는 판단과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 버넷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취향이 시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보다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한 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3세기에 들어서였다(Burnett, 1991: 230). 즉, 13세기에 와서야 다른 감각들과 달리 실수 없이 완전한 방식으로 사물의 본성을 알려주고 판단하는 감각으로 취향이 상정되기 시작한 것이다(Burnett, 1991: 231).

취향이 미(味)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과 표현양식에까지 확장된 것은 중세 말에 들어서였다. 당시 예술과 표현양식에서 좋은 취향(good taste)을 지칭하는 단어가 ‘진솔한(honest; honestus)’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윤리적 혹은 사회적인 가치 이상을 표현하는 단어였다(Carruthers, 2013: 113). ‘진솔한 정원’ 혹은 ‘진솔한 장식’과 같이 예술과 표현양식의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 그것은 당대의 명예로운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지칭하던 것이었다(Carruthers, 2013: 113). 당대의 지식층이자 선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의 사물이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가치와 유익함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물은

1) 대표적인 구약성경 본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

‘진솔한 사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판단을 만드는 취향은 좋은 취향이라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취향’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판단과 무관하게 사용됐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중세 말에 점차적으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본격적인 취향과 예술의 연결은 18세기 미(美)학을 연구하던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서였다. 그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적 판단이란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실행되던 것이었다. 진선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성을 통해 발견 가능한 조화, 균형 그리고 비율이 미적 판단의 주된 근거라고 본 것이 그 이전 시대 미학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자 이성이 아닌 감각(sense)이 미를 판단하는 주된 능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외부대상의 다양한 속성(소리, 냄새, 색깔, 크기, 모양, 움직임 등등)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외감(external sense)과 외감에서 들어온 여러 속성들을 재료로 삼아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이나 불쾌감과 같은 선호의 감정과 혐오의 감정을 생기게 하는 내감(internal sense)이 존재하는데 도덕감(moral sense)과 미감(sense of beauty)이 바로 이 내감이라 부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었다(Shaftesbury, 2000: 172; Hutcheson, 2004: 23-25). 외부대상의 모습이나 여러 색깔들의 조화가 외감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면 내적 감각인 미감에 의해서 그 대상에 대한 즐거움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미감에 대한 이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초기의 경험론자들은 취향(taste)보다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감(sense of beauty)이라는 내적 감각기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샤프츠베리(Shaftesbury)는 신에 의해서 미추를 구별하는 선천적 · 자연적 본능으로 주어진,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내감으로서 자연적 정서(natural affection)를 상정하였고(Shaftesbury, 2000: 325), 허치슨(Francis Hutcheson) 역시 우리 안에 경험을 통해 발견 가능하지만 경험과는 독립된 특별한 내적 감각인 미감(sense of beauty)이 있어 미 관념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utcheson, 2004: 23). 이들이 말하는 내감으로서의 미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하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미감이라는 선천적인 감각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당시 경험론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다. 자신이 미적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은 반성작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천적인 감각기관이 있다는 주장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험론자들은 18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미감(Sense of beauty)이라는 내적인 감각기관의 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미적 취향이라는 미에 대한 선호의 감정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미적 취향이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취향이란 ‘선하고 정직하고 존경할만한(good, honest and honorable)’ 사람의 취향을 지칭하는 단

어였기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미는 18세기에도 여전히 선과 연관된 단어였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외적 대상을 보고 정직하게 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졌으므로 취향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미적 즐거움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경험론자들 중에 한명이었던 제라드(Alexander Gerard)는 취향을 다른 감각작용을 대상으로 삼는 일종의 지각으로 간주하고, 취향이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Grene, 1943: 45). 따라서 그에게 취향은 대상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갖는 즐거움의 원천인 것이다(Gerard, 1759: 192). 제라드는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7가지 원천을 제시함으로써 취향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즉, 참신함, 장엄함, 아름다움, 모방, 조화, 미덕, 놀림의 관념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우리 안에는 즉각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Dickie, 1996: 30). 하지만 그렇다고 취향이 이성을 통한 인지적 작용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취향은 우리의 인지적 판단과 상상력에 의해서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제라드는 주장한다. 예컨대 참신함에 아름다움이 결합하여 더 큰 기쁨을 형성할 수도 있고, 전혀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두 관념이 합해져서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리슨(Archibald Alison) 역시 제라드와 마찬가지로 관념들이 연합하여 취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상상력과 경험 그리고 교육의 영향 아래서 개인의 감정적 특질과 결합하여 개인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취향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슨은 좋은 취향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Jauss, 2006: 418).

이와 같이 제라드와 알리슨은 취향을 관념의 연합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취향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기준은 제라드와 알리슨을 거치면서 내적 감각기관인 미감에서부터 취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미적인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주관적인 감정의 몫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즉, 주관적인 상상력과 경험 그리고 교육은 사물의 속성에 관한 단순 일반 관념과 일반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적 관념들을 마음속에서 연결되게 만들어 개인의 주관적 취향을 형성시킨다. 예를 들어 평범한 맛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과 비슷한 맛이라면 내안에 보다 강한 미(味)적 즐거움을 산출해서 선호의 취향이 생긴다든지, 예쁘게 쓰인 글씨임에도 어릴 적 나를 괴롭히던 친구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불쾌감이 산출돼서 그 글씨에 대한 불호의 취향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관념들 간의 연합 작용으로 취향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점차적으로 취향이 상대화 · 주관화되는데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휴(David Hume)은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취향의 상대적이고 주

관적인 성격을 분명히 인지한다. 흄은 취향이란 주관적인 감정인 미의 감정에 대해 승인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Hume, 1996: 42), 여전히 진정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취향의 기준이 있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흄까지만 하더라도 “취향(취미)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들이 존재(Hume, 2019: 35)”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흄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취향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주장과 함께 취향은 점차 주관적인 것으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 취향은 개성과 연관됨으로써 현대에 이르러 주관화된 취향은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2. 취향과 미덕 그리고 기독교

그런다면 이러한 취향 개념은 미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18세기 소설가인 안 래드클리프(Radcliffe, 2008: 49-50)는 “미덕(virtue)과 취향(taste)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미덕은 적극적인 취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미덕과 취향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하였다. 앞서 제라드의 주장처럼 취향은 다양한 원천에서 작용하는데 그중에 미덕에 대한 취향도 있으니 미덕과 취향을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을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미를 미적 선함으로 간주했으며, 샤프츠베리와 허치슨과 같은 도덕감 이론가들이 미학 이론을 연구하게 된 계기 역시 미감과 도덕감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도덕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감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이유였으니 미덕과 도덕적인 취향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²

18세기 미학에서 미감이론이 취향 이론으로 바뀌어 간 것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윤리학에서 도덕감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 감정(moral sentiments)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감이 그렇듯이 내감으로서의 도덕감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경험론자들에게는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그들은 도덕감보다는 경험 가능한 도덕 감정을 중심으로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을 설명하고자 했다. 흄과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에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마치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으로 환원시키는 ‘연민’과 ‘공감’과 같은 자연적 감정이 존재하는데(양선이, 2016: 323),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타인이 느끼는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도덕적 감정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인류 전체에 대한 공감을 통해 행위자의 덕스러운 성품과 행동에 도덕적 승인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덕적 불승인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종원, 2020: 63-97을 보라.

그렇다면 도덕 감정을 통해서 도덕적 승인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도덕적 승인의 판단은 결국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도덕적 판단자의 연민과 공감의 감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과 같은 도덕적 판단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도덕적 승인의 판단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덕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덕 감정은 도덕감과 달리 한 사회내의 규약과 전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화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도덕 감정 역시 취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도덕 감정이 승인하는 덕스러운 성품과 덕스러운 행동의 기준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성품(미덕)을 평가하는 도덕 감정은 미적 취향과 동일한 구조와 성격을 갖고 있다. 취향도 미덕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점차 모여져서 생겨난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취향들이 모여서 내 성품을 구성하듯이 내가 가진 미덕들도 모여서 나의 성품을 구성하니 미덕은 넓은 의미의 취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취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독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윤리적 입장은 신명론이다. 신명론에 따르면 도덕이란 선하고 정의로운 신에 의존한다. 특정한 도덕적 행위가 옳은 이유는 신이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정에 나타나는 도덕과 연관된 명령들은 신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삼아 행동해야한다는 것이 신명론의 입장이다. 이 신명론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기독교의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윤리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반해 신 동기부여 이론(divine motivation theory)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독교적 관점의 윤리이론 중 하나이다. 자그웁스키에 의해서 주창된 신동기부여 이론은 신명론과 달리 덕 윤리학을 중심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덕 윤리학이 그렇듯이 자그웁스키는 덕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emotion)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데, 감정이란 단순히 정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의식적 마음의 상태이다(Zagzebski, 2004: 59). 즉, 감정이란 지향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자 일종의 정서적인 지각으로, 이때 감정이란 감정을 일으키는 지향적 대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감정인 것이다(Zagzebski, 2004: 61-62). 이러한 감정 중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감정을 동기(motive)라고 부른다. 선한 동기로부터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악한 동기로부터 악한 행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이자 감정은 감정에 관한 특정한 성향을 형성시켜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성향이 습관을 통해 굳어지면 성

품이 되는 것이다(Zagzebski, 2004: 118). 덕이란 바로 이러한 성품을 형성하는 특질들 중에서 선한 동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향을 의미한다(Zagzebski, 2004: 122).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덕스러운 사람이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산출하는 사람이다.

신 동기부여 이론은 덕스러운 완전한 존재로 성경에 나타난 신을 상정한다. 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고 신을 닮은 인격적인 인간에게 이러한 감정, 동기, 덕이 존재하니 인격적 존재인 신 역시 완전한 형태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 성경에 나타나는 긍휼, 사랑, 자비와 같은 동기들이 이러한 신의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덕들일 텐데,⁴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들, 그 중에서도 덕과 연관된 성품들을 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신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신 동기부여 이론의 주된 주장은 모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 모방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이나⁶ 사랑⁷, 자비⁸, 정의⁹, 진실함¹⁰과 같은 신의 성품들을 모방을 통해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이 행위보다는 성품에 초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인간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¹¹

도덕적 취향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선호와 같은 종류에 속한다면 도덕적 취향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란 자신의 도덕적 취향을 신의 성품에 맞출 때 생겨날 수 있다. 신 동기부여 이론은 사람마다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 취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의 도덕적 행위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명론과는 다르다.¹² 그렇다고 신 동기부여 이론이 도덕적 취향에 대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 3) 자그웁스키는 성경의 신인동형적 표현을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인격’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표현한다고 믿는다(Zagzebski, 2004: 202).
- 4) 자그웁스키에 따르면 신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합이 있는 감정들, 예를 들어 두려움, 희망, 질투, 괴로움과 같은 감정들-은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이다(Zagzebski, 2004: 207).
-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 6) “...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라(레 19:2).”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룩의 뜻을 세속적인 것과 의 분리와 견고함으로 나누고 덕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신학대전 2부 2권 81문 8절 참조
- 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일 4: 7)”
- 8)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의 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시 145: 8-9).”
- 9)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도다(시 11:7).”
- 10)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딤후 2: 13)”
- 11)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팔복(마 5:3-12)과 세 율법에 관한 표현들(마 5:21-32)은 예수가 행동이 아닌 성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 준다.
- 12) 신동기부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Johnson, 2012; 504-517.

적 취향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는 신의 성품에 부합하는 도덕적 취향이 있으며 그 취향이 야말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취향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 동기 부여 이론은 도덕적 취향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3. 취향과 갈등 해결

취향이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의 이상적인 취향(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취향이 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의 객관적인 좋은 취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에 되지 못한다. 주지하다시피 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상대적인 개념이기에(Macintyre, 1984: 126), 취향 역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취향이라는 것이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의 이상적 취향의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 존중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적어도 진리에 관한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휩쓸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상적인 취향이 있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렇다면 취향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 예를 통해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의 전략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예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테네 설교이다. 바울은 유일신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그리스인들에게 다른 전도방식을 채택했다. 다신교를 받아들인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고라에 나가 날마다 토론하였는데, 그 토론 방법이란 그들이 상정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즉,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다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기독교의 신으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했다. 아마 당시 일부의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의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¹³ 이처럼 바울이 아테네 설교에서 일차적으로 한 일은 기독교의 신도 그리스인들의 다신관적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일만한 신으로 설명한 일이었다. 바울이 다신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아테네인들에게 그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유일신적 신앙을 갖도록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다.

13) “...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행 17: 32).”

갈등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는 1960년대 말 기독교 신념의 합리성을 보여준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의 시도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후기와 1960년대 초기의 주된 철학적 사조는 논리적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분석철학이었다.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검증가능한 과학적 논리적 명제들만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참된 의미를 가진 것들이었으며,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장이나 도덕적 미적 판단과 결부된 명제들은 의미 없는 것들로 치부되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다.¹⁴ 따라서 당대에 종교철학적 질문들과 신학적 질문들은 의미 없는 것들로 치부되었으며 학문으로 다루어진다고 해도 형이상학적 실재의 내용이 아닌 종교철학·신학과 관련된 언어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전부였던 시대였다. 물론 이러한 사조는 1960년대에 일상 언어학과의 등장과 포퍼의 검증가능성 비판, 그리고 과학에서의 객관성 비판과 맞물리면서 쇠퇴기를 맞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주된 철학적 사조는 여전히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철학이었다. 신과 종교적 경험에 대한 명제들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무신론적인 경향성이 강하던 시대가 바로 1950년대와 1960년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의 한 일이란 적어도 유신론적인 신념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당대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초신념의 조건을 분석 비판함으로써 유신론적 신념도 합리적인 기초신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lantinga, 1983: 65). 따라서 유신론적 신념이란 비합리적이기에 유신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대의 사상적 흐름에 맞서 초기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은 유신론적 신념이 참된 진리라고 무작정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유신론적 신념 역시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적어도 자신들의 입장이 당시의 주된 사상적 사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 주관성이 강조되는 취향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대화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전략이란 대화와 갈등해결의 출발점은 항상 당시의 사상적 흐름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취향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취향 존중의 시대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성품과 관련된 덕들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의 도덕적 취향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극단적 주관주의를 인정할 뿐이기에 대화와 갈등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닫혀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적 토론이다.

토론이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통해 상이한

14) 당시 시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종원(2017: 325-327)을 참조하라.

견해들이 일치될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탈진리의 시대라 해도 그리고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다양하고 불일치하더라도 내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면 반박 가능성을 인정하고 토론과 논증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주의자가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토론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그는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치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은 적어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는 오늘날 취향이 개인의 선호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취향에는 일관된 관점을 적용할 만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 모순된 두 취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향개념이 결국 미덕과 연관되어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취향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개인이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인지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취향은 충분히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취향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피와 녹차 사이에 무엇을 선호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순전히 나의 미(味)각에만 연관되어 있을 뿐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특정한 취향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신념구조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는 커피가 강제로 착취된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음료 취향은 바뀔 수 있다. 내가 환경주의자라면 환경 친화적인 취향을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취향을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취향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인이 가진 신념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에 취향으로 인한 몇몇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취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취향을 뒷받침하는 신념구조들 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향 자체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신념 구조, 즉 세계관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보는 것은 좋은 전략일 것이다.

III. 결론

우리시대의 취향은 문화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취향에 대한 기독교적 갈등해결의 첫 출발점은 취향의 주관성을 벗어나 적어도 상

대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없고 파편적인 개인의 입장을 나타내는 주관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적어도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된 내적 체계를 갖고 있기에 토론을 가능케 한다. 이는 취향 이면에서 작동되는 하나의 세계관 혹은 일관된 신념구조와 취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드러냄으로서 가능해질 수 있다. 바울이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아고라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나,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이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념을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옹호한 시도 역시 당시 주된 사상적 흐름이 적어도 일관된 관점 아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 포괄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데까지 도달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진리란 세계관이 달라도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의 총체를 말한다. 건전한 신념체계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계관들 간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세계관 사이의 옳고 그름의 다툼이란 결국 세계관을 구성하는 전제들 간의 다툼일 것이며 이성적 토론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전제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일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건전한 세계관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신념들과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아마도 자유, 평등, 인류애, 자비, 정의와 같은 신념들은 긍정적 가치로, 폭력, 압제, 차별, 부정의와 같은 신념들은 부정적인 가치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향들이 좋은 취향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향을 나쁜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며, 그러한 취향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대부분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으로 간주되는 것일 것이다. 이 공통된 가치의 발견이야말로 취향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한 지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취향의 문제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인정을 원할 때, 그리고 그 결과 상호간에 대화와 토론이 단절되고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향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신념구조와 세계관이 있음을 드러내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어 공통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때 기독교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성경의 미덕들은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동훈 역 (2019).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 비극에 대하여 외**, Hume, D. (1757) Four dissertations, 서울: 마티.
- [Kim, D. H. (2019). *Of the Standard of Taste & Of Tragedy*, Seoul: Matibooks. Trans. Hume, D. (1757) *Four dissertations*, London: A. Millar]
- 김종원 (2017). 초기 개혁주의 인식론의 합리성 개념 -고전적 기초론과 증거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68, 323-362.
- [Kim, J. W. (2007). The Concept of Rationality of Reformed Epistemology in Its Early Period,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68, 323-362.]
- 김종원 (2020).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에서 이성의 위치 -덕 윤리학의 근대적 계승-. **철학탐구**, 60, 63-97.
- [Kim, J. W. (2020). The Role of Reason in the Early Moral Sense Theories: A comparison between Shaftesbury and Francis Hutcheso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60, 63-97.]
- 양선이 (2016).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철학연구**, 114, 305-335.
- [Yang, S. I. (2016) The Role of Sympathy and Moral Nomativity in Moral Sentimentalism of Hutcheson, Hume, and Adam Smith.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14, 305-335.]
- 이준호 역 (1996).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정념에 관하여**,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서울: 서광사.
- [Lee, J. H. (1996) *A Treatise of Human Nature*, Seoul: Seokwangsa. Trans.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on, R. (1937). *Liber de sensu et sensato, Summa de sophismatibus et distinctionibus*, Robert Steele (Ed.), Oxford: Clarendon Press.
- Burnett, C. (1991). The Superiority of Tast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Vol. 54, (1991), 230.
- Carruthers, M. (2013). *The Experience of Beauty in the Middle 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lman, B. T. (2004). *Knowing God by Experience: The Spiritual Senses and the Knowledge of God in the Theology of William of Auxerr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Dickie, G. (1996). *The century of Taste: The Philosophical Odyssey of Taste in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ard, A. (1759). *An Essay on Taste*, London: A. Millar.
- Greene, M. (1943). Gerard's Essay on Taste. *Modern Philology*, 41(1), 45-58.
- Hutcheson, F (2004). *An Inquiry Concerning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Virtue or Moral Good*, Indianapolis: Liberty Fund.
- Jauss, S. A. (2006) Associationism and Taste Theory in Archibald Alison's Essay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4(4), 415-428.
- Johnson, D. (2012) The Objectivity of Obligation in Divine Motivation Theory: on imitation and submission.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0(3), 504-517.
- MacIntyre, A. C.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lantinga, A. (1983) Reason and Belief in God. *Faith and Rationality: Reason and Belief in Go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6-93.
- Radcliffe, A. (2008) *Mysteries of Udolpho*, Oxford: OUP.
- Shaftesbury, (2000).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Ed.) Lawrence E. Klein, 20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gzebski, L. (2004). *Divine Motivation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취향과 기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취향간의 갈등 해결*

Taste and Christianity

김 종 원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 조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늘날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만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적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사라진 현대의 갈등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취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취향 개념을 분석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품성과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대적 갈등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제어: 취향, 기독교, 영국경험론, 덕, 갈등해결.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의 문체와 그 판본에 나타난 “성령(聖靈)” 어휘 유래 고찰*

**The study on the early 19-20th Century Chinese style of 12 bibles and their
corresponding editions, and the origin of the term “Holy Spirit”**

소은희 (Eun-Hee So)**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12 editions of the Chinese Bible in the early 19th-20th century, the style of the Chinese Bible, and the origin of the word "Holy Spirit" as seen in the Acts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addition, particular focus is given to the exploration of when and how the word "Holy Spirit", a Christian term not originally part of the Korean language tradition,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Bible and began to take root in Korean Christian culture.

The Christian term "Holy Spirit" can be found for the first time in the 1863 "Bridgeman Culberson Translation" Chinese Bible. The first Korean bibles, 『Jesushenggyojonseo』 and 『Hyeontohanhanseonggyeong』 were translated into Manchuria and Japan, respectively. "Holy Spirit" was first read in Korean by Korean translators and later became an indigenous vocabulary word deeply rooted in Korean Christian culture.

Key words: the early 19-20th Century, Chinese style of 12 bibles and their corresponding editions, the origin of the term "Holy Spirit"

* 2022년 11월 18일 접수, 2023년 2월 7일 최종수정, 2월 9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후 수정, 보완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Sookmyung Women's University) 중어중문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drrara@sookmyung.ac.kr

I. 들어가는 말

중국 당나라(618-908)때 景教¹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중국어 성경의 번역은 이후 16-18C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 시기를 거쳐, 19C-20C초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들을 도왔던 많은 중국인 助手(조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중국어 성경은 처음에는 중국인 조력자들에 의해 수정·윤색되었으나, 20C에 들어서는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 직접 번역되기도 하였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계 다른 민족들의 공용어처럼, ‘표준중국어’도 한 민족의 내부에서 장기간 왕래 되었던 어떤 방언의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표준중국어’는 구어(口語)와 서면어(書面語)를 모두 포함한다. 구어(口語)란 입말체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형식의 언어이고, 서면어(書面語)는 글말체로 문자로 기록해내는 서면 형식의 언어이다.

중국은 매우 일찍이 공통의 글말(서면어)이 있었다. 漢代 楊雄이 지은 『방언(方言)』에서 자주 거론되는 ‘통어(通語)’라는 말은 바로 전국적으로 통행 되었던 공통의 언어를 의미한다. 중국 고대의 서면어가 처음에는 당시의 구어(입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지만, 서면어(글말)로 고정되어 버린 이후에는 구어를 따라 함께 변화하지 않았다. 서면어는 점차 구어와 격차가 생기게 된 후, 전문적인 학습을 거치지 않고는 듣거나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면어(文言文)으로 변해버렸다

이후 문언문과 구어가 완전히 나뉘어져 민간에서는 구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새로운 형식의 서면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백화문(白話文)이다.” “백화문의 출현은 빠르게는 9세기 당말(唐末)에서 12,13세기 송(宋).원(元)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오늘날 ‘표준중국어’ 서면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백화문으로 저술된 작품들은 ‘속(俗)’된 저급한 문학으로 취급되었고, 문언문으로 쓰여진 서면어가 글말로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백화문은 1919년 ‘5.4운동’ 이후에야 비로소 정식 서면어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北京大學中文系編, 김애영 외 역, 2007: 22-23).”

19C 중국으로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이러한 연유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과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문언체로 쓰여진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과 같은 중국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점차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도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蔡錦圖, 2018: 241).”

1) 781년에 세워진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내용에 따르면, 635년 시리아교회 알로펜 (阿羅本) 주교가 장안(長安)에 들어가 경교를 전파하고 왕립도서관을 지어 聖經을 번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12종 중국어 성경은 AD 1800년 초반부터 1919년 和合本 중국어 官話 성경의 출판까지 약 100여년에 걸쳐 번역, 출판되었다. 이 12종 중국어 성경은 19C-20C초 중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방면에서 통·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남방과 북방, 화중(華中)지역 등 지역의 차이에 따라 중국어 변천의 역사와 발전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특히 문체면에서 어려운 고문체 형식의 문언문으로부터 지식인뿐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쉬운 백화문 및 官話 성경으로의 번역은 중국 언어 발달사(한어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 언어 발달사(한어사)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은 관료 중심의 어려운 문체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바꾸고자 했던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문체의 변경이 다양한 성경의 번역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쉬운 문체로의 성경 번역의 추세는 은 5.4운동 시기 백화문 운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또한 북경은 1153년 금(金)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원(元)·명(明)·청(淸)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줄곧 전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1803년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에 의해 번역된 『古新聖經譯本』은 중국 최초의 북경 관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중국어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점차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모두 다 와서 들으라 하신 들을 귀 있는 자(히8:11, 사55:1, 마5:3-4, 요1:39, 계2:7)를 향한 복음전파의 필요성에 따라, 19C-20C 초 12종 판본의 중국어 성경에 보이는 문체상에도 어려운 고문체인 문언체에서 쉬운 글말체로의 문체 변화가 나타남을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의 성경 말씀이 통·공시적 각도에서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어, 1800년대 초부터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200여년에 걸친 중국어 언어변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한어사 연구에 그 가치를 더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만주와 일본에서 각각 번역되었던 까닭에,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어휘가 한국어 성경으로 상당 부분 유입된 것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한국인 역자가 중국어의 기록문자인 ‘한자(漢字)’를 한국어로 독음하는 가운데, 성령(聖靈), 성신(聖神),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 구속(救贖), 속죄(贖罪), 구주(救主), 구세주(救世主), 세례(洗禮), 할례(割禮), 우슬초(牛膝草), 성도(聖徒), 성회(聖會), 율법(律法), 율례(律例), 도고(禱告), 기도(祈禱), 간구(懇求), 인자(人子), 칭의(稱義), 찬송(贊頌), 영생(永生), 복음(福音), 안식일(安息日), 유월절(逾越節), 화제(火祭), 소제(素祭), 번제(燔祭), 속죄제(贖罪祭), 속건제(贖愆祭), 만유(萬有), 보좌(寶座), 신원(伸冤) 등등 셀래야 셀 수 없는 많은 중국어 성경의 어휘들이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용어’로 뿌리 내려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어서 그 연구의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2017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 학생들은 중국어사(한어사)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각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세미의 『19세기-20세기 중국어 성경 4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다니엘서(但以理書), 요한복음(約翰福音)을 중심으로-』(2018), 배슬기의 『19-20세기 중국어 성경 9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전도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2019), 김찬미의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2019), 이유진의 『19세기 중국어 관화 성경 3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누가복음(路加福音)을 중심으로 -』(2020) 의 석사 학위 논문들이 있다.

본 논문은 위 선행 연구의 기초위에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중국어 성경 “성령(聖靈)”어휘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 판본의 문체 변화에 대한 이유와 어휘발달사 측면에서 중국어 성경이 최초의 한글 성경『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성경은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당시 한글 성경의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던 까닭에, 한자 “성령(聖靈)”이 처음 한글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어휘가 되었음을 밝히었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 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는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아 번역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委辦本譯本(1854)』을 주된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성령(聖靈)”은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에 의하면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었음이 고찰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1863년 『裨治文、克陞存譯本(브리지만 .컬버슨역본)』 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논지의 전개를 위해, 중국어 성경 번역 문체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고찰을 통하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II. 중국어 성경의 문체 변화

중국어 성경의 문체

19C-20C초 중국어 12종 성경 번역의 문체는 크게 3종류로 문언체(文言體)와 천문리체(淺文理體), 관화체(官話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종 판본의 성격과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1.1 ‘深文理’ 譯本 (High Wenli Version)

중국어 성경의 ‘深文理’ 譯本이란 ‘文言文’ 형식으로 쓰여진 ‘文言譯本’을 말한다. ‘文理’ 체란 中國의 四書三經 등과 같은 중국 고전의 문체로 ‘經書體’라고도 하며, 쉬운 문리와 구별하여 ‘深文理體’라고도 한다. 『馬禮遜. 米憐譯本(모리슨. 밀른 역본)』(MM,1813), 『馬殊曼. 拉撒譯本(마슈만. 라사역본)』(ML,1822), 『郭實臘譯本(귀츨라프역본)』(GL,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DB,1854), 『裨治文. 克陞存譯本(브리즈만. 컬버슨역본)』(BC,1863) 등이 文言文, 즉 ‘深文理’에 해당하는 판본들이다.

1.2 ‘淺文理’ 譯本 (Easy Wenli Version)

‘淺文理’ 譯本이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 문체 즉 문언 문체와 통속적인 입말 문체 사이의 문체를 말한다. 深文理 보다는 통속적인 색채를 띠는 문체로 문언문과 구어 사이에 속하는 ‘半文半白’의 文體에 속한다.

당시 중국인들은 서면어를 ‘文理 (Wen -li)’ 또는 ‘文言’이라고 칭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언체로 쓰여진 『委辦本譯本』(『代表本』)과 같은 문언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고,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은 閱讀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쉬운 글말체로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 선교사들은 기존의 文言과 현대 구어에 가까운 문체를 구별하기 위해 ‘深文理(High Wen-li)’와 ‘淺文理 (Easy Wen-li)’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작업을 하였다.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방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어휘로 중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淺文理 (Easy Wen-li) 聖經 譯本에는 楊格非(Griffth John, 1831-1912)의 『淺文理新約全書』(1886)와 施約瑟(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의 『施約瑟淺文理譯本』(1902) 등이 있다.

『North China Herald News』(1887. 5. 13일자, 8쪽)의 논평에 의하면, 楊格非(Griffth John)의 『淺

文理新約全書』(1886)는 학자로부터 농민까지 각 계층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논평 문은 아래와 같다.

“We are led to believe that the permanent Standard Chinese Version must steer a middle course between the extremes of the high classical and low colloquial styles. It must carry with it an air of authority and intelligibility; and must call forth the respect, and be suited to the capacity, of the average scholar. … It must not contain the colloquial of any district, but must be in the easy classical, or current style, known all over the Empire … But time will not permit us to say all that we think the standard translation ought to be; suffice it to say that we consider Mr. John’s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its amended form, to be a most praiseworthy effort in the right direction …”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읽혀질 표준 중국어 버전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권위가 느껴지고 경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체로 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구어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도 충분히 쉬우면서 전통적이고, 현재의 언어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우리는 현재 아직 올바른 번역의 기준을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리피스 존의 신약성서 번역은 번역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김찬미, 2019: 16-17, 재인용).

위의 ‘North China Herald News’는 지식인의 공유물이었던 문언문보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쉽게 閱讀할 수 있도록 쉬운 글말체로 쓰여진 ‘淺文理’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논평하고 있다. 즉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문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楊格非(Griffith John) 그리피스 존의 요한복음 3:3절의 말씀을 천문리 판본과 관화 판본으로 비교해 보겠다.

(1) GJ(1886)3:3 耶穌曰,我誠告爾,人若未得重生,不能見上帝之國,(천문리 판본)²

2) “在1890年代之前, 楊格非(Griffith John) 是淺文言譯本的主要譯者。1885年, 楊格非出版了淺文言新約全書(1889年修訂重印)、舊約的《詩篇》和《箴言》(1886年)、《創世紀》和《出埃及記》(1889年)、《利未記》至《申命記》(1903年)、直至《雅歌》爲止的舊約(1905年), 其中的《詩篇》和《箴言》也是多次再版的。” (蔡錦圖,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253.)

(2) GJ(1892)3:3 耶穌說, 我實在告訴你, 人若沒有重生, 不能見上帝的國.(관화 판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문 (1)은 ‘淺文理’ 판본으로 “말하다”라는 어휘를 문언의 어체인 “曰”로 표기하였고 “너”는 “爾”로, “~의”라는 의미를 “之”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문 (2)는 예문 (1)의 고문체로 쓰여진 문장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화체로 대체시킨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예문 (2)에서는 그리피스 존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曰”를 입말체인 “說”로 바꾸었고 “진실로”라는 부사를 고문체 “實”보다 입말체인 “實在”로, “너”라는 의미의 고문체 “爾”을 현대 중국어 입말체 “你”로, “알리다”라는 의미의 “告”를 쌍음절화된 “告訴”로 바꾸었으며, “~ 중생을 얻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未得重生”을 “沒有重生”이라는 입말체 어투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언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인 “上帝之國”을 입말체 “上帝的國”로 바꾸었다.

심문리체인 요한복음『委辦本』(『代表本』(DB 1854) 3:3 “耶穌曰、我誠告爾、人非更生、不能見上帝國”과 비교해 보면, 천문리체 그리피스 존 판본 “耶穌曰, 我誠告爾, 人若未得重生, 不能見上帝之國”에서는 “만약”이라는 의미의 연결사 “若”와 “~의”라는 의미의 조사 “之”를 추가시켜 문장의 의미가 “만약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로 번역되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심문리체보다 청자나 독자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官話’ 譯本(Mandarin Version)

중국은 14세기 후대에 이르자 ‘관화(官話)’라고 불리던 구어가 북방어의 기반 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관화(官話)’는 明清 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중화민국에서는 ‘國語’로 명명하였으며, 1956년에는 “보통화(普通話)”로 개명되었다

‘관화(官話)’는 글자의 의미대로 관리 계층이 전용하던 관청의 雅言(고상한 언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 민족이 공통으로 사용하였던 언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北京大學中文系編, 김애영 외 역, 2007: 23).

중국 청나라는 18세기 말부터 내부의 여러 반란과 19세기 초부터 침투한 서양세력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청나라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1842년 굴욕적인 南京조약을 맺고 영국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어야 했지만, 이 南京조약은 18세기 초부터 가톨릭교 禁壓政策으로 중국을 떠났던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드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 이후 아편 무역의 증가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함, 각종 종교적 비밀결사들의 반란 등으로 1840년대 말 중국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이렇듯 청나라 말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민족이 되기에 적합한 현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즉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는 토양 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을 중국 도착 후, 점차 생활 속에서 중국인의 글말과 입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입말체에 기반을 둔 글말체로의 중국어 성경 번역이 필요함에 대해 고심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인에 대해 일부 지역만 개방하던 중국이 전면개방을 하게 되자,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서 통용 가능한 언어 형식으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官話 성경의 번역을 착수하였다.

당시 ‘官話’는 옹정제(雍正帝, 1723-1735)가 앞서 민(閩)·광(廣) 두 성에 정음서원(正音書院)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官話 교육을 시킬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³⁾

즉 官話는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1860년대 이후, 점점 본격적인 官話 聖經 번역작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번역작업이 자연스레 착수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교재도 송나라 원나라 이후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단지 문화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무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중국어 회화를 잘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전통적인 문언문 위주의 교재는 더이상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張希平, 이미경 역, 2016: 96)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1153년에 금(金)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부터 원(元)·명(明)·청(淸)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줄곧 전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북경어는 官話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언이 되었고, ‘표준 중국어(普通話)’는 이 북경음을 표준 삼아 기초가 정해졌다.

중국은 20세기 초, 특히 1919년 5·4운동 시기에 민족·민주·혁명운동이 고양되어, 사회적 수요

3) 『利瑪竇中國札記·第五章』: “除了不同省份的各種方言, 也就是鄉音之外, 還有一種整個帝國通用的口語, 被稱為官話(Quonhoa), 是民用和法庭用的官方語言。這種國語的產生可能是由於這一事實, 即所有的行政長官都不是他們所管轄的那個省份的人(我們下面就要解釋), 爲了使他們不必學會那個省份的方言, 就使用了這種通用的語言來處理政府的事務。官話現在在受過教育的階級當中很流行, 且在外省人和他們所要訪問的那個省份的居民之間使用。懂得這種通用的語言, 我們耶穌會的會友就的確沒有必要再去學他們工作所在的那個省份的方言了。各省的方言在上流社會是不說的, 雖然有教養的人在他們的本鄉可能說方言以示親熱, 或者在外省也因鄉土觀念而說鄉音。這種官方的國語用得很普遍, 就連婦孺也都聽得”。

위와 같이 명나라 말기 마테오리치도《利瑪竇中國札記》에서 官話는 이미 민간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관방의 말로, 현재 교육을 받은 계급층에서 그 사용이 매우 유행하며, 외지인이 방문지의 주민과 이것으로 소통하며, 이 관방 국어의 사용은 매우 보편화 되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에 따라 白話文이 마침내 文言文을 대체하여 정식의 書面語가 되었다. 이런 백화문 운동은 문언문의 지위를 철저하게 흔든 동시에 “國語運動”을 불러일으켜 “國語”라는 명칭이 “官話”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官話는 “너무 속(俗)되서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며 고상한 지위에 오를 수 없는(不登大雅之堂)” 언어로 치부되어, 중국어 성경번역자들에게는 문인과 지식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새로운 문체로의 성경 번역이 필요했다. 이것이 『施約瑟淺文理譯本』(1902)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張利偉, 1994: 42)

대표적인 ‘官話’譯本에는 『南京官話譯本』, 『北京官話譯本』, 『華中官話譯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山東話, 天津話, 上海話, 寧波話, 蘇州話, 福州話, 客家話, 廣州話 등의 각종 방언 역본이 있다.

위의 官話譯本중 『南京官話譯本』은 『代表本(1854)』의 문언체 신약 성경을 南京官話(Nanking Mandarin)로 重譯한 것으로, 미드허스트(麥都思, W. H. Medhurst, 1796-1857)와 스트로나크(施敦力, J. Stronach, 1800-?)의 감독하에 한 중국인에 의해 번역되었다. 1854년 상해에서 『馬太福音』이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1857년 신약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다만 이 역본은 중국 내지 교회에 서만 제공, 사용되었다(蔡錦圖, 2018: 423-426).

또한 『北京官話譯本』은 각기 다른 교단에서 온 J. S. Burdon, J. Edkins, S. J. Shereschewsky, H. Blodget, W. A. P. Martin의 5명의 선교사들이 『南京官話譯本』을 참고하여 번역한 역본이다. 이 성경은 현대중국어 입말과 가장 근접한 문체인 北京官話로 기록되어 당시 중국인들에게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았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北京官話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1.4 중국어 문언체(文言體), 천문리체(淺文理體), 관화체(官話體)성경 문체 비교

다음은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삽나이까”의 말씀을 19C-20C초 중국어 성경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가 북경관화로 쓴 古新聖經譯本(LP,1803),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GL,1839), 委辦本譯本(DB,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陞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1872), 楊格非淺文理譯本(GJ,1886), 楊格非官話譯本(GJ,1892), 施約瑟淺文理譯本(SS,1902), 和合本官話譯本(HH,1919)을 저본으로, 심문리 역본과 천문리 역본, 남경관화, 북경관화, 화중관화 역본의 판본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深文理譯本

- ① MM(1813)3:4 尼可氏母謂之曰、人既老何得再生、其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② ML(1822)3:4 尼可氏母問之曰、人既老何得再生、豈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③ DB(1854)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更生、豈重入母腹而生乎、
- ④ GL(1839)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重生乎。豈能再入母胎、得生乎。
- ⑤ BC(1863)3:4 尼哥底母謂之曰、人既老何得更生、豈重入母腹而生乎。

(2)淺文理譯本

- ⑥ GJ(1886)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重生、豈能再入母腹而生乎?
- ⑦ SS(1902)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能重生、豈能再入母腹而生乎?

(3)官話譯本

1)南京官話譯本

- ⑧ NJ(1857)3:4 尼哥底母道人既老了、怎得重生、豈能再進母親的肚子裡生出來呢。

2)北京官話譯本

- ⑨ LP(1803)3:4 尼各得睦說：老人怎得復生呢? 豈能再入母腹又生麼?
- ⑩ BJ(1872)3:4 尼哥底母說、人已經老了、如何能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3)『華中官話譯本』

- ⑪ GJ(1892)3:4 尼哥底母說、人既老了、怎得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4)『和合本官話譯本』

- ⑫ HH(1919)3:4 尼哥底母說：「人已經老了、如何能重生呢? 豈能再進母腹生出來麼?」

위의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3장 4절의 예문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문미에 오는 의문 어기사가 예문 ①,②,③,④,⑤,⑥,⑦과 같이 고문체인“乎”쓰인 반면, 관화역본에서는『古新聖經』과 『和合本官話譯本』이 예문 ⑨,⑫에서 “麼”로 쓰인 것 외에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문 어기사 “呢”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⑧,⑩,⑪과 같다.

둘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찌”라는 의문사가 고문체인 “何” 혹은 “曷”로 쓰였지만, 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怎”、“如何”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문 ⑧,⑨,⑩,⑪,⑫와 같다.

셋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 고문체인 “生”을 썼지만, 관화역본에서는 동사 “生”에 그 “生”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보어 “出來”를 부가하여 “엄마 뱃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왔음”을 표현해 내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예문 ⑧,⑩,⑪,⑫와 같다.

넷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이미”라는 부사가 고문체인 “既”로 쓰였으나 북경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이미”라는 의미의 어휘인 “已经”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⑩과 같다.

다섯째, 심문리 역본인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에서는 “厥母之腹”(그의 엄마의 배)라는 표현이 천문리체에서는 “그의”라는 의미의 3인칭 대명사 소유격 “厥”와 “~의”라는 의미인 조사 “之”가 보이지 않으며, 천문리 그리피스 역본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能”이 추가되어 “豈能再入母腹而生乎?”(어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 번역이 더욱 쉽게 이해되고 그 의미가 한층 더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어휘사용 측면에서는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미 뱃속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문언체로 “入母腹”라고 하였으나, 관화역본에서는 “進母腹中”으로 표현하였다. “들어가다”는 의미의 어휘인 고문체 “入”자가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進”로 대체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南京官話譯本』은 “進母親的肚子裡”(어머니의 뱃 속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문형을 사용하여, 현대중국어 구조조사 “~의”라는 의미인 “的”와 “~의 안”이라는 의미의 방위사 “裡”의 사용으로 그 언어 표현 방식이 현대중국어 입말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가 북경관화로 쓴 古新聖經譯本(LP,1803)에서는 기타 역본에서 “人既老了(사람이 늙으면)”이라는 표현을 명사화시켜 “老人”이라 번역하였음도 살펴볼 수 있다.

III. 19-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 어휘 유래

1.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보이는 “성령(聖靈)” 어휘 고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딤후 3:16, 출17:14)인 성경에 의하면, “성령(聖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골1:13)”,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요5:24)고 하시는 근거가 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며(요15:2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롬8:16)

다음은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19-20C 초 중국어 성경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譯本(LP,1803),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GL,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함)(DB, 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陛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1872), 楊格非淺文理譯本(GJ,1886), 楊格非官話譯本(GJ,1892), 施約瑟淺文理譯本(SS,1902), 和合本官話譯本(HH,1919) 12종 판본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LP(1803)1:8 但聖神降臨在你們上, 賦他恩與你們, 你們纔(纔)從日露撒冷、如德(德)亞、撒瑪里亞等處到地兩頭証見我。」
2. MM(1813)1:8 惟汝將受上臨汝聖風之德、而汝爲吾証于耶路撒冷、與如氏亞諸方、于撒馬利亞、至地末之境也。
3. ML(1822)1:8 惟汝將受德于聖風臨汝後, 而汝則爲吾證于耶路撒冷。及如氏亞諸方。于沙麻利亞。至地末之境也。
4. GL(1839)1:8 惟聖神既臨、爾將領德、爲我供證、在耶路撒冷、猶太、撒馬哩亞、諸方、至於地極矣。
5. DB(1854)1:8 惟聖神臨時、爾則有才、且爲我作證於耶路撒冷、舉猶太、撒馬利亞、以至地極、
6. NJ(1857)1:8 但聖神降臨的時候, 你們將得著才能, 而且替我作見證, 在耶路撒冷和猶太與撒馬利亞並到地的極處
7. BC(1863)1:8 但聖靈臨爾、爾將受能、爲我作證於耶路撒冷、徧猶太、撒馬利亞、以至地極。

8. BJ(1872)1:8 聖靈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及天下極遠的地方、爲我作見證。
9. GJ(1886)1:8 惟聖神臨爾時、爾則必得能力、且必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 也。
10. GJ(1892)1:8 惟聖神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必爲我作見證、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
11. SS(1902)1:8 惟聖神臨爾後、爾將受能力、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瑪利亞、以至地極、
12. HH(1919)1:8 但聖靈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要在耶路撒冷、猶太全地，和撒馬利亞，直到地極，作我的見證。」

위의 내용을 근거하여, 19-20C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사도행전 1:8절에 보이는 “聖靈”이라는 어휘를 판본별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hanges in the expressions of “the Holy Spirit”

聖風	聖神	聖靈
馬礼遜、米怜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賀清泰古新聖經譯本 (LP, 1803) 郭實腊譯本 (GL, 1839) 委辦本譯本 (代表本) (DB, 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 (NJ, 1857) 楊格非淺文理譯本 (GJ, 1886), 楊格非官話譯本 (GJ, 1892), 施約瑟淺文理譯本 (SS, 1902)	裨治文、克陛存譯(BC, 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和合本官話譯本(HH, 19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의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1813년 Robert Morrison과 William Milne의 馬礼遜、米怜譯本 과 1822년 Joshua Marshman과 Joannes Lassar의 馬殊曼、拉撒譯本에는 “聖

風”으로 표기되어 있고,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에 의해 번역된 古新聖經譯本⁴과 1839년 번역된 Charles Gutzlaff의 郭實腊譯本, 1854년 委辦本譯本(代表本), 1857년 W.H Medhurst와 J. Stronach의 南京官話譯本⁵, 1886년 Griffith John의 楊格非淺文理譯本과 1892년 楊格非官話譯本, 1902년 S. J. Shereschewsky의 施約瑟淺文理譯本은 “성신(聖神)”으로, 1863년의 Elijah C. Bridgman과 Michael S. Culbertson의 裨治文、克陸存譯本, 1872년 北京官話譯本, 1919년 和合本官話譯本에는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13년 馬禮遜、米怜譯本과 1822년 馬殊曼、拉撒譯本이 “聖風”으로 표기된 까닭은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천주교 파리 외방 선교회 장 바세(J. Basset, 1662-1707) 성경을 필사하여 중국어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장 바세 성경에 “성령(聖靈)”은 “聖風”으로 번역되어 있다.

委辦本譯本(代表本)(DB, 1854)은 역경 과정에서 중국인 학자 王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의 주요 참고 저본이 되었다. 委辦本譯本(代表本)(DB, 1854)의 신약성경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과를 초월하여 번역해 낸 성경이다. 1850년 8월 1일 상하이, 닝포, 아모이, 광둥과 홍콩을 대표하는 위원회 (the committee of Delegates) 소속 미국 회중선교부의 분(J. Boone), 런던선교회의 미드허스트(W. H. Medhurst)와 밀른(W. C. Milne), 스트로낙(J. Stronach),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브리지만(E. C. Bridgeman) 선교사가 중국어 신약개정 작업을 위해 상하이에 모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오래지 않아 인사변동과 하나님을 上帝로 번역할 것인지 神으로 번역할 것인지 등의 번역상의 문체와 번역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런던선교회의 미드허스트(W. H. Medhurst)와 밀른(W. C. Milne), 스트로낙(J. Stronach)이 ‘대표역본위원회’를 탈퇴하고 ‘중국어 구약성서 번역위원회’를 결성하였다.

Table 1에 근거하면, 1863년 브리지만.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陸存譯本)부터 “성령”을 “聖風”이나 “聖神”으로 표기하지 않고 “성령(聖靈)”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2종 판본 중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LP, 1803)의 4복음서 중 《北京官話譯本 聖徒瑪竇紀的萬日曆》第二十七篇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져 있다. 『別兵說：勿如此，等，若厄里亞斯來救他！耶穌又號一聲，聖靈離了肉身。』(다른 병사가 가로되 이같이 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기다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소리지르시고 성령이 떠나가셨다)(마27:49-50) 이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제 27편 본문에는 “聖靈”이라는 어휘가 1번 출현하며, 주석에 모두 4번 출현(26장 주석 15번 1번과 27장 주석 45번에 3번)한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어휘가 “πνεῦμα”(프뉴마, 영)로 번역되어 있으며,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성령”을 말한다. 중국어 성경 和合本官話譯本(HH, 1919)에는 “聖靈”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氣”로 표기되어 있으며, 나머지 중국어 성경 11개 역본도 “氣, 命, 魂”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 여기서는 토론의 범주로 삼지 않았다.

5) 『南京官話譯本』은 W. H Medhurst와 J. Stronach의 감독하에 한 중국인에 의해 南京官話로 번역되었다. 일반적으로 Medhurst(麥都思)의 『南京官話譯本』으로 칭한다.

다음은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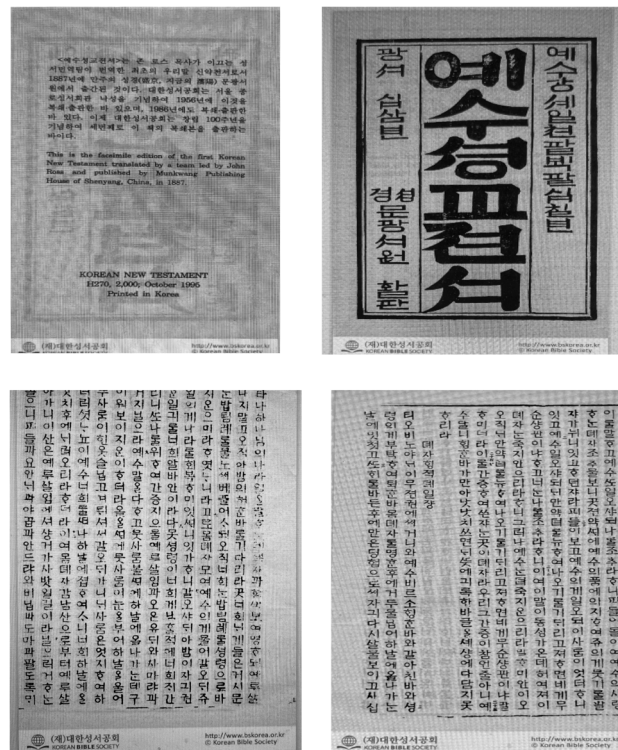
2. 중국어 성경이 초기 한글성경『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에 미친 영향

1874년 만주 봉황성 고려문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는 당시 조선 의주 출신 세례자 이응찬(李應贊)과의 인연으로 조선말을 배워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와 이응찬(李應贊) 등과 함께 1886년 초기 한국어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를 완역하였다. 1879년 4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되었고,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이렇게 滿洲에서 인쇄된 성경들은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최성균 같은 매서인(賣書人, “책을 파는 사람”의 중국어 표기)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초기 한글성경『예수성교전서』는 번역시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DB, 1854)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이환진, 1987: 11-12 ; 이만열, 1993: 49 ; 히로다카시, 2005: 46-49 ; 서수량, 2011: 140).⁶

한편 1884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李樹廷)은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컬버슨역(裨治文、克陞存譯本)(1863년)』을 저본으로, 브리지만과 컬버슨이 번역한 중국어 성경 본문에 이두식 토를 붙이는 형식으로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 『新約聖書 馬太傳』, 『新約聖書 馬可傳』, 『新約聖書 路加傳』, 『新約聖書 約翰傳』, 『新約聖書 使徒行傳』을 편찬하였다. 이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은 중국어 본문을 그대로 두고 한글 토를 붙인 것이어서,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이었다. 이 성경은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간 한국 학계에서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代表本(1854)』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Table 1에서 보이듯 “성령(聖靈)”은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래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로스 역의 저본 문제에 대해 히로다카시는 John Ross의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Korea, 1881>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의 성경반에서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은 나와 함께 한문 성서를 읽은 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에 가깝게 하였다.” 즉 매킨타이어의 증언을 근거로, 로스역의 저본은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이라기보다는 한문 성서였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表紙에는 “ST. Luke, 1882. First edition in Korean Translated from the Chinese Version by John Ross of the U.P. Church of Scotland, with the help of Koreans”라고 명시되어 “한국인들의 도움을 얻어 중국성서로부터 번역하였다”고 적혀있다.



Picture 1. Korean translation of “Holy Spirit” in *Yesu Syeonggyo Jyeonseu*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이는 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3년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부터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번역본과는 달리, 브리지만과 컬버슨이 왜 “성령(聖靈)”으로 번역하였는지는 중국어 성경의 문체 형식이나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과로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묶어 설명하기에는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개신교 미국공리회 선교사인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 1801-1861)은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의 번역 원칙에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장로회 선교사 컬버슨(Michael S. Culbertson, 1819-1862)과 성경을 다시 공동 번역하였다(蔡錦圖, 2018: 213).”고 전한다. 1851년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은 1859년 신약이 완성되었고, 구약은 1861-1863년에 출판되었다. 1861년 11월에 브리지만이 사망했고, 컬버슨은 1862년 8월에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일본 성경 번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의 공동 번역자인 이 두 선교사는 정식 버전이 출판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1858년, 일본이 개항하자 많은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갔다. 미국 장로회 선교사 헵번

(James C. Hepburn, 1815-1911)과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의 역경 작업에 일찍이 참여한 브라운(Samuel R. Brown, 1810-1880) 등의 선교사들은 일본어 성경 번역작업에도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평소 이 브리지만. 켈버슨 중국어 문리체 역본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어 성경은 일본 성경 번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본에서 교회 언어로 자리 잡을 만큼 언어, 문화적 각도에서, 특히 어휘방면에서 일본의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蔡錦圖, 2018: 213-214).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이수정(李樹廷)도 1884년 중국어 성경『브리지만. 켈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 1863년)』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 본문에 이두식 토를 단『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을 편찬하였고, 이후 이 성경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에게 의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영어 성경도 “성령”이라는 어휘는 각종 판본에 따라 다음과 같이 “the Holy Ghost” 혹은 “the Holy Spirit”로 표기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의 국왕 제임스 1세의 명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 번역을 마친 영어 성경 KJV(King James Version)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이라는 어휘를 “the Holy Ghost”로 표기하였다.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KJV(King James Version)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ct 1:8)

1978년 여러 개신교 교파 출신 복음주의 성향의 목회자,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직역과 의역을 절충한 번역이며, 현대 영어 번역 성경 중 가장 인기가 있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는 “성령”을 “the Holy Spirit”로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 1:8)

직역본인 영어 성경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성령”을 “the Holy Spirit”로 표기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IV. 나오는 말

본 논문은 19C-20C初 대표적인 중국어 12종 성경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譯本(LP, 1803), Robert Morrison과 William Milne의 馬禮遜、米憐譯本(MM, 1813), Joshua Marshman과 Joannes Lassar의 馬殊曼、拉撒譯本(ML, 1822), Charles Gutzlaff의 郭實臘譯本(GL, 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함)(DB, 1854), W. H. Medhurst와 J. Stronach의 麥都思、施敦力南京官話譯本(NJ, 1857), Elijah C. Bridgman과 Michael S. Culbertson의 裨治文、克陞存譯本(BC, 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Griff John의 楊格非淺文理譯本(GJ, 1886), 楊格非官話譯本(GJ, 1892), S. J. Shereschewsky의 施約瑟淺文理譯本(SS, 1902), 和合本官話譯本(HH, 1919)을 저본으로, 성경 번역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성령(聖靈)” 어휘의 유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았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19C 중국으로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인의 글말과 입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입말체에 기반을 둔 글말체로의 중국어 성경 번역이 필요함을 고심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 과정과 전도 과정에서 중국인들과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문언체로 쓰여진 『代表本』이라고도 불리는 『委辦本譯本』과 같은 심문리체(深文理體) 중국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점차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도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 즉 천문리체(淺文理體)로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 이런 천문리체 성경에는 1886년 『楊格非淺文理譯本』과 1902년 『施約瑟淺文理譯本』 등이 있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중국이 전면개방을 하게 되자, 각 지방마다 방언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던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 통용 가능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도 가장 효과적인 官話 성경 번역을 착수하였다. 대표적인 官話 성경으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Burdon, Edkins, Shereschewsky, Blodget, Martin 선교사가 『南

京官話譯本』을 참고하여 번역한 『北京官話譯本』(1872년)같은 것들이 있다. 이 성경은 현대중국어 입말과 가장 근접한 문체인 北京官話로 기록되어 당시 중국인들에게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어 성경은 초기 한글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되었기에, 한국어 성경 번역 역자들이 번역 과정 중, 중국어의 기록문자인 ‘한자(漢字)’를 한국어로 독음하는 가운데, 성령(聖靈), 성신(聖神),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 구속(救贖), 속죄(贖罪), 구주(救主), 구세주(救世主), 세례(洗禮), 할례(割禮), 우슬초(牛膝草), 성도(聖徒), 성회(聖會), 율법(律法), 율례(律例), 도고(禱告), 기도(祈禱), 간구(懇求), 인자(人子), 칭의(稱義), 찬송(贊頌), 영생(永生), 복음(福音), 안식일(安息日), 유월절(逾越節), 화제(火祭), 소제(素祭), 번제(燔祭), 속죄제(贖罪祭), 속건제(贖愆祭), 만유(萬有), 보좌(寶座), 신원(伸冤) 등과 같은 중국어 성경의 어휘가 한국어 성경 속으로 상당 부분 많이 유입되어,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용어’로 뿌리 내려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성령(聖靈)”은 하나님,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三位一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3:3),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위의 고찰에 의하면, 1863년 『裨治文、克陞存譯本(브리지만.컬버슨 역본)』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이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된 후, 매서인과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으로 유입된 후, 한국 교계에서는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에 따라 “성령(聖靈)”이라는 교회 용어는 때론 “성령(聖靈)”으로, 때론 “성신(聖神)”으로 사용되어 진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 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는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아 번역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고찰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와 같은 “성령(聖靈)”이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최초 한글로의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한자 “聖靈”이라는 어휘는 처음 한글성경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어느덧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 언어가 되었다.

최초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의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

어”(요 1:14) 그의 말씀을 우리말인 한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은혜의 사건이라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1. 원전류 및 공구서

한중성경. 도서출판 모리슨.

[*Korean- Chinese Bible. Morrison*]

『古新聖經殘稿』: 賀清泰, 中華書局, 2014.

[*Guxincangao- Chinese Bible. Louis Antoine de Poirot. Zhonghuashuju*, 2014.]

『馬禮遜、米怡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Morrison & Milne-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馬殊曼、拉撒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Joshua Marshman & Johannes Lassar-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郭實臘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Gützlaff -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委辦本譯本（代表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Delegates' Version-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南京官話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Nanjing- The Mandarin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裨治文、克陞存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Bridgman & Culbertson- The Classical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北京官話譯本』 臺灣 勞如麟 목사.

[*Beijing- The Mandarin Chinese Bible. Taiwan Laorulin Pastor*.]

『楊格非淺文理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Griffith John-The Easy Classical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楊格非官話譯本』 台灣聖經公會

[*Griffith John-The Mandarin Chinese Bible. The Taiwan Bible Association*.]

『施約瑟淺文理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Schreschewsky-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Ross, J. (1884). 『예수성교전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Ross, J. (1884). *The Book of the Church of Jesus*. Korean Bible Society collection.]

李樹廷 (1884). 『新約聖書使徒行傳』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Lee S. J. (1884). *New Testament Books of Acts*. Korean Bible Society.]

李樹廷 (1884).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Lee S. J. (1884). *New Testament Maga Gospels*. Korean Bible Society.]

2. 단행본 및 논문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역 (2007). **현대한어**(現代漢語). 北京大學中文系編 (1993). 現代漢語. 서울: 차이나하우스.

[Kim, A. Y., Kim, H. C., So, E. H. & Sim, S. H. (2007). *Contemporary Chinese Language*. Seoul: China House. Trans. (Eds.). Beijing Universit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993). 現代漢語. Beijing: 北京大學中文系編]

김찬미 (2019).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Kim, C. M. (2018). *A Study on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8 Versions of the Chinese Bible in the 18th and 20th Century - Focusing on Mark and Roman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서수량 (2011). **존 로스(John Ross)의 선교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적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Seo, S. L. (2011). *A Historical Evaluation of Missionary Works of John Ross (From the Apostle Paul's Missionary Strategy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이만열 (1993).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Lee, M. Y. (1993). *Korea Bible Society I*. Seoul: Korea Bible Society.]

이환진·전무용·서원석 (1987). 예수성교전서. **성서한국**, 33(1), 8-18. 서울: 대한성서공회.

[Lee, H. J., Jeon, M. Y. & Seo, W. S. (1887). Yesusyeong-gyojyeonso, *The Bible Korea*, 33(1), 8-18. Seoul: The Korean Bible Society.]

히로다카시 (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Hiro Takashi (2005). *A Study Korean Bible's Words Translated in the Enlightenment Perio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蔡錦圖 (2018).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香港: 道風書社.

[Cai J. T. (2018), *The Bible in China*, Institute of Chinese Christian Culture, Hongkong: Daofeng Book Club.]

『利瑪竇行旅中國記』(2010). 上海博物館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Matteo Ricci's *Travels in China* (2010). (Eds.). Shanghai Museum. Beijing: Beijing University Press.]

張利偉 (1994).『施約瑟及其《聖經》漢譯的原則和方法』. 南京: 南京大學.

[Zhang L. W. (1994). *Joseph Shi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Chinese Translation of the Bible*. Nanjing: Nanjing University.]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의 문체와 그 판본에 나타난 “성령(聖靈)” 어휘 유래 고찰

The study on the language style of the 12 Chinese Bibles and the origin of the
word “Holy Spirit” in the early 19th -20th Century

소 은 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성령(聖靈)” 어휘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았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1863년 『裨治文、克陛存譯本(브리지만.컬버슨역본)』 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성경인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은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당시 한글성경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던 까닭에, 한자 “聖靈(성령)”이 처음 한글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어휘가 되었다.

주제어: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의 문체, “성령(聖靈)” 어휘 유래

한국어교육의 문화 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towards Integration of Korean Education
with Cultures: Focusing on Korean Education for Missionary Purposes**

이 란 (Ra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odel for Korean education with the Bible storytelling an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ways to integrate the related cultures. Korean education with the Bible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patterns for mission purposes. This pattern with the Bibles which aims at the improvement of both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 Bible literacy is differentiated from ones of other purposes. For this, it was applied to a Christian educational model with the Bible storytelling which consists of listening and observing, exploring and meditating, applying and acting, and sharing in communities; totally four stages were structured in the end. Those reflect the Bible study tradition that includes both activities of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in order and help the four skills such as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be integrated in a class. Also, since there is an issue of complexity in the integration with culture education in this kind of specific purposes, it helps this model manage both diverse dimensions of cultures by dealing with the Bible cultures in the stage of ‘meaning understanding’ and Korean cultures in the stage of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it established four standards for culture integration such as language-centered, culture-centered, Korean-centered, and Bible-centered. Based on them, it categorized the class patterns: Bible language-centered integration class with cultures, Korean language-centered integration class with cultures, Korean culture-centered integration class with languages, and Bible culture-

* 2023년 2월 13일 접수, 2월 27일 게재 확정.

** 송실사이버대학교(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강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 iran370@hanmail.net

centered integration class with languages. Moreover, it specialized the aim, teacher, and evaluation according to each pattern. Finally, it suggested the duality and the integration of cultures in the all activities of meaning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the utilization of learners' mother tongues, the presentation of plural materials and the active application of community language learning(CLL).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ission, Convergence with Culture Education, Bible Storytelling

I. 서론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은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하위분야로 선교를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국내·외 교회, 선교단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을 말한다(안병근, 2014: 9-13).¹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기독교인 교사들이 수행하는 한국어교육’으로서 의사소통 향상의 목적과 아울러 선교를 일부 하위목적으로 포함하거나 선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외 한국어교육을 말하며 여기에는 해외 한인교회에서 수행되는 한글학교 배경의 교포 자녀 교육이나 해외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도 포함된다(이란, 2021a: 688-692).

선교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일반목적 한국어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실시하면서 선교목적을 암묵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으로 성경을 통해 교육하는 경우도 있어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선교지 한국어교육 현황 연구들은 이 목적으로 수행되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큰 필요가 성경 관련 한국어교재 개발임을 보여주고 있고(김동선·김영주, 2010: 40 ; 이승연 외, 2013: 207-208), 국내에는 관련 교재가 세 시리즈 정도 출판되어 있으나 아직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시중에 판매되어 쉽게 구매 가능한 교재는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함께 배우는 한국어』의 세 종류의 시리즈로 확인된다(이란, 2018: 166-177). 이외에도 한국어교사 스스로 국내 학습자 대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선교목적 한국어교재의 구성에 관한 논문도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정혜원, 2020: 262-290).

이러한 상황의 대안을 찾아 선교지 내에서는 동일 지역 (선)교사들끼리 교재를 제작하거나 기존 교재를 개작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란, 2018: 166-177). 한국어교사를 겸임하는 선교사들은 성경을 반영한 교재의 개작, 편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교사 양성 과정에 반영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이승연 외, 2013: 198), 최근 국내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예비 한국어교사 및 신학생들의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을 향한 높아진 관심, 교재로서의 성경 활용에 관한 신념과 실용 가능성 등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곽경숙, 2019 ; 안희은, 2020 ; 이란, 2021b).

본고는 선교목적 한국어교육 방법 중 특히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수업을 하는 경우에 관련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헌 고찰 성격의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언어교육에는 의도

1) 안병근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 지역의 선교사로 실제 아프리카 지역 한국어교육의 개척자이다. 여러 한국 대학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왔으며 한국어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붐을 일으키도록 앞장섰다. 또한 장기간 선교사역에 몸담으면서 그 사역에 한국어교육을 접목하여 성공을 이루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을 작성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이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일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실제 범위와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가치가 있다.

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문화교육이 병합되기 마련이고, 특히 외국어는 타 문화의 하위 영역일 뿐 아니라 문화학습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²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언어와의 부수적인 위치에서의 통합을 넘어 문화중심 언어교육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성경으로 하는 한국어수업에서 문화와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이론화는 성경이 번역서라는 이유로 어렵게 인식된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본문 텍스트와 함께 제시되어야 할 문화가 한국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한국의 두 문화를 이원화해서 제시해야 할 타당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은 목적 통합적이다(김정숙, 2012: 39-40).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문화 인류학 등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필수불가결하나 학문목적, 직업목적 등 특수목적 분야에서 이러한 연계는 보다 복잡적이고 확장적이다. 이처럼 언어능력의 향상만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아닌 경우, 관련된 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이해 자료로 택하는 텍스트의 '내용'도 중시하여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특수목적의 한 분야인 선교목적 한국어교육 역시 세부 교육목적들의 성취, 통합적 내용의 숙지, 언어 기술들의 습득, 문화통합 등에 있어 보다 복잡적이고 다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한 하위 형태인 '성경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과의 통합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 전통 속에 있는 성경교육 형태에 입각한 한국어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선교목적과의 연계 속에 문화 통합 수업 유형들을 제시하여 그 교육 방안을 논의한다.

II. 성경 스토리텔링 한국어 수업 모형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교재와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본고는 성경을 어떤 형태로든 수업 자료의 일부로 가져와 활용하는 수업으로 그 형태를 규정, 논의의 폭을 제한하고자 한다.

성경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란 한 마디로 일반목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기독교 리더

2) 김혜영은 “한국어와 문화의 연계의 창출”은 “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의 유기적, 통합적 발전을 목표”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3년 호주 보고서(A report on Intercultural Language Learning)에서 외국어 학습의 방향이 “목표 문화 지향에서 문화관계 지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문화 간 상호 존중의 교육을 강조한다(김혜영, 2015: 464, 468).

3) 언어중심과는 다르게 문화중심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보다 목표문화를 이해하는 일에 중점을 두면서 언어 학습의 효과까지 함께 얻고자 한다(이미혜, 2004: 143-163). 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문화 간 비교라기보다 어떤 문화적 가치관의 창출이다(이란, 2020: 681-692).

러시의 통합 수업이다. 여기서 기독교 리터러시란 성경 리터러시와 교회 리터러시를 아울러 포함하지만 성경 한국어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읽기 교재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성경을 본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성경만으로 전 교육과정을 개발하던지, 성경을 일반교재와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던지 성경을 읽는 과정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성경 한국어수업은 일반 목적 한국어수업과는 차별화되는 목표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셈이다. 주어진 본문의 어휘 및 표현, 문법을 사용 중심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화와도 통합해야할뿐더러 성경 묵상의 전통을 따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성찰하여 이를 실천하는 일도 포함할 것을 요구 받는다.

먼저 한국어교재로서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75%가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유대교 전통에서 스토리텔링은 유대교 신앙을 해석하고 전수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백은미, 2009: 400). 성경은 이야기의 보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야기는 이야기하기 방식을 통해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곽경숙, 2019: 205).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구어 형태의 스토리텔링 교육이 두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형태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경 한국어수업 중에서도 성경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범위를 좁혀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 기독교교육의 한 분야인 성경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의 교육 방법을 살펴 이를 한국어교육에 접목하고자 한다.

우선 성경 스토리텔링의 히브리 구술 전통을 중시하여 오늘날 교육 맥락에 활용하고자 했던 김영래는 청취(Story Listening), 탐구(Exploration, Story Embracing), 실천(Practice, Story Embodiment)이라는 세 과정을 성경 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였다(김영래, 2017: 168-175).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스토리텔러, 인간이 스토리리스너의 위치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구술전통의 말하기/듣기의 기능이 강조된 수업 자료의 활용과 그 진행을 함축한다.

‘청취’는 듣기 과정이다. 구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쉼마(Schema)는 청취를 넘어 순종의 행동까지 포함한다. ‘탐구’란 글의 해석을 위하여 글의 역사적 배경, 장르 이론, 작가 정보 등의 다양한 문헌적 연구 결과의 탐색 과정을 포함한다. 김영래(2017)는 Card(2013)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정보가 제공된 상상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글에 관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해

석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은 표면적 이야기와 잠재된 이야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성찰과 행동의 반복적 순환이다(김영래, 2017: 173).

단계적 성경 스토리텔링 모델을 제안했던 양금희는 ①플롯 따라 이야기 구성, ②이야기 경험하기, ③이야기와 자기 동일시하기, ④이야기 이어가기, ⑤이야기 확장하기의 5단계로 이를 제시하였다(양금희, 2018: 354). 여기서 ①은 학습자와 공동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그 플롯에 충실하게 제시하는 단계를, ②는 학습자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여 그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 구연 등을, ③은 경험한 이야기의 반추로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을, ④는 자신의 문제와 방향을 행동으로 결단하여 살도록 도전하는 일을, ⑤는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이끄는 일을 뜻한다.

이를 표현 교육과 관련시켰던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교육 모형도 이와 유사하다(이란, 2018). Vanhoozer(1998)를 비롯한 텍스트 해석학자들이 개념화한 ‘의미 이해’와 ‘의의 찾기’의 두 가지 해석 작용을 성경 스토리텔링 읽기-쓰기 수업 모형에 반영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그 활동을 청취 및 관찰, 탐구 및 묵상, 적용과 실천, 공동체 나눔의 4단계로 구체화하였다. 이 모형에 의거하여 성경 교육을 실천하면 아래의 순서이다.

첫 두 단계가 해당되는 ‘의미(meaning) 이해’ 과정은 저자가 의도한 1차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텍스트 관찰과 내용 탐구를 동반하는데 그 의미를 최선으로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 최적의 자료들을 사용하고 해석 공동체 안에서 해석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적용과 나눔의 활동이 포함되는 ‘의의(significance) 찾기’ 단계는 앞서 확정된 최선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내용의 가치 판단, 자신의 삶과의 동일시, 성찰, 적용 등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독자 반응 활동과 2차적 표현 및 나눔 활동에 무게를 둔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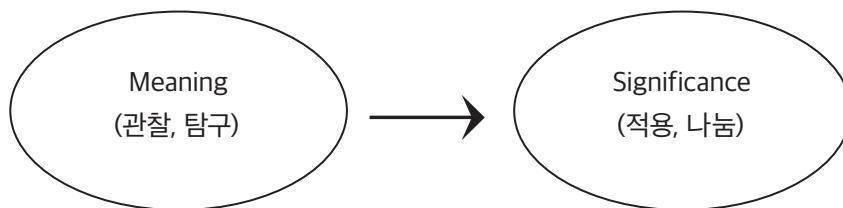


Figure 1. Teaching steps for the Bible text

4)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중 ‘가치탐구 모형’은 ‘가치의 인식-> 가치의 비교-> 가치의 자기화’ 단계를 구체화한다. 문학교육은 텍스트상호성의 확대와 내면적 가치를 표현하는 ‘내면화 과정’을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모형은 문학교육모형과도 일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류수열 외, 2014: 141-149). 선교목적에 방점을 둔 경우, 가치탐구, 속성중심, 반응중심 교육모형을 결합하여 기독교 세계관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다(이란, 2019).

위의 성경 스토리텔링 이해와 실천의 과정들을 한국어 문화교육과 관련시켜 논의해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의 의미 이해는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참고할 수 있어야 가능한 과정이다. 성경 교재의 역사적 정보, 저자, 장르 이론 등도 모두 학습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등의 타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의미를 이해할 때는 성경 속 문화를 참조해야 타당하다.

반면 의미를 이해한 후, 의미를 찾고 적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이주민들 자신의 삶의 터전 즉, 한국을 배경으로 하게 되며, 해외 선교지라면 학습자 고국 문화와 한국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탐구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이다. 즉, 성경 텍스트 의미 이해를 위해 ‘성경 속 문화’를 참조한 이후 관련 주제의 한국 관련 텍스트나 문화 제시, 구술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연계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번역서가 가진 한국어교재로서의 문화 교육 복합성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어교육은 일반적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서로 진행된다. 즉, 이해에서 표현으로의 방향성이다.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습득)도 자연 교수법의 원칙을 따라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단계를 따른다. 언어입력(language input)을 많이 축적하면서 일정 기간의 침묵기를 거쳐 발화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다(Krashen, 2000). 보통 문어보다는 구어가 먼저 제시되는데 이 역시 자연적 언어 습득 원리를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의 단원 틀 구성도 이 순서를 따른다. 이러한 외국어 학습과 교재 구성상의 순서를 고려하면 위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교육 단계들과도 조응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다양한 논의들은 성경 스토리텔링 한국어수업과 다음과 같이 상응될 수 있다.

Table 1. Steps and activities of Korean education with the Bible storytelling

단계	성격	내용	언어활동	문화
청취 및 관찰	의미 이해	② 이야기 경험하기	듣기, 읽기	성경 문화 (목표: 이해)
탐구 및 묵상		③ 이야기와 자기 동일시하기	읽기	
적용 및 실천	의의 적용	④ 이야기 이어가기	말하기, 쓰기	한국 문화 (목표: 적용, 표현)
공동체 나눔		⑤ 이야기 확장하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먼저 ‘청취 및 관찰’ 단계에서는 ‘듣고 읽기’ 활동이 진행된다. 이는 의미를 이해하는 첫 단계로서

이야기와 성경 속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전제된다.⁵⁾

‘탐구 및 묵상’ 단계는 성경을 깊이 읽는 단계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본문 의미 이해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즉, 어휘와 표현, 문법, 텍스트 관련 정보, 즉 저자, 역사적 상황, 장르 등의 정보, 관련 해석 자료 등을 찾아 정리, 해석하며 읽는 과정이다. 역시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보다 정확한 최선의 의미 이해를 위해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난 문화와 통합된다.

‘적용과 실천’ 단계는 성경 읽기를 통해 파악된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의의’ 영역에 해당된다. 여기서부터는 학습자의 삶의 터전에 말씀의 의미를 적용하므로 한국어수업에서는 한국문화 이해, 고국문화와의 비교 등의 활동과 통합하기 위하여 일상 대화문이나 타 읽기자료 등이 부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읽은 내용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여 성찰하므로 주로 자전적 스토리텔링 말하기나 성찰적 글쓰기, 토론 등 다양한 장르의 표현 활동과 관련된다.

‘공동체 나눔’ 단계는 학습자 자신의 삶에의 적용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실천적 의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결과 진술 형식의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활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발표, 토론, 비평적 글쓰기, 팀 프로젝트, 역할극, 답사 및 보고서 등의 형태이며 교실 밖 SNS를 통하여 실제성(authenticity)을 획득한 한국어 소통을 통해 표현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현재적 삶의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나누는 것으로 국내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문화와 연계되거나 앞서 1차적으로 학습한 성경문화를 전제로 한 나눔 과정이다.

III. 성경 한국어 문화교육의 유형 구분

Table 1에서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한국어교육의 4단계 속에서 문화교육은 매우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성경만을 교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탐구 및 묵상’ 단계에서 어휘와 표현, 문법 학습 등이 충실히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일부 지문으로만 포함하는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문화 이해나 일상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문을 부가하여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및 실천’ 단계에서 의사소통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위의 수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수업의 목표에 따라 성경 및 한국어 의사소통과 양 문화에 각각 무게를 실어 수업해야 하는 상황의 영역들을 유형화하고 그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각 선교 상황에 맞는 수업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5) ① 플롯 따라 이야기 구성은 교수자가 성경 스토리텔링을 선택하여 구성하는 단계로서 수업 이전 활동에 포함되므로 표에서 제외되었다.

실상 한국어교육에서도 ‘언어’에 중점을 두는 ‘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이 있고 ‘문화’에 중점을 두는 ‘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 형태가 있어 문화교육에의 접근방법이나 내용 등이 차별화된다. ‘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에서는 문화가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교사는 언어교육 전문가가 맡으며 내용도 언어 중심으로 편성되지만, ‘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에서는 교육의 중심이 ‘문화’에 있고 교육방법도 강의, 체험, 관찰 등으로 전개되므로 문화전문교사가 언어교사와 협력적으로 교육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중심과 문화중심 한국어교육은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서 Figure 2와 같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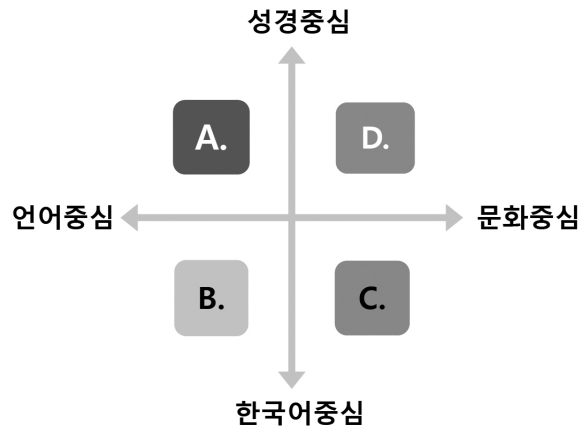


Figure 2. Four patterns of culture-integrated Korean education for mission purposes

Figure 2에서 A, B, C, D 영역은 각각 ‘성경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어의사소통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 ‘성경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에 해당된다.

Table 2.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e education in culture-integrated Bible Korean education

유형	중심	'문화'의 교육목표		교사	평가
A	언어	성경 언어 이해를 위한 보조 수단		성경 언어 전문가	언어
B		한국어 학습을 위한 보조 수단		한국어 전문가	
C	문화	국내: 한국문화 적응	문화능력 신장	문화전문가들과 언어전문가의 협력	문화
D		선교지: 한국문화 학습	성경의 현 문화 적용		
		성경문화 이해와 학습			

먼저 A영역은 ‘성경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으로서 성경 리터러시 교육이 우선된다. 선교성이 강한 한국어교육 형태로서 문화보다는 성경 언어중심이며, 문화는 언어교육을 위한 보조적 위치에 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내외 선교단체나 교회 배경의 선교지에서 선교목적을 상위에 두고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선교사의 정체성이 강한 성경 언어 전문가가 맡을 가능성이 높고 주요 평가내용은 성경의 언어 이해도가 될 것이다.

B영역은 ‘한국어의사소통중심 문화통합교육’으로서 선교보다는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 방식이다.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 활용도가 높고 양 문화보다는 한국어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문화는 보조 수단이다. 선교를 잠재적으로 마음에 품은 기독교인 한국어 전문가가 교사가 되어 일반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 소속되어 교육을 진행하며 주요 평가내용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다.⁶ 현재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많은 부분이 B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C영역은 ‘한국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으로서 문화중심 한국어교육이다. 선교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을 목표로 설정,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문화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더 상위 목표가 있다. 학습자 역시 문화,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어 숙달도는 고급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한국문화가 교육의 중심이 되며 한국문화 전문가와 한국어 전문가와의 협력 교수가 바람직하다. 평가는 한국문화 중심이다. 선교목적이 강조된 수업에서 이 영역은 기독교인 교사, A, B 영역을 모두 수료한 기독교인 학습자로 구성되기가 쉽고 한국문화를 적극 배워 이미 학습한 성경문화를 한국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보다 중심이 놓이게 될 것이다.

D 영역은 ‘성경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으로서 주로 성경 탐구와 그 이해를 주요 수업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신학생이거나 선교사들과의 언어교환수업, 한인교회 배경의 해외 동포 자녀나 선교사 자녀 한국어 교육 등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신앙(학)적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수업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성경 중심의 연구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나 특별한 목적에 의해 한국어 신앙 캠프에 단기적으로 모인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형태이다. 성경과 문화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언어전문가가 협력하여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네 가지 영역은 분명하게 잘라낼 수 있는 구분법을 가지지는 않으나 최근 선교목적 한국어교육과 문화중심 한국어교육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각각 초점화 할 수

6) 앞서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을 ‘기독교인 교사가 수행하는 한국어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이유는 실제로 B영역에서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이 다수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반목적(또는 타 목적) 한국어교육을 표방하고 한국어수업을 진행하나 교사의 신앙적인 이유로 선교적 내용을 하나의 감정적 교육과정으로 포섭하게 되는 경우이다. 해외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교의 포교가 금지된 국가, 교육기관의 입장, 학습자의 낮은 기독교 친숙도와 요구 등 다양하다.

있는 유형들이다. 일반목적과 선교목적이 통합된 한국어수업 형태의 네 유형 중 B유형이 가장 한국어의 의사소통성이 강조된 수업형태이며 A유형은 복음 소개의 선교성이, D유형은 내용의 깊이를 가진 기독교성이 가장 두드러진 수업형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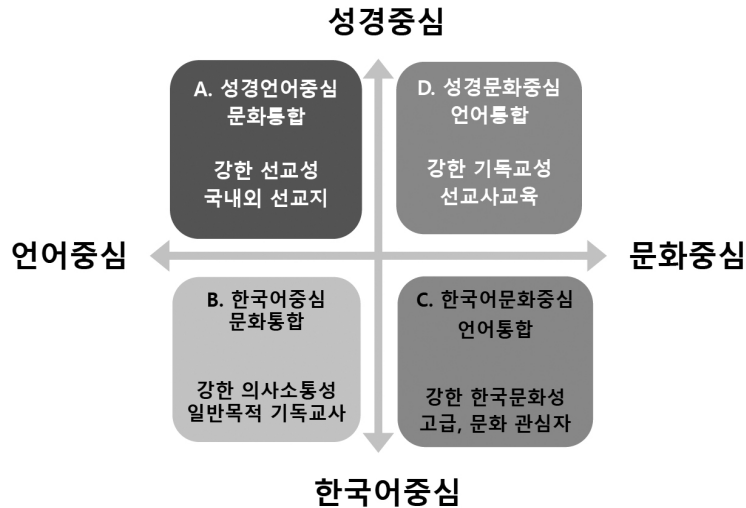


Table 3. Characteristic summary of each pattern in culture-integrated Korean education for mission purposes

IV. 성경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방법적 논의

Brown은 제2언어 학습을 제2문화 습득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는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제2 언어자아(Second language ego)를 획득하는 것이라 이해하면서 언어학습의 문제를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담론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Brown, 2000: 182). 선교목적 안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제2문화뿐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제3문화까지 함께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제안한 4가지 유형의 성경 활용 한국어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해’와 ‘적용’: 문화 간 이원화와 통합화

성경으로 하는 한국어수업은 어학공부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아울러 그 내용의 습득에도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과 더불어 내용중심 교수법의 접

목이 적합하다. Tribble(1999)도 내용지식의 교수를 위해 언어교사와 내용교사의 교대에 의한 수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문화 교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Table 1에서도 확인한 바, 성경의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의 문화를 한국어학습에 접목, ‘의의 적용’을 위해서는 학습자 삶의 터전에서 목표문화를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후자의 경우, 학습자들의 고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함께 비교하면서 성경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양 문화를 이원화하여 순서상 위와 같이 단계를 나누어 놓아도 선교목적이 강할수록 성경의 내용, 곧 성경이 강조하는 문화를 한국문화(고국 문화와의 비교 속에서)라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결국 ‘이해’와 ‘적용’은 통합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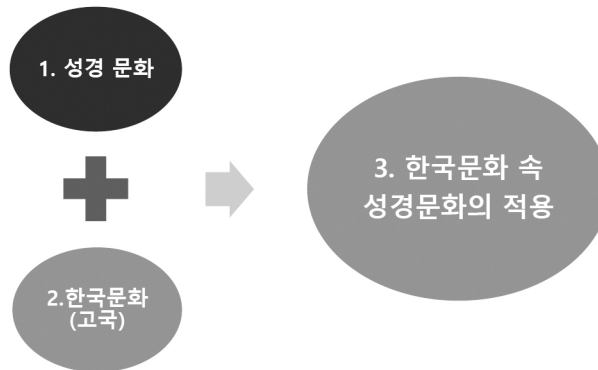


Figure 4. Steps for culture integration of Korean education for mission purposes

문화교육의 관점에 초점화를 시키자면 Table 2의 특별히 C, D 영역(문화중심)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심층 제공하면서 다소 전문적으로 수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방법도 언어중심 교수와는 달라야 한다(이미혜, 2004). 이미혜가 제시한 문화중심 한국어 수업의 방법을 참고하여 그 방법의 중요도에 따라 재구성, 표시해 보면 ①교사의 가벼운 설명, ④교재에 별도의 문화란 설정, ⑥선택적 심화학습 등이다. 이외에도 ②시각 자료를 통해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 ③문화 어휘와 표현이 나오면 해당 어휘 옆에 각주나 Tip의 형태로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 ⑤부교재와 과제를 활용한 심화학습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⁸ ①에서 ⑥으로 갈수록 문화내용 심화를 위한

7) 여기서 문화란 행동, 성취, 관념 문화의 총합으로서 태도, 신념, 관념, 행위 등 삶의 유형, 무형 생활양식 전반을 의미하므로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다루는 모든 텍스트를 문화텍스트로 보아도 무방하다(임경순, 2019).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문화’ 역시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특정 국가의 생활양식 학습을 뛰어넘어 현재적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성경의 문화’는 신앙 안에서의 삶과 실천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다.

8) ⑥선택적 심화학습은 학습자가 보다 관심있는 문화 분야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보다 깊이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문화 현지답사나 팀 프로젝트 활동을 포함한다. ⑤부교재와 과제를 활용한 심화학습이란 주교재나 수업 중 활동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수업 외 다룰 수 있도록 부교재나 과제를 주어 문제해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다.

제시방안인데 이를 성경문화와 한국문화를 복합적으로 수업하는 A, B, C, D 영역에 적용한 예를 보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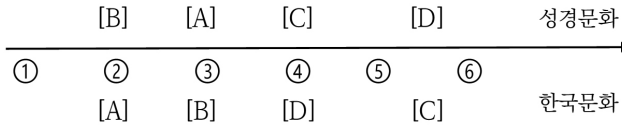


Figure 5. Teaching ways for integrating the Bible culture with Korean culture

예를 들면 ‘성경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A)에서 한국문화는 시각자료를 통한 가벼운 설명에 그칠 수 있으나 성경문화는 문화 어휘에 대한 Tip을 교재에 설명해주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C)인 경우, 한국문화는 부교재, 과제, 선택형 과업을 통한 심화학습을 시행하고 성경문화는 문화탐방이나 조사발표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문화와 한국문화를 이원화하여 교육할 경우에는 A-D 어떤 영역의 교육이든 Table 3에 제시된 자료를 보여주고 관련 언어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단계상 수업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교육은 성경 텍스트문화의 이해를 위한 읽기, 듣기 등의 수용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의 표현교육은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말하기, 쓰기, 프로젝트 등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적용 활동이 주가 되어 그들의 삶의 터전인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특히 문화중심 한국어수업은 어떤 형태이든 문화를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현상이 일어나고 모든 기능들이 통합되도록 조직한다.

Table 3. Culture materials and activities for dualization and integration of culture educatio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단계	중심	자료 제시	주요 활동
전반부 이해	성경문화	성경, 역사자료, 문학형식, 미디어 및 실물 자료, 저자정보, 해석자료 등	읽기, 듣기
후반부 적용	한국문화 (고국문화)	한국의 행동, 성취, 관념문화 등의 정보 관련 자료, 텍스트, 대화문	읽기, 듣기, 말하기 등
	성경문화와 한국문화 통합	성경문화의 한국문화 속 창조적 적용을 위한 표현활동	말하기, 쓰기, 프로젝트 등 다양

2. 학습자 모국어의 활용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은 두 목적의 성취를 기대하므로 시간의 부족 현상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어진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활동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내용 이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모국어 활용이다. 특히 문화중심 한국어수업의 경우 모국어 사용에 대한 허용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교육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덜 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이미혜, 2004).

언어교수 측면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으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들이 소개되고 있다(최권진, 2008: 1-22). 또한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역시 수업 중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을 허용한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국어 번역이나 연역적 문법 제시까지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몰입식 교육에서 금기시했던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은 특정 목적, 특히 선교목적 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수업에서는 학습자 한국어 숙달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정보도 읽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초·중급 학습자도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 모국어를 교재에 한국어와 함께 병기하거나 모국어로 구성된 문화 정보 부교재를 나누어 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성경문화와 한국문화를 한국어수업에서 모두 함께 다룬다는 것은 교육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한국어수업에서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모국어로 된 부교재나 문화 읽기자료의 부가적 활용은 이러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된다.

다음은 선교지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구체적 방법들이다.

- 문화어에 대한 모국어의 개념적 설명 병기 - 수업 중 교사가 한국어 구두로 설명하더라도 교재 속 모국어를 통해 분명한 의미와 내용 확인하기.
- 문화에 대한 심화 정보 - 모국어 설명을 부교재로 배부. 과제 활동 병행하기(읽기와 요약).
- 양 문화에 대한 모국어로 된 멀티미디어 자료의 시청. 한국어로 요약하기.
-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모두 같을 때, 특정 문화 관련 한국어 지문에 대하여 팀별, 개별로 모국어로 번역하고 어느 팀이 가장 잘 번역하였는지 공개 평가하기.
- 팀별 토론: 같은 모국어를 쓰는 학습자들끼리 팀을 이루어 주어진 문화 키워드에 대한 토론, 관련 문화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모국어로 이해한 후 한국어로 번역하기.
- 성경문화, 한국문화, 학습자들의 고국문화를 세 측면 비교하여 공통점, 차이점 발표하기.
- 학습한 본문의 성경문화 적용을 오늘날의 현대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바꾸어 적절한 문화 행동을 기술하기. 모국어로 쓴 후 한국어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물론 모든 한국어수업의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모국어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내용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한 수업의 한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내용중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복수 텍스트의 자료화

성경 한국어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고어체로 기록된 성경과 일상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경 텍스트 수정이나 임의적인 난이도 조정에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쉬운 성경이나 성경동화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난점은 성경문화의 본문을 다루면서 어떻게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채 선교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때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두 목표를 다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쉽게 한 목표로 수업의 방향을 제한해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목적이 서로 다른 자료를 복수로 제시하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선교목적과 일반목적의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텍스트를 찾기 어렵다면 서로 목적은 다르나 주제, 어휘, 문법, 문화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복수의 지문을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중급의 경우 성경을 본문으로 하면서도 일상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문, 그리고 기사문이나 광고문 같은 한국의 실용문 자료 등을 표현활동을 위한 복수의 여분 자료로 한 단원 안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수업의 한 예는 그러한 구성을 보여준다.

아래의 수업 구조화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한 세 가지 지문을 만나게 된다. 첫째는 성경 구절이고 둘째는 한국 생활의 일상 대화문이다. 두 지문은 학습할 어휘와 표현, 문법, 주제, 문화 등의 항목이 일치하도록 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설계에서는 어휘, 문법 학습을 위한 PPP 수업 구조(형태를 고려한 과제 중심 교수법,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산출 단계(production)에서 Table 4와 같은 기사문 검색을 활용한 확장적(extensive) 읽기 교육은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김수정, 2009).

2)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3)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4)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Table 4. An example of Korean teaching design with the Bible

단계별 목적	단계별 자료	교수-학습 활동	중심 (PPP 구조)
선교목적	Text1: 성경 한 구절 (with 성경언어, 성경문화 관련 자료)	듣기/ 읽기 중심 관련 어휘와 문법 제시 성경 문화 관련	presentation, practice
일반목적	Text2: 일상 의사소통 대화문 (Text1과 유사 어휘, 유사 문법 및 주제)	듣기/ 읽기 중심 한국의 행동문화 관련	practice(의사소통 연습) production
선교 + 일반 목적	Text3: 실용문 (예를 들면, 한국 인터넷 기사)	말하기/ 쓰기 중심 (요약, 토론, 발표 등의 표현) 심화된 한국문화(관점) 관련, 성경 문화와의 통합, 삶에의 적용	practice(공적 표현), production

이를 선교목적에도 적용해 보면, 첫째 지문을 통해 제시된 어휘와 표현은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까지 해당하고, 두 번째 지문을 학습한 뒤에 다시 연습, 언어 산출(production) 활동으로 이어져 의사소통 맥락의 유의적 상황에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생산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후 학습자 중심으로 관련 주제 기사를 자기 주도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한국문화 속에서 주제를 구체화하여 이해한 후, 성경문화 속에서 이를 조명한다.

이때 언어활동은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전환, ‘적용’ 중심으로 교육한다. 기사문 및 요약문 작성, 일기, 편지, 발표, 토론, 논증, 역할극 등 다양한 표현활동이 가능하다. 기사문은 일반적으로 중급 이상에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초, 중급의 경우 기사문을 쉽게 개작하여 제시하거나 어린이 신문, 만화, 만평, 실용문 등의 쉬운 지문으로 대체, 혹은 이들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세 지문은 각각 “성경(성경언어, 성경문화)”, “의사소통 대화문”, “한국문화자료” 등의 성격을 띠며,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이 포함해야 할 네 가지 영역(A-D)을 모두 포괄하는 본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초점화의 영역에 따라 세 자료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 수업 목표와 학습자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4.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활성화

공동체 언어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은 상담 학습(Counseling Learning)이라 불리며 상담기법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통역된 목표어로 의미미한 대화를 나누며 외국어를 학습하는 교수법이다(김재욱 등, 2010: 113). 전인학습을 주장했던 Rogers의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된 그룹의 개개인의 의사와

경험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교육과 그 속의 상호작용이 언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Richards & Rodgers, 2001: 90).

이 언어교수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가 언어의 자료 제공자라는 것이다. 학습자의 필요나 고민이 그날 수업의 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와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자의 실제 발화가 자료로 제공되므로 자율적이고 유의미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 공동체의 정서적인 지지와 연대라고 하는 주요 자원을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안정감과 집중도, 참여도를 높여준다. 수업 방식은 읽은 본문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의문, 고민, 생각, 적용 등 다양한 성격의 자유 진술이 이어지고 다른 학생들의 조언이나 상담이 뒤따른다. 학습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므로 수업에의 집중도가 높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이다. 수업 내용과 교재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국어로 발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사의 통역을 활용하므로 외국어 발화가 미숙한 학습자들이 모여 있는 초급 한국어교실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화된 학습자의 발화에서 교육적 요소를 추출하여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 역동적이고 실제적(authentic)이다.

특히 성경을 본문으로 할 때, 이에서 받은 영감이나 고민, 생각, 한국생활에의 적용 등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학습자들끼리 공감대와 친밀함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성경공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그날그날 학습자들의 고민이 깃든 발화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므로 성경의 어휘 난이도나 의사소통성과의 연결을 위해 교사가 별도로 대화문을 구성해 제시하는 수고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우선적 필요를 돌볼 여유를 갖게 한다. 또한 학생들의 언어가 녹음되고 전사되어 학습 자료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성과 맥락 속 유의미성,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이 점의 중요성은 성경으로 수업할 때 겪는 성경언어의 난해성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일상적 의사소통으로의 연결과 적용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한국문화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한국문화에 대하여 가졌던 의문 등을 성경문화와 관련하여 성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공동체 언어학습법을 활용한 대화문을 복수 지문의 하나로서 제시할 경우 3번 항목, 적용 위주의 ‘실용문’이 되기가 쉬운데 이를 활용할 때 다음의 주의할 점이 있다.

성경 본문은 길지 않은 제시문을 택하고 본문에 포함된 어휘, 표현, 문법 등을 정확하게 학습한다. 학습자의 상담은 어떤 주제이든 다룰 수 있으나 그날 학습한 짧은 성경구절이 내포한 언어나 문화 등에 대한 의문이나 관련 경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성경에 비추어 본 삶의 방향성 등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연결고리가 될 뿐 아니라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학습 단계를 자연스럽게 밟아나가게 된다.

그날 발표하는 학습자는 그날 혹은 그 전 차시에 배운 어휘나 표현, 문법 등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적용하여 이야기하도록 요구될 필요가 있다. 또 학습자 발화 내용과 교사 통역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어 다음 차시의 학습 자료로 배부, 활용되는 것이 좋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이야기 내에서 필수어휘와 필수문법 등을 찾아내 언어 지도에 활용해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도 후반부에는 의사소통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兩) 목적을 추구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위의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의사소통 향상이라는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고 동시에 성경의 내용 이해에 바탕을 둔 한국문화와 개인 문화에의 ‘의의와 적용’이라는 성경 스토리텔링의 주요 단계별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성경과 한국문화를 정보와 지식 맥락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가 효율적인 시각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이해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가운데 하나인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을 성경 연구의 한 방식인 스토리텔링 교육방법 안에서 그 단계를 조율하고, 성경문화와 한국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복합성 문제를 그 단계 속에서 조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경연구의 과정인 청취와 관찰, 탐구와 묵상, 적용 및 실천, 공동체 나눔이라고 하는 네 단계를 성경 한국어교육에 접목하고 이 단계를 따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성경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의미 이해’와 ‘의의 및 적용’ 단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안(案)으로서 문화교육의 단계와도 상응된다. 성경 본문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텍스트의 의미 이해는 ‘성경문화’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적용은 삶의 터전인 ‘한국문화’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문화의 복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모델 안에서 제안해보였다.

특히 본고는 성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통합 방식을 언어 중심, 문화 중심, 성경 중심, 한국어 중심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그 결과 ‘성경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어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 ‘성경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각 유형별로 교육의 목표, 교수자, 평가 내용 등을 설계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번역서인 성경 텍스트상의 문화와 학습자의 언어 상황 맥락인 한국문화라는 교육의 이중적 내용 구조

를 교수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사전에 초점화 단계를 거쳐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설계의 사전 개념화는 학문목적이나 직업목적과 같은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즉 ‘언어’뿐 아니라 ‘내용’도 중시, 이를 유의미하게 교수해야 하는 한국어교육의 특수 상황들에 하나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고는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위한 다음의 제안들을 하였다. 양 문화의 이원화와 통합화,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 복수의 자료화, 마지막으로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활용이 그것이다.

본고는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라는 통합적 측면을 전체적인 구도에서 살폈다. 한국어교육은 대상자의 필요나 학습목적, 국내·외의 지역과 문화 차이, 교육하는 기관의 입장 등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들이 훨씬 많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실로 다양한 상황들을 한 테두리에 넣어 이론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관련 연구와 수업을 위한 전체적인 큰 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모든 세부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한 어려움이 있다. 이후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이러한 문화 통합적 방법론이 각 지역에 적합하고 각 상황에 최적화된 형태로, 세부적이고 치열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성경 한국어수업은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창출되는 여러 수업 유형의 하나이지만 선교목적 수업이라면 어느 정도 성경의 교재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성경을 더 중요한 교재로 수업해야 할 이유는 더 많아진다. 성경 번역서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문화의 복잡성, 성경 연구의 전통 등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교수가 난해한 분야이다. 이에 본고가 제안한 수업안과 방법들은 이후에 선교를 비롯한 특수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유의미하게 고려할만한 하나의 예시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실제적인 효과와 개선점 역시 추후 연구로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곽경숙 (2019). 선교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광신논단, 29, 203-223.
- [Kwack, K. S. (2019). Research of Korean Education utilizing Bible Storytelling in Korean Education for Mission Purposes. The Journal of KwangShin University, 29, 203-223.]
- 김동선·김영주 (2010). 선교지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21(1), 29-60.
- [Kim, D. S. & Kim, Y. J. (2019). The status quo and the issue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the missionary objectiv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1(1), 29-60.]
- 김수정 (2009). 한국어 교육에서 확장형 읽기 활동을 통한 독해력과 어휘력 증진 효과-신문기사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129-156.
- [Kim, S. J. (2009). The effect of reading ability and vocabulary ability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newspape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34, 129-156.]
- 김영래 (2017).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91, 159-186.
- [Kim, Y. R. (2017). Storytelling and Christian Education: A Study of Bible Education through Storytelling. Theology and The Word, 91, 159-186.]
- 김영주·최승희 (2003).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1,2. 서울: 하우.
- [Kim, Y. J. & Choi, S. H. (2003). Korean Learning through Bible Storytelling 1,2. Seoul: Hawoo.]
- 김윤경 역 (2000). 외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한국문화사.
- [Kim, Y. K. (2000).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oul: Korea Culture Company. Trans.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boken, New Jersey: Prentice_Hall.]
- 김재욱·김지형·김현진·박동호·허용 (2010). 한국어 교수법. 경기: 형설출판사.
- [Kim, J. W., Kim, J. H., Kim, H. J., Park, D. H. & Hou, Y. (2010). Korean Teaching Methods. Gyeonggi: Hyungseul Publishing Institute.]
- 김정숙 (2012).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및 연계학문적 특성 연구. 한국어교육, 23(2), 39-59.
- [Kim, J. S. (2012). A Research on the Identity of Korean Education and it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s a Multidisciplinary Study.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3(2), 39-59]
- 김혜영 (2015).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수의 연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463-476.

- [Kim, H. Y. (2015). "Connections" for developing cultural content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463-476.]
- 민현식·최용기·김인규·강혜옥·홍애란·신필여·신현단 (2010). 함께 배우는 한국어 3.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 [Min, H. S., Choi, Y. G., Kim, I. G., Kang, H. O., Hong, A. R., Sin, P. Y. & Sin, H. D. (2010). Korean Learning Together 3. Seoul: KWMA.]
- 류수열·한창훈·정소연·김정우·임경순·한귀은·서유경·조하연·이민희·최지현·김혜영·오지혜·황혜진 (2014). 문학교육개론2. 서울: 역락.
- [Ryu, S. Y., Han, C. H., Jung, S. Y., Kim, J. W., Lim, K. S., Han, G. E., Seo, Y. K., Cho, H. Y., Lee, M. H., Choi, J. H., Kim, H. Y., O, J. H. & Hwang, H. J. (2014). Literature Education Introduction 2. Seoul: Youkrack.]
- 박미경 (2011).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서울: 박이정.
- [Park, M. K. (2011). Korean Language through Bible. Seoul: Pjbook.]
- 백은미 (2009).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스토리텔링 교육방법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 399-421.
- [Paick, E. M. (2009). Storytelling as an Educational Method in Christian Community.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65. 399-421.]
- 서울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8).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2. 경기: 아카넷.
-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2018).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Education 2, Gyeonggi: Acanet.]
- 안병근 (2014).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Ahn, B. G. (2014).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the Ways of Improvement of Teaching Korean for Missionary Purpose. Masters Dissertation. Gangwon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안희은 (2020). 한국어교육을 통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11(2), 2163-2177.
- [Ahn, H. E.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 Missions Through Korean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2163-2177.]
- 양금희 (2018). 성경 속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하기 방법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50(2), 329-357.
- [Yang, G. H. (2018). Study on Bible Storytelling through Storytelling in the Bible.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2), 329-357.]
- 이란 (2019).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는 신나는 문학수업. 서울: 그리심.
- [Lee, R. (2019). Exciting Literature Classes with Christian Worldview, Seoul: Grisim Publishing

- Company.]
- 이란 (2018a). 선교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166-177.
- [Lee, R. (2018a). An Exploratory Study on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for Mission Purpos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166-177.]
- 이란 (2018b). 기독교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성경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183-193.
- [Lee, R. (2018b). Application Plan of Bible Storytelling in Writing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0), 183-193.]
- 이란 (2020). 한국어 문화교육과 표현활동의 통합적 다양화 방안-〈세종한국문화〉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681-692.
- [Lee, R. (2020). The Ways for the Integrated Diversit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with Korean Expression Activiti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Textbook 〈Sejong Korean Cultu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681-692.]
- 이란 (2021a).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685-695.
- [Lee, R. (2021a). The Scope and Patter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s - Focusing on the Patterns of Learne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issionary Purpo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3), 685-695.]
- 이란 (2021b). 예비교사들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427-439.
- [Lee, R. (2021b). Research of Student-teachers' Recognition on Korean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s - Focusing on Korean Education for Mission Purposes with Bibl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7), 427-439.]
- 이미혜 (2004).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1), 143-163.
- [Lee, M. H. (2004). Teaching Korean through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A teaching plan that considers integrating aspect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culture educ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1), 143-163.]
- 이승연·김유진·김부옥 (2013). 한국어교사 교육의 다양화 방안 연구: 선교목적 한국어교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4, 189-216.
- [Lee, S. Y., Kim, Y. J. & Kim, B. O. (2013). A Study of Diversifying Teaching Methods in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 a Curriculum for Missionary Korean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24, 189-216.]

- 임경순 (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론. 서울: 역락.
- [Lim, K. S. (2019).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eoul: Youkrack.]
- 정혜원 (2020). 선교목적 한국어 교재개발과 이주민선교의 적용:『세계관 한글공부』의 외국인유학생 전도 활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57, 262-290.
- [Jing, H. W. (2020).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for Mission Purpose and Application for Migrant Mission: Focusing on Application of Evangelism for Foreign Students through 『Learning Korean with Worldviews』, Theology of Mission, 57, 262-290.]
- 최권진 (2008).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 한국어교육, 19(1), 1-22.
- [Choi, G. J. (2008). A Research on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Language by Using the Learner's Mother Tongu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9(1), 1-22.]
- 한상미 (1999).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교육방안-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교육, 10(2), 347-366.
- [Han, S. M. (1999). The Methodological Application of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in TKFL: Teaching Models for an Integrated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2), 347-366.]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i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 Richards, J. C. & Rodgers, T. S.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bble, C. (2012). Wri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hoozer, K. (1998).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한국어교육의 문화 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towards Integration of Korean Education with Cultures: Focusing on Korean Education for Missionary Purposes

이 란 (송실사이버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 스토리텔링 한국어교육 수업모형을 제안하고 문화교육 통합에 관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교목적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유형 중 성경을 교재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수업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경 리더러시 향상을 동시 목표로 하는 성경 한국어교육은 일반목적 한국어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다. 이에 성경 스토리텔링 기독교 교육 단계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여 ‘청취와 관찰’, ‘탐구와 묵상’, ‘적용과 실천’, ‘공동체 나눔’이라는 4단계로 구조화하였다. 각 단계는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업하게 한다. 또한 문화교육과의 통합에 있어서도 번역서라는 특징으로 인해 문화의 복합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의미 이해’ 단계에서는 성경문화를, ‘의의 및 적용’ 단계에서는 한국문화를 수업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통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나아가, 수업에서 문화교육을 통합할 때의 네 가지 기준을 ‘언어’ ‘문화’ ‘한국어’ ‘성경’으로 정하고 그 수업의 초점화에 따라 ‘성경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어언어중심 문화통합교육’, ‘한국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 ‘성경문화중심 언어통합교육’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교육의 목표, 교사, 평가 내용,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국어 문화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해와 적용: 문화 간 이원화와 통합화, 학습자 모국어의 활용, 복수 자료의 사용,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선교목적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통합, 성경 스토리텔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삶과 종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종교교과의 목적을 중심으로*

**A Critique of the Subject, ‘Life and Religion’ in 2022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n Aims of Religious Education**

정문선 (Moon-Sun, Jung)**

ABSTRACT

<2022 National Curriculum> includes the “Life and Religion” as a high school optional liberal arts. It is a subject that understands the content and meaning of religion that affects human life in multiple dimensions and learns about human and religious culture, wisdom of life that can be learned from religion, and publ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igion. This subject aims to cultivate the knowledge, values, attitudes, and the ability to practice necessary to live in a global civil society that emphasizes living together, an advanced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and a sustainable global ecological community. This is similar to Richard Mouw's suggestion of ‘convicted civility’. It means a polite attitude of respect for each other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religions, beliefs, and values in civil society. The overall purposes of religious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should be aimed at ‘convicted civility’ rather than secular humanism. Religious education should not just be about superficial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or worldviews and cultural diversity. It should actively help students face the existential problems they face in education, and move forward to true self-understanding and inclusiveness for the common good through open dialogue based on mutual respect with others. Religious education should ensure that students have a serious and open inquiry attitude toward truth and aim for reflective understanding.

Key words: 2022 National Curriculum, pluralism,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al aims, convicted civility

* 2023년 2월 13일 접수, 2월 27일 게재확정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강사.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onsun@skku.edu

I.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 관련 교과는 「삶과 종교」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삶과 종교」교과의 개요를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종교에 관한 이해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며, 종교와 관련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상의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과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시민, 즉 종교적으로 성찰하고, 종교적 지혜를 발견하며, 공동선(共同善)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시민이 되는 데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논의에는 초월에 참여하는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는 성육신, 죽음, 부활이라는 고유의 언어로 인간성장과 발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교육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발전하는가’라는 교수방법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이 위대한 여정, 즉 자아나 영혼의 여정을 방해하는가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교육은 인간 삶의 여정에 참여하고 돌보는(caring) 방식이기도 하다. 오늘날 교육자와 학생들은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사회 및 문화 시스템에 의해 눈이 멀어 항상 열려 있는 미래에 대한 초월적 참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Huebner, 1991: 312-313). 교육을 좁은 의미의 학습으로 환원하는 것은 삶의 변화나 여정을 너무 성급하게 설명하고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 동안 종교교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 공교육에서의 종교교과 교육의 정당화 문제, 종교교과 교육과정 분석 등을 다루었다. 김재영(2007)은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는 믿음의 전수로서의 좁은 의미의 종교교육과 계몽주의적 편견, 즉 믿음을 사적 신념으로서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해 공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제3의 종교교육’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그는 종교교육이 종교학계만의 논의에서 벗어나, 일반 교육학자들과 함께 공론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류성민(2013)은 종교다원사회에서 종교교육이 지닌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시험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교교육의 실제적 실현방안을 논의하였다. 고병철(2013)은 한국 공립학교에서 종교교과 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그것은 교육학과 종교학의 통합인 ‘종교교육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철(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교육목적을 분석하고, ‘상호종교교육(간종교교육)’을 새로운 종교교육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학교종교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온 종교학적 종

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선희(2016)는 우리나라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 유형이 병행구조를 띠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교교과교육 모델로 '기독교교육적 학교종교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종교교과 교육과 관련된 최신 논의로는 고병철(2022)과 김귀성(2022)이 있다. 고병철은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채택을 배제하는 제도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 실제에서 가능한 종교교육 형태로 '학습자 중심의 성찰적 종교교육'을 제안한다. 그는 학교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므로, 특정 세계관을 넘어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 주체적인 사유와 실천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성찰적 종교교육', 즉 다양한 종교 현상에 대해 주체적 사유와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며(고병철, 2022: 30), 이러한 형태의 종교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김귀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김귀성, 2022: 63-83). 첫째,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종교는 종교교육을 위한 구성원 간(학생, 교사, 종단, 학부모, 정부 등) 협업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종교교육의 주요한 매개체는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였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체제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 환경, 조화와 협력 등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종교교육이 종교단체의 주도하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적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본다. 이에 종교를 위한 종교보다는 인간을 위한 종교로의 거듭남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종교교육은 보다 교육적이어야 한다. 끝으로 종교교육이 한국종교,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상이 되려면 종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동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 출구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된 「삶과 종교」가 그 개설 취지에 맞는지, 특히 그것의 교육목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특성을 검토하고,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된 「삶과 종교」교과의 교육목적을 '신념있는 교양'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셋째 현재 우리나라 종교교육에 적합한 종교교과의 목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과: 「삶과 종교」

「삶과 종교」교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삶과 종교」는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과정 중 선택교과로 분류되어 있다. 「삶과 종교」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내용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세계시민 사회,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 기술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양 교과이다. 「삶과 종교」교과의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비추어, 학습자 삶의 관련성, 학습자 주도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할 때 시대적 상황과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연관되는 주제로 구성하고, 학습자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삶과 종교」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종교와 유사 종교를 비교하여 구별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며, 그 결과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삶과 종교」교과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삶과 종교」라는 종교교과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국·공·사립 고등학교에 널리 채택되느냐는 요원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한 편견이다.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한 편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행동과학적 교육관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교육을 '믿음의 전수로서의 신앙교육'(호교론적 종교교육/신앙의 전수로서의 종교교육, religious instruction: RI)으로만 보는 관점이다.¹⁾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심리학과 행동과학(the behavioral sciences)은 교육의 과학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교육의 또 다른 측면, 즉 초월적 차원이나 종교적 차원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 교육에서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교육을 '학습(learning)'으로 치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세계관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한 존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고 새로운 능력이나 역량을 계발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이렇게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인간 존재와 삶 그리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은폐시킨다. 우리는 거의 무한한 세계에 살고

1) 다윈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 즉 '종교수업으로서의 종교교육/믿음의 전수로서의 종교교육(religious instruction: RI)'이나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religious study: RS)'이 아니라,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RE)'이어야 한다는 논의는 정문선·유재봉(204: 117-124)을 참조할 것.

있으며,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이다. 나아가 인간의 삶이란 움직임, 변화 또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잊도록 한다(Huebner, 1991/2004: 313).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관과 교육실제는 교육 현상 이면에 놓인 부분은 보지 못하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만 주로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종교교육을 'RI'로 보는 관점은 종립계 학교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 교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오히려 이 관점은 종교를 하나의 사적 신념(private belief)으로 이해하며,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편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종교교과 개설과 확대에 소극적인 교육부의 태도에 전제되어 있다(고병철, 2022: 26-28).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및 종교·정치의 분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차별 금지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공립학교에서의 호교론적 교육 금지 등의 법규,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판례, '종교학'을 필수 교과가 아닌 선택 '교양 교과' 영역에 편성한 교육정책, 종립학교 외에 국·공·사립학교에 종교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부재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에 신앙교육을 허용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교육과정까지 종교교과 내용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제6차),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제7차),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2007년)이 포함되었으나, 교육 실재에서 종교교육은 대체로 'RI'나 '영성교육'의 형태에 그쳤다.

종교교과가 실제로 채택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법적 한계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에만 부가된 복수 교과 개설 조항은 실제 국·공·사립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병철, 2022: 24). 이 조항은 다른 교양교과에는 없고, 종교교과 개설 시에만 부가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학교들은 종교 교과를 개설하는 데 있어 재정 및 교사수급 등 실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국·공·사립학교들은 종교교과를 개설하는데 소극적이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삶과 종교」의 교육목표는 종교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이해·분석하며 성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94).

- (1)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한다.
- (2)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3)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4)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삶의 문제에 대해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융합적 접근의 탐구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종교로부터 익힌 통찰과 지혜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성적 차원을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와 인간 삶의 연관성, 다른 종교에 대한 상호존중,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다하는 종교와 책임 있는 종교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치로운 삶, 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22: 91). 이것들은 삶과 종교에 관한 인지적 내용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인간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는 ‘인간과 종교’, 세계와 한국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에 관해 탐구하는 ‘다양한 종교’, 일상과 인생의 주요 상황 그리고 탁월한 예술 작품에 남겨진 ‘종교 문화유산’, 종교적 지혜로부터 추출한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라는 영역을 내용으로 구성된다(교육부, 2022: 92).

「삶과 종교」의 교육내용에는 인지적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과에서는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 즉 상호존중과 포용, 인간과 자연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가치 등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2022: 93).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과 연결된다. 즉, 학습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과 생활의 주제들을 학습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룸으로써 종교적 차원에서 삶과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선이 되는 종교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과 활동의 과정에서는 학습자 자신과 공동체의 삶과 연관하여 성찰하고 나아가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해줄 공동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경험하며 학습할 것을 강조한다. 그 결과 종교 전통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의지 그리고 실천력을 기르고, 나아가 종교적 지식과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교육부는 이 교과를 통해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성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육부, 2022: 93).

「삶과 종교」의 교육내용에는 종교에 대한 인지적 지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체성'이 포함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행복과 고통은 무엇이며,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죽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과 이웃 또는 타자를 알아 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교육부, 2022: 93, 97).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이다. 다양한 종교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들과 그 질문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질문은 인류 역사상 오랜 기간 지속된 빅 퀘스천(Big Questions)이자 궁극적 질문들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고민과 질문들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찰하고 해석할 때 자신의 삶과 생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삶의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삶과 종교」 교과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할 사항과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있다. 「삶과 종교」 교과의 교수·학습 방향은 종교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며, 과정 중심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종교가 인간과 사회에 주는 풍성함을 학습자들이 체험하기를 기대한다(교육부, 2022: 91-104). 「삶과 종교」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는 본 논문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큰 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II. 종교교과의 교육목적 논의

오늘날 우리는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 문화, 가치관, 종교들이 서로 교차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거대담론이 사라지면서, 가치관, 세계관/종교 급속도로 파편화되었다. 이것은 곧 '선과 옳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과 옳음'이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지역과 인종, 문화에 따라 달라

진다는 신념이 널리 퍼져있다. 그것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면 ‘억압’ 내지 ‘파시즘’으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그것에 전제된 상대주의에는 ‘선과 옳음’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차이에 대해 사적인 선택으로 말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동일한 사실, 문제에 대해 전혀 상반된 해석과 태도가 공존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삶을 충실하게 살고자 할 때 제기되는 실존적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삶과 종교」의 교육목표는 종교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것이다. 명시된 「삶과 종교」의 교육목표를 보면, 나와 다른 종교전통을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절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념 있는 교양’에 비추어 「삶과 종교」교과의 교육목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신념있는 교양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에는 ‘*civita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civil*’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그 뜻은 ‘예의바른’이란 뜻이다. 그는 인간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시민교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예를 들어, 도토리만 그 가지가 자라고 잎이 피기까지는 타고난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는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공적인 영역에서 처신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 기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천착했다. 무엇이든 좋다는 태도는 사실 다원주의가 아니라 혼합주의 내지 아무런 초점 없는 무의미한 나열일 뿐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도시에서 직면하는 위기는 “시민교양과 진리라는 우리의 기준을 저버리는 위험한 현상 때문”(Lukas, 1990: 11)이며,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는 것”(Marty, 1989: 81)이라고 지적한다. 마우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념있는 교양(convicted civility)’을 제안한다. 이것은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강력한 정열을 결합하는 것이다.

마우는 친절하고 온유한 정신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강한 신념을 지킬 수 있으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첨언한다. 신념을 수반한 교양은 저절

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애써야 하는 이유는 양자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념있는 교양'을 갖추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한 시민교양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적 신념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념있는 교양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것은 타인과의 열린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경계선이 전혀 없는 열린 만남은 아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교리와 그것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존재한다. 이것은 배타주의가 아니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갖게 되는 논리적 불일치로 인한 배타성이다.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는 진정한 불일치가 엄연히 존재하며, 여러 종교적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국 실재(實在)와 선(善)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진리 주장에 헌신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열린 만남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배타적 차이는 상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이에 직면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이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신의 자비가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온유함과 존경을 베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마우는 두 가지 다원주의의 형태, 즉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들과 가치체계의 다원성 및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한다.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과 가치체계들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철학과 이념, 종교들이 공존한다. 불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급진적 페미니즘, 해체주의, 뉴에이지, 자유주의,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등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체계들은 실재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중심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명백한 차이들 앞에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Mouw, 홍병룡 역, 2014: 106-110). 또한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도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과 가치체계들에 대해 그 차이를 인식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본질적인 차이에 무관심하거나 탐구하지 않는 것은 타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며, 실재와 선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마우가 제안하는 확고한 신념과 시민정신을 두루 갖춘 사람을 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념있는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의 독특성을 인식하고, 타 종교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다종교 내지 다신념의 사회적 실재에 참여하는 '경험'이 보다 효과적이다. 맥코넬(Douglas McConnell)은 풀러 신학교에서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통합적 접

근 수업인 <복음주의자들과 종교간 대화(Evangelicals and Interfaith Dialogue)>에서 다양한 종교의 예배 현장 체험학습, 종교지도자들과의 교류, 교실 안팎에서 공적대화에 참여하는 것, 사례연구 학습, 소그룹 학습, 특정 핵심 신념 연구(researching specific core beliefs)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은 사례연구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McConnell, 2013: 332-333). 그는 다종교 내지 다신념 사회에서 신념있는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필수 교과를 마련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맥락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종교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역 사회 실재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도 종교에 대해 탐구하도록 돕는다.

둘째, 신념있는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타종교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맥코넬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복음주의자인 자신도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논박하려는 논쟁적 목표를 가진 편향적 태도를 취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신념이 의미 있으며 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McConnell, 2013: 331-332). 타종교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종교인을 날카로운 변증을 통해 설복시켜야 하는 이교도(異教徒)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신념있는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청의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타종교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맥코넬은 타종교인들과 실제로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신학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깊으면서도 새로운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실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타종교인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McConnell, 2013: 331-332). 우리는 논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신념있는 교양은 한편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도’와 관련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교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전자를 위해서는 일종의 복음전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선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럴듯한 말로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삶이 참으로 매력적인 생활방식임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촉구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할만한 인격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Mouw, 홍병룡 역, 2014: 22-23).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 우리는 신념을 가지면서도 교양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별된 삶을 보여 줄 수 있다.

2. 종교교과의 교육목적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신념있는 교양'에 비추어 「삶과 종교」의 교과의 교육목적에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의 종교교육 목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종교교육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국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어 그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Church of England)가 국교인 나라이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세속화되었으며,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게 된 다원사회라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유재봉, 2013: 201). 물론 우리나라에는 정해진 국교는 없지만 세속화와 다원화로 인한 다양한 가치관의 존재와 갈등은 유사하다.

<스완 보고서(*Education for All: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Education of Children from Ethnic Minority Groups*)>에 의하면, 영국 종교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인종 국가에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Swann, 1985: 469). 또한 사회 내 다양성의 필요성을 반성적(反省的)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인종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계몽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종교교육을 통해,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배움으로써 지식과 통찰력의 발달에 도움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신념 체계를 이해하고 명료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Broadbent, 2002: 20-26).

오랫동안 영국의 교육, 특히 교육목적에 천착해 온 존 화이트(John White)는 세속적인 영국사회에서 종교교육도 세속사회에 맞는 교육이어야 하며, 도덕교육의 한 분야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콰이트(Andrew Wright)도 종교교육이 도덕교육의 한 분야(a branch of moral education)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곧 화이트가 깊게 다루지 않은 부분, 즉 의무(필수) 종교교육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종교의 타당성 문제는 단순히 공적 의견(public opinion)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부연하면, 종교의 타당성 문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public consensus)로 결정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종교 전통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를 물어야 하며, 이것은 곧 존재 질서(order-of-things)에 의미심장(meaningfully)하고 정직하게(truthfully)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Wright, 2004: 167).

실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모종의 존재론적 기초 즉, 우리의 설명들이 중지되는 질문들, 즉 ‘존재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발견하도록 한다. 우리는 심각한 다원주의 사회, 즉 궁극적인 실재의 기초에 관한 공통된 합의점이 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어떤 세계관 내지 가치관들은 자연세계에 관한 공공연한 사실들 혹은 인간 조건에 관한 몇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다른 세계관들은 초월적 종교적 실재로 판명된다. 여기에는 삶에 관한 세속적인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관점은 우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세계적인 종교 전통들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힘, 존재, 혹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의미 있는 존재의 원천 등에 관심을 갖는다. 세계의 종교들은 이 궁극적인 실재의 본질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설명들을 제공한다. 존 히크(John Hick)은 궁극적인 실재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신적 페르조나’(divine personae)와 ‘형이상학적 페르조나’(metaphysical personae)로 구분한다. 신적 페르조나에는 야훼(Yahweh),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알라(Allāh), 비쉬누(Vishnu) 혹은 쉬바(Shiva)가 해당된다. 형이상학적 페르조나에는 브라만(Brahman), 도(道, Tao), 다르마카야(Dharmakāya, 法身) 혹은 순야타(Śūnyatā, 空)가 해당된다(Hick, 1989: 14; Wright, 2004: 168).

요컨대, 종교의 타당성 문제는 ‘이유(reason)’와 관련되는 문제이지, ‘합의(consensus)’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종교교육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종교적 다양성과 세속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론적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관의 풍성한 다양성은 두 가지 수준에서 세속주의자와 종교적 신자들 모두에게 깊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첫째 수준에서, 우리는 문화적·존재론적 다원주의가 뿌리 깊이 박힌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준은 우리가 채택한 세계관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화이트의 세속적 세계관이 맞다면, 이슬람교인들은 헛된 신념 체계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는 샤하다(Shahada)가 맞다면, 화이트의 교육관이 전제하고 있는 세속적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위치는 진리(the truth)에 관한 질문들, 실제에 관한 설명과 불가분의 관계이다(Wright, 2004: 169).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삶과 종교」교과의 교육목표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히는 것이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종교'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종교로 이해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다룰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의 종교'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 간 차이와 상호존중의 태도의 의미도 자유주의적·공리주의적 합의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폴레랑스'를 지향하기보다는 마우가 제안했던 '신념있는 교양'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삶과 종교」의 네 번째 교육목표, 즉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은 마우의 신념있는 교양 아이디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삶과 종교」교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종교교육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보편적 거대 담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주의적이고 개인적인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부족 공동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진리이지, 인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인간과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드러내 주는 것은 파편화 되지 않은 삶과 그것에의 헌신에서 얻어지는 삶과 삶의 일치에 기여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배제시키는 것이나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교육에서 타세계관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각각 다른 한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사고의 불균형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종교교육을 세계관 교육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과 삶을 가능하도록 하며, 삶과 삶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에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RE)에서 '세계관(worldview)' 개념은 일반적으로 삶(life), 세계(world), 인간성(humanity)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을 위한 비법정 국가 프레임워크(The Non-Statutory National Framework for Religious Education)>(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4), <영국의 학교종교교육: 비법정 지침(Non-Statutory Guidance, 2010)>은 둘 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종교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s)도 2010년 미국 K-12 공립학교의 종교에 대한 교육 지침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Jacomin C. Van Der Kooij et al., 2017: 172). 그들은 종교라는 용어보다 삶에 대해 더 개인적이고 포괄적이며 세속적인 관점에 대한 해석을 언급하기 위해 '세계관'을 사용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

독교 외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전통적인 제도적 종교 관습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종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세계관’으로서의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프리드리히 슈바이처(Friedrich Schweizer)는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에서 어린이들의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교육목적은 다원성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원성에 대한 능력의 토대는 관용, 상호존중, 타자의 인정이다. 이 능력은 진지한 성찰로 다원적 상황과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차이를 가버리거나 상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주의자처럼 자기의 입장만 옳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다(Schweizer, 고원석·손성현 역, 2013: 192-193). 다양한 신념 간의 차이를 그냥 무시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념의 차이로 인해 공격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곧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Schweizer, 고원석·손성현 역, 2013: 197-198). 다양한 세계관/종교와의 만남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진리에 관한 물음, 즉 내가 확실히 믿는 진리와 타자의 진리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종교 간 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적 진리의 차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신앙에의 확신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상황에서 진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어린이의 동행이 되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헌신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기독교가 지향하는 교육목적이기도하다.

슈바이처의 논증은 특별히 어린이의 종교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의 논의는 어린이 외의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젊은이들은 종교적 신앙공동체의 실천적 구성원 이든 아니든,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세계를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 즉 특정한 생활양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신들만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Grimmitt, 1987: 141). 종교교과의 목적인 성숙한 인간과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이중적 목적은 결코 다를 수 없으며,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광철, 2016: 143-144).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나아가 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목적이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목적은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흔히 강조하는 ‘тол레랑스(tolerance)’라기보다는 마우가 제안하는 ‘신념있는 교양’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тол레랑스는 사상, 피부색, 문화, 성정이 다를 때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신자세이다. 이것은 사실 무차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속적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 이후의 тол레랑스는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고 용인하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진리를 구성하는 원리로까지 확장되었다. 진리를 구성한다는 관점은 보

편타당한 진리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세속적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푼레랑스는 다원주의 사회의 종교교육의 목적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푼레랑스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반하는 앵푼레랑스가 존재할 때, 그것을 반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푼레랑스가 '진리가 구성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면, 앵푼레랑스를 용인할 수 없음을 반박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컨대, 푼레랑스는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생명 존중, 자유, 평등 등에 헌신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푼레랑스 주장 속에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종교교육의 목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푼레랑스를 제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극단적 상대주의적 푼레랑스가 아니라 모종의 공통된 인류 보편가치의 존재를 상정하는 중심있는 푼레랑스여야 한다. 이것은 곧 신념있는 교양, 즉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도, 타인의 차이와 다원성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IV. 결론

오늘날 우리는 '통약불가능(incommensurable)'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 즉 다양한 인종, 문화, 가치관, 종교들이 서로 교차하는 다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각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종교 등은 급속도로 파편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선과 옳음'이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지역과 인종,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념이 널리 퍼져있다. 동일한 사실, 문제에 대해 전혀 상반된 해석과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삶의 존재론적 문제, 즉 '세계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리적 불일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수용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다원주의에 전제되어 있는 다원성은 극단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불일치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큰 문제없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성찰'하지 않거나, 헌신할 만한 신념을 탐구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 즉 빅 퀘스천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우리는 만연한 논리적 불일치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다원주의와 그것에 전제된 상대주의에는 '선과

옳음'이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그 무엇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한계를 가진 이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제한된 이성 안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의와 탐구가 가능하다. 종교는 초월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 종교를 검토하지 못한 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휴브너는 과학적 세계관에 가리워진 교육에 영적 차원 내지 종교적 차원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그는 인간이 세계에 '충실하게(faithfully)'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한 교육은 어떠한지 탐구했다. 그는 기독교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패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의 종교 전통이고 다른 전통보다 그 특징과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Huebner, 1991: 311-312).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삶의 초월적 차원을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전통 내지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도 시도하고 추구해야 하는 삶이다. 아울러 타자의 초대를 통해 이어지는 상호간의 열린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상호이해와 공감의 증진은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차이와 신념, 종교/세계관에 대해 사적인 선택으로 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다름을 차별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에 존재하는 실존적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건전하고 통합된 삶의 태도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질문들은 피하거나 넘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종교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목적은 이러한 삶의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통합된 사고를 하는 헌신된 신념있는 교양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신념있는 교양을 갖추는 것은 시민 교양과 열정을 산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민교양 수준을 넘어 기독교적 신념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종교교과의 중요한 교육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적 다원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다원성의 능력의 토대는 관용, 상호존중, 타자의 인정이다. 이 능력은 진지한 성찰로 다원적 상황과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신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도, 타자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념있는 시민교양'과 유사하다. 다양한 세계관 혹은 종교와의 만남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진리에 관한 물음, 내가 확실히 믿는 진리와 타자의 진리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신앙에의 확신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상황에서 진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의 동행이 되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타자와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하

는 교육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목적은 세속적 인본주의적 똬레랑스라기보다는 마우가 제안하는 '신념있는 교양'을 지향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 내지 세계관 들 사이의 표층적인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실존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도록 돕고, 타자와의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열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공동선을 위한 포용성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린 탐구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성찰적 이해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병철 (2022). 국·공·사립중등학교를 위한 종교교육, 그 문제와 방향. **기독교사상**, 767, 23-33.
- [Ko, B. C. (2022). Religious education for state·public·private schools, its problem and direction. *The Christian Thoughts*, 767, 23-33.]
- 고병철 (2021). 종교학교과서의 자리와 제작관리. **종교교육학연구**, 66, 15-30.
- [Ko, B. C. (2021). The plac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15-30.]
- 고병철 (2013). 한국 공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쟁점. **종교문화연구**, 20, 35-70.
- [Ko, B. C. (2013). Issues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35-70.]
- 고영준 (2021). 헤겔의 관점에서 본 학교의 의미와 필요성. **교육철학연구**, 43(4), 25-54.
- [Ko, Y. J. (2021).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school in Hegel's view.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4), 25-54.]
- 고원석·손성현 역 (2013).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 Schweizer, F. (2011). *Kindertheoloie und Elimentarisierung: Wei religiöses Lernen mit Kindern gelingen kan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oh, W. S. & Son, S. H. (2013). *The World of Faith to Learn with Children*. Seoul: Daehangidogggyoseohoe. Trans. Schweizer, F. (2011). *Kindertheoloie und Elimentarisierung: Wei religiöses Lernen mit Kindern gelingen kann*. München: der Verlagsgruppe Random House GmbH.]
- 교육부 (2022).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별책 191.]
- [Ministry of Education (2022).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Subjects of Secondary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22-33[Separate Book 191.]
- 김광철 (2016). 다 종교사회에서 학교종교교육의 목적설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52, 127-150.
- [Kim, K. C. (2016). Establishing purpose of religious studies in multi-religious society and stud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52, 127-150.]
- 김귀성 (2022). 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종교 - 그 과제와 전망 -. **종교연구**, 82(1), 63-83.
- [Kim, G. S. (2022). Future tasks and prospects for Korean religion in the post Covid 19 era,

- focused on the viewpoint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82(1), 63-83.]
- 김귀성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학” 교과교육의 쟁점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51(0), 31-51.
- [Kim, G. S. (2016). Issue and task on subject matter education of “religion” in the revise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of Korea in 2015.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0), 31-51.]
- 김귀성 (2005).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 5-29.
- [Kim, G. S. (2005). Articles: conceptual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Korean schoo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5-29.]
- 김재영 (2007).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46, 77-133.
- [Kim, C. Y. (2007). The birth of religious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Studies in Religion*, 46(0), 77-133.]
- 류삼준·손원영 (2016).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1, 79-102.
- [Ryu, S. J. & Sohn, W. Y. (2015). Revised study of religion curriculum and christi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79-102.]
- 류성민 (2013).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문화연구**, (20), 1-34.
- [Ryu, S. M. (2013).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1-34.]
- 손성현 역 (2008). **어린이와 나누는 종교적 대화: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Schweizer, F. (2000).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 서울: 산티.
- [Son, S. H. (2008). *Religious Conversations with Children: Five Big Questions from Children*. Seoul: Shantibooks. Trans. Schweizer, F. (2000).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 Gütersloh: 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 유선희 (2016).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논의. **선교와 신학**, 40, 389-419.
- [Yoo, S. H. (2016). Discussion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from a christian-education perspective: focused on religion curriculum in Korean schools. *Mission and Theology*, 40, 389-419.]
- 유재봉 (2013). 영국의 종교교육: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31(2), 199-219.
- [Yoo, J. B. (2013). Religious education in England: some possibilities for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2), 199-219.]
- 정문선·유재봉 (2014).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탐색. **신앙과 학문**,

- 19(3), 107-129.
- [Jung, M. S. & Yoo, J. B. (2014). Religious education in a pluralist society: some possibilities for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Shinang-gwa-hakmun*, 19(3), 107-129.]
- 정세근 (2022). 인문정신문화와 도덕 교과와 복원. *동서철학연구*, 106, 333-354.
- [Jeong, S. G. (2022). Korean human spiritual culture and the restoration of moral course.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106(0), 333-354.]
- 홍병룡 역 (2014). *무례한 기독교*. Mouw, R. (2010). *Uncommon Decency*. 서울: IVP.
- [Hong, B. R. (2014). A Rude Christianity. Seoul: IVP. Trans. Mouw, R. (2010). *Uncommon Decency*. Downers Grove: IVP Books.]
- Cox, E. (1983). *Problems and Possibilities for Religious Educat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Swann, M. (1985). *Education for All: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Education of Children from Ethnic Minority Groups*, London: HMSO. Cmnd. 9453
- Grimmitt, M. (1987). *Religiou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ing Religious and Personal, Social and Moral Education*. Great Wakering: McGrimmon Publishing.
- Hick, J. (1989). *An Interpretation of Religion: Human Responses to the Transcenden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uebner, D. (1991). Education and spirituality in Shapiro, H. S. & Purpel, D. E. (Ed.) (2004). *Critical Social Issues in American Education: Democracy and Meaning in a Globalizing World*(pp. 309-323). New York: Routledge.
- Jacomin C. Van Der Kooij, D. J. de Ruyter & S. Miedema. (2016). The merits of using “worldview”. *Religious Education*, 112(2), 172-184.
- “Something’s Gone Terribly Wrong in New York”, The New York Times (1990.09.09.).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1990/09/09/books/something-s-gone-terribly-wrong-in-new-york.html>
- Marty, M. E. (1989). *Way of Response*. Nashville: Abingdon Press.
- McConnell, D. (2013), Educating seminarians for convicted civility in a multifaith world, *Teaching Theology & Religion*. 16(4), 329-337.
- Wright, A. (2004). *Religion, Education and Post-modernity*. London & New York: RoutledgeFalmer.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삶과 종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종교교육목적을 중심으로

A Critique of the Subject, 'Life and Religion' in 2022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n Aims of Religious Education

정 문 선 (성균관대학교)

초록논문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교양교과로 '삶과 종교'교과를 포함하고 있다. '삶과 종교'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내용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세계시민 사회,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 기술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리처드 마우가 제안한 '신념있는 교양'과 유사하다.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서로 종교와 신념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예의바른 태도를 의미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목적은 세속적 인본주의적 톨레랑스라기보다는 '신념있는 교양'을 지향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 내지 세계관들 사이의 표층적인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실존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도록 돕고, 타자와의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열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이해와 공동선을 위한 포용성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린 탐구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성찰적 이해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2022 교육과정, 다원주의, 종교교육, 교육목적, 신념있는 교양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권태경 (Tae Kyoung Kwon)**

ABSTRACT

The study of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western medieval and modern history. However, recent world history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o not treat the Reformation as an important event in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 and 'direction of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 of world history textbooks devaluing or misrepresenting the Reformation. To this end, the content and curricular changes of the Reformation in the textbooks will be reviewed. Then, the description of the Reformation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alternative suggestions.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i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medieval and modern ages in Europe. Objective description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s needed for the Reformation, aside from the influence of Christian studies. In summary, academic advice from scholars or experts of Reformation is needed on the presentation of the Reformation in the history textbooks.

Key words: reformation, world History, textbook, historical writings, curriculum.

* 2023년 2월 13일 접수, 2월 28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7361234@gmail.com

I. 서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따라 집필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부 개정안의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2023년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교육부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한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종교개혁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2022년 고시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는 종교개혁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계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 서술과 내용 체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유럽의 중세와 근대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다.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배우지 않고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으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사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함에 있어 먼저 4종 출판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본문에서 서술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념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과 한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고려하면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루터와 칼빈의 개혁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슬람과 같은 주제가 교육부 교육 개정에 비중있는 교육 체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이다. 역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 과정을 집필할 때 해당 교과서의 교과목에 부합한 교육 내용을 누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새로운 2022 개정 교육부 교육과정이

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의 편찬과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게 서술될 필요가 있다.

II. 교육과정 변천사와 세계사 교육과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쓰여지는데, 교과서의 역사서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출판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근거하므로,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교과서 분석에 필요한 일이다.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는 지난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가 중심의 공교육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1910년 한일 합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의 교육에 관여한 제1차-4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11-1943년)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자 한국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임시로 교수요목(1945-1954년)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4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포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1차 교육과정(1954-1963년)이다. 2차 교육과정(1963-1973년)은 교육에 경험을 강조하고, 제3차 교육과정(1973-1981년)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4차 교육과정(1981-1987년)과 5차 교육과정(1987-1992년)에 통합교과가 시작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년)중에 특이한 것은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된 사실이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 교육이 실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년)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6년)에 역사 교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2017년-현재)에 미래사회 핵심역량 도입과 창의·융합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최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예고한 바가 있다(교육부, 2022b: ‘사회과교육과정’; 최상훈, 2005: 207-211).

역사교과(국사, 세계사) 과목에 대한 시수를 보면 1차 교육과정에 사회과 교과로 국사(105시간)와 세계사(105시간)를 할당했다. 2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에 국사를 주당 6시수를 배정하고, 세계사는 주당 4-6시수를 배정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주당 4시수, 세계사에 주당 8시수를 배정하고, 여기에 한국 근현대사(8시수) 과목을 추가하였다. 2005년부터 역사 과목 강화안이 2007 개정에 반영되어 한국 근현대사 내용이 추가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안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영향을 준 것이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구분하고 주당 6시수를 배정하였다. 역사 과목의 필수와 선택과목

을 정하는 것에 특이한 것은 한국사 강화안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를 필수로 한국 근현대사를 심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2007 개정에도 공통 필수로 역사로 하고, 한국문화사는 선택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에는 다시 한국사를 선택으로 전환하다가, 2011 개정에서 다시 한국사를 필수로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삭제되었다. 한국사의 심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사 역사 교육의 소외를 가져왔다. 최근 교육과에서 한국사 과목을 정부의 정책과 교육 개정안에 따라 필수에서 선택으로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계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과목 한국사와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설정하였다(방지원, 2017: 76).

1945년 미군정 교육 과정안 이후 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이 초기 1945년 초기에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중단원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1954년부터 교육과정에 대단원과 중단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아예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근대의식의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 과정안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이 종교개혁을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54년부터 2015 개정안까지의 내용 체계에서 종교개혁을 다루는 것은 소단원에서 일부 미미하지만 나타나는데, 즉 소단원의 주제로 6차 교육과정에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신항로의 개척과 상업혁명’, 7차 교육과정에 “근대의식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의 개척이 각기 근대 의식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라고 학습주제에 설명할 뿐이다. 여전히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 종교개혁은 소단원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방지원, 2017: 77-83). 1차-7차 교육과정 중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 사회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의 각성’ 제하에 ‘근대문화의 부흥’, ‘새로운 종교의 탄생’, ‘종교전쟁’을 서술하였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목차 VI. ‘유럽 근대의식의 성장과 확대’, 제1장에 ‘근대의식의 각성’ 제하의 3가지 주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과 유럽 세계의 확대’를 다룬 이전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하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이 세계의 역사를 서구 중심의 역사 강조를 지양하고 시대별로 문화권 방법을 검토하는 시도가 있었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비교적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이후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 보면 르네상스는 교육과정 편성에 소단원 학습주제로 언급되지만, 종교개혁은 역사교과서의 집필진들에게는 분량 축소 혹은 아예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정선영, 2001: 295-298).

III.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 분석

1. 2015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의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신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4가지 항목 즉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2015 개정의 성격을 보면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그리고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본문은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상호 의존성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여러 국가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켜 개인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같은 세계화의 역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사건이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세계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증대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여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는 앞으로 지구촌에서 살아 나가야 할 학습자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교육부, 2015: 206-207 ; 방지원 2020: 5).

이 세계화 강조는 오늘날 역사 서술의 경향이라고 본다. 기존의 역사 서술이 서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강자 중심의 역사에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흐름이 반영되어 지구사의 역사 서술이 최근 역사 서술의 방향이기도 하다(강성호, 2018: 369-370 ; 조황호 외, 2018: 238-239 ; 강철구, 2007: 329-330 ; 임상우, 2008: 32, 44 ; 이옥순 외, 2007: 9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5: 1-2권). 역사교과 편찬 과정에서 세계화의 강조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고 현실 역사에 내재한 종교와 문화의 갈등을 없애는 소통을 지향한다. 이러한 명분하에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역사 서술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의 영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서술의 왜곡과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다(교육부, 2015: 207 ; 이희수, 2001: 81-102 ; 최영길, 1987: 1-13 ; 소윤정, 2022: 251-288 ; 김성옥, 2021:123-164).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사지식과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려면 교과서 서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 집필 기준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이다. 교육 과정의 내용 중 핵심은 내용 체계에 대한 것이다. 2015 개정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208).

Table 1. 2015 Revised Curriculum Content System by Ministry of Education

대주제	소주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아시아-인도 지역의 역사	○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고대 지중해 세계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유럽 세계의 변화
	○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현대 세계의 변화	○ 냉전과 탈냉전
	○ 21세기의 세계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하는데, ‘영역’은 교과 성격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에 해당하고, ‘핵심개념’은 교과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고, ‘내용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단 2회에 불과하다. 첫 번째 언급은 대주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하에 소주제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의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이 언급되고 있다.

Table 2. 2015 Revised Curriculum Element of Learning by Ministry of Education

소주제	학습 요소
고대 지중해 세계	아테네의 민주 정치,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화, 로마 공화정, 포에니 전쟁, 로마 제정, 로마 문화, 크리스티고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 봉건제, 교황과 황제의 대립, 비잔티움 제국, 십자군 전쟁, 도시 발달, 상업의 부활, 르네상스, 종교개혁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의 개척, 유럽 교역망의 확장, 절대 왕정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과학 혁명, 계몽사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국민 국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산업 혁명, 사회주의

상기 ‘학습 요소’ 도표를 보면 ‘종교개혁’이 언급되는데 이후 ‘성취기준 해설’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후 ‘교수 학습 방법’에서, 부연설명을 하고 교수·학습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안 편찬 내용을 분석하면 ‘학습요소’에 ‘종교개혁’을 언급한 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종교개혁’ 서술을 전혀 다루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 단지 ‘평가 방법 및 유의사상’ 항목에서 “종교개혁이나 신항로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역사 교육의 기본에서 벗어난 역사 서술의 문제이다. 역사 교과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사고력과 을 길어야 한다(권태경, 2020: 1618 ; 허은철, 2018: 354). 그런데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보여준 역사 서술은 심각하다. 이는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무지이거나 왜곡된 서술의 형태이다.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16세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 종교개혁 사건을 누락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권태경, 2011: 272). 오히려 2015 개정 중학교 역사를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의 전개’를 설명하면서 “이후 봉건제에 기반을 둔 중세 유럽의 특징을 다루고 중세 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유럽 사회의 변화,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을 거치며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민족 국가 체제가 발전하고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라고 서술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건으로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비교 검토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은 교과 영역과 학습요소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학교 사회과 서술과 고등학교 세계사를 비교만 해도 얼마나 세계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9역06-02] 유럽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을 지배 세력 간의 주종 관계와 장원제를 통해 살펴본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을 통해 유럽 중세 사회의 해체 양상을 이해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유럽인의 심성 및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212-213).

2.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술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2015개정 4종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과 관련한 역사서술의 단편적 언급, 그리고 종교개혁 용어에 무지한 집필진,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몰이해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종교개혁 설명이 목차 내용 체계에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종교개혁을 대주제(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와 소주제(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에서 다루지만 종교개혁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소주제에 학습요소로 ‘종교개혁’ 단어만 언급할 뿐이다. 종교개혁은 서양 중세와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인데, 내용 체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종교 개혁이 언급이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 종교개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종교개혁이나 신항로의 개척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여러 모습을 조사하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이러한 서술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 따르지 않는 서술이다.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주제에 ‘종교개혁’을 학습요소로 언급하지만, 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종교개혁이 어떠한 배경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중세말 교황권의 쇠퇴와 근대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에서 고전과 성경 원어 연구를 강조한 인문주의 시대이다. 즉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의 요소가 공존한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유럽의 중세말 이후 근대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유럽 세계의 역사와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요소와 교수 학습과 평가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못하여 학생들이 유럽

세계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 체계와 편찬 기준은 결국 4종 교과서의 비체계적인 구성과 서술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세계사의 6개의 주제 중에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의 학습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4종의 세계사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서술함에 있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사별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세계사 교과서 (비상교육)

비상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의 지역의 역사’ 제2절 ‘유럽세계의 변화’에 ‘유럽세계가 변화하다’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3.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Visang Education)

	종교개혁사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p>종교개혁의 전개.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제후의 지지를 받으며 투쟁한 루터파 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에 성공하였다. 그는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하여 상공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종교개혁으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종교(신교)가 생겨나면서 로마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중 30년 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랜 싸움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 맺어져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등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크리스티교 세계를 구교와 신교로 나누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p>	이병인 외, 2020: 126-127

<p>분석과 대안</p>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본문을 보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을 소개하면서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하고, 칼빈과 영국의 종교개혁을 단지 3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신교도 갈등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조약을 언급하고 있다.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은 이것이 전부이다. 종교개혁의 배경과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세계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목차 주제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교과서의 종교개혁사 서술을 보면, 세계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유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없다. 이런 서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삽화로 구텐베르크 성경과 루터파와 칼빈파의 지도를 삽입하는 것은 좋은 구성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사고력 키우기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가리켜 근대를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은 역사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질문이다(권태경, 2019: 1686).</p> <p>대안 제시: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이 단순히 교황에 대한 루터의 종교적인 비판의 항의문이 아니라, 당시 중세 유럽의 절대 권위를 가진 교황권에 대한 비판이 유럽 사회를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설명하고 학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루터를 교황과의 논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유럽 사회에 영향을 준 사실은 종교개혁과 독일의 민족주의, 루터의 성경 번역이 대중들의 계몽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체계에 부합하는 서술이라고 본다. 칼빈에 대한 설명에서도 지엽적인 사실의 나열로 일관하고,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되는 난해한 칼빈의 예정설이 갑자기 언급되는데 이러한 예정론 교리를 어떻게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p> <p>종교개혁가 칼빈이 유럽의 변화에 준 영향은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영역만의 개혁이 아니라, 프랑스 위그노를 통해 보여진 정치와 사회 변혁의 기초를 마련한 점과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교육의 체계를 마련한 사실과 칼빈의 소명과 직업의식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막스 베버의 논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을 설명하는 것이 유럽 역사의 변화에 미친 칼빈의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권태경, 2004: 359 ; 최용준, 2018: 33-33).</p>	
-------------------	--	--

(2) 세계사 교과서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세계사를 보면 종교개혁을 ‘중세유럽 세계의 동요’라는 주제 하에 르네상스와 더불어 서술하고 있다.

Table 4.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Chunjae Textbook)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p>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4세기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에서 면벌부 판매를 독려하였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교황과 대립하던 독일의 제후들도 루터를 지지하였다. 루터파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인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구원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현세에서의 금욕적인 생활 윤리와 근면 절약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하여 영국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권에서 독립시켜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신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p>	김덕수 외, 2020: 134.
분석과 대안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천재 교과서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을 1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어, 지면의 할애에서도 분량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적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개혁이 나열식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되어 역사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 사건이 유럽 사회에 변화를 주는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 사실 나열에 불과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중세는 교회와 국가와 관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였는데, 루터는 교회와 국가를 상호연관성이 있는 두 왕국으로 구분한 점은 이후 근대 정치사상 발전에 기여한 사상적 변화의 중요한 면이다. 단지 다른 교과서와 달리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설명을 면벌부 이미지 자료로 제시한 점은 좋은 구성이라고 본다(권태경, 2009: 130 ; 김장수, 2014: 51). 종교개혁 설명 이전에 에라스무스의 작품 우선예찬을 언급하고 설명한 것은 종교개혁의 배경이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언급이다.</p> <p>교과서를 보면 ‘평가 질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하여 “교황은 어떤 형벌에 대해서도 용서하거나 사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처 인용도 그렇고 이 설명이 학생들의 루터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칼빈과 관련하여, “우리는 신이 영원불변의 섭리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는 예정론을 갑자기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예정론은 신학적 교리에서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지만,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에 이 문제를 설명없이 다루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p> <p>대안 제시: 종교개혁 서술에는 기본적 이해를 위해 목차에 체계가 있어야 한다. 유럽에서 종교개혁 주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 종교개혁에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Cameron, 1991: 9). 칼빈이 유럽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루터와 달리 칼빈의 개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건이 이후의 유럽의 근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사건에 대한 지면 할애는 적더라도 서술의 방향이 루터와 칼빈 영국의 종교개혁을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변화를 설명하면 더 좋은 서술이 될 것이다.</p>	김덕수 외, 2020: 133.

(3). 세계사 교과서 (미래엔)

유럽세계의 형성과 동요 주제하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목차에 소개하고 있다.

Table 5.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MiraeN)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p>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다(1517).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계승한 칼뱅이 종교개혁에 나섰다. 칼뱅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신흥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하여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산을 강화하였다. 그 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1559).</p>	최준채 외, 2019: 120-125.
분석과 대안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미래엔 교과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한 이후,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종교개혁 서술의 내용은 다른 교과서와 같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마지막으로 가톨릭 개혁과 종교전쟁을 단순히 하게 기본적인 사실만을 약술하고 있다.</p> <p>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장으로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는 점은 좋은 구성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상호 별개의 사건이 아닌 상관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고전에 대한 연구로 복귀를 주장하고,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인문주의적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를 다루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점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과 북유럽의 특징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서술이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와 베스트팔렌조약을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점도 좋은 편집이다.</p> <p>대안 제시: 역사는 사고의 학문이고 학생 스스로 역사 교사가 가르친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서술의 편찬 구성에 역사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편찬 구성에서 아쉬운 것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예를 들면 ‘루터’를 설명하면서 ‘사실 서술’ 그리고 ‘인물 소개’, ‘탐구 자료제시’, ‘스스로 학습’을 설명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중세 유럽과 근대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고려하여 서술하면 학생들이 루터 이해를 하는데 좋은 역사적 지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p>	최준채 외, 2019: 122.

(4).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제4장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주제 9에 별도의 목차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

Table 6. Textbook Analysis of World History (Kumsung Pub Co.)

	교과서 내용과 분석	출처
교과서 내용	<p>이탈리아 르네상스 14-15세기에 봉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다.</p> <p>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와 과학 기술의 발달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에 인문주의자는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토포로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성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p> <p>종교개혁과 종교 전쟁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 있고 신앙의 근거는 『성서』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를 지지한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한 황제에게 저항하였다. 마침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공인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펼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윤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다.</p>	김형조 외, 2019: 128-131.
분석과 대안	<p>분석(서술의 문제와 평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목차로 정하면서 설명 분량에 있어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에 비하여 종교개혁 설명이 축약되었다. 첫 페이지 핵심 질문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유럽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은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주는 좋은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배우는지를 설명하고 핵심어 그리고 생각지도, 핵심 역량 기르기를 별도로 제시하는 점도 다른 교과서가 시도하지 않는 좋은 구성이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특히 성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서술은 다른 교과서에 비하면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술이다(김형조 외, 2019: 129).</p> <p>대안 제시: 가장 아쉬운 서술은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루터와 칼빈을 한 지면도 안 되는 1/4 정도 할애하여 설명하다 보니 루터와 칼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전혀 설명되지 못하는 서술이 되었다. 재세례파의 종교개혁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Nichols, 2009: 91). 교과서 자료 3에 제시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칼빈의 예정설에 대한 설명도 본문에서 단어를 언급하고 자료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무엇을 사고하고 배워야 할지 혼동스러울 것이다. 역사 교과서 자료는 주제 본문에서 설명한 것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학습 평가와 토론 문제에 연관되어 서술되어야 될 것이다(Fisher, 1994: 286).</p>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 개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 현재 사용하는 4종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이 문제인데, 그것은 종교개혁에 대한 집필자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의 내용에서 그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즉 모든 교과서가 종교개혁을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개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서술의 또 다른 문제로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문제만의 개혁이 아닌, 16세기 유럽의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인 것을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성취기준과 평가 방법에 전혀 반영하여 집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필자가 분석한 것을 참고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출판되는 세계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누락없이 그리고 축약없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길 기대한다.

IV. 결론

세계사 교과서 역사 서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이다.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수 요목을 거쳐 7차에 걸친 교육 과정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 내용과 체계가 수정이 되어왔다. 교육 과정 변천사에서 역사 과목은 국검정의 체제를 달리하면서 논란이 있어왔고, 교과와 필수와 선택 그리고 과목(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세계사)의 비중과 수업 시수는 약간의 논쟁이 되어왔다. 종교개혁사가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차 교육 과정까지는 비교적 교과서에 서술되어 왔는데,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 이르면서 르네상스는 주제로 다루고, 종교개혁은 내용 체계(대주제와 소주제)에서 누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안에도 소주제의 학습요소에 ‘종교개혁’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2015 개정 4종 세계사를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서술되지 못하는 서술의 축약 그리고 일부 사실의 왜곡이 드러났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의 편찬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

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서술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Spielvogel, 2005: 367-402 ; 민석홍, 1984: 377-393).

초중고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이다. 이 역사 교과서는 역사 교육과정안에 근거하여 집필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이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 집필이 중요하다. 본고는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를 교육부 2015 개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종교개혁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우려는 앞으로 개정될 2022 개정안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세계사 교과서에 종교개혁 사건의 서술이 누락되었다. 종교개혁을 교육 개정안에 다루지 않고, 유럽 중세와 근대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스럽다. 종교개혁사 서술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2022 개정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다른 우려는 이슬람에 대한 의도적 편찬 구성이다. 교과서에서 이슬람에 대한 관련 서술은 본고의 중심 주제가 아니지만, 종교개혁사에 대한 서술은 누락하고 이슬람에 대한 서술은 과장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개정될 2022 개정 역사 교과서에 종교적 편향의 서술은 심각한 상황이다(교육부, 2022b: 144-145).

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상세하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종교개혁의 사실들을 단순 서술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역사적 이해에 혼동만을 줄 뿐이다. 교과서 집필에 전문적인 종교개혁자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사회과교육과정**. 2015-74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74(7).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a). **초등중학교 교육과정총론**. 2022-33호 별책 1.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2a). 2022-33(1).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b). **사회과교육과정**. 2022-33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2b). 2022-33(7).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김덕수·남종국·조영현·신유아·이은정·방대광·양택관·정동연 (2020).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Kim, D. S., Nam, J. K., Cho, Y. H., Shin, Y. A., Lee, Y. J., Bang, D. G., Yang, T. G. & Jung, D. Y. (2020). *World History*. Seoul: Chunjae Textbook.]
- 김형종·장문석·서각수·장두호·김정희·조예진 (2019).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Kim, H. J., Jang, M. S., Seo, G. S., Jang, D. H., Kim, J. H. & Cho, Y. J. (2019). *World History*. Seoul: Kumsung Pub Co.]
- 이병인·임승휘·김태훈·심원섭·김민정·황정미·임태현·이소영(2020).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Lee, B. I., Lim, S. H., Kim, T. H., Shim, W. S., Kim, M. J., Hwang, J. M., Lim, T. H. & Lee, S. Y. (2020). *World History*. Seoul: Visang Education]
- 최준채·윤영호·안정희·남궁원·조미영·정선아 (2019). **고등학교 세계사**. 미래엔.
[Choi, J. C., Yoon, Y. H., Ahn, J. H., N. W., Cho, M. Y. & Jeong, S. A. (2019). *World History*. Seoul: MiraeN]
- 강성호 (2018). 한국중학교 세계사교육과 서구중심주의-2015 교육과정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72. 369-390.
[Kwang, S. H. (2018). World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and Western Centrism: Based on The Revised 2015 Curriculum. *The Study of Korean Studies*. 72. 369-390.]
- 강철구 (2007).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서양사론**. 92. 327-352.
[Kwang C. G. (2007). View of Wester History in Korea. *Jr. of Western History*. 92. 327-352.]
- 권태경 (2004).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24. 333-362.
[Kwon, T. K. (2004). On the Education Thought of John Calvin. *Jr. of Chongshin Univ*. 24. 333-

362.]

권태경 (2009).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과 역사 이해. **성경과신학**. 51. 111-137.

[Kwon, T. K. (2009). Two Kingdom The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John Calvin and Martin Luther. *The Bible and Theology*. 51. 111-137.]

권태경 (2011).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역사 서술의 문제: 한국의 역사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19. 245-280.

[Kwon, T. K. (2011). On the Historical Writings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Korea Reformed Journal*. 19. 245-280.]

권태경 (2019).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삽화에 대한 고찰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10). 1685-1700.

[Kwon, T. K. (2019). On the Image of World History Textbook: Focusing on Reformation. *J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10). 1685-1700.]

권태경 (2020).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 대한 연구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11). 1617-1631.

[Kwon, T. K (2020) On the Historical Writings of World History: Focusing on Hellenism *J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11). 1617-1631.]

김성옥 (2021). 다음세대를 위한 이슬람교의 다와활동. **복음과선교**. 55. 123-164.

[Kim, S. O. (2021). Muslim's Dawah Activities Toward the Next Generation. *Jr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55. 123-164.]

김장수 (2014). **서양근대사**. 서울: 선학사.

[Kim J. S. (2014). *Western Modern History*. Seoul: SunHakSa.]

방지원 (2017). 고등학교세계사 교과서의 '종교개혁' 내용 구성의 관점. **역사와경계**. 105. 71-124.

[Bang, J. W. (2017). On the Unit Composition and Content Description of Reformation. *History and Boundaries*. 105. 71-124.]

방지원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교과서들은 역사학습의 '다원적 관점'을 어떻게 담았는가?. **역사교육논총**. 74. 4-41.

[Bang J. W. (2020). How do "Korean history" Textbooks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mbody and Support the 'Understanding History of 'Multi Perspectivity'?. *History Education Review*. 74. 4-41.]

소윤정 (2022). 다문화교육포방하는 친이슬람 세계사 개정 교과서. **복음과선교**. 60. 251-288.

[So, Y. J. (2022). Revised World History Textbooks in the Pro-Islamic World Claiming to Advocate Multicultural Education, *Jr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60. 251-288.]

- 이옥순·이종득·이태주·이평래·이희수·조흥국·한건수 (2007).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울: 삼인.
- [Lee, O S., Lee, J. D., Lee, T. J., Lee, P. R., Lee, H. S., Cho, H. G. & Han, G. S. (2007). *Correction of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Samin.]
- 이용중 역 (2009).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이야기**. Nichols, S. (2007). the Reformation.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ee, Y. J. (2009). *the Reformation*.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Nichols, S. (2007). the Reformation. Illinois: Crossway.]
- 이희수 (2001). 한국교과서의 타문화 왜곡: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2. 81-102.
- [Lee, H. S. (2001). Distortion of Other Culture in the Korea Textbook: on the Islam Korea Jr of the Middle East Studies 22 81-102.]
- 임상우 (2008). 동아시아에서의 유럽 중심적 역사관의 극복. **서강인문논총**. 24. 29-56.
- [Lim, S. W. (2008). Beyond Eurocentric Conception of History in the East Asia. *Humanities journal*. 24. 29-56.]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5). **살아있는 세계사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 [History Teacher Association. (2005). *Living World History Textbook*. Seoul: Humanist.]
- 정선영 (2001).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원.
- [Jung, S. Y. (2001). *Understanding of History Education*. Seoul: Samjiwon.]
- 조황호·조한경, 박상필 (2018).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변천과정 및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교과서 서술비교. **역사교육논총**. 67. 235-279.
- [Cho, W. H., Cho, H. G. & Park, S. P. (2018). On the Compilation History and Standards of National History Textbook. *History Education Review*. 67. 235-279.]
- 최상훈 (2005).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 교육연구**. 12. 205-236.
- [Choi, S. H. (2005). The Changes and Direction of History Curriculum for 60 Years.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2. 205-236.]
- 최영길 (1987). 한국교과서 및 우리말 사전에 왜곡 소개된 이슬람 실태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4. 1-13.
- [Choi, Y. K. (1987). Researches on the Distorted Islam in Korean Textbooks and Encyclopedias. *Journal of Human Studies*. 4. 1-13.]
- 최용준 (2018).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 323-351.
- [Choi, Y. J. (2018).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Transformation. *Faith & Scholarship*. 23. 323-351.]
- 허은철 (2018).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역사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신앙과 학문**. 23. 353-382.

[Heo, E. C. (2018).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History Textbook of the Christian World View. *Faith & Scholarship*. 23. 353-382.]

Cameron, Euan (1991).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Fisher, David A (1994). *World History for Christian Schools*. Greenville: Bob Jones Univ Press.

Spielvogel, Jackson J (2005). *Western Civilization*. Boston: Cengage.

Retrived from <http://ncic.re.kr/mobile.index2.do> (검색일 2023.02.06)

Retrived from <https://www.kice.re.kr/>. (검색일 2023.02.06)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 2015 개정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On the Curriculum and Historical Writings on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Revised 2015 World History Textbooks

권태경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reformation)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출판된 4종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언급한 몇 가지 사실마저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있지 않는 서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먼저 교육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세계사 과목에 종교개혁을 단원으로 구성한 내용을 살피고, 2015 개정안의 교육과정과 4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사의 서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편찬 기준과 내용 체계가 수정 보완이 되어, 향후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서술이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게 서술되기를 바란다.

세계사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으로 미국 교과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제13장)를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 루터와 독일의 개혁, 개혁의 확산, 개혁의 영향, 가톨릭 개혁, 정치와 16세기 종교전쟁”을 내용 체계로 한다. 주목할 점은 역사적 사고를 역사 교과서에 중요한 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 서술 서두에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역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 세계의 종교와 사회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역사는 객관적 서술이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 서술은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을 기독교 학문을 이유로 비중있게 많이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술에서 의도적인 왜곡이나 핵심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과서에 나열하는 것은 학생들에 혼동만을 줄 뿐이다. 전문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이해가 없으면 중세 말과 근대초의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 출판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개혁, 세계사, 교과서, 역사서술, 교육과정

OECD가 제시한 미래역량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한 시도*

**An attempt at Christian understanding
of future competency education presented by the OECD**

강영택 (Young Taek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future education presented by the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help Christian education institutions plan and practic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and furthermore,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future educa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for all of us living in an era of uncertainty. It seems to get a good implication on the way toward fu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n this paper, it is important to present the work of creating a frame of reference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nalyze future educ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using this frame of reference, we examined whether the key elements of future education presented by the OECD, such as 'student agency', 'competency' and 'transformative competencies', correspond to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in many cases the explanations offered by the OECD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However, it was emphasized again that the optimistic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and the individualistic tendencies that Western societies had traditionally brough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Key words: future education, competency education, student agency,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hristian understanding of education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4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교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31 201-1703. kangyou47@gmail.com

I. 들어가는 글

최근 들어 세계의 각 나라들마다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차 자기나라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더구나 나라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올바른 미래교육은 일부 나라들의 문제를 넘어 전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요 보고서들을 발표하고 있다(OECD, 2019 ; UNESCO, 2021). 특히 OECD는 1997년부터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연구를 해오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 까지 수행한 ‘역량의 정의와 선택(DeSeCo)’ 프로젝트에서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역량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 가지의 미래핵심역량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DeSeCo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이하 ‘OECD 교육 2030’으로 약칭) 프로젝트는 OECD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는 이미 완료된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들을 보다 심화하고 체계화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정책과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2017년 이후 발표되면서 세계 각국의 교육 개혁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상은·소경희, 2019). 우리나라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작성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참조되었다(KEDI, 2021),

이처럼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핵심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DeSeCo 보고서의 발표 이후 교회와 기독교대학 같은 기독교교육기관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역량교육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박은숙, 2013 ; 장화선, 2015). 2030 프로젝트의 보고서 역시 그 이전의 것보다 적지 않게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30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담긴 미래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기독교적 성찰과 이해를 하는 일은 교회와 기독교학교 등 기독교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유재봉, 2022).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OECD가 제시하는 미래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준비가 될 것인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가늠해보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래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첫째는 OECD가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요소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OECD에서 발간한 ‘2030 학습 나침반(Learning Compass)’과 ‘2030 학습 틀 (Learning Framework)’은 미래교육의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그것은 교육의 목표, 역량교육의 핵심, 역량의 정의 및 특성, 변혁적 역량의 개념 및 세 가지 하위범주 등이다. 네 가지 핵심요소들 가운데 교육의 목표 부분은 교육의 근본적이고 철학적 논의로 별도의 연구 주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역량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들-역량의 핵심, 역량의 정의 및 특징, 변혁적 역량-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는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래(역량)교육의 개념과 영역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이나 방법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첫째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실 다음의 질문을 전제하고 있다.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미래역량교육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미래역량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이 교육적 이슈들을 이해하는 교육학적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영적인 방안이 존재하니 그 방식을 찾아 교육의 이슈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OECD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역량교육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교육철학적 영역들 예를 들어, 존재론/학생론, 인식론, 교수방법론, 가치론 등의 특징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교육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되는 ‘학생을 보는 관점’, ‘지식에 대한 이해’, ‘가르침의 방법’ 그리고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등의 근본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서조차도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일반 교육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이 작업은 하나의 시도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의 입장에서 해석한 성서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덧붙여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론을 중요하게 참조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현대 기독교교육자들과 공교육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웨이커 전통의 기독교 사회교육운동가인 파커 파머(Parker Palmer)의 교육사상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 두 명의 학자들은 그들이 터해 있는 신학적 토대가 다르고 그들의 교육적 관점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이는 이 둘의 교육론을 종합할 때 개혁주의의 합리적 특성과 웨이커의 신비적 특성을 결합시켜 보다 포용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학문 활동과 삶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교육적 논의와 실천이 기독교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이 시대의 공론의 장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의 교육현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두 학자들의 교육론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신국원, 2013 ; 오경환, 2021 ; Palmer, 1993 ; Wolterstorff, 2004). 그러므로 교육의 근본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성서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 두 학자들의 교육론을 참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를 위한 준거를 혹은 관점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유재봉, 2022 ; 장화선, 2015).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본 논문은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주요 개념인 ‘학생 행위주체성,’ ‘역량 (교육),’ ‘변혁적 역량’ 등에 내포된 교육의 근원적 특성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의도하고 기대하는 바는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기독교기관들의 미래교육을 기획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튼튼하게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먼저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미래역량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의 미래역량교육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DeSeCo 프로젝트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래교육이 역량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DeSeCo 보고서와 교육 2030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래역량교육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역량교육의 목표, 역량의 정의, 역량의 특징, 역량의 범주, 역량의 핵심 등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2030에서 역량의 핵심으로 본 ‘학생 행위주체성’을 먼저 살펴보고, 역량의 정의를 두 프로젝트의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비교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의 주요 특징으로 보는 변혁적 역량과 이 역량의 세 범주를 고찰할 것이다.

구분	‘DeSeCo’ 프로젝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역량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과 사회의 ‘성공(su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
역량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동원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지식: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기능: 인지적·메타인지적, 사회적·정서적, 신체적·실천적 태도와 가치: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글로벌적
역량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key)’ 역량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적이고 사회적 유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혁적(transformative)’ 역량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
역량의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도구들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역량의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찰(refl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Figure 1. Comparison of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petencies presented by the ‘DeSeCo’ and ‘Education 2030 project’ (Sources: Kang, 2022 ; KEDI, 2019)

1. 역량의 핵심: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DeSeCo 보고서에서는 역량의 핵심을 성찰로 보았다. 즉, 자율적 행동이나 도구 사용능력 그리고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미래핵심 역량을 온전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내면을 잠잠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의 핵심으로 ‘학생 행위주체성’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어에 대한 의미 해석이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학생 행위주체성(Agency)은 학생의 자율성(Autonomy)이나 학생의 선택(Choices)과는 다른 개념임이 분명하다. OECD의 보고서에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의식”(OECD, 2019: 16)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행위주체성

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주로 동기부여, 희망, 자기효능감, 성장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시 여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자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주체성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행사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을 강조하기도 한다. 협력적 행위주체성은 학생들이 동료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상호 지원하는 관계 속에서 유기체적인 방식으로 형성된다.

2. 역량의 개념: 지식, 기술, 가치, 태도

교육 2030에서는 DeSeCo에서 소개했던 역량의 개념을 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개념화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여 조화롭게 활용하는 능력이라 했다.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로 구성되기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식

지식을 학문적/교과적 지식, 학제간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등 네 범주의 지식으로 설명한다. 학문적 지식은 특정 주제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지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지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학제간 지식은 주제별 학습을 통해 한 교과와 핵심적인 개념을 다른 교과로 전이시키고 교과목들 간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힘으로 교육과정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지식이다. 학제간 지식을 학습하는 주제별 학습은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을 통해 이루어지곤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들을 연합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인식론적 지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은 학생의 학습에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각 요소들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지식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와준다. 절차적 지식은 하나의 과업이 어떻게 구조화된 과정을 통해 수행되고, 작동되며, 배우는지를 이해하는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2) 기술/ 기능

기술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컴퓨터 기술이 단순하고 정해진 과업의 노동력을 대체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창의성 같은 인지적 기술이나 사회적, 감정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해 주기도 한다. 학생이 사

회의 책임있는 시민이 되는데 사회적, 감정적 기술이 인지적 기술만큼 중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인지적, 메타인지적 기술은 언어, 숫자, 논리적 유추 그리고 기존의 획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사고전략이다. 이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유,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정서적 기술은 공감, 자기 효능감, 책임감 그리고 협력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실천적 기술은 새로운 정보와 소통기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3) 태도와 가치

OECD는 태도와 가치를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안녕을 향한 길에서 자신의 선택, 판단, 행위 그리고 활동들에 영향을 주는 원리와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9: 100). 여기서 가치란 우리가 사적 삶과 공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태도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와 믿음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다. 태도와 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곤 한다. 이런 용어들은 ‘정서적 성과물,’ ‘적성,’ ‘속성(attributes),’ ‘믿음,’ ‘경향성,’ ‘윤리,’ ‘도덕,’ ‘마인드셋(mindset),’ ‘사회적, 정서적 기술’ 등이다. OECD는 태도와 가치의 하위범주로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전지구적(global) 태도와 가치를 들고 있다.

3. 역량의 특징과 범주: 변혁적 역량과 하위 역량들

DeSeCo 프로젝트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강조한 것은 미래핵심역량이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통칭하여 ‘변혁적 역량’이라 명하였고, 여기에 포함되는 세 가지의 구체적 하위역량들을 제시하였다. 변혁적 역량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일컫는다(OECD, 2019: 4). 이 변혁적 역량은 21세기의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주체적인 참여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타인들과 이 지구를 위해 사회적 안녕(Well-Being)과 지속가능성을 이루어가는 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OECD, 2019: 16). 변혁적 역량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넘어 변화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는 높은 수준의 역량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역량은 특정 상황들을 초월하는 전이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능력, 그리고 생산적이

고 의미 있게 행동하는 능력 등은 목표가 바뀔 때에라도 여전히 독특한 인간적인 기술로 남게 된다. 사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상호의존성이 더 커질수록 이런 역량들의 필요성은 더 요구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이해와 기능의 새로운 수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이 역량은 중요하게 요구 받는다.

변혁적 역량은 만일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잘 조정한다면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 역량은 가정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혁적 역량은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변혁적 역량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하는 혁신의 정신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핵심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량을 갖기 위하여 학생들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생각, 관점, 경험을 향한 열린 마음 자세 등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식들을 찾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OECD, 2019: 5).

(2) 모순과 딜레마 조정하기

모순과 딜레마를 조정한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모순되어 보이거나 조화되기 어려운 요구들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긴장과 딜레마와 이율배반성 등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안녕과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타인의 이익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생각들 혹은 입장들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답이나 방법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먼저 인지적 융통성과 개방적 관점을 형성하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시점에서 그 이슈를 볼 수 있고, 이 다양한 관점들이 어떻게 긴장과 딜레마를 만들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 타인들에 대해 공감과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의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긴장과 딜레마가 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하게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학생들은 복잡성과 애매성에 대한 아량/포용력과 탄력성을 개발해야 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꾸어갈 필요가 있다(OECD, 2019: 6).

(3) 책임감 갖기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목표 설정,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사용된 관점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책임감 갖기는 강한 도덕성과 정직성을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비판적이면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아 인식과 자기 규제가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 형성되어야 한다.

III.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위한 준거틀

앞장에서 살펴본 OECD의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미래교육 정책 수립에 OECD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계 혹은 기독교교육을 하는 이들도 미래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 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교회나 기독교학교, 기독교대학과 같이 미래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키우고자 하는 기관들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의 전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여 담론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감 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과 세계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육이 그 토대를 성서적 관점 위에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교육이 우리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담론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토대하여 참여하는 일은 보다 건강한 미래교육을 개척해 가는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고 미래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교회교육이나 신앙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 현상을 신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론화 해온 학문적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기독교교육(학)자들 가운데는 교육을 논의하면서 신앙과 교육의 관계를 분리시키거나 통합을 시도하지만 피상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강영택, 2020: 12-13).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 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를 교육과 신앙의 본질적 통합의 관점에서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본질적 통합의 관점이란 교육적 논의에서 발견되는 표면적 주장에 주목하기보다 그 주장의 기반이 되는 근원적 특징이나 전제를 살피는 것이다(강영택, 2020).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성서에서 말하는 본질적 특성과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네 가지 근본적 영역인 학생론, 지식론, 교수법, 가치론 등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특성들이 어떠한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 혹은 인간을 보는 관점

① 학생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그녀의 존엄성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한 정도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그녀는 선을 이해하고 행하는데 제한적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도구화되어서는 안 되며, 도구적 기능의 유능성 여부에 따라 그의 존엄성이 평가 받아서도 안 된다.

② 학생은 개체적,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만 본질적으로 관계적,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그녀는 타인, 사물, 자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책임적(responsible)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과 사물 그리고 자연을 돌보고(caring), 경작하는(cultivating) 존재이기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반응(response)을 보여야 하는 실천하는 자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생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성서적 토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 이는 성서 전체를 통해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이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고 대우하시니 학생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시편 8편).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완벽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학생은 타인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려 노력할 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보살피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 책임적 존재로서의 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월터스토프가 강조한 바이다(Wolterstorff, 2002: 274-280). 또한 인간을 대상화 혹은 도구화 시키거나 전체의 일부로 종속시키는 위험성을 예리하게 제기한 이들은 성서적 관점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Martin Buber)와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였다(강영안, 1990 ; Buber, 2020). 성서는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죄로 인해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서는 그 왜곡된 형상으로 인한 인간 역사의 비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선의 실천력이 제한된 존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에 대한 이해

① 지식은 인격적(personal) 성격을 갖는다(Palmer, 1993: 119-126). 이 말은 인식 주체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를 대상화시켜 객관적 거리를 두고 탐구의 대상으로만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대상은 인식 주체가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할 때 그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인식 주체는 그가 알고자 하는 상대와의 개인적인(personal) 관계 가운데서 그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 경이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Wolterstorff, 2020). 그런 면에서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lmer, 1993: 43-63).

② 지식은 어떤 외부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과 얹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의 효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식 그 자체가 순수하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경이로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안다는 것은 그와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Wolterstorff, 2002: 265-272). 그러므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는 얹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 중세시대에는 지식습득의 두 가지 방식을 라티오(ratio)와 인텔렉투스(intellectus)로 이해했다. 라티오는 추론적, 논리적 사고를 통한 인식방법이고, 인텔렉투스는 관조 혹은 직관이라는 인식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지식탐구가 비교하고 분석하며 종합하고 유추하는 적극적인 사고과정인 라티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사람들이 수고롭게 노력한 사고활동의 결과물로 보았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비롯한 중세시대 학자들에 따르면 지식이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용성(passivity), 비움, 주어지는 깨달음을 중심 요소로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특징들을 도출하는 데는 파머와 월터스토프의 교육사상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지식의 특징들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뿌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텔렉투스’ 개념과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개념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식 혹은 안다(히브리어 yada)의 성서적 의미가 인식 주체와 대상의 인격적 친밀성 혹은 언약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3. 교수법에 대한 이해

① 가르침은 상호소통을 통해 일어난다. 가르침이란 교수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참된 앎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은 양자의 상호관계 가운데 일어나며 그 방법은 소통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소통이란 자신의 전존재로 말하는 것이요, 상대의 말을 전존재를 들어 듣는 행위이다 (Buber, 2020).

② 가르침은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말을 통해서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식은 가르치는 이가 모델링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Wolterstorff, 2002: 272-273). 교수자는 자신의 지식 탐색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기보다 학습자도 스스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그 탐색의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을 탐색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줌으로 지식과 지식탐색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열정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가르침은 정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Wolterstorff, 2002: 281-283). 이 말은 학습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르침이 학습자의 문화와 상관없이 교수자의 관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배움은 교수자의 일방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①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는 샬롬이다(Wolterstorff, 2002: 253-283 ; 2004).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는 우리말로 평화이지만 히브리어 샬롬의 원래적 의미는 ‘온전함’, ‘충만함’, ‘번영’, ‘안녕’ 등이다. 이 단어를 월터스토프는 구약성경에서의 용례들을 근거로 ‘자아와 타인, 자아와 세계, 그리고 자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와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정의한다 (Wolterstorff, 2004). 이를 간단하게 달리 말하면 정의와 평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온전히 구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향유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 권리를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평

화의 중요한 한 요소가 안식/쉬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Heschel, 1951)

②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우주 안에 숨겨진 유기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Palmer, 1993). 살림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존재들의 화목한 관계이다.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그러나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단절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원래의 공동체를 복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서로에 대한 앎을 갖게함으로 앎을 토대로 유기적 공동체를 회복하게 한다(강영택, 2022: 34-44 ; Palmer, 1993: 13-33).

③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진(眞), 선(善), 미(美)로 표현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이들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란 것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진선미는 인간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면서 또한 이를 초월한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에게서 그 온전한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추구하는 진선미의 가치는 인간세계의 초월적 가치인 영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선미를 추구하는 교육은 전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인적 영역의 교육이라 함은 인간의 성장이 인지적 측면과 함께 운동 기술적인 면과 의지와 정서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진선미와 영성을 추구하고 가르치되 영적, 지적, 덕과 신체적 영역과 같이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의 근본적인 네 가지 영역에서의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list of the main contents of Christian view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areas of education

역역	기준 번호	핵심 내용
학생론	1-1-1/1-1-2 1-2 1-3	- 존엄한 존재/선 실천능력의 제한 - 관계적 존재 - 책임적 존재
지식론	2-1 2-2 2-3	- 인격적 지식 - 기쁨과 감사를 수반하는 지식 -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지식
교수방법론	3-1 3-2 3-3	- 상호소통을 통한 가르침 - 삶의 모범으로서의 가르침 - 정의로운 가르침
가치론	4-1 4-2 4-3	- 살림을 추구하는 교육 -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교육 - 진선미와 영성을 추구하는 교육

IV. 미래역량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및 분석

1. 학생 행위주체성

OECD에서 제시하는 학생 행위주체성의 개념에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학생,’ ‘학생의 책임감 강조’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주체성 형성’ 등 세 가지 요소들이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역량교육의 핵심으로서 ‘학생 행위주체성’을 정한 것은 학생을 교육과 변화의 대상으로 보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을 배움의 주체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인식하는 생각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이웃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이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행위주체성의 세 가지 요소들은 앞장에서 제시한 기독교적 ‘학생론’의 세 가지 관점과 관련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을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학생을 수단적 존재가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인 존엄한 존재로 보는 관점(1-1-1)과 관계가 깊다. 학생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바는 학생을 책임적 존재로 보는 관점(1-3)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주체성 형성의 강조는 학생을 관계적 존재로 보는 관점(1-2)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OECD의 학생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적 관점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행위주체성의 개념이 다분히 서구의 전통적인 주류 관점인 개인주의의 토대 위에서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OECD의 보고서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개발하는데 동기, 희망, 성장에 대한 믿음 등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OECD, 2019: 35). 그러면서도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적 존재로서의 학생론에 근거해 본다면 행위주체성의 개념에 관계지향성이 본질적으로 내포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 행위주체성을 개별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학생 주위의 다양한 타인들과 사물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의 용어를 빌리자면 협력적 행위주체성을 학생 행위주체성과 분리하기 보다는 학생 행위주체성이 그것을 품고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는 학생이 갖는 관계성 가운데 핵심 기반이 되는 초월적 존재(하나님)와의 관계에 대한

부재이다.

둘째, ‘교육 2030’에서는 학생이 자기 자신과 주위 세계에 영향을 주어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중요시 한다. 그것은 학생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관점(1-1)과 관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학생의 선을 이해하고 행하는 능력의 제한성이다(1-1-2). 학생은 자신과 세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항상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는 성서에서 말하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 형상의 왜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에만 맡겨놓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역량 교육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이전에 비해 단순화 하고 명료화 시켰다. 그리고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제시하고 이들의 속성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OECD가 추구하는 미래역량 교육이란 교육의 내용이 지식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식을 비롯하여 지식의 활용능력인 기술과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하는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역량이나 역량교육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또는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의 내용을 지식에서 역량으로 확대한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하다. 기독교적 지식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를 인격적(personal) 지식으로 보았다(2-1). 이 말은 지식이 인식 주체와 어떤 관련도 없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인식 주체의 태도나 가치가 투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식이 인식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둘의 특별한 관계를 매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은 인식 주체가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필요시 인식주체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서적 지식관은 지식의 인격성과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태도와 가치를 지식과 기술과 함께 역량의 주요요소로 삼는 OECD의 역량 교육은 기독교적 지식관과 유사한 토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OECD의 역량교육에서 역량의 개념이 기독교적 지식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역량교육에서 지식의 개념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역량교육에서 지식을 기술, 태도, 가치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지식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영역인 정의적, 의지적, 신체적 영역에는 기술, 태도, 가치 등 지식

을 제외한 역량의 다른 요소들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전적(通全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식교육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기독교적 지식관에 따르면 지식은 인격적이며(2-1), 기쁨과 감사를 수반함으로(2-2) 지식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가치와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지식은 그 실천능력인 기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적 지식관에 가까이 할수록 지정의(知情意) 혹은 지덕체(智德體)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OECD의 교육 2030에 근거하여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전이성(transferability)과 상호관계성(inter-relation)을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전이성은 한 상황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등이 다른 상황의 그것으로 전이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상호관계성은 한 토픽이나 개념이 다른 학문 영역의 토픽이나 개념으로 혹은 학교 밖 실제 삶에서의 그것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지식이 지나치게 분화되면서 교과목의 세부 영역이 매우 많아지고 영역 간의 경계가 높아진다. 그래서 한 교과영역의 지식은 그 영역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한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와 관련되는 다수의 교과영역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영역들의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의 전이성과 상호관계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기독교학교들이 종종 주제별 통합수업을 실시하여 세계와 자신의 온전한 이해를 탐구하고자 하는 접근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량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과정이 기대하기, 실행하기, 성찰하기(AAR)와 같은 세 단계의 원형을 이루며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따라서 학습을 해간다면 결국 학생들은 역량교육의 핵심이 되는 행위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OECD, 2019: 120). 세 단계의 학습과정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인데 ‘계획, 실행, 평가’라는 기존의 방법을 좀 더 향상시켰다. 여기서 첫째 단계인 ‘기대하기’는 단순히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는 활동을 넘어 오늘의 활동이 미래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을 좀 더 기독교 관점에 가까이 하여 본다면 ‘기대하기’ 단계에서는 학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경이로움과 경외감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2-2). 또한 배움의 대상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것과 ‘성찰하기’에서 책임감 있는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의 교육은 교사의 모델링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다(3-2). 그러므로 학생행위주체성은 교사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좋은 교수모델이 될 것이다.

3. 변혁적 역량

OECD가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의 개념에는 ‘안녕(wellbeing)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능력’, ‘변화의 주체로서 학생’, ‘창의와 혁신의 사고방식’, ‘모순과 역설에 대응하는 태도’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기’ 등이 중요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째, 학생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안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변혁적 역량이 추구하는 바이다. 지속가능성과 안녕의 추구는 기독교적 관점 중 ‘살롬을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4-1)’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변혁적 역량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본질로 삼는 기독교적 살롬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둘째, 변혁적 역량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창의(creativity)와 혁신(innovation)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무(無)로부터 세상을 창조(create) 하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새롭게(innovate) 하고 계신 분이시다. 즉, 창의와 혁신은 하나님의 사역의 주 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변혁적 역량은 기독교관점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와 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 혹은 행동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창의) 새롭게 하시는(혁신)것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나라(혹은 살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하심의 과정에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전 지구적인 전염병,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와 점차 심화되는 세계의 양극화와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도, 쉽게 설명되지도 않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종종 모순과 역설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순과 역설은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바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의 왜곡과 관계가 있다. 인간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왜곡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경작하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대신 우리 삶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 왜곡은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사회적 사건이나 참사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미래사회에는 모순과 역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OECD의 예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모순과 역설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는 우리가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과 많은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역설적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과 민족에 매이지 않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 개입하시는 내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존재 방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상호모순 되는 역설이 다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진리는 종종 논리적 명제 가운데 발견되기보다 역설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앞에서 변혁적 역량의 중요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적 관점과 부합하는 부분이 다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점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변혁적 역량 중에서 창의적 사고나 혁신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질문과 관계있다. OECD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호기심, 비판적 사고,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관점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여기에 덧붙여 말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학생 내부로부터 생각해 내기도 하지만 바깥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으로서의 지식(2-3)은 성서가 말하는 중요한 지식 습득의 한 방법이다. 관조, 직관 등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지식 습득과 관계하며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식이나 여가 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Heschel, 195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뿐 아니라 불현듯 주어지는 은총으로서의 지혜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나가는 글

코로나 19 현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성과 예측불허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계의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UNESCO나 최근 세계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구, 대응하고 있는 OECD도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 수행되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OECD 교육 2030’의 보고서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런 노력들이 갖는 의의는 교회나 기독교학교와 같은 기독교교육기관 등이 미래교육을 계획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

에 대한 공론의 장에 참여함으로 교육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미래교육의 중요요소들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여전히 무척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이해라고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교육적 논의는 기독교계뿐 아니라 일반 교육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중요한 질문들이 여전히 지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작은 한 시도를 감행하였다. 그것은 미래 교육의 중요 이슈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 일은 교육학의 근본이 되는 네 영역의 중요 특징들을 성서로부터 도출하고 그리고 두 명의 기독교 학자들의 교육론을 참조로 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증거 틀을 활용하여 OECD 교육 2030의 주요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미래역량의 핵심인 ‘학생행위 주체성’, 역량 정의, 미래역량의 특징인 ‘변혁적 역량’ 등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성서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한 계점도 지적하였다.

OECD에서 강조하는 미래역량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지식과 기술에 더하여 가치와 태도를 중요하게 본 점이나 미래역량의 특징으로 학생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역량의 핵심으로 학생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학생 행위주체성을 삼은 점 역시 성서적 가르침과 부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 혹은 학생과 지식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론에서 죄로 인한 인간 능력과 태도의 한계와 왜곡을 경시한 점이나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것은 OECD의 교육담론의 본질적인 한계라 할 수밖에 없다.

미래교육 보고서인 OECD 교육 2030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같은 기독교교육기관들이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독교적 교육을 시행하는데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나 표현이 성서적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여 그것을 무시하기 보다는 그 차이점을 면밀히 고찰함으로 그 보고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기독교계 내에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도 논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교육이 기독교적 관점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질문과 논의는 교육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우리의 사유의 깊

이를 더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계 밖의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게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기독교적 교육 이해’나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등의 의미를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1990). 레비나스 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 현상학과 현대철학, 4, 243-263.
- [Kang, Y. A. (1990). Subjectivity and Other in Levinas Philosophy.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4, 243-263.]
- 강영택 (2020). 샬롬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통합연구, 22(1), 7-25.
- [Kang, Y. T. (2020). Education of Shalom: A Christian Approach to the Education. Intergrated Research. 22(1), 7-25.]
- 강영택 (2022).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살림터
- [Kang, Y. T. (2002) Toward for Sustainable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Seoul: Salimte Publisher.]
- 박은숙 (2013). 대학에서의 기독교역량교육 모형 개발 및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7집, 93-121.
- [Park, U. S. (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hristian Competency Education Model of a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Vol. 37, 93-121.]
- 신국원 (2013). 해체의 문화와 샬롬의 영성: 포스트모던의 기독교 교육 비전. 기독교교육정보 36집, 46-69]
- [Shin, K. W. (2013). The Culture of Deconstruct and Spirituality of Shalom. A Christian Education Vision: Christian education Vis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Vol.. 36, 46-69.]
- 오경환 (2021).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와 미로슬라브 볼프의 공공신학의 함의 및 고찰: 정의와 샬롬 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9집, 33-65.
- [Oh, K. H. (2021). Implications and Considerations of Nicholas Wolterstorff and Miroslav Wolf's Public Theology: Focusing on Justice and Shalom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Vol. 69. 33-65.]
- 유재봉 (2022). 교육목적으로서의 '웰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OECD Education 2030 Project'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17회 학술대회 자료집, 7-34.
- [Yoo, J. B. (2022). A Critical Review of Well-Being as an Educational Purpose: Focused on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17th Conference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Symposium, 7-34.]
- 이상은·소경희 (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39-164.
- [Lee, S. U. & So, K. H. (2019). Analysis of Trends in Framework Changes in OECD Competency Education for Future-Oriented Curriculum Design: Focusing on 'Education 2030'

- Curriculum Research, 37(1), 139-164.]
- 장화선 (2015).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역량중심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3집, 109-136.
- [Jang, H. S. (2015). Education based Competence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Vol. 43, 109-134.]
- Buber, M. (2020). I and Thou. London: Bloomsbury.
- Heschel, A. J. (1951). The Sabbath. NY: Farrar & Giroux.
- KEDI (2019).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학교교육에서 역량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세우다. KEDI Brief, Vol. 27.
- [KEDI (2019). OECD Education 2030' Project: Reestablishing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Competency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KEDI Brief, Vol. 27.]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 Palmer,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Cal.: HarperSanFrancisc.
- Sandel, M. (2020). The Tyranny of Merit. UK: Penguin
- UNESCO (2021). Reimagining Our Future Together: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Education. UNESCO.
- Wolterstorff, N. (2002). Educating for Life, Grand Rapids, MI.: Baker.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Grand Rapids, MI.: Eerdmans.
- Wolterstorff, N. (2020). In this World of Wonder. Grand Rapids, MI.: Eerdmans.

OECD가 제시한 미래 역량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한 시도

An attempt at Christian understanding of
future competency education presented by the OECD

강영택 (우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OECD의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주요 내용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는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며 나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가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준거들을 만드는 작업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준거들을 이용하여 OECD가 제시한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인 ‘학생 행위주체성’, ‘역량’ ‘변혁적 역량’ 등의 특징들이 기독교적 관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많은 경우 OECD에서 제시하는 설명들이 기독교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단지 서구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낙관적 태도라든지 개인주의적 성향 등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주제어: 미래교육, 역량교육, 학생행위주체성, 교육 2030 프로젝트,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Liberal Democracy and the Church Politics

이국운 (Kuk-Woon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otestant church politics in Korean political context. In recent years, many of Korean Protestant intellectuals repeatedly expressed a kind of pessimism on the political future of Korean Protestantism. Though echoing their pessimism in many senses, the author tries to secure some possibility to make Korean Protestants be more responsible in political aren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reinterprets the political meaning of Protestantism from just religious matter to more political one. According to him, the Protestantism, the Reformation itself, was and is a kind of political movement toward the authentic Liberal Democracy or Radical and Liberating Democracy. In this regard, it is very evident that Protestant church politics has contributed tremendously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However, after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moved to the Nation-States, church politics became marginal and lost political importance sooner or later. Since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during the last century, Korean Protestants tend to be more politically aggressive than they usually assum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hurch is not enough to be compared to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hurch politics and national politics,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he Korean Protestant should move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from the Churchian networks to the Christian associations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liberal democracy, church politics, Protestantism, Reformation, Korean church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4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lkwoon@handong.edu

-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운동
- III.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와 교회 정치의 변화
-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이 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주제를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로 잡은 것은 이와 같은 실천적 지향을 투영하기에 그 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논의의 성격상 이미 5백 년이 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의 역사적 경과를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천학(淺學)의 처지에 매우 과한 과제이기도 하나, 앞서 언급한 위기의 현존을 변명 삼아 무모한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사회 안팎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의 전국적 선거에서 소위 기독교 정당들 연달아 국회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특히 과격하고 편향적인 정치적 언사에 대한 비판과 외면이 일상 담론의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추문 등을 둘러싼 교회 정치 내부의 혼란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분명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도 제도권 교회조직에 참여하기를 마다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자문(自問)에 대하여 대답이 궁색한 까닭인지, 최근 들어 기독교 사회 안팎에는 차라리 정치를 접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더욱 본질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과 인권, 배려와 연대의 가치들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물근성에 젖

은 세속정치 또는 정치 그 자체와 절연하는 곳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다(김두식, 2010). 이들에게 지난 이십여 년간 로마가톨릭 교회가 봉건적 군주제의 조직 구조를 고수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큰 대중적 호감과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권력에 초연한 듯한 외관 속에서 초월적 가치들 고리 삼아 세속정치에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은 갈수록 꼬이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¹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로부터의 철수’ 또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적 대안일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이 문제에 답하려면, 세속정치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토론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반되어야 한다(대표적으로 요더, 2008 특히 1장). 이 자리에서 그 일단을 펼칠 여유는 없으므로 간단히 개인적인 입장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속정치에 대한 소명을 출발점으로부터 재검토하는 정치신학적 토론을 진심으로 염원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을 염두에 두는 한,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합리적인 정치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1517년 발발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 프로테스탄트들은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고유한 이해를 진전시켜왔다. 그 핵심은 무엇보다 인간은 세상사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로서, 소명, 천직, 청지기 등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중심개념들은 모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신적 주권과 관련하여 받아들인다. 인간의 정치적 소명은 신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은 신 앞에서 세계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바깥으로 확장했다. 그들의 정치적 책임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공동체와 역사 및 세계 전체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Niebuhr, 정진홍 역, 1983).

정치적 책임의 원리를 염두에 둘 때, ‘정치로부터의 철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명확하다.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과연 프로테스탄트들이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가? 시야를 제도적 교회 안쪽으로 좁혀서 관찰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성도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수십만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있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 재산이 있으며, 학교와 병원과 언론 등 관련된 조직들만도 그 숫자를

1) 특히 십여 년 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함께 한국 사회에 밀려왔던 자숙과 자성, 일치와 회복의 물결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러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 바 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금까지 별다른 타개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속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신조(creed)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수호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19세기 말부터 친미개화반공노선을 기치로 근대적인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서 온 역사와 자긍심도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정치적 성숙도에 관하여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과 기억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제도적 교회의 내적 요인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하루아침에 정치로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어렵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도적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과도하게 정치화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속정치로부터 후퇴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면, 이는 반드시 제도적 교회는 물론 기독교 사회에 그 바깥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더욱 잘 부담하는’ 대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는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반동을 초래하여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안팎에서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논리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속정치에 개입하는 것 역시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개입과 후퇴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합당한 수준의 정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정치세력들과 신사협정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신사협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공적 협약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지난 5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은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다른 정치세력들과 정치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적 협약으로서 ‘헌법’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Protestant constitutionalism)로 지칭되는 이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발원하여 오늘날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국운, 2007 ; 이국운, 2010).

이 글은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정치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둔 채,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려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결점을 설명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크게 세 가지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발생하여 제도화, 분화, 체계화되는 맥락. 둘째,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프로테스

탄트 교회 정치와의 연계가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맥락, 셋째, 이와 같은 재검토를 전제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맥락. 이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이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운동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체제이념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인다. 체제 수호를 명분 삼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게 맥락을 구별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민주주의, 즉 정치공동체의 자율 통치를 최선의 정치형태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 현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모순적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고 또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이데올로기의 결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현상적 특이점이다(Bobbio, 황주홍 역, 1992).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공존은 근대사회(modern society)라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에서 추동되었다. 지난 세기 서구 지성들은 근대사회의 본질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 줄기를 두 가지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하나는 합리주의·계몽주의·시민혁명의 흐름에서 보듯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가 보편화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혁명·기술주의·실증주의의 흐름에서 보듯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 형식이 갈수록 익명화·기호화되는 것이다. 이 양자의 흐름이 중첩되는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익명의 왕들로 구성된 사회’로 비유할 수 있다. 근대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가 끝없이 확산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하여 증폭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을 통해 등장했다. 헌정주의란 헌법을 정치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인류의 성숙한 문명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왔으나, 앞서 말한 근대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는 특히 헌법을 통하여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모순적 길항 관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헌정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주의적 주권론과 부정부주의적 무주권론을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이중체계를 중심으로 법의 지배를 내세운 제한주권론을 제도화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주권, 성

문헌법,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정부, 민주적 연방주의, 독점금지, 국제평화주의 및 국제인권 보장, 생태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헌정주의적 혁신의 연속이었다(이국운, 2010; 이국운, 2019).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자 근대사회 속에서 추진되는 헌정주의 프로젝트로 이해할 경우, 서구의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원점을 이룬다는 점은 명백하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하나님의 형상’, ‘오직 믿음’, ‘만인사제론’과 같은 교리의 전면화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를 보편적으로 내세웠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은 믿음과 자유를 바탕으로 차별을 허물고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로마가 톨리시즘에 맞서서 만인사제설과 직업소명론을 주창했고, 이를 통해 성(聖)과 속(俗)의 전통적인 구분을 붕괴시켰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른바 ‘존재의 대연쇄’에 따른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에서 근원적인 평등을 정초하는 새로운 질서를 끌어냈다.

이를 위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믿음’의 토대인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에 터 잡아 인간 존재의 평등을 정초하는 ‘보편적-정언적 자유’를 근본 규범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신학적 전복은 구약성서 초두의 선언, 즉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imago Dei)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명제로부터 이루어진다(창세기 1: 26-7). 오늘날에는 이 선언을 인간 존재의 존엄과 가치를 초월적 인격성에서 근거지우려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신적 형상의 특징인 이성적 사유 능력이 모든 인간에 부여되었음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결정적이었다(Waldron, 2010). 요컨대, 프로테스탄티즘은 모든 인간 존재에 ‘신적 형상’이 내재한다는 신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격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이로부터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정초하고자 했던 셈이다.

정치적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정치적 책임의 방식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의 모순적 길항 관계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토스를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부터 정당화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흔히 ‘하나님의 형상’과 ‘만인사제주의’로 요약되는 신학적 본질, 즉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어떠한 중개 없이도 신적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신앙에서 출발한다(Luther, 2003). 이 신앙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개개 인간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근거 지우며, 나아가 자유를 그 자체로 정당화한다. 자유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은 정치적 자유의 제도적 실현을 ‘규범적으로’ 요구한다. 프로테스탄트 정치 신학은 원초적인 평등(radical equality)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에 당위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제도적 교회나 가부장, 귀족집단 등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을 독점한다는 모든 종류의 특권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모든 인간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평등한 인간들의 자율 통치, 즉 데모크라시만이 정당한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자동성(political autonomy)의 이념에 연결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이 혁명적 정치 운동의 에토스를 가지는 까닭은 그 속에서 초월적 자유가 원초적인 평등 및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멀리 고대 아테네까지 소급되는 서구의 정치적 전통에서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치, 즉 자유인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합의정치를 묘사(descriptive)하는 용어였으나²,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를 정면으로 역전하며 규범적(prescriptive) 용어인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즘으로 고양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주의를 ‘좋은(the good)’이 아니라 ‘옳음(the right)’의 관점에서 이해했고, 그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끊임없는 확대와 심화, 그리고 자기혁신이 아니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 의한 자율 통치’라는 이념과 연결되었다.³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초기, 종교혁명가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론과 만인사제주의가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인 평등으로 연결되는 급진적 자유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자유와 민주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감격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종교혁명사의 대표적인 저자인 오즈멘은 독일 종교혁명 초기의 팸플릿들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Ozment, 박은구 역, 2004: 118-119).

“...이처럼 종교혁명 초기의 팸플릿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및 유식자와 무식자 사이의 모든 영적 차별이 신속하게 소멸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교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성서의 새로운 권위에 힘입어 평신도들은 예컨대 교회의 지배권, 법령, 파문 위협 등과 같은 교회의 전통적인 강제력들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으며, 이들을 의미 없는 경고라고 일축하게 되었다. 평신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간에 여하한 영적 차별도 있을 수 없었고, 우열을 나누

2) 데모크라시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폴리스의 문명인들(특히 성인 남자들) 사이에 시도될 수 있는 여러 정치방식 가운데 다수의 지배가 모두를 위해 관철되는 특정한 방식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고방식에서 민주정치는 예컨대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보다 ‘좋은’ 것, 즉 문명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3)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하는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의 재탄생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유파 중에도 특히 칼뱅주의가 이런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Walterstoff, 홍병룡 역, 2007: 1장 ‘세계 형성적 기독교’).

는 어떤 구분도 없어야 했으며, 단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세례가 있을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감격이 자유의 이념과 민주의 이념에 담긴 모순적 길항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양자의 공존, 타협, 접목, 조화의 가능성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악하는 초월적 신앙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두 방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운동이었다(Walzer, 1982).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급진적·발본적인 경향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일정한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기독교회를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invisible church)로 정의하자,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에 난점이 생겼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기치 아래 로마서 13장에서 성 바울이 제시했던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명제에 의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와 같은 주의주의적 정당화는 곧바로 로마가톨릭 교회 내부의 주지주의자들이 이끈 반동 종교혁명의 공격을 받았고, 로마가톨릭 군주에 맞서 폭군방별론을 주장하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칼뱅주의자들에게까지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⁴ 실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초기부터 내부의 교파적인 차이 문제에 시달렸다. 16세기의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은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가톨릭 사이에서 발발했지만, 오래지 않아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투쟁으로 변졌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신앙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를 근거지웠으나, 실제로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진리 투쟁의 문제에 이르자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반(反)자유주의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노명식, 1991: 3장).

이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응책은 일차적으로 구약성서 및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확실히 더 ‘나은’ 정치형태를 추구하려는 시도였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정치사를 토대로 신법 앞에서의 맹약(covenant)이나 그 맹약의 내용을 담은 성문헌법, 연방주의적 조직형태, 제사장-왕-선지자의 권력 분립 등을 도출하거나, 유럽 각국의 정치사에서 이른바 고대 헌법(ancient constitution)을 확인하고 그리스-로마 이래의 혼합정체(mixed government)론을 부활시키는 등의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었다.⁵ 물론 고전적 헌정주의를 부

4) 존 위티는 이 과정에서 칼뱅주의는 멀리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권리 사상을 프로테스탄트적 자유의 이념과 결합하여 후술하는 ‘자연권 공화국’으로 이어질 정치적 혁신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위티 2015).

5) 존 위티는 이 점을 네덜란드 공화국과 영국 청교도 공화국의 수립과정에서 칼뱅주의 정치신학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Witte, 정두메 역, 2015: 3-4장). 지난 한 세대 동안 이 시기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대체로 자유주의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철지난 대립을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극복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조승래, 2010). 그러나 정작 서구 근대의 당시 상황에서 공화주의의 또는 고전적 헌정주의의 부활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의 문명적 혼돈을 넘어서려는 맥락에서 특히 칼뱅주의와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에 관해서는 틴 스킨너와 마이클 주커트의 설명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Skinner, 박동천 역, 2012 ; Zuckert, 1994).

활시키려는 이러한 접근으로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 정당화에서 유래하는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근원적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는 집단(demos)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다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타자의 권리’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도 여전히 결정적인 난문(難問)으로 남아있다(Dahl, 조기제 역, 1999:8-9장).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은 이 문제를 신자들의 공동체(교회)에 정치적 모범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는 신자/비신자, 교회/세상, 기독교세계/이교도세계 등과 같은 비대칭적 이분논리들을 내세운 뒤 후자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자에 일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교회의 목적을 섬겨야 할 그 바깥, 즉 비신자-세상-이교도세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이념과 연결되는 논리였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전제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정치 운동은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결국 그 바깥의 세계 전체를 재구성함으로써 기독교 사회(Christian society)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정중훈, 1999). 이 과정을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을 조감하면서 간추려 보자.

III.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기독교가 이미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체제 종교로서 확립된 가운데, 기독교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촉발되었다는 독특성을 지닌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 정치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기독교 정치공동체의 지배권을 일부 지역에서라도 빼앗아 오는 경우 그와 같은 조건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테스탄티즘은 마르틴 루터 이후 200년가량 북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일정 지역에서 쉽사리 기독교회 및 기독교 정치공동체의 주류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까지 15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던 종교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기독교 정치공동체에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부정한 정치적 공백 위에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해야 했다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전사(前史)로도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를 위한 다양한 변용을 시도하고 또 정당화했으며, 그 경험은 이후 주권적 국민국가를 무대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자료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실험은 아마도 19세기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된 정치실험이었을 것이다. 뒤에 설명하듯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실험적 활력을 잃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언젠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비교할 때,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져온 교회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⁶ 하나는 근본적으로 사제들의 조직인 로마가톨릭 교회의 조직 형태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신자를 동등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비유컨대,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라면, 후자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보편교회로 자처하는 특징을 내세우는 것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제도적 교회를 보이는(visible) 교회로 간주하고 유일한 보편교회를 보이지 않는(invisible) 교회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제도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의 다수성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만 했고, 흔히 교파 또는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사이의 관계 정립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 적어도 네 개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제기한다. 첫째는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들로 재구성하는 과제이다. 이는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들만을 교회조직으로 보고 그 밖의 신자들을 그 바깥에 배치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둘째는 이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들을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체로 연결하는 과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업은 교파 또는 교단의 형태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성서해석을 통해 특정한 프로테스탄트 신조와 교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구(신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셋째는 이와 같은 복수의 교파 또는 교단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달리 특정한 제도적 권위의 우위를 부정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입장에서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넷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와 그 바깥의 세속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사회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권위 중 하나로 확립하는 문제인 동시에 세속 세계의 정치적 권위, 경제적 권위, 학술적 권위, 사회적 권위 등과 제도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수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네 차원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티즘은 결코 로마가톨릭 교회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6) 오컬티즘(occultism)은 ‘감추어진 것’, ‘비밀’ 등을 뜻하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보통 경험이나 사고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주지하듯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애초에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놓은 뒤, 오로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과 체계화에 의존하여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McGrath, 2007: Part 2).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신정주의적 기획을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성도들의 혁명’을 통해서 성서적 합리성에 따라 구성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가지고 정치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Walzer, 1982). 신정주의 기획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정(正)이요 진(眞)이며, 그 바깥의 정치는 부(不)요 위(僞)로 관념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전자를 통해 후자를 극복·대체할 소명을 부여받은 혁명적 전위집단으로 이해된다. 마이클 왈저가 말하듯이,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서구 근대정치사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적 급진주의(political radicalism)의 원형이다(Walzer, 이국운 역, 2017).

이처럼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초기에 주도한 것은 성서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운 신정주의적 기획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급진적 칼뱅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던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다. 청교도들은 기독교 정치공동체 내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통치 권력을 장악한 뒤,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청교도 신앙의 국교화를 추진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임희완, 1985). 그러나 통치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신정주의적 기획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청교도혁명의 주역들은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혔다. 통치 권력은 속성상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非)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비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하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⁷ 나아가 곧이어 벌어진 청교도혁명의 실패와 좌절은 급진적 칼뱅주의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티즘 전체를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자칫하면 종교전쟁의 처참한 혼란을 재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성서적 합리성과 함께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기울어지게 된다. 지난 세기 초,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를 탐색하는 가운데, 현세적 금욕주의의 종교적 토대를 분석했던 대목은 이 점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⁸ 유사한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그 가운데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에 관용, 즉 톨레랑

7) 이러한 지난한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청교도혁명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은 단연 존 밀턴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에 담긴 인식론적 개인주의를 이룬바 일인일교회주의까지 전개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아레오파기타카』를 저술하여 언론과 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설파한 밀턴의 생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박상익, 2008 ; Zuckert, 1994: Ch.3).

8) 막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자들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은총의 법칙성 또는 구원의 법칙성을 예를 들어 엄격구원에정설의 형태로 확인한다. 하지만 문제는 성서적 합리성을 아무리 정교하게 체계화해도 구원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베버는 리처드 박스터를 비롯한 청교도들이 일상적 삶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형성되는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칼뱅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은 자연적 합리성이 성서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한 극적인 사례였다(Weber, 박성수 역, 2006 ; 이국운, 2020).

스라는 특수한 정치적 규범이 형성된 점이다(Locke, 2018 ; 김용환, 1997: 3장).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은 각자의 신조를 문서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구분하여 교리적 공통분모를 찾아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독특하고도 새로운 정치적 규범, 즉 톨레랑스를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정주의 혁명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그 내부의 진리 투쟁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규범적 계기를 확보했음을 뜻한다.⁹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지역적, 신학적, 민족적 경계선을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들은 톨레랑스의 정치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를 기초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분리주의’(separatism)로서 신정주의적 경향성을 고집하다가 실패한 이후, 통치 권력의 추구 자체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테면 순수하고 엄격하면서도 열광적인 초대교회 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청교도혁명의 급진파들이 신정주의 정치 운동의 실패를 겪은 다음, 평화주의나 천년왕국을 내세워 급진적 분리주의자들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이원주의’(dualism)로서 이는 한마디로 세속 세계와 영적 세계의 구분을 정치와 종교의 구분과 대응시킨 다음 프로테스탄티즘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종교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독일 북부의 루터파나 영국의 성공회가 통치 권력과 공존하기 위하여 채택한 노선이다. 셋째는 ‘관계주의’(relationism)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종교적 교리는 물론 정치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규정한 다음 프로테스탄티즘을 교회와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종교적·이념적 동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때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국교를 차지했던 칼뱅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포기한 뒤 위에서 말한 급진적 분리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형성했던 방향이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은 각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교회 정치의 세 가지 유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¹⁰ 우선 분리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를 세속 정치공동체와 분리된 자치공동체로 재규정했으며, 각 자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위 주체로 인정했다. 이른바 ‘회중’(congregation)의 출현이다. 회중의 자율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이 노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의 방향

9)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톨레랑스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로마가톨릭주의와 이에 극단적으로 맞서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대립 축에서 형성된 프랑스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대표적으로 홍세화, 2009). 톨레랑스에 관하여 프로테스탄트 정치신학 및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비교적 온건하면서도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온 영미권의 맥락에 대한 보충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10)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형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나 교파적 경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일반 신자들에게는 의외로 낯설게 다가온다. 여기서는 주로 다음 세 글을 참조했다(한재동, 2012 ; 주인돈, 2011: 9장~10장 ; Hall, 1994).

자체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원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 조직을 대체하는 프로테스탄트 목회자 조직을 구성했다. 이 집단은 대체로 관료제의 구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신학 및 성례에 대한 종교적 전문성을 공유하고 전수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축이 되었다. 조직의 차원에서 이 노선을 대표하는 제도적 상징은 바로 ‘감독’(episcopal)의 존재이다. 회중과 감독이 각기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의 맨 아래와 맨 위를 표상한다면, 마지막으로 관계주의 노선은 이 둘 사이에 위를 향하여 아래를 대표하고, 아래를 향하여 위를 대표하는 독특한 매개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핵심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면서도 동시에 그 회중을 견제하는 임무를 지니는 상호매개적 권력으로 종교적 엘리트 의회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게 중심은 아래와 위, 그리고 중간에 존재하는 종교적 엘리트 의회(presbytery, synod, general assembly)에 놓이게 된다.¹¹⁾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와 같은 갈라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구 근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지적, 이념적, 제도적 자원을 제공했다. 분리주의-회중주의는 인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反독재 및 분권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이원주의-감독주의는 교회와 국가의 주권적 분리, 관료적 전문성과 효율성의 요청을 뒷받침했으며, 관계주의-의회주의는 의회를 통한 대의정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특히 사법의 독립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원주의-감독주의의 영향은 뒤에 설명하듯이 주권국가가 모더니티 정치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로 굳어지고 그 종교적 기초를 이루었던 국교주의가 현격히 약해지면서 갈수록 프로테스탄트적 기원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실증적 주권국가의 이념 그 자체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두 흐름은 서로 각축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사회-시민사회-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합중국 등을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동력을 이루었다.

결과론이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방향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가장 우세해진 것은 ‘관계주의’이다. 개개의 정치공동체 속에서는 분리주의자들 역시 어떻게든 통치 권력과 관계를 맺어야만 했고, 프로테스탄티즘이 국교의 지위를 잃은 다음에는 국교주의자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관계주의에 가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관계주의 모델의 정치적 과제에서 핵심적인 고민거리는 기독교 정치원리와 명시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정치공동체 안팎에서 다른 종파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나아가 비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관계주의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앞서 말한 프로테스탄트 교파들 사이의 새로운 정치적 규

11) ‘분리주의’, ‘이원주의’, ‘관계주의’를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이국윤, 2020).

범, 즉 톨레랑스를 정치공동체 전체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은, 명예혁명 이후 존 로크가 주장했듯이,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종교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수립된 정치조직인 민주공화국에 맡기는 것이었다(Locke, 2018).

이처럼 새로운 정치적 규범을 바탕으로 관계주의는 점차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를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선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엘리트의회주의는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 분파는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와 함께 그 현실적 불가능에 주목하면서, 죄의 편만한 영향력, 이성의 인식적·실천적 한계, 자유민주주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을 냉정하게 통찰한다(Hall, 1994). 그리하여 이 입장이 내세우는 것은 결국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민주정치의 세련된 구성과 운영이다. 자의적 지배, 차이의 배제,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등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훈련된 엘리트들로 의회를 구성한 뒤 대의정치의 미묘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를 연결하는 엘리트의회의 중층구조는 감독제도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정치제도이다. 엘리트의회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대표선출과정과 대표들의 정책결정과정으로 나눈 뒤 중점을 후자, 즉 선출된 엘리트들 사이의 공화주의적 합의정치에 둔다. 압도적 다수의 프로테스탄트는 엘리트의 선출과정에만 개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비하여 침례교를 비롯한 회중 교회 전통에서 성장한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의 성과와 함께 그 어두운 측면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트의회가 대의민주정치체제를 현명하게 운영하기보다 스스로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인간의 근본악과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인 자유민주주의적 혁명이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정치를 내세우는 엘리트의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출발점에서 보면 후퇴 또는 타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를 반대하면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개의 신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새로운 정치, 즉 자유민주적 교회 정치를 경험할 가능성은 오로지 자치공동체에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떤 경우든 자치공동체의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역사에서 엘리트의회주의와 자치공동체주의의 대립과 항쟁은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풍성한 정치적 성과를 생산해냈다. 엘리트의회가 패권화의 경향에 취약하다면, 자치공동체는 쉽사리 지리멸렬해질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표기구의 중층구조화 및 대표기구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포함하는 민주적 대의정치의 여러 가지 제도들로 결실되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헌법 속에 포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치적 영향은 세속정치에도 파급되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엘리트의회주의는 대의민주정치의 제도들을 공급했고, 자치공동체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 즉 사회계약의 이념을 공급했다.

특히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과정 및 미합중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 두 노선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날 흔히 ‘고전적 공화주의 vs 근대적 자유주의’로 해석되는 정치적 대립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거쳐 ‘자연권 공화국’(Natural Rights Republic)이라는 독특한 모습의 국가가 탄생했다.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폴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300년간의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중간 결산이나 다름없다(Zuckert, 1996: 202-243). 그 때문에 ‘자연권 공화국’ 내부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긴장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미합중국의 경우, 매디슨 민주주의, 즉 공화주의적 엘리트대의정치의 이념은 엘리트의회주의에 가까운 칼뱅주의에 연결되었고, 이에 맞서는 제퍼슨 민주주의, 즉 자연권 중심의 인민적 평등주의는 자치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감리교와 침례교에 의존적이었다(Pearcy, 홍병룡 역, 2006: 521-523).¹²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와 교회 정치의 변화

마이클 왈저는 청교도혁명 이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다음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이유를 이룰테면 그 좌절이 아니라 성취에서 찾는 듯하다. 성도들의 혁명으로서 청교도 운동은 성서적 합리성의 우위를 전제로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려고 했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어 역사적 소명을 이

12)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전개 이면에는 서구 근대법의 형성과정이 존재한다. 달리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은 서구 근대법의 형성을 통해 ‘권력을 통한 정치’를 ‘법을 통한 정치’로 대체하고자 했으며, 오늘날 이 이념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원리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 칼뱅주의 법이론의 발생사를 파헤친 존 위티에 따르면, 칼뱅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로 개념화한 뒤, 그것으로 통치 권력의 한계를 규정했고,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법적 권리의 목록은 재산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 권리의 평등사상은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에서 성도의 자격을 단지 성찬과 같은 의례에 참여하는 종교적 자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적 자격으로 변모시켰고, 공동체 내부에서 대의 정부, 법의 지배, 삼권분립과 같은 정치제도의 혁신을 촉발했다. 아울러 이 성적 자연법의 논증을 따라 일반 계약법의 원리가 서구 근대법의 토대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법의 본질이 성례로부터 계약으로 바뀌었으며, 형사 절차도 증거와 양심에 의한 재판으로 초점으로 체계화되었다(Witte, 정두메 역, 2015).

론 까닭에 갑자기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이다.¹³ ‘자연권 공화국’으로 귀결된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는 왈저의 이와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산이 해체 또는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네 가지 과제를 환기하면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과를 평가해 보자.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우선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회중, 감독, 의회라는 핵심 제도들을 통해 재조직했고, 이를 다시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교파 또는 교단으로 결합했다. 나아가 여러 교파 또는 교단 사이의 관계를 톨레랑스라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으로 조율했으며, 그로부터 종교적 자유-국교 부인-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정치원리들을 차례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권력의 재구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톨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자연권 공화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미합중국의 독립혁명을 잇는 앵글로-아메리칸 시민혁명의 계보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Zuckert, 1996).

미합중국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자연권 공화국’에서 톨레랑스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Witte & Nichols 2011: Ch.2-4). 첫째는 톨레랑스를 신앙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권리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곧바로 신체의 자유, 소유권,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며 이른바 권리장전의 형식으로 목록화되었다. 둘째는 이처럼 권리의 형태로 확인된 톨레랑스의 보장 책임이 교단 또는 교파로 나누어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이 아니라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정치공동체에 부여하는 단계이다. 앞서 말한 대로 존 로크의 관용론은 이에 관한 대표적인 입론이다. 셋째는 앞서 말한 ‘권리장전’을 자연권 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편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진화했다. 넷째는 제도적 교회와 자연권 공화국의 관계를 국교의 부인 및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국교 체제를 유지한 정치공동체에서도 국교의 실질적인 의미는 점차 의례적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치와 종교의 제도적 분리가 헌법적 정상상태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졌다.

13) “...청교도 이데올로기는 현실 경험에 대한 대응이었고, 그러므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었다. 왕정 복고 후 수년 내에 영국 정치에서 전투적 성도들이 사라진 현상은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적으로 붕괴 기간 및 정치적 재건 기간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거나 덜 두려워하게 되자 청교도주의는 갑자기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청교도 체계의 특정 요소들이 새로운 일상에 적합하게 변형되었고, 다른 요소들은 잊혔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성도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단지 일상적인 불안만으로 움직이게 되어 로크적 사회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Walzer, 1982: 312)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자연권 공화국’은 세속정치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초월적 종교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국가, 즉 종교적 경전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표상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독특한 국가가 계속하여 존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프로테스탄티즘이 시민사회 속에서 강력한 종교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신자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만이 아니라 성서적 합리성과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차원의 설득력에서도 탁월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치참여가 성문헌법의 정신과 제도를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속적 정치권력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초월적 의미획득에 관하여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짚는 정치적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너지와 열정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 평등의 이념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긴장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헌정주의적 정신과 제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환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즉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모판으로 인식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이념과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가 쌓아온 역사적 지혜를 전통을 계속하여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대혁명의 비참하고 파멸적인 전개과정에 끝없는 실망감을 가지고 1830년대 초반 미합중국을 찾았던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합중국이라는 자연권 공화국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갖가지 자율조직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자들이 법률가들과 함께 일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세속적 정치권력 자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토크빌 연구자인 이황직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이황직, 2018: 195-6).

“...미국의 개신교는 유형의 성례전 대신 무형의 가치에 충실하다. 이들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세의 행복을 존중한다. 민주주의와 평등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적어도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현세의 일과 내세의 일이 구별되고 상충된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겹치고 만나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종교는 국가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대신 세속 시민의 내면에 도덕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율법을 통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종교성을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개인 스스로의 마음을 규제할 양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된다. 적어도 토크빌 시대의 교회는 결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보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그 자리를 자연과학의 영향력이 채우기 시작하자 곧바로 실증주의(positivism)의 이름으로 자연적 합리성을 과학적 합리성으로 승격하여 성서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배격하려는 운동이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주도해 온 관계주의는 두 개의 흐름으로 분열된다. 하나는 ‘이신론’(理神論 Deism)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의 우위를 수용하면서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까지도 과학적 합리성으로 환원하려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신론’(人格神論 Theism)으로서 여전히 오로지 성서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의 근본적인 자의성을 확인하려는 흐름이다(Friedrich, 1964: Ch.4). 도식적인 이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19세기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사회, 특히 미합중국에서 전자는 앞서 말한 이원주의를 흡수하면서 유니테리언리즘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아갔고, 후자는 그 반대편의 분리주의와 결합하면서 대각성 운동과 근본주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이와 같은 지적 분열은 특히 19세기 들어 서구사회에서 본격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이 정돈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크게 보아 이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거나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선택 가운데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이신론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균형체계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대세에 편승하고자 했고, 인격신론자들은 프로테스탄트 특유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투쟁 구도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의미를 단죄하고자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전자는 적자생존·약육강식·우승열패를 내세우는 사회진화론으로 대체되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로 이어지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고, 후자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속에서 자라난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종교적 투쟁의 기초로 탈바꿈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 분열이 프로테스탄트의 조직적 분열에 연결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미 교단별로 분열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국민국가 단위로 다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와 같은 지적·조직적 분열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일종의 농업적 대안 경제를 실험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경계하다가 20세기 들어 전체주의의 광기에 휩쓸리고 난 다음 신토마스주의의 영도 아래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Nichols, 서영일 역, 1994).

이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는 초월적 종교성의 차원을 최

소화하거나 아예 소거하려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이념’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는 서구 근대의 주도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주권국가 스스로 초월적 종교성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정치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려는 일종의 유사국교주의 형태들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20세기 전반을 휩쓴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는 물론이려니와 공산주의 블록을 예외 없이 휩쓸었던 지도자 신격화 및 숭배 전통,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근본주의 종교화 및 정치적 전면화가 모두 포함된다. 이 시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가 무색하리만큼, 세속적 정치권력이 스스로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를 세계의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재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앞서 말했듯이 관계주의의 분열은 교회 정치의 영역을 인격신론의 영향권 안으로 축소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위상이 특정한 교파 또는 교단의 내부 문제로 국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합중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하여 서구 근대의 세속적 정치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들을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교회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 실증적 주권국가를 단위로 이해되고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헌법재판민주주의-직접행동민주주의로 이어지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계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자연권 공화국’의 세속화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적 영향력이 적어지고 非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및 무신론을 포함한 타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을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치부한 뒤, 세속적 정치권력에 대하여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낳았다(이석민, 2022).

따라서 이 시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된 문제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흐름에 적응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는 안팎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오랫동안 모더니티를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던 로마가톨릭 교회가 톨레랑스-종교적 자유-국교 부인-정치와 종교의 분리 순으로 ‘자연권 공화국’의 정치원리가 확립된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특히 유럽 각국에서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들과 연대하여 기독교 정당(연합)을 결성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하여 이미 인격신론의 영향권 안으로 축소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의 진행, 대중의 출현, 신자의 고객화가 진행되면서, 신과의 인격적 소통을 강조하고 종교지도자의 대중적 카리스마를 중요시하는 신학적 지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이후 서구 프로테스탄티즘이 경험한 대각성 운동, 오순절 운동, 세대주의 운동 등은

신자 개인의 회심이나 구원의 확신, 종말에 대한 믿음이나 성령체험 등을 강조하면서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중시하는 일관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Nichols, 서영일 역, 1994).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는 기왕의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의 구도를 우회하여 이른바 메가처치의 형성과 함께 ‘지도자감독주의’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변화 및 신학적 지향의 변화와 함께 대중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극적인 발전, 특히 전기, 앰프, 거대집회장, 라디오, 영상매체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이를 활용하는 ‘부흥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은 현상이다(신광은, 2009). 이를 통하여 ‘지도자감독주의’는 대의민주정치의 의회나 자치공동체의 회중처럼 신중하게 고안된 정치적 대표과정을 거치지 않고 익명의 대중과 극소수의 정치지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인격신론’에 공감하면서도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산을 발전시키려는 일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 정치의 무대를 전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대였던 제도적 교회 조직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조직들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세속정치에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축을 이룬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언론,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국제조직들은 노예제 폐지 운동, 남녀평등운동, 절제 운동, 평화 운동, 국제원조운동 등을 제안하고, 조직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노선을 추구했다(류대영, 2007: 14장).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심대했던 유럽 각국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여 세속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흐름이 생기기도 했다.¹⁵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변화는 분명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자연권 공화국’이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소산임을 기억할 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측면도 존재한다. 우선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을 수호하려는 메타적 차원을 포기하고 ‘자연권 공화국’ 내부의 이익정치로 축소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특히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법사상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권 헌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메타적 차원을 견지해 온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 시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내부

14) 신광은은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난 새로운 교회를 ‘메가처치(mega church)’라고 부르면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대부흥운동과 세계선교운동을 지목하고 있다(신광은, 2009: 3~4장).

15) 이상의 여러 변화 및 이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대응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을 하나만 꼽으려면 단연 신칼빈주의의 개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지목해야 할 것이다.(Kuyper, 박영남 역, 1971 ; 이국운, 2013)

에 ‘지도자감독주의’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서 소수의 지도자 감독이 유용성을 가지는 까닭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격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권력이 사회 전체에 요청하는 세속적 차원의 당위로 변모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엘리트의회의 패권추구와 자치공동체의 지리멸렬을 거쳐 점차 ‘지도자감독주의’에 기울어졌으나, 대중스타를 방불케 하는 소수의 지도자 감독과 그 카리스마에 의존적인 대형교회 체인망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위협하는 측면마저 내포하게 되었다(신광은, 2009: 7장 이하).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자기혁신을 도모해 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과연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인가?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대한민국은 비서구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단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확립한 매우 드문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서 비서구 사회로서는 예외적으로 커다란 기독교 신자집단의 규모, 특히 전인구의 1/4에 육박한 적이 있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존재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독교 신자,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착·확립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통하여 이바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2023년의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관계를 자문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로 이 글이 주목한 것은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및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과정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의 선교 초기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초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핵심 주장과 신정주의적 기획의 매혹,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고민 및 그 성과인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기획의 위대함, 나아가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한 이후에 등장한 ‘실증적 주권국가’의 위험성 등 앞에 동시에 노출되었고, 그 각각을 연결하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숙고할 여유가 없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

또는 심지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서구 근대의 정치신학적 자원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폐기 하곤 했다.¹⁶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각각의 교파적 전통을 지키는 대신, 특이한 교회정치적 혼종(hybrid)을 낳게 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대부분의 교파가 장로교의 정치제도인 장로직제를 그것도 임기직이 아니라 항존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나(김명운, 2009: 52-55), 최근 들어 교파 구분 없이 대형교회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지도자감독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예시할 수 있다.¹⁷ 교회직제연구자인 김명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김명구, 2009: 41).

“...한국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의 영향으로 장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 장로교회도 유럽의 개혁교회와 달리 감독교회적 성격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두 교회 정치제도 모두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개개의 교회나 교단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주의 등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다양한 교파들은 각각의 교회 정치 모델들을 서구로부터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 각각이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결과라는 것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관찰로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한 축이었던 회중에 토대를 둔 자치공동체주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가운데, 항존직 장로제도에 기초한 엘리트의회주의와 카리스마적 목회자에 의존적인 지도자감독주의가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는 정도가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싶다. 그나마도 엘리트의회주의자들은 교회 안팎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추문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핵심인 엘리트들의 충원과정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감독들에 의하여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항해야 할 자치공동체주의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소규모의 자치공동체들은 지리멸렬한 경우가 많고, 어쩌다 등장하는 대규모의 자치공동체들(대형교회) 역시 목회자를 중심으로 지도자감독주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스스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부를 자

16) 이 점을 김명구는 한국 장로교회의 조직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장로교회는 특히 노회에 중요한 권한이 주어지고, ① 장로들에 의한 통치 ② 교직의 평등 ③ 교회회의 단계적 구성이라는 세 가지 정치원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 개혁교회 전통과도 다르고 미국 장로교회의 실제와도 다르다. 한국 감리교회 역시 개교회의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파송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감독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김명구, 2009: 25-6).

17)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대형교회들이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체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 예배를 가능케 하는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면서 사실상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정치를 지도자감독들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대형교회들은 가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교회의 세습 파문과 교단 총회의 불법 선거 논란 등으로 안팎의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프로테스탄트 각 교단 또는 교단 연합체의 대표성을 차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속적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록 여러 차례의 기독교 정당운동은 실패를 거두었지만, 세속적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와 강박을 제도적 교회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교환하는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끈질기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개별 교회 차원과 국가교회 차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또는 비대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국가교회 차원의 정치적 의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개별 교회의 교회 정치는 아예 조직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국가교회 차원이 비대칭적으로 강화된 까닭은 지난 19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친미개화반공노선이라는 특유의 정치노선에 따라 한반도에서 근대국가주의를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종교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안 정치 운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 그러나 광복 이후 특히 한국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오히려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을 축으로 하는 ‘실증적 주권국가 이념’에 국가교회 차원에서 종속되었고, 그와 같은 특징은 민주화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류대영, 2018: 11~14장).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부딪히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자체의 급격한 위축이 예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가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이나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포기하는 선택이며 세계-형성적 기독교로부터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저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자유의 초월적인 정초, 원초적인 평등과 민주정치의 연결, 관용의 지속적 확대 지향성, 죄의 편만한 영향력과 정치적 훈련의 필요성, 모범의 정치라는 이상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종교적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세계-국가-지역을 연결하는 중층적 대의 정체의 필수성,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다양한 가능성, 헌법이라는 정치적 도구와 그 속에 포함된 미묘한 정치적 지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비롯한 세련된 정치제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다시금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좁은 의미의 교회조직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재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새로운 무대를 찾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자의 시도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신정주의적 기획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들이 성숙한 비판 및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정치의 非신정주의적 기획마저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 즉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새로운 무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결사체들이다. 굳이 프로테스탄트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면, 다양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결사체들로 범위를 확대해도 무방하다.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사회조직,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NGO, 나아가 기독교 정당과 같은 결사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과 구분되는 크리스천 결사체(Christian association)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교리인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일부가 된다.

흥미롭게도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요 무대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했던 바이다.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에서 지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로 다음의 다섯 시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①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이끌던 대한제국 초기 ②3.1운동에서 상해임시정부, 독립군, YMCA, 신간회 등으로 이어진 독립운동기 ③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이 활약한 해방공간의 초기 ④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1970년대 중반기 ⑤민주화이행국면에서 시민운동을 향도했던 경실련 초기. 이 시기들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유한 특징은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교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더 충실했다는 점과 함께 크리스천 결사체들이 그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조직적인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를 전향적으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하여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깊은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대형교회와 소수의 지도자감독이 대표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특이한 변형으로 퇴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목회자중심의 종교

조직을 과감하게 우회하여 다양한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로 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혹시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결사체의 형태로 크리스천들을 결집하고,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들의 활발한 개입과 연대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은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진 현재의 교회 정치로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당분간 이격시켜 절망과 체념을 떨치고 개혁 추진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사회 각 분야 및 국제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심화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프로테스탄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크리스천 결사체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무대를 통해 성숙한 정치적 엘리트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 즈음에는 제도적 종교조직에서도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된 무대를 제도적 종교조직에서 크리스천 결사체로 옮기려면 많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에 일방적으로 결부된 프로테스탄트들의 조직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강조점의 재조정과 함께 재정 운영, 엘리트의 양성과 배치 등 손보아야 할 일이 여럿이다. 이를 위한 준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종합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짜고 동시적으로 이를 구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뜻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두식 (2010).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 김명구 (2009). 한국 교회 정치제도의 특성과 변천-장·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치와 민주주의 자료집**. 서울: 바른 교회 아카데미.
- 김명운 (2009). 한국 교회의 직제와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교회 정치와 민주주의 자료집**. 서울: 바른 교회 아카데미.
- 김용환 (1998). **관용과 열린 사회**. 서울: 철학과현실사.
- 노명식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연구**. 서울: 민음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 **3·1운동과 한국 교회의 역사 참여**. 3·1운동 70주년 기념행사 보고서.
- 류대영 (2018).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류대영 (2007). **미국 종교사**. 청년사.
- 류의근 역 (2022). **성도들이 일으킨 혁명-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급진주의 정치**. Walzer, M. (198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논산: 대장간.
- [Ryou, E. G. (202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Nonsan: Daejanggan. Trans. Walzer, M. (198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박동천 역 (2012).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종교개혁의 시대**. Skinner, Q.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서울: 한국문화사.
- [Park, D. C. (2022).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Seoul: Hankukmunhwasa. Trans. Skinner, Q.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상익 (2008). **불굴의 이상주의자 밀턴 평전**. 서울: 푸른역사.
- 박성수 역 (200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Weber, M.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서울: 문예출판사.
- [Park, S. S. (2006).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Seoul: Munyechulpansa. Trans. Weber, M.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Pantianos Classics.]
- 박영남 역 (1971). **칼빈주의**. Kuyper, A. (1943).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세종문화사.
- [Park, Y. N. (1971). *Lectures on Calvinism*. Seoul: Sejongmunhwasa. Trans. Kuyper, A. (1943).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박은구 역 (2004). **프로테스탄티즘-혁명의 태동**. Ozment, S. (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 Revolution*. 서울: 헤안
- [Park, E. G. (2004).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Seoul: Heyan. Trans. Ozment, S. (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New York: The Crown Publishing Group]
- 서영일 역 (1994). **현대교회사-서구의 세속화**. Nichos, J. H. (1956).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Seo, Y. I. (1994).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Seoul: Gidokkyomunseosengyoheo. Trans. Nichos, J. H. (1956).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New York: Ronald Press Co.]
- 손병호 (1984). **교회정치학 원론**. 서울: 양서각.
- 신광은 (2009). **메가처치 논박**. 서울: 도서출판 정연.
- 신원하·권연경 역 (2008). **예수의 정치학**. Yoder, J. (1994).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서울: IVP
- [Shin, W. H. & Kwon, Y. K. (2008).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Seoul: IVP. Trans. Yoder, J. (1994).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Grand Rapids: Eerdmans.]
- 이국운 (2007).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11(2), p.132-168.
- [Lee, K. W. (2007). Protestantism and Constitutionalism. *Faith&scholarship*, 11(2), 132-168.]
- 이국운 (2008).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II)-참여자의 관점. **법과 사회**. 34권, p.23-52.
- [Lee, K. W. (2008). The Normalization Issue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II): A Participant's Viewpoint.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no.34, 23-52.]
- 이국운 (2010). **헌법**. 책세상.
- 이국운 (2013).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127-155.
- [Lee, K. W. (2013).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Faith&scholarship*, 18(3), 127-155.]
- 이국운 역 (2017). **출애굽과 혁명**. Walzer, M. (1986). *Exodus and Revolution*. 논산: 대장간.
- [Lee, K. W. (2017). *Exodus and Revolution*. Nonsan: Daejangan. Trans. Walzer, M. (1986). *Exodus and Revolution*, Basic Books.]
- 이국운 (2019).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헌정주의자의 시각. **공법연구**, 47(4), 89-116.
- [Lee, K. W. (2019). What is Liberal Democracy? -An Answer from Constitutionalism-. *Public Law*, 47(4), 89-116.]
- 이국운 (2020). 프로테스탄티즘과 서구 근대법의 균열구조, **사회이론**, 58호, 57-102
- [Lee, K. W. (2020). Protestantism and the Structural Crack of Western Modern Law.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58, 57-102.]

- 이석민 (2022). 서구 근대에서 정교분리원칙의 발전, 이국운 편. **이 땅에서 자유·정의·평화·법**, 한동대학교 출판부.
- 이황직 (2018). **민주주의의 탄생-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경기: 아카넷.
- 임희완 (1985). **청교도혁명의 종교적 급진사상-원스탄리를 중심으로**. 경기: 집문당.
- 정두메 역 (2015). **권리와 자유의 역사-칼뱅에서 애덤스까지 인권과 종교 자유를 향한 진보**. Witte, Jr. J. (2008).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서울: IVP.
- [Jeong, D. M. (2015).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Seoul: IVP. Trans. Witte, Jr. J. (2008).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종훈 (1999). **기독교 사회윤리와 민주주의**. 경기: 한국 장로교출판사.
- 정진홍 역 (1983). **책임적 자아**. Niebuhr, H. R. (1963/1999).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Jeong, J. H. (1983).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Trans. Niebuhr, H. R. (1963/1999),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Westminster John Knox Press(new edition).]
- 조기제 역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서울: 문학과 지성사.
- [Cho, K. J. (1999). *Democracy and its Critics*. Seoul: Munhakgwajisengsa. Trans.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
- 조승래 (2010). **공화국을 위하여-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서울: 길.
- 주인돈 (2011). **성공회, 열린 교회로의 초대**. 서울: 푸른솔.
- 한재동 (2012). 회중교파, 침례교파, 크리스천교파 및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직제, 바른교회 아카데미 편. **교회직제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1-220면.
-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Perc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서울: 복있는 사람.
- [Hong, B. R. (2006). *Total Truth*. Seoul: Hismessage. Trans. Perc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Illinois: Crossway Books.]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Waltersto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서울: IVP.

- [Hong, B. R. (2007).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Seoul: IVP. Trans. Waltersto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 홍세화 (2009).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개정판), 경기: 창비.
- 황은영 역 (2012). **삼위일체와 교회**. Volf, M. (1997).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서울: IVP.
- [Hwang, E. Y. (2012).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Seoul: IVP. Trans. Volf, M. (1997).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 황주홍 역 (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Bobbio, N. (2005). *Liberalism and Democracy*. Martin Ryle & Kate Soper. 서울: 문학과지성사.
- [Hwang, J. H. (1992). *Liberalism and Democracy*. Seoul: Munhakgwajisengsa. Trans. Bobbio, N. (1985/2005). *Liberalism and Democracy*. Martin Ryle & Kate Soper. Verso.]
- Friedrich, C. J. (1964). *Transcendent Jus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all, D. W. (1994). The Pastor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Church Government, in Hall, D. W. and Hall, J. H. (Ed.) *Paradigms in Polity-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Eerdmans.
- Locke, J. (2018).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MI: Gale ECCO.
- Luther, M. (2003), *On Christian Liberty*, MN: Fortress Press
- McGrath, A (2007).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New York: HarperOne.
- Waldron, J. (2010). The Image of God: Rights, Reason, and Order, in Witte, Jr. J. and Frank S. Alexander (Ed.)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An Introdu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6-235.
- Witte, Jr. J. & Nichols, J. A. (2011),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3rd edition), UK: Westview Press.
- Zuckert, M. (1994). *Natural Rights and the New Republican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uckert, M. (1996). *Natural Rights Republic*, I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Liberal Democracy and the Church Politics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조건과 한계를 교회 정치 차원에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2000년대 이후 거둬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저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초월적으로 정초하면서 원초적 평등과 정치적 자동성의 이념을 차례로 정당화시켰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나간 수 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공동체(교회)가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실험장으로서 다양한 정치 노선들을 발전시켜왔음을 제시한다. 문제는 19세기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운동의 무대가 실증적 주권국가로 옮겨지면서 제도적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최근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실패를 이와 같은 장기적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차제에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무대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흔히 교계(敎界)라고 지칭되는 목회자 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천 결사체들(Christian associations)들을 프로테스탄트 정치운동의 새로운 무대로 삼자는 것이다.

주제어: 자유민주주의, 교회 정치, 프로테스탄티즘, 종교혁명, 한국 교회

케노시스 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동화 이해*

A Study on the Work by Jung-Saeng Kwon in terms of the *Kenosis*:
Exploring *God Lives Next Door to Me*

정덕희 (Deok Hee Jung)**

ABSTRACT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kenosis* theology through the children's story, *God lives next door to me*, written by Kwon, Jung-Saeng. God in the story is portrayed as a humble and vulnerable character, far from the feature of Almighty God. And yet the concept of the *kenosis* offers a fresh perspective to examine such a vulnerable God in the story. In particular, the *kenosis* theology by Moltmann will be helpful for current project. The *kenosis* signifies the indwelling of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of human beings. God's self-emptiness is the another aspect of Almighty God. Moreover, God's *kenosis* is an authentic expression of God's steadfast love toward the world. In this light, human has to empty himself also just like God because human is the one who have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Kwon points out that Korean church today is filled with greed and avarice. They should restore the spirit of self-emptiness. So Kwon provides this short story by which the whole of the readers should follow the self-emptying of God. In this sense, this children's story can be said an excellent theological story.

Key Words: Jung-Saeng Kwon, *kenosis*, *God lives next door to me*, self-emptiness, Moltmann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문과대학 기독교학과 조교수.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ontheway21@hnu.kr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에서 성경 읽기 및 연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왔다. 성경 텍스트를 읽고 공부하는 데서 출발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성경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성경 텍스트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교차 읽기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 색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최근 성서와 인문학 간의 학제간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제간 연구 안에서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들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문학 작품을 통해 성경을 읽는 시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문학작품 속에 숨겨진 신앙 또는 신학 주제를 찾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문학 속에 투영된 작가의 신학적 관점을 파악해서 더 깊은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단순히 문학작품에 내재된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통해 재현되는 작가의 신학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신학적 담론을 찾아 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반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문학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신학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까? 물론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양 문학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컨텍스트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고민하는 우리에게서는 우리 글로 기록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조망하는 시도가 더욱 유익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 문학 작품 중 매우 신앙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가를 선택하려고 한다. 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1937-2007년)의 작품이다. 2007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학계에서 그의 작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동화작가로서의 특유의 감성적 글쓰기에도 기원하지만, 특별히 그의 작품 속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환,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깊은 고뇌와 사색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 문학은 그동안 많은 연구물들을 산출해왔다. 권정생 관련 국내 약 50여편의 연구논문이 출판되었으며 그 연구물들은 권정생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인문사회 영역—아동청소년 문학, 세계 문학 비교연구, 언어학, 상담학, 교육학, 민속학, 지역사회학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그가 남긴 문학작품들이 아동들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 아동문학에 있어서 그의 공헌, 그리고 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 사회의 모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기독교 및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된 학술적 연구물은

전무한 상태다. 그러므로 그의 동화가 독자들의 영성 및 신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활발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정생의 작품 속에 깃들여진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책은 그의 장편동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이다. 물론 이 작품 외에도 『강아지똥』을 비롯 『눈물 흘리시는 하느님』, 『동근이와 아기 소나무들』과 같은 작품들 역시 기독교 신학 주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속에서 간략하게 메시지 정도로만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담론을 내재하고 있으며, 동화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신학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깊은 연구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해 성숙한 어른을 위한 동화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구 방향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본 작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새롭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¹⁾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비움’ 또는 ‘자기-제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논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케노시스(*kenosis*)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으로 권정생의 문학 세계를 고찰하며 권정생 작품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작품은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을 성찰하게 한다. 한국 사회와 현실을 반영하며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동화 속에 나타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조망해 볼 것이며,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 정신으로 케노시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권정생과 그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 그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권정생은 개신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느님’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그가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신명(神名) ‘하나님’ 대신 천주교에서 널리 수용하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및 개신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배타주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본 논문은 그가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음을 고려하여, 또한 본 논문의 주 독자층이 ‘하나님’에 더욱 익숙한 청중들을 고려하여, 권정생 작품에서의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일러둔다. ‘하느님’과 ‘하나님’의 표기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중요하고 방대한 학술적 주제가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손은실(2022)의 최근 연구물을 참고하라.

II. 권정생의 삶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1. 권정생의 삶

권정생은 1937년 9월 일제 강점기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서 태평양 전쟁의 한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본 빈민가에서 가난한 살림을 하던 권정생의 가족들은 1946년 해방 이듬해에 고국으로 귀국하지만, 권정생이 열네 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의 풍파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이후 나무 장사를 비롯 수많은 장사를 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열아홉 살 때 결핵을 앓기 시작한 이후 그는 평생 병마에 싸우는 신세가 되었다. 196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걸인 생활을 하다가 1967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일직교회 문간방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종지기 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한다. 그 동화는 기독교 신앙을 기저에 둔 아동 문학 작품들이었다. 이때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 문학가로서의 그의 여정이 시작된다(원종찬, 2017: 47).

권정생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계기는 그의 책 『강아지똥』이다. 1968년 봄에 동시로 써 두었던 것을 1969년 봄 동화로 고쳐 써서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에 당선된다. 이후 그 동화는 『기독교교육』 1969년 6월호에 발표되었다. 권정생 나이 서른 두살에 발표된 『강아지똥』은 자신의 자전적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그는 자신을 “거지”에 비유하며,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터뜨린 울음소리로 그 동화를 썼다고 술회한다(권정생, 1974). 이 짧은 동화에서는 스스로를 “오물덩이”라고 고백하곤 했던 권정생의 진솔한 고백이 엿보이기도 한다(원종찬, 2008).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라며 늘 외톨이로 자라야만 했던 곤고했던 삶, 그리고 외롭고 연약하게 자랐던 자신의 삶을 강아지똥에 투영하여 묘사한 자화상과도 같은 동화이다. 비록 어린이를 위한 짧은 동화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메시지, 즉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는 신앙적 메시지가 깃들여 있다. 이와 더불어 강아지똥의 희생을 통해 민들레가 꽃을 피운다는 장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온 인류 구원의 열매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와도 연관이 된다.

문학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는 권정생의 글쓰기 방식은 비단 개인적 신앙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신앙적 고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한국 교회로까지 확대된다. 권정생은 다루고자 하는 작품의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문학 양식을 채택해서 다룬 것인데(염혜숙, 2019: 193), 때로는 매우 사회고발적인 강한 메시지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조망하며 인간의 삶을 반성하는 작품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다. 이 작품은 한(恨)의 정서와 애통함이 담겨있는 상당히 무거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사회 혼란과 전쟁 그리고 공포와 계속되는 혼돈 속에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작품이다. 실제 권정생은 전쟁통에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이 겪은 전쟁의 불행을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했기에 그는 ‘식민지의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늘 깊은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고민에서 이 작품은 시작된다 (권정생, 2008: 21). 그는 동화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판을 치는 한국 교회를 향해 고언(苦言)을 내뱉기도 한다. 매우 강한 꾸지람을 전한다.

작가의 상상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작금의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 보실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서 내러티브를 전개해 나간다.² 그러면서 권정생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곤고한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간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임을 이 작품에서 드러낸다.

이 책은 매우 도발적인 장면들의 빈번한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파격적인 표현 및 개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또한 신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물론 이 책은 아동문학에 속하며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읽을 책이기도 하지만, 깊이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담론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권정생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깊은 이해와 이를 통해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서 동화를 써내려 간다. 그렇다면 과연 본서에서 드러나는 권정생의 신학적 시선은 어떠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 신학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자기-비움을 표현하는 케노시스가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작품 개요

이 작품은 1989년 7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새가정』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되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낸 장편동화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근교에 우리 이웃에 살게 된다는 매우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서 재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당시 처음 이 작품을 연재할 때 제목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가 아

2) 권정생의 작품 안에 신학적 모티프가 있다는 점은 톨스토이 작품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이희정(2018, 42)은 권정생을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와 비교를 하며 “같이 각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폈을 때, 권정생이 작품을 쓰기 위한 모티프를 얻고 주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하면서 톨스토이 작품을 읽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무척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니라 책의 목차에 나오는 단편 에피소드들— ‘하느님이 세상으로 내려오다,’ ‘수박밭에 떨어진 하느님’ 등—로 발표 되었으며, 매월 연작으로 발표된 단편을 묶어서 장편으로 출판할 무렵 지금의 작품 제목이 붙게 되었다. 작품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예수 승천 이후 2천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 다 버리고 다시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된다.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쓰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내려와서 살기로 굳게 다짐한다. 처음 목적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는 도중 거센 바람에 휩쓸려 동쪽으로 계속 날라 가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 경상도 어느 들판 윤서방네 수박밭에 떨어지게 된다. 마침 대한민국은 여름이 한창이었고, 그날은 우박이 심하게 떨어지던 날이었다. 우박은 수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우박 때문에 농사를 망쳐 하늘을 원망하는 윤서방에게 하나님은 미안해하며 속으로 삭삭 빈다. 세상에 오셔서 겨우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울로 가서 변두리 철거민 마을에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 그곳에서 피난민 과천댁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예수님은 공사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서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간다. 청소부로 취직해서 일하던 예수님은 부모 없는 다섯 살 고아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를 데리고 함께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철거민 포크레인이 천막촌에 들이닥치고 온 가족이 거주하던 천막집은 무너졌다. 결국 하나님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강변에 천막을 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하실 셋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하나님은 병석에 눕게 되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는 어려운 신세다. 설상가상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

집안뿐만 아니라 세상도 온통 혼란스럽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세상은 흥겨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교회는 그저 말세 지옥 이야기만 하며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운 이야기만 가득하다. 어느 날 셋방살이를 하던 가난한 삼형제가 방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질식해서 죽게 되고, 산동네에서 봉식이라는 아이가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일이 생겨난다. 하나님이 봉식이를 업고 병원에 갔으나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모습을 목도한다. 잘못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하염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이웃사랑보다 기적만 바라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돌아갈까 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 계신다.

III. 낮아지신 하나님 그리고 케노시스

1. 낮아지신 하나님

이 작품은 매우 어둡다. 세상은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머물렀던 달동네와 판자촌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현실 묘사의 핵심은 결국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작가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조명하되,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주목할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한다.

권정생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동화의 작은 분명 성육신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신학적 주제이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다. 하나님이 ‘강한 자, 전지전능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한번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보자꾸나... 그냥 우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한번 살아 보자꾸나...’ [예수님]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본다면 저도 찬성입니다.’”(권정생, 1994: 10).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존 성육신 개념과 분명 차이점이 있고,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자명해 보인다. 다만 권정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등장시킴으로써 두 캐릭터의 신적 대화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 것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묘미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등장은 복음서 초반 내려티브를 그대로 따라 간다. 이 땅에 왔지만 목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동화속 하나님도 처음부터 목을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인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머리 둘 곳 없었다는 표현(마 8:20 참고)을 연상케 하듯 계속해서 쫓겨 다니고 헤매는 신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천하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읽는 내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³ 하나님이 결혼을 한다는 묘사, 하나님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점, 하

3) 권정생의 작품 안에 신학적 모티프가 있다는 점은 톨스토이 작품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이희정(2018, 42)은 권정생을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와 비교를 하며 “같이 각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폈을 때, 권정생이 작품을 쓰기 위한 모티프를 얻고 주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하면서 톨스토이 작품을 읽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무척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나눔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는 장면, 하나님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점, 예수님이 과일장수를 하고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이웃으로부터 혼나는 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낯설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이러한 전지전능함이 제거된 하나님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 힘이 강한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 가장 완벽해야만 하는 존재가 저렇게도 힘이 없는 존재로 묘사된 점은 작품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 가능한데, 바로 케노시스 신학이다.

2. 케노시스

케노시스(*kenosis*)는 현대 신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기-비움’(self-emptiness)을 의미하는 단어다. 케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5-11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찬가에서 근거를 찾는다. 바울이 기록한 그리스도 찬가에서 ‘비우다’를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 ‘케노오’(κενῶω)의 명사형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올 때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스스로 비웠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단어이며, 그리스도의 겸허설(kenoticism)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McGrath, 김기철 역, 2017: 432).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는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적 상태로부터 지상으로의 인간적인 형태로의 하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케노시스는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다는 낮아지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회퍼(Bonhoeffer, 김순현 역, 2016: 343-344)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아래 기록은 빌립보서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자기-비움’이라는 신학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과 수난을 제시하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지.”

본회퍼가 묘사한 무력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빌립보서를 토대로 하는 케노시스라는 개념으로 선명하게 제시된다. 케노시스 담론의 출발점은 ‘자기-비움’을 통해 기독교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Altizer, 1966). 케노시스라는 이 개념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권정생의 동화에 나타나는 신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학자는 몰트만(Jürgen Moltmann)이라 할 수 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자기비움을 삼위일체적 본성으로 확장시켜서 케노시스 신학을 더욱 체계화한 사람이다(고형상, 2019: 15).

몰트만은 유대교적 사고에 근거해, 셰키나(*shekinah*), 즉 추방당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케노시스를 설명한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몰트만은 케노시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시대 출애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굽 광야 시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레 26:12)을 이루기 위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는 점에 몰트만은 주목한다(출 3:8).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난 장소는 척박하고 고된 광야였다. 그리고 그 고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와 추방으로 고난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계속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사 63:9)(Moltmann, 박동식 역, 2015: 243). 하나님은 집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동반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내주하심을 경험한 유대교는 ‘하나님의 자기비하’라는 신학적 주제를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출발점이라고 몰트만은 주장한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243).

몰트만은 구약성서에서 출발하는 이 개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루리아(Issac Luria)에게서 유대교 침춤(*zimzum*) 개념을 빌려온다. 침춤은 유대교 카발라(*kabbala*) 신비주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 행위를 자기-축소(*self-contraction*)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축소,’ 또는 ‘자기-제약’을 통해 자신의 편재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자기-제한’은 피조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적 측면에서 자신의 영원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에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의 고난에 함께 내주하심으로써, 그리고 고난을 감당키 위해 성육신 하신 아들을 통해 자신을 온 인류에게 개방하신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251). 자기-제약을 통해 이제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케노시스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영역에 내주하셔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이관표, 2018: 52).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나약한 실존적 상황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기도 하다(이관표, 2018: 49).

케노시스의 시선으로 볼 때 권정생의 동화 속 하나님의 이미지는 더욱 생생하게 와닿는다. 그리고 초월적인 힘의 소유자로서 여겨졌던 하나님의 취약하고 무력해진 모습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권정생 작품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여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동화 속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첫 장면부터가 매우 인상적 이었는데, 바로 우박 사건이다. 정성껏 농사를 지었건만 우박으로 인해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

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농부들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우박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다는, 우박으로 인해 고통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권정생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케노시스다.

동화 속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철거민촌, 그리고 낮은 자들이 하던 과일행상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서울의 전형적 달동네 지역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공주가 감기 걸렸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하고, 가난한 삼형제가 불장난하다가 죽는 순간 그리고 봉식이의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는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에서 과일을 팔다가 노점상 단속반에 잡혀 험한 꼴을 당하는 예수님, 아들이 험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응징하지 못하고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그러한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 힘 사용 여부보다는, 전능한 하나님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상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동화 제목이 암시하듯 하나님은 “우리 옆집”에 거주하시는 이웃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질병이다. 작가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병치레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래 신은 절대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안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병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낯설다.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간 삶의 현실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권정생은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물론 독자들은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고통으로 인해 무력해진 자들에게 또 다시 무력하고 취약한 하나님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하여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기-제한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루어 지면 고 고착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화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형상, 2019: 34).

하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연약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나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케노시스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제한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자칫 굴절된 신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한다. 케노시스 신학에서 연약함은 역설적이게도 힘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에 때문에 무력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 가운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력함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4) 고형상(2019)은 케노시스의 자기-비움이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늘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칼빈의 “하나님의 맞추심(divine accommodation)”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포기되었다기 보다는 연약한 인간에게 맞추셨다는 것에 착안해서 케노시스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전지전능한 위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비움과 제한을 통해 드러난다. 이관표(2018: 63)의 설명대로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타인의 존재를 염려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다른 것들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모습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다.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고통의 현장에 내주하여 고통받는 자와 함께 눈물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의 또 다른 표현방식인 셈이다. 케노시스적 하나님은 전통적 이해와 전적으로 다른 자기-비움을 통해 그 완전함과 무한함을 드러낸다 (이관표, 2018: 53). 결국 우리 독자들은 무력함을 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력함 속에 감추어진 ‘전능한 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정생 작품 속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힘있는 자가 자기-비움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이와 관련 몰트만(Moltmann, 박동식 역, 2015: 252)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에서 그의 전능한 힘을 발견한다. 전능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케노시스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 폴킹혼(John Polkinghorne)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신학자 및 과학자들 간의 케노시스 연구 모임이 성사되었으며, 이 포럼에서 창조를 사랑의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로서 케노시스로 간주하는 논의를 펼치게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케노시스 창조이론』(2015)은 케노시스 신학을 창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기-비움은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창조를 자기-비움으로 간주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Polkinghorne, 박동식 역, 2015: 19).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케노시스는 결국 비움의 사랑이다. 벨커(Michael Welker, 박동식 역, 2015)는 하나님의 비움의 사랑이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며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이관표, 2018: 52, 55, 57 ; 전철, 2017: 30). 결국 모든 창조와 자기-제한은 사랑으로 귀결되며,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본질이다.

그런 맥락에서 권정생이 동화를 출판하면서 머리말에서 했던 구절을 생각해보자.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케노시스를 서술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피어나는 조그만 꽃 한 송이도 하느님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에서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사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권정생, 1994: 글쓴이의 말).

권정생은 동화를 전개해 가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강조점을 둔다. 사랑은 권정생 작품에서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이다(장수경, 2017: 128). 권정생이 동화속 등장 인물의 기쁨, 슬픔, 탄식, 분노 등의 강점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을 통해서이다(장수경, 2017: 128).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 와서 인간 곁에서 내주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자기-비움을 통한 고통도 결국 사랑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변질하고 타락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이쯤 해서 세상을 끝장내 버릴까라는 생각까지도 한다.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거두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어린 ‘공주’다. 공주는 세상 심판 계획으로 인해 잠못 이루는 하나님 곁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왜 주무시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을 쉬세요?”라고 물으며 혹시 최후의 심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물어본다. 공주의 이러한 순진무구한 모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순수함과 깨끗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확인케 한다. 그리고 이런 공주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게 한다. 공주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거두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던 세상이 변질된 것을 마음 아파하지만 인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생하며, 자기를 끝까지 제한하며 세상에 머문다. 물론 하늘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을 다짐한다. 그래서 동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거리 여기저기에 전등불이 들어올 때쯤...하느님은 좀 더 높은 꼭대기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네온 불빛에 크리스마스 불빛까지 온통 꽃전등으로 반짝이는 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때쯤인지 밤이 깊어졌을 때, 하느님은 검정 털고무신을 신은 발로 더듬더듬 걸어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며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야지.”

하느님은 조금 내려가다가 시린 두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었습니다 (권정생, 1994: 199-202)

이처럼 권정생은 케노시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승화시킨다. 동화 속에서 케노시스를 통해 고찰한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다.

3. 권정생과 케노시스

그렇다면 왜 권정생은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졌을까? 이를 위해 다시금 본회퍼를 생각해보자. 서양 신학에서 케노시스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대전이 있다(고형상, 2019: 15). 20세기로 접어들면서 1,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인류는 신의 현존으로 가득한 희망보다는 신의 부재로 채워진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무력함 연약함 비움 등의 가치가 신의 내재적 본질로 이해되었다(고형상, 2019: 15). 본회퍼의 글을 통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기력해진 신앙인들이 가졌던 무력함과 그런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존재 인식이 케노시스 신학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이미 확인하였는데, 한국 상황 속에서 권정생도 비슷한 것들을 느꼈다. 그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치열한 한국전쟁 속에서 신의 무력함을 경험한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거치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은 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절대량의 부족이 아닌, 나라의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였다는 점을 발견한다(홍인표, 2021: 45).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도 그는 약자로서 끊임없이 절망감과 무력함을 경험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가 자신을 강아지똥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삶이었다(홍인표, 2021: 22). 그럼에도 오랜 고민 끝에 권정생은 본회퍼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하심보다는 내주하심을 고백한다. 권정생은 교회 중치기로 살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즉 하나님의 케노시스와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권정생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론적 가치는 무력함, 연약함, 비움 등의 가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의 덕(virtue)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동화를 통해 그는 주장한다. 하나님은 공사장에서 힘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시며, 변두리 철거민 마을에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계시며, 셋방살이를 하던 봉식이가 당한 참변에 애통해하며 이웃의 슬픔에 참여하고 계시며, 오갈 데 없어 강변에 천막을 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 곁에 함께 계시며, 그들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라고 작가 권정생은 고백하고 있다.

IV.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한 케노시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즉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이관표, 2018: 6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부르심에 진실하다면, 케노시스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Ellis, 박동식 역, 2015: 197). 하나님의 케노시스 사랑은 인간을 창조적 사랑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을 담지한 자들이 되게 하므로, 인간은 케노시스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Welker, 박동식 역, 2015: 233).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케노시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케노시스의 삶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권정생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동화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펼쳐간다. 앞서 케노시스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됨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권정생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케노시스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한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서문의 소제목—‘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가 암시하듯 이 세상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권정생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사회와 교회는 케노시스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다. ‘자기-비움’ 보다는 오히려 ‘자기-채움’으로 가득찬 한국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권정생의 동화가 묘사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분명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결함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세상논리가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의 자서전적 수필집 『우리들의 하느님』에 보면 한국교회는 서구인들이 마음대로 변질시킨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했다(권정생, 2008: 29).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정생은 이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혼탁한 세상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1984년에 출판된 동화 『하느님의 눈물』이 이를 잘 보여준다(권정생, 1984). 이 동화는 돌이토끼와 하나님의 대화로 전개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탄식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타인을 살상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화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기를 써서 남을 해치고 있음에 깊이 탄식한다. 이때 돌이 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바로 그 물은 하느님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었다.

그 눈물 흘리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라 할 수 있겠다. 하느님은 혼탁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 직접 내려오셨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세속논리로 점철된 현실을 바라보신다. 약육강식 경제체제 속에서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린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 곁에 하느님은 이웃이 되어 주신다. 동화 속에서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직면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재개발로 인한 철거민들, 빈부의 심각한 격차, 수많은 사건사고들, 소외된 자에 대한 사회적 방치, 통일 문제 등—을 묘사하면서 작가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 계층간 갈등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었다. 특히 권정생 자신의 평생 소원이던 남북통일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도 과천덕 할머니를 통해서 다룬다.

하느님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혼탁한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신다. 이러한 하느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예수님과 대화의 보자.

맨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땐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흉측할 만큼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말이지, 이쯤 해서 세상 끝장내버리면 어떨겠냐?”(129)

달리는 자동차,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전쟁터의 군인처럼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느님은 그것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모든 걸 단단히 각오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가엾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몸소 겪으면서 살아 보자고요.”

[하느님] “그렇지만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람도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 “그런데 어째서 이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죠?” (권정생, 1994: 127-57 부분 발췌)

혼탁한 현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까지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세속화 및 물질주의와 기복주의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동화 속에서 하느님이 어느날 길거리 전도를 받게 되는데, 전도를 하는 사람의 논리에 오히려 하느님이 의아해하는 해프닝이 일어난다. 하느님이 원하셨던 기독교 진리가 굴절되어 왜곡된 채 길거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교회 현실 때문이었다.

어느날 하느님이 교회를 직접 가셨는데 그곳은 매우 웅장한 건축물이 교회였다. 높은 천장에서 번쩍거리는 꽃등이 찬란하게 드리워졌고 앞의 강대상에는 꽃단지와 번쩍거리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었다.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교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그 교회는 죄사함과 더불어 축

복만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정작 그 복의 진정한 근원되는 하나님은 교회 회중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된 채, 오직 축복이라는 단어만이 하나의 거창한 구호가 되어 혼탁한 예배당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암담한 모습이 묘사된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함몰된 모습에 매우 놀란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동화 속에 가득하다.

심지어 권정생은 1992년 10월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다미선교회 종말론 논쟁까지 소환하며 한국 교회의 위태로움을 묘사하였다. 허약해진 한국교회를 침범하는 이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즉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는 기성교회가 제대로 올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

교회의 본질 보다는 기적만 바라는 교회의 요행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웃 사랑보다 기적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적을 보여준 것이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러했잖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십자가 고통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자비를 원했지 제사를 받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불쌍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집도 없으니...”(권정생, 1994: 164-65)

이처럼 권정생은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엄중한 고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홍인표, 2021: 21). 이는 케노시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권정생의 지적은 매우 무겁다. 그리고 때로는 가혹하다. 이러한 고언은 그의 오랜 고뇌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꾸지람이 한국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 역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봉식이가 연탄을 마셨을 때 연탄가스를 마신 봉식이를 등에 업고 하나님은 비탈길을 험뎡거리며 뛰어간다. 어쩌면 죽어가는 봉식이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자화상일런지도 모른다. 봉식이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봉식이를 구하기 위해 그를 등에 업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권정생은 독자들에게 이것(봉식이)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비록 한국교회가 케노시스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뒤로한 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뗀다: “애들이 걱정하며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야지.’ 하느님은 조금 내려가다가 시린 두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었습니다”(권정생, 1994: 202). 권정생은 본서를 통해 이처럼 한국교회의 현실을 드러내며 케노시스로 대변되는 자기비움을 통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특별히 이 땅을 걱정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 어딘가에 오히려 제 십자가보다 몇 갑절 힘들게 이웃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권정생, 1994: 165)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이자 간절한 권면이기도 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권정생의 작품에 나타나는 낮아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케노시스 신학을 가지고서 조명한 연구다. 권정생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새롭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케노시스 개념은 권정생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바람에 권정생은 불경(不敬)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케노시스라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 조명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케노시스 신학으로 권정생의 문학 세계를 고찰할 때 권정생 작품 속에 깃든 나약해 보이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힘있는 분이며 창조 세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인된다. 케노시스를 통해 혹여라도 있을 이 작품에 대한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학자가 아님에도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욱 신학적인 글을 아름다운 아동 문학을 통해서 소개한 것은 그의 큰 공헌이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커다란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권정생의 작품은 하나님에 대해 전문 신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케노시스 개념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권정생의 외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권정생이 단순히 한국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비움의 정신을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신의 동화 속에 투영했던 것이다. 이 동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고언

(苦言)을 전하고 있다. 케노시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본 작품을 조명해볼 때, 권정생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권정생이 이 동화를 집필한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동화 속 사회와 현실의 모습이 여전히 작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다.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30년전 기록된 권정생의 작품에 담긴 케노시스 신학은 교회와 신학계에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형상 (2019). ‘하나님의 케노시스’(divine kenōsis)의 신학적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의 맞추심’ (divine accommodation). *신학논단*, 97, 7-39.
- [Ko, H. S. (2019). The Theological Problems of ‘Divine Kenōsis’ and ‘Divine Accommodation’ as an Alternative. *Theological Forum*, 97, 7-39.]
- 권정생 (1974). **강아지똥**. 서울: 세종문화사.
- [Kwon, J. S. (1974). *Doggy Poo*. Seoul: Sejong Culture]
- 권정생 (1984). **하느님의 눈물**. 서울: 산하.
- [Kwon, J. S. (1984). *Weeping God*, Seoul: Sanha.]
- 권정생 (1994).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서울: 산하.
- [Kwon, J. S. (1994). *God lives next door to me*. Seoul: Sanha.]
- 권정생 (2008). **우리들의 하느님**. 서울: 녹색평론사.
- [Kwon, J. S. (2008). *Our God*. Seoul: Greenreview.]
- 김순현 역 (2016). **옥중서신**,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서울: 복있는사람.
- [Kim, S. H. (2016). *Widerstand und Ergebung*. Seoul: Hismessage. Trans.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Munchen: Chr. Kaiser]
- 김기철 역 (2020). **신학이란 무엇인가**, McGrath, A. (2017).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울: 복있는사람.
- [Kim, K. C. (2020).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oul: The Blessed People. Trans: McGrath, A. (2017).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John Wiley & Sons]
- 박동식 역 (2015). 비움: 삶과 우주론을 통합하는 주체,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Ellis, G. F. R. (2001).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Ellis, G. F. R. (2001).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세계의 창조와 완성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움,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Moltman, J. (2001).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Moltman, J. (2001).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서론,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Polkinghorne, J. (2001).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Polkinghorne, J. (2001).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낭만적 사랑, 언약적 사랑, 비움의 사랑,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Welker, M. (2001).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Welker, M. (2001).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손은실 (2022).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의 재해석: 기독교 용어 통일의 단초. **종교와 문화**, 42, 1-32.
- [Son, E. S. (2022). Revisiting the Controversy on the Divine Name "Haneunim" vs "Hanim": A Suggestion for Unifying Christian Terminology in Korea. *Religion and Culture*, 42, 1-32.]
- 엄혜숙 (2019). **권정생의 문학과 사상**. 서울: 소명출판.
- [Um, H. S. (2019). *Literature and Thought of Kwon Jung Saeng*. Seoul: Somyung.]
- 원종찬 (2017). **권정생의 삶과 문학**. 서울: 창비.
- [Won, J. C. (2017). *Life and Literature of Kwon Jung Saeng*. Seoul: Changbi.]
- 이관표 (2018). 현대 신학의 케노시스 이해로 보는 하나님과 인간: 케노시스 이론을 통한 신-이해와 인간-이해의 재구성. **한국조직신학논총**, 51, 45-79.
- [Lee, K. P. (2019). God and man in the Kenosis-understanding of modern theology. The reconstruction of God-talk and Human-understanding trough kenosis.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1, 45-79.]
- 이희정 (2018). 권정생과 톨스토이 작품의 비교 연구-모티프와 주제, 구성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3(02), 25-44.
- [Lee, H. J. (2018). A Comparative Research in Text of Kwon Jung-saeng and Tolstoy: Focusing on Motif, Topic, and Composi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63(02), 25-44.]
- 장수경 (2017).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중달이 아저씨네」와 「빼떼기」를 중심으로. **동**

화와 번역, 34, 127-57.

[Jang, S. K. (2017). The Aspect and Meaning of Love in the Fairy Tales of Kwon Jung-saeng.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34, 127-57.]

전철 (2017).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신학과 사회**, 31(1), 9-40.

[Chun, C. (2017). Kenosis: A View from the Humanities: On the Social Possibility of Self-Emptying. *Theology and Society*, 31(1), 9-40.]

홍인표 (2021). **강아지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 서울: 세움북스.

[Hong, I. P. (2010). *The Kingdom of God sketched by Doggy Poo*. Seoul: Saeum Books.]

Altizer, T. (1966). *William Hamilton, Radical Theology and the Death of God*. Indianapolis: Boobs-Merrill.

케노시스 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동화 이해

A Study on the Work by Jung-Saeng Kwon in terms of the *Kenosis*: Exploring
God Lives Next Door to Me

정 덕 희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본 작품은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를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서 조망하는 연구다. 권정생의 동화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나타난다. 전지전능한 위엄은 제거된 채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고 있다. 동화 속 이러한 성육신의 모습은 케노시스 신학으로 조명될 때 독자들에게 새로운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몰트만의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살펴 본 바, 권정생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권정생의 동화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지만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 권정생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인간들에게도 케노시스 정신이 회복되기를 요청한다.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와 교회 현실은 자기-비움 보다는 자기-채움으로 점철된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권정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케노시스를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장편 동화라고 하기 보다는 교회를 위한 외침, 더 나아가 성육신에 대한 깊은 신학적 담론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 있는 동화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권정생, 케노시스,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자기-비움, 몰트만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hat measures the faith of Christian senior adults. To develop the scale, sub-factors were determined and 53 preliminary corresponding questions were first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then 47 questions were selected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s from 8 experts.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of 20 senior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797 senior adults attending churches nationwide except on Jeju Island. Excluding the data that indicated insincere responses, 75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using JAMOV 2.3, SPSS 22 and AMOS 22. In this process, 322 copi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434 copie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nal factors and questions extracted through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were as follows: 6 questions regarding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6 questions on 'Trust in God, the Savior', 5 questions on 'Service to Others', 3 questions on 'Pursuit of a Holy Life', and 5 questions on 'Hope for Heaven'. This scale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for measuring the Christian faith of senior adults and a catalyst for further research on Christian senior adults.

Key Words: senior adult, Christian faith,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6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71304).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I. 서론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회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김성호, 2019 ; 문준호 외, 2021 ; 서울경제, 2023.1.8. ; 한겨레, 2022.9.29. ; 한국일보, 2022.9.24.). 노인의 심리적인 고독(이정관, 2014),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김성호, 2019), 낮은 삶의 질(문준호 외, 2021), 경제적인 어려움(서울경제, 2023.1.8. ; 한겨레, 2022.9.29.),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부담(한국일보, 2022.9.24.) 등이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노인기에 경험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Nouwen과 Gaffney(2014)는 노인의 부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리, 적막감, 자아상실로 보고 이를 사회로부터의 거절당함, 친구로부터의 거절당함, 내적 자아에게 거절당함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쇠퇴라는 노화의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의 활동 나이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문수경, 2020). 이는 안티에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노화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의 개념(김성호, 2019)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 외에 노인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 상태(문준호 외, 2021 ; 조영주·김신열, 2016 ; Humboldt et al., 2014), 건강(김지순 외, 2016 ; Humboldt et al., 2014) 문화생활, 자원봉사, 근로여부, 친목모임(문준호 외, 202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태명원, 2021) 등이다. 특별히 Humboldt, Leal, 그리고 Pimenta(2014)는 노화 적응(adjustment to aging: AtA)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영성, 건강과 자율성, 직업, 사회적 참여,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들었다. 김지순 외(2016)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인지 기능,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성 또는 신앙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기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KCI(Korea Citation Index)와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기독교’와 ‘노인’ 그리고 ‘신앙’과 ‘노인’을 검색어로 넣고 2018-2022년에 출간된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는 문헌연구 15편(강병덕 외, 2022 ; 구금섭, 2018 ; 김도일, 2019 ; 김성호, 2019 ; 김수영, 2021 ; 김정희·박은혜, 2021 ; 문수경, 2018 ; 문수경, 2020 ; 박미경, 2022 ; 박은혜, 2021 ; 배광수, 2019 ; 서주일·황병준, 2021 ; 윤득형, 2020 ; 이관영, 2018 ; 장신근, 2018), 양적(조사)연구 6편(강동훈, 2020 ; 김예자 외, 2020 ; 김정은·정여주, 2019 ; 문태승·류정희, 2020 ; 박선애, 2018 ; 황환, 2022), 질적연구 3편(김성원, 2022 ; 배광수, 2019 ; 유은희·김성원, 2022), 프로그램 개발 1편(이수인, 2022)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

사이 문헌연구의 수가 급증하면서 지배적인 경향이 있으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양적연구의 수가 그 뒤를 이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 연구의 중요 연구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인 신앙 연구의 중요도가 있는 조사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정향성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최창식과 한재희(2013)의 연구에서 김동기(1999)가 표준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동기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인 216명과 천주교인 295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종교정향성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 차원을 의미하며 20-50대를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노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종교령자 기독교인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에 대해 연구한 현외성(2011)은 이경열 외(2003)가 개발한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를 연구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 후 사용하였다. 원 측정도구는 대학생 466명과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종교령자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점과 측정도구 수정 시 필요한 내용타당도 검사와 통계적 분석이 생략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측정도구에서 다루는 보편적 영성(우주=하느님, 부처님, 참나, 존재 등)과 연구 주제인 기독교 영성과는 방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성을 매개 및 조절변인으로 본 신동민(2012)의 연구,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계를 살핀 정순화와 임정화(2013)의 연구, 영성을 매개변인으로 본 조영주와 김신열(2016)의 연구, 영성을 조절변인으로 본 박선애(2018)의 연구, 농촌지역 독거 여자노인의 영성을 파악했던 김예자 외(2020)의 연구 등에서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 측정도구 개발 시 연구 대상은 Christian college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장효과(ceiling effects)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전형적인 연구 대상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는 경향이 나타났었다(Bufford et al., 1991). 김정은과 정여주(2019)의 연구에서 장애인노인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Walker와 Hill-Polerecky(1996)가 개발한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 척도의 6개 하위영역 중 김정은(2014)의 논문에서 사용한 영적 성장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Walker와 Hill-Polerecky 연구의 대상은 18세에서 92세 사이의 성인 712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죽음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윤현숙 외(2015)의 연구에서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Gorsuch와 McPerson(1989)이 수정하여 제시한 내재적·외현적 측정(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중 내재적 하위요인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자들은 연구 대상을 Southern California에 위치한 secular and religious colleges에 재학 중인 대학생 771명으로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예는 '사람이 착하면 됐지 무슨 중

교를 믿느냐는 중요치 않다(It doesn't much matter what I believe so long as I am good.)', '나는 일상생활에서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Although I am religions, I don't let it affect my daily life.)', '내 인생에서 종교가 전부는 아니다(Although I believe in my religion, many other things are more important in life)'로 번역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도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의 영향력을 연구한 강성봉과 조성숙(2013)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절차 중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생략함으로 구성타당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등의 타당도 검증을 포괄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한계가 나타났다.

외국에서 개발된 노인 영성 측정도구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A Spiritual Screening Tool for Older Adults을 개발한 Stranahan(2008)의 연구는 개신교인 41명과 카톨릭 신자 8명을 포함하여 4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망(hope), 초월(transcend), 의미(meaning), 종교(religion)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연구자 자신이 추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49명이라는 소수의 연구 대상으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Cummings 외(2015)는 불안 또는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The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SCS-RFQ)를 개발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이 측정도구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나의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My religious faith is extremely important to me); 나의 신앙은 삶에 의미, 목적을 제공한다(I look to my faith as providing meaning and purpose in my life); 나는 신앙이나 교회에서 적극적이다(I consider myself active in my faith or church); 나의 신앙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My faith is an important part of who I am as a person). 두려움이나 우울증을 앓았던 55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과 신앙생활 정도와 신앙 중요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자 한계로 보인다.

이상에서 노인의 신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는데, 영성과 신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술된 측정도구 소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성은 범신론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SAS)을 개발한 Howden은 영성을 “상호 연관성, 삶의 목적과 의미, 내면 또는 내적 자원, 초월을 통합함으로써 드러나는 개인의 통합되거나 단일화된 영역”(1992: 15)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성심리학을 저술한 Bucher는 양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성의 유형을 유신론적 영성,

관계로서의 영성, 신비적 경험으로서의 영성, 연합으로서의 영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성을 유신론적 영성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013: 105-107). 이와 같은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Howard는 기독교 영성을 “역동성이 보장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2008: 17)라고 정의하였다. Gerrish(1998: 53)는 영성을 “기도나 훈련이나 명상이나 인간의 종교적 행동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 즉 전인격적 실천”으로 정의하였다(김영한, 2008: 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노인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과거의 회고, 현재의 삶,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듯이, 보편적 영성과는 구분하여 기독교 영성과 유사 의미로 또는 대체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 노인 연구의 선행연구자들(박은혜, 2021 ; Choi, 2015 ; Edlund, 2014 ; MacKinlay, 2001)은 양적연구 방법의 확장 또는 신앙 측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은혜는 양적연구를 통해 종교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Choi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MacKinlay는 노인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고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것은 영적 어려움을 다루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30).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기의 특성,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 선행연구자들이 제기하였던 양적연구 및 측정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79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을 수거한 지역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322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434부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14명, 여자가

208명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60명, 여자가 27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개인적 배경은 Table 1에 소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N= 322, 43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Male	114	35.4	Gender	Male	160	36.9
	Female	208	64.5		Female	274	63.1
Age	65-70	153	47.5	Age	65-70	200	46.1
	71-75	75	23.3		71-75	116	26.7
	76-80	52	16.1		76-80	63	14.5
	81-85	31	9.6		81-85	37	8.5
	86 or more	11	3.4		86 or more	18	4.1
Residence	Seoul	81	25.2	Residence	Seoul	122	28.1
	Gyeonggi-do	108	33.5		Gyeonggi-do	166	38.2
	Jeolla-do	87	27.0		Jeolla-do	83	19.1
	Gyeongsang-do	33	10.2		Gyeongsang-do	22	5.1
	Gangwon-do	9	2.8		Gangwon-do	28	6.5
	Chungcheong-do	4	1.2		Chungcheong-do	13	3.0
Church duty	None	13	4.0	Church duty	None	17	3.9
	Deacon	85	26.4		Deacon	103	23.7
	Senior deaconess	159	49.4		Senior deaconess	205	47.2
	Elder	44	13.7		Elder	85	19.6
	Pastor	21	6.5		Pastor	24	5.5

2. 연구 절차

노인을 위한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구성요인 추출과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신앙 구성요인 추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노인 신앙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측정도구 관련 자료(강성봉·조성숙, 2013 ; 고일선 외, 2020 ; 김성원, 2022 ; 임창복 외, 2008: 46-105 ; 설은주, 2005: 169-171, 203-204 ; Bergen, 2003 ; Cera, 2020 ; Paloutzian & Ellison, 1982)를 고찰하였다. Bergen(2003)은 노인의 영적 요구를 기록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타인과의 바른 관계, 자신의 죽음 세 가지로 보았다. Cera(2020)에 의하면, 영적 영역에 대한 고찰은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연계 의미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Bergen과 Cera의 견해와 더불어 노년기 영성은 자기 자신, 타인,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은주(2005: 309)의 견해를 종합하여 구성요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2)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3개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과의 관계 18문항으로 총 53문항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인 자신이 노인기에 해당하는 신학, 기독교교육, 교육학, 기독교 노인복지, 정치철학 박사 5인, 기독교교육 박사 2인, 그리고 간호학·신학·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한 1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의 평가를 기초로 점수가 높은 44문항을 추출하였으며,¹⁾ 이중 점수는 높으나 표현이 어색하다고 평가된 5문항을 수정하였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나는 교회가 좋고 자랑스럽다’를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행을 멀리한다’를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로,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신앙에 몰두한다’를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로 수정하였다.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나는 찬양을 부르고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1)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다; 나는 가족, 교회, 사회에 축복의 통로이다; 나의 삶은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기준을 따른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만족함이 있다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한다’를 통합하여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로 수정함.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는 추가된 문항이다.

(3)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추출 및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평정 시 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하나님·타인·자신과의 관계 3가지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돌아가면서 배열한 방식이 평정에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의 표현 중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참아 주려고 노력한다’를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1점-아니다, 2점-아닌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 평정하였다. 회수된 797부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322부,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434부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2.3, SPSS 25.0와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분석되었다. 먼저 하위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자료로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축요인추출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도 검증 후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 계수를 활용하여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구성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인을 구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과의 관계 18문항을 포함하는 53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전문가 8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44문항을 추출하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 총 25문항으로 완성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93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검정치가 5228.66($df=300$,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Jamovi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자료의 하위요인은 5개가 적절한 것을 확인 후 추출 방법은 주축요인추출, 회전 방법은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40 미만과 교차부하 문항을 삭제한 후² 전체 변량 60.79%를 설명하는 5요인 25문항을 선정하였다.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2.00%의 설명력을 갖는 1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로 명명하였으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8.51%의 설명력을 갖는 2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명명하였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89%를 설명하는 3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명명하였고, 3개 문항으

2)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7. 나는 예배시간이 기다려진다; 8.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9. 나는 즐거이 헌금한다; 10.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11. 나는 찬양을 듣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14.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17.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나의 삶에 힘이 된다; 18.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19.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20. 나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다; 21. 나는 자손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 26. 나는 은사, 자녀, 재물 등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 27.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 28. 나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2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시기하지 않는다; 30.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1. 나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를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33. 나는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본다; 34. 나는 죄악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한다; 42.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43. 나는 신앙의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로 구성되어 2.93%를 설명하는 4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2.46%의 설명력을 갖는 5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Factor loadings

Factor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4	5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36.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70	.05	.04	-.08	-.02	.53
	37.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63	-.24	-.01	.08	.10	.63
	35.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54	-.12	.00	-.11	.07	.49
	39.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47	-.10	.02	-.10	.24	.58
	38.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45	-.13	.22	.03	.10	.49
	41.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44	.15	.14	-.23	.15	.50
Trust in God, the Savior	5.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08	-.83	.05	.05	.13	.73
	4.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07	-.81	-.07	-.04	-.05	.66
	3.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76	-.03	.07	.13	.72
	6.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06	-.73	.06	-.22	-.00	.68
	2.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21	-.66	.05	-.06	-.09	.60
	1.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04	-.65	.05	-.04	.13	.54
Service to Others	24.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06	.04	.87	.11	.05	.65
	23.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02	.04	.72	-.09	.01	.57
	22. I treat others generously.	.05	-.16	.62	-.08	-.17	.48
	25.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03	.01	.51	-.20	.09	.46
	32.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25	.03	.51	.05	.12	.48

Pursuit of Holy Life	13.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1	-.06	.06	-.73	.02	.73
	15. I try to avoid sin.	.04	-.07	.00	-.69	.14	.67
	16. I live to give glory to God.	.01	-.22	.17	-.42	.17	.57
Hope for Heaven	45.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06	-.03	.01	-.13	.81	.75
	46. I entrust my future to God.	.09	-.00	-.03	-.07	.80	.77
	47.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08	-.23	.03	.07	.66	.68
	4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07	-.08	.07	-.06	.64	.63
	40.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34	.02	.108	-.08	.44	.61
Eigenvalue		10.88	2.51	1.60	1.11	0.97	
% of Variance		42.00	8.51	4.89	2.93	2.46	
Total Variance		42.00	50.51	55.40	58.33	60.79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모형 평가 방법으로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145-147). χ^2 값은 902.63($df=265$, $p<.001$)로 나타났다는데, χ^2 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합지수인 RMR, G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는 RMR=.02, GFI=.86, TLI=.88, CFI=.89, RMSEA=.08로 일부 계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값이 높게 나타난 e1<->e6(32.42), e14<->e15(16.52), e18<->e19(25.58), e21<->e24(31.77)에 해당하는 문항의 의미가 유사함을 확인한 후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수정 후의 적합도 지수는 $\chi^2=778.96$ ($df=261$, $p<.001$), RMR=.02, GFI=.88, TLI=.90, CFI=.91, RMSEA=.07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Table 3. Model Fit

Model	χ^2	df	RMR	GFI	TLI	CFI	RMSEA
Original	902.63	265	.02	.86	.88	.89	.08
Modified	778.96	261	.02	.88	.90	.91	.07
Cut-off			<.05		>.90		.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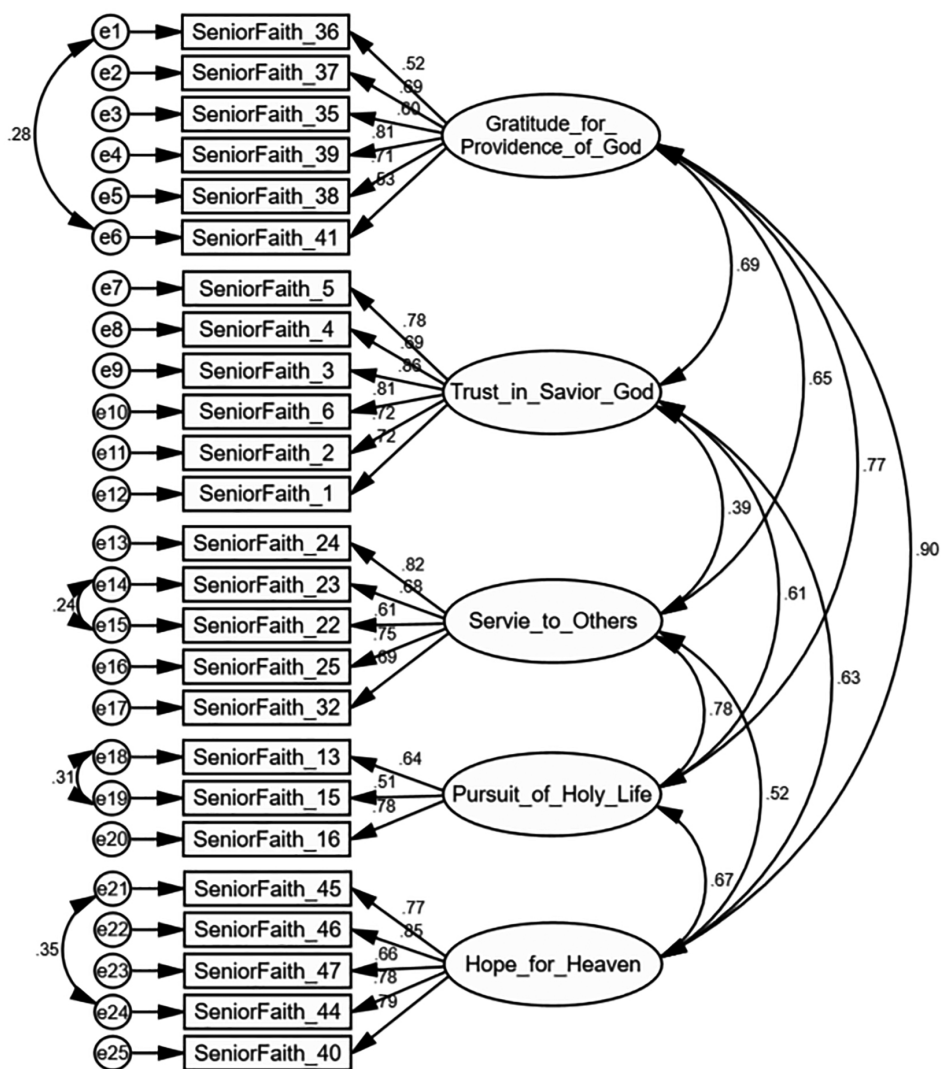


Figure 1. The path diagram of model

(3)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음을 의미한다(우종필, 2022: 160). Table 4에 제시된 집중타당성 검증의 모든 지표는 표준화 계수 .50 이상, 평균분산추출 지수 .50 이상, 개념신뢰도 지수 .70 이상의 기준치(우종필, 2022: 1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vergent validity

Factor	Item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i>B</i>	β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SeniorFaith_41	1.00	.53			.80	.96
	SeniorFaith_38	1.83	.72	.17	10.51***		
	SeniorFaith_39	1.67	.81	.15	11.22***		
	SeniorFaith_35	1.21	.60	.13	9.44***		
	SeniorFaith_37	0.88	.69	.09	10.29***		
	SeniorFaith_36	1.13	.52	.11	10.20***		
Trust in God, the Savior	SeniorFaith_1	1.00	.72			.92	.99
	SeniorFaith_2	1.05	.72	.07	14.47***		
	SeniorFaith_6	1.87	.81	.07	16.28***		
	SeniorFaith_3	0.98	.86	.06	17.38***		
	SeniorFaith_4	0.82	.69	.06	13.92***		
	SeniorFaith_5	1.04	.78	.07	15.80***		
Service to Others	SeniorFaith_32	1.00	.69			.90	.98
	SeniorFaith_25	0.98	.75	.07	13.62***		
	SeniorFaith_22	0.70	.61	.06	11.34***		
	SeniorFaith_23	0.89	.68	.07	12.52***		
	SeniorFaith_24	1.22	.82	.08	14.55***		
Pursuit of Holy Life	SeniorFaith_16	1.00	.78			.92	.97
	SeniorFaith_15	0.54	.51	.06	9.49***		
	SeniorFaith_13	0.68	.64	.06	12.18***		
Hope for Heaven	SeniorFaith_40	1.00	.79			.94	.99
	SeniorFaith_44	0.95	.78	.06	17.27***		
	SeniorFaith_47	0.64	.66	.05	14.17***		
	SeniorFaith_46	0.93	.85	.05	19.17***		
	SeniorFaith_45	0.85	.77	.05	17.02***		

*** $p < .001$

(4)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변수 간 상관이 낮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종필, 2022: 16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요인 1)’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인 2)’($r=.58,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타인을 향한 섬김(요인 3)’($r=.57,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삶의 추구(요인 4)’($r=.58,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요인 5)’($r=.73,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타인을 향한 섬김’($r=.3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거룩한 삶의 추구’($r=.4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소망’($r=.58, p<.01$), ‘타인을 향한 섬김’과 ‘거룩한 삶의 추구’($r=.61, p<.01$), ‘타인을 향한 섬김’과 ‘천국에 대한 소망’($r=.44, p<.01$), ‘거룩한 삶의 추구’와 ‘천국에 대한 소망’($r=.49, p<.01$)으로 나타나 전체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경우 입증될 수 있는데(우종필, 2022: 169),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 지수는 상관관계 제곱보다 높으므로 판별타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AVE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80
Trust in God, the Savior	.58**				.92
Service to Others	.57**	.35**			.90
Pursuit of Holy Life	.58**	.45**	.61**		.92
Hope for Heaven	.73**	.58**	.44**	.49**	.94

** $p<.01$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개 요인 25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8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89, ‘타인을 향한 섬김’ .84, ‘거룩한 삶의 추구’ .72, ‘천국에 대한 소망’ .88, 그리고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Table 6. Reliability

	Items	Cronbach's α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2, 3, 4, 5, 6 *	.81
Trust in God, the Savior	7, 8, 9, 10, 11, 12	.89
Service to Others	13, 14, 15, 16, 17	.84
Pursuit of Holy Life	18, 19, 20	.72
Hope for Heaven	21, 22, 23, 24, 25	.88
Total		.92

* Final Item number

4. 최종 문항

이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5요인, 25문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최종 하위요인과 문항³⁾은 Table 6과 같다.

Table 7. Final factor and item

Factor	Item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2.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3.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4.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5.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6.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3) 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하위요인명과 문항을 한글로 소개하고자 한다: 요인 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1.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2.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다; 4.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5.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왔다; 6. 나는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요인 2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7. 나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8. 나는 나와 가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9.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10.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11.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12.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요인 3 타인을 향한 섬김- 13. 나는 시간, 은사, 건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14.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풀는다; 15. 나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 16.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쓴다; 17. 나는 삶과 신앙의 지혜를 후대에 전하는 안 내자 역할을 한다; 요인 4 거룩한 삶의 추구- 18.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19.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20.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요인 5 천국에 대한 소망- 21.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22. 나는 노년의 삶(미래)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23.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24. 나는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 25.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Trust in God, the Savior	7.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8.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9.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11.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12.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Service to Others	13.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14.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15. I treat others generously.
	16.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17.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Pursuit of Holy Life	18.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9. I try to avoid sin.
	20. I live to give glory to God.
Hope for Heaven	21.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22. I entrust my future to God.
	23.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2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25.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하위요인과 이에 해당하는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맞추어 측정도구의 구성과 타당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하위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였고, 여기에는 ‘나는 인생

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와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요인은 가장 많은 문항 수를 포함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변량의 3분의 2 이상을 설명하면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Lyon(2004)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나이들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에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날도 함께 하신다'라는 신념을 포함한다(Choi,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설은주(2005: 79)가 노년기의 자아통합적 성격을 자기 자신과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라고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 관점은 본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었다(김성원, 2022). 연구참여자 중에 삶 전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90세를 바라보는 목사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고... 핍박, 배척, 참고 이기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6.25때 남한 와서 모든 정변 다 겪었고 부모가 있지만 고아처럼 컸는데 그때 그때 귀인들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라고 고백하였다. 연구 대상이 19세에서 78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연령이 51.31세로 본 연구와 상이하기는 하나,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종교적 지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결과(홍구화, 2022)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번째 하위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와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등의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성숙한 신앙의 특징으로 감사하는 삶을 언급하였는데,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김성원, 2022). 또한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 성취될 구원에 대해 갈망하고 있다는 결과(배광수, 2019)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구원, 소망, 개인적 역사와 종교적 시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비움에 대한 영적 훈련, 순례자로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 이정호(2001)의 제안도 본 연구의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아울러 신앙발달 이론으로 저명한 Fowler도 "신앙은 믿음이 형성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1994: 502)라고 정의함으로 신앙의 대상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강조한 바 있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세 번째 하위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이었고, 이 요인에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풀다'와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Bergen(2003)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의 영적 필요 중 하나를 타인과의 바른 관계 형성으로 보았다. 온전한 영성과 웰빙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 수용, 용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Stevens(2018)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원리 중 하나를 서로를 점검해 주는 공

동체(accountability group)로 보면서, 사랑이라는 미덕은 사람, 장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보는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Bergen과 Stevens의 견해는 노인기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 대상 노인들이 종교적 자원봉사에 참여한 후에 자원봉사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이 좋아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결과(Choi, 2015)는 본 연구 결과에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네 번째 하위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였고,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와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구의 유형은 다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년기 연구참여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 결과(김성원, 2022)는 본 발견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기독교인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회개할 힘이 있으며 비기독교인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심적이고 무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노인에게는 영적 통합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과 평화롭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설은주(2005: 170)의 견해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마지막 하위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등의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독교 노인 연구에서 죽음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며, 다수의 학자들이 신앙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김성호, 2019 ; Bergen, 2003: 132 ; Pfaffman, 2014 ; Rababa et al., 2021).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삶의 전반적인 평화를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특별히 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더욱 평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Pfaffman, 2014). 따라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은 영성 성숙의 증거가 된다. 이는 죄인을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한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gen, 2003).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에 덧붙여, 종교적 대응과 영적 웰빙은 노인의 죽음 두려움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Rababa, et al., 2021) 그리고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배광수, 2019)는 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구성요인은 60.7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60% 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보이는 경우 추출된 요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노경섭, 2019: 15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인 RMR, GFI, TLI, CFI, RMSEA가 기준치를 상

회한 결과를 통해서도 본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도,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 지수를 확인하여 확인하여 집중타당도 그리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별 및 전체 신뢰도 값이 모두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의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의 5개 요인에 해당하는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노인 신앙의 구성요인으로 하나님(1요인, 2요인), 타인(3요인), 자신(4요인, 5요인)을 구분하여 문항을 제시했던 원 관점을 잘 반영하면서도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학적 미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반응인 믿음, 인간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살림의 성취를 향해 나아감을 믿는 소망, 돌봄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제시한 Stevens(2018)의 제안 역시 잘 반영한다. 본 연구는 800명에 가까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수행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의 절차와 통계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한국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한국인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사실도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가 부재하고 국외 노인 신앙 측정도구의 한계를 인지함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를 참조한 점, 특별히 본 연구자가 측정도구 개발의 사전 단계로 수행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 18명을 면담한 경험과 결과를 반영한 점,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연구 대상을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의 70% 이상이 교회 출석 및 설문 응답이 가능한 75세 이하인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여진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노인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에 활용되고 노인 사역의 현장에서 신앙에 관한 지표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인의 삶과 노인 사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헌

- 강동훈 (2020). 종교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212-221.
- [Kang, D. H. (2020). Effect of religion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212-221.]
- 강병덕·조성봉·정예은·손해인 (2022).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2), 137-169.
- [Kang, B. D., Cho, S. B., Jeong, Y. E. & Son, H. I. (2022).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Faith & Scholarship*, 27(2), 137-169.]
- 강성봉·조성숙 (2013).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25-346.
- [Kang, S. B. & Cho, S. S. (2013).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aith attitudes on depression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25-346.]
- 고일선·최소영·김진숙 (2020). 영성측정도구개발 및 평가. **한국간호과학회**, 50(1), 132-136.
- [Ko, I. S., Choi, S. Y. & Kim, J. S.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new version of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1), 132-136.]
- 구금섭 (201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아통합과 영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영성과 보건복지**, 5(1), 49-73.
- [Koo, K. S. (201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integration and spirituality fo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Spirituality, Health, and Welfare*, 5(1), 49-73.]
- 김도일 (2019). 노인과 함께 하는 평화교육: 갈등을 넘어 평화로. **선교와 신학**, 49, 177-204.
- [Kim, D. I. (2019). Peace education with old age people: Peace over conflict. *Mission and Theology*, 49, 177-204.]
- 김성원 (2022). 노인의 신앙 체험 및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2, 87-122.
- [Kim, S. W. (2022) A qualitative study of senior adult's experience and meaning of faith.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72, 87-122.]
- 김성호 (2019).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 “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 9-37.
- [Kim, S. H. (2019). The issue of christian elderly welfare in aged society: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on “anti-aging and well-aging”.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3, 9-37.]
- 김수영 (2021). 노년기 자아통합감 형성을 돕는 기독교 가족의 일상 의례 연구. **ACTS 신학저널**, 50, 476-

507.

- [Kim, S. Y. (2021). A study on the daily rituals of christian Korean families to develop the formation of ego-integrity in old age. *ACTS Theological Journal*, 50, 476-507.]
- 김영한 (2008). 칼빈의 영성: 영성신학자 칼빈. **영성포럼**, 11, 8-24.
- [Kim, Y. H. (2008). The spirituality of Calvin: The spiritual theologian Calvin. *Spiritual Forum*, 11, 8-24.]
- 김예자·윤경아·손의성 (2020). 농촌지역 독거 여자노인의 영성 및 종교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상실감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0(3), 89-105.
- [Kim, Y. J., Yoon, K. A. & Sohn, E. S.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religious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rural areas: On the focus of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ense of los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0(3), 89-105.]
- 김정은·정여주(2019). 장애노인의 자아 통제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0(6), 439-452.
- [Kim, J. E. & Jung, Y. J. (2019). Spirituality as a medi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mastery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439-452.]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J. H., Kim, M. K. & Hong, S. H. (2009). *Writing Research Paper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ommunication Boos.]
- 김지순·송라윤·김기웅·김정란 (2016). 인지기능,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정신의학**, 20(1), 25-38.
- [Kim, J. S., Song, R. Y., Kim, K. W. & Kim, J. L. (2016). Effect of cognitive functio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0(1), 25-38.]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 아카데미.
- [Noh, K. S. (2019). *The Proper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Seoul: Hanbit Academy.]

- 문수경 (2018).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무연사와 탈인습적 교육과정 연구. **대학과 선교**, 37, 307-343.
- [Moon, S. G. (2018). A study on the 'non-relationship' death of elders in aging era and the post-conventional Christianity curriculum. *University and Mission*, 37, 307-343.]
- 문수경 (2020).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기독교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개방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6, 37-75.
- [Moon, S. G. (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Focused on the role of university opening. *University and Mission*, 46, 37-75.]
- 문준호·송명근·이원석·당약함 (2021).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인 삶의 질의 결정요인. **공공정책연구**, 38(1), 233-254.
- [Moon, J. H., Song, M. K., Lee, W. S. & Tang, R. H. (2021). Determinants of senior citizen quality of life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aging.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38(1), 233-254.]
- 문태승·류정희 (2020). 노인의 학습몰입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임파워먼트와 영성의 중다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6(2), 213-231.
- [Moon, T. S. & Lyu, J. H. (2020).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powerment and spirit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lders' learning flow and successful ag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6(2), 213-231.]
- 박미경 (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노년교육 연구. **신학과 실천**, 82, 667-693.
- [Park, M. K. (2022). A study on the aged's christian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the aged as human resources for super-aging society in Korea. *Theology and Praxis*, 82, 667-693.]
- 박선애 (2018). 노인의 건강수준과 경제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성의 조절효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 **신학과 사회**, 32(3), 141-192.
- [Park, S. A.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between the level of health and economy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The comparison of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Theology and Society*, 32(3), 141-192.]
- 박은혜 (2021).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기독교교육논총**, 67, 77-116.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77-116.]
- 박일귀 역 (2018). **나이들의 신학**. Stevens, P. R. (2016).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서울: 도서출판 CUP.
- [Park, I. G. (2018).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Seoul: CUP.]

- Trans. Stevens, P. R. (2016). *Aging Matters.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배광수 (2019).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현상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5(4), 295-306.
- [Bae, G. S. (2019).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christian elders living alo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295-306.]
- 서주일·황병준 (2021).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촌지역 노인목회 연구. **신학과 실천**, 73, 887-917.
- [Seo, J. I. & Hwang, B. J.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elderly pastoral ministry in rural area for the age of super-aging. *Theology and Praxis*, 73, 887-917.]
- 설은주 (2005).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Seol, E. J. (2005). *The Senior Ministry in the Age of Aging*. Seoul: JeYoung Communication.]
- 신동민 (2012). 노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57, 261-288.
- [Shin, D. M.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self-efficacy of aged people on ego integrit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261-288.]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개정판). 서울: 한나래.
- [Yu, J. P. (2022).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Revised Ed.). Seoul: Hannarae.]
- 유은희·김성원 (2022).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과 삶에 관한 질적연구: 신앙, 부르심, 노인사역에 관한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72, 117-146.
- [Yoo, E. H. & Kim, S. W.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ith and life of a christian senior with a doctoral degree: Suggestions for faith, calling, and senior ministr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117-146.]
- 윤득형 (2020).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로서 죽음준비교육. **신학과 실천**, 68, 501-526.
- [Yoon, D. H. (2020). Crises from experiences of the loss in the elderly and death education as the task of the practical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68, 501-526.]
- 윤현숙·임연옥·고윤순·범경아 (2015). 노인의 영성, 사회적 지지, 우울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229-254.
- [Yoon, H. S., Lim, Y. O., Koh, Y. S. & Beum, K. A.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spiritual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to death anxiety of the older adul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3, 229-254.]

- 이경열·김정희·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6.
- [Lee, K. Y., Kim, C. H. & Kim, D. W. (2003).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11-726.]
- 이관영 (2018).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기독교 효사상에 입각한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 교회부설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심으로. **기독교문화연구**, 23, 205-234.
- [Lee, K. Y. (2018). A study on the care of the elderly based on christian filial piet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Focusing on a church-affiliated long-term care institution. *Christian and Cultural Studies*, 23, 205-234.]
- 이수인 (2022). 연극 활동을 통한 기독교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학과 실천**, 79, 485-508.
- [Lee, S. I.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senior education programs through play activities. *Theology and Praxis*, 79, 485-508.]
- 이은경 역 (2013). **영성 심리학: 영성에 관한 간학문적 대화**. Bucher, A. A. (2007).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서울: 동연.
- [Lee, E. K. (2013).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Seoul: Dong-Yeon. Trans. Bucher, A. A. (2007). *Psychologie der Spiritualität*. Weinheim: Psychologie Verlagsunion.]
- 이정관 (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 실천**, 39, 389-411.
- [Lee, J. G. (2014). Caring for the Christian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Theology and Praxis*, 39, 389-411.]
- 임창복·이연구·최명희 (2008). **교회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 [Im, C. B., Lee, U. G. & Choi, M. H. (2008). *Church Education for Senior Adults*.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Institute.]
- 장신근 (2018). 통전적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의 모색: Fin-Telos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3), 327-355.
- [Jang, S. G. (2018). Seeking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for nurturing holistic fait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3), 327-355.]
- 정순화·임정하 (2013).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연구**, 20(4), 59-79.
- [Chung, S. H. & Lim, J. H. (2013). Exploring the links between spirituality and successful aging of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4), 59-79.]
- 조영주·김신열 (2016). 경제상태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간 신체건강과 영성의 다중매개효과. **신학과 사회**, 12, 155-188.
- [Cho, Y. J. & Kim, S. Y. (2016).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health and spirituality between 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Theology and Society*, 12,

155-188.]

- 최종훈 역 (2014). **나이 든다는 것**. Nouwen, H. J. M. & Gaffney, W. J. (1976). 서울: 포이에마.
- [Choi, J. H. (2014).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Seoul: Poiema. Trans. Nouwen, H. J. M. & Gaffney, W. J. (1976).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New York: Random House.]
- 최창식·한재희 (2013). 노인의 종교정향성과 삶의 태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 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213-251.
- [Cho, C. S. & Han, J. H. (2013). Path analysis for elderly orientation, life attitud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4(1), 213-251.]
- 태명원 (2021).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20-232.
- [Tae, M. W. (2021). The effect of the self-efficiency of older people on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spec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4), 220-232.]
- 현외성 (2011). 중고령자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 **노인복지연구**, 54, 35-60.
- [Hyun, O. S. (2011). A study on the spirituality, church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old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4, 35-60.]
- 홍구화 (202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27(4), 177-198.
- [Hong, G. 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ristian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Faith & Scholarship*, 27(4), 177-198.]
- 황환 (2022). 국내 개신교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인지정상군과 인지저하군 비교. **장신논단**, 54(1), 242-272.
- [Hwang, H. (2022).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rotestant elderly in Korea: A comparison of cognitively normal group and cognitively impaired grou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4(1), 242-272.]
- Bergen, M. S. (2003). A Christian education for the spiritual growth of senior adults. *Journal of Religious Gerontology*, 15(1-2), 127-141.
- Bufford, R. K., Paloutzian, R. F. & Eillison, C. W. (1991). Norms for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56-70.
- Cera, R. (2020). Education, spirituality, religion and transformative learning in aged adults: A qualitative study. *Rivista di Scienze dell'Educazione*, 58(2), 222-237.
- Choi, S.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volunteering and the faith of seniors.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89-104.
- Cummings, J. P., Carson, C. S., Shrestha, S., Kunik, M. E., Armento, M. E., Stanley, M. A. & Amspoker, A. B. (2014).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 Psychometric analysis in older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9(1), 1-12.
- Edlund, B. J. (2014). Revisiting spirituality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40(7), 4-5.
- Fowler, J. W. (1994). 신앙 발달 단계. In Gibbs, E. S. (Ed.). *한 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pp. 501-605). 독고 앤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Fowler, J. W. (1994). Stages of faith. In Gibbs, E. S. (Ed.). *A Reader in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and Basic Perspectives* (pp. 501-605). Seoul: Timothy Book.]
- Gorsuch, R. L. & McPherson,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3), 348-354.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Houston, TX.
- Humboldt, S. V., Leal, I. & Pimenta, F. (2014). Does spirituality really matter? : A study on the potential of spirituality for older adult's adjustment to aging.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6(2), 114-125.
- MacKinlay, E. (2001). *The Spiritual Dimension of Ageing*.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Peplau, L. A. & Perlman, D. (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faffman, S. B. (2014). *Conversations with Senior Adults about Spirituality, and Dying*.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Minneapolis, MN.
- Rababa, M., Hayajneh, A. A. & Bani-Iss, W. (2021). Association of death anxiety with spiritual well-being and religious coping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 50-63.
- Stranahan, S. (2008). A spiritual screening tool for older adul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7(4), 491-503.
- Walker, S. N. & Hill-Polerecky, D. M. (1996).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 서울경제 2023. 1. 8일자. “NYT, “韓 고령층 40%…은퇴 연령 넘겨도 노동 지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AUDZRQ> (검색일 2023.1.16.)
- [“NYT, “40% of the elderly in Korea… Continuing to work even after retirement””, *The Seoul*

Economic Daily (2023.1.8.).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AUDZRQ> (2023.1.16.)]

한겨레 2022. 9. 29일자.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노인을 위한 한국, 어떻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 (검색일 2023.1.8.)

[“The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9 million... Korea for the elderly, How?”, The Hankyoreh (2022.9.29.).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 (2023.1.8.)]

한국일보 2022. 9. 24일자 14면. “‘부양 부담’ ‘불안한 노후’...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중장년층.”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4540001838> (검색일 2023.1.8.)

[“‘Burden of support’ ‘Anxious retirement’... middle-aged Korean in trouble”, Hankook Il-Bo(2022.9.24.). Retrieved fr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4540001838> (2023.1.8.)]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김성원(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를 소개하면,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하위요인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53개의 예비문항 개발하여 8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사를 거쳐 47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 79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756부를 분석하였으며 JAMOVI 2.3, SPSS 22과 AMOS 2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22부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434부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출된 요인 및 문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본 측정도구는 노인의 신앙 측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써 기독교 노인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타당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식*

Subjective cognition of spiritual care among Christian college nursing students

정미란(Miran Jung)**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structure of the perception of spiritual care among nursing students at a Christian college an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and applied the Q methodology. Although 38 P samples classified 38 Q samples, the final 34 P samples were analyzed by invalidating the data of 4 students with invalid loading values. The first i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oriented type', which recognizes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herapeutic relationships as important elements of spiritual care. The second is the 'religious approach-accepting type', in which religious beliefs are important in spiritual care.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well-being, religion was recognized as beneficial for nurses to perform spiritual care. The third type is the 'selective acceptance type', which emphasizes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t spiritual needs for each subject and recognizes it as a type of nursing that can be performed as needed. The 4th type is the 'non-religious care-oriented typ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xcluding the influence of spiritual care on religion were confirm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follow-up studies, by presenting a Christian approach strategy for each type of nursing students at a Christian college.

Key Words: Christianity, spiritual care, nursing student, recognition, Q methodology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6일 최종수정, 3월 8일 게재확정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Baekseo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조교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18 조형관 737호, rcuty@bu.ac.kr

1. 서론

돌봄은 대상자를 돕기 위해 계획된 직·간접적인 양육, 행위, 과정, 결정 등을 명백히 포함하는 것으로 인류의 태생 이후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Leininger, 1978). 이러한 돌봄은 간호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간호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핵심으로, 전문적인 간호 중재 활동이며 환자를 돕기 위해 간호 실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이른다(공병혜, 2002 ; Watson, 1979). 이러한 돌봄은 대상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단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녕을 다루는 영적 돌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적 돌봄은 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영적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다(Taylor, 2005). 전반적인 돌봄의 개념 상,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영역일 수 있으나, 중요도 측면에서는 다른 어떠한 돌봄보다 중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적 돌봄을 받은 대상자의 안녕 점수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돌봄 효과는 돌봄 제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정남·송미옥 외, 2004 ; Balboni et al., 2010). 의료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적 돌봄의 양과 질이 클수록 대상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적 돌봄을 행하는 돌봄 제공자의 실존적 지지가 있으면 돌봄에 대한 효과는 더욱 상승하였고, 특히 삶의 위기 혹은 죽음을 앞둔 생의 마지막 대상자에게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김정남·송미옥 외, 2002 ; 유양숙 외, 2006 ; Balboni et al., 2010). 따라서 영적 돌봄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영적 돌봄 제공자가 영적 돌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행할 때, 대상자의 영적 요구 충족 및 영적 안녕 유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영적 돌봄은 여러 종교에서 다양하게 언급된 바 있으나, 기독교적 영적 돌봄은 기독교적 믿음에 기초하여 모든 대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대상자의 안녕과 온전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돌봄 원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김희경, 1998 ; 안경승, 2015). 이러한 기독교적 영적 돌봄은 임상에서 대상자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죽음 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움으로써 영적 안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영적 돌봄은 수행하는 간호사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송유리·박영숙, 2020), 미래 대상자의 영적 안녕까지 고려해야 할 책임을 갖는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기독교대학 내 간호학과는 하나님의 돌봄 원리를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사를 배양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며,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역량 향상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독교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영적 돌봄의 주관적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식유형별 접근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 (2)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 유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목적을 가지므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지각에 의해 다르게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객관화하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김홍규, 2008).

1. Q모집단 및 Q표본 선정

본 연구의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 문헌고찰 및 심층 면담의 2단계를 수행하였다. 영적 돌봄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초기 진술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5명과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은 B 대학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번호: BUIRB-202205-HR-011)를 통과한 이후 실시하였으며, 선행 문헌고찰을 포함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자는 기독교대학의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해당 대학에서 실시하는 채플 및 기독교 관련 교양을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영적 돌봄에 대한 자신의 경험 혹은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과 필사,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 중도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 보관기관 이후의 해당 자료의 안전한 폐기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심층 면담은 1인당 1~2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와의 면담 내용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1회당 시행 시간은 30분~90분가량 진행되었고, 하루에 1회만 시행하였으며, 심층 면담 대상자 중 연구 참여를 중도 포기한 참여자는 없었다. 심층 면담 주요 질문은 선행 문헌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돌봄·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간호업무에서

의 영적 돌봄의 중요도·종교(기독교)와 영적 돌봄의 관계에 대한 생각·종교가 영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영적 돌봄에 대한 경험·영적 돌봄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등이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당일 필사하였고, 녹음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인 대상자의 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분위기 등은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Q 모집단 구성의 2단계를 수행한 결과, 총 127개의 Q 모집단을 도출하였고, 유사 진술문 확인 및 통합 과정을 통해 38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Q 표본은 Q 방법론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해, 가독성 향상을 위해 10개의 진술문을 수정하였으며, 의미가 중복되는 5개의 진술문을 하나로 합쳐 총 34개의 진술문으로 보완하였다. 진술문에 대한 이해정도를 간호대학생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4년제 간호대학생 2인에게 본 진술문을 읽어보게 한 후, 최종 34개의 표본을 Table 1과 같이 확정하였다.

2. P 표본 선정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 중 영적 돌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으면서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P 표본을 선정하였는데,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30명 내외의 소표본 이론과(김흥규, 2008) 탈락률 및 무효치 가능성을 근거로 총 38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시작 전, 본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 연구 중간의 자유로운 참여 철회 가능, 보관기관 이후의 해당 자료의 안전한 폐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고, P 표본의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Table 1. Q sample on the subjective cognition of spiritual care among Christian college nursing students

No.	Statements
1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
2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위한 케어에 시간적 소모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적돌봄을 수행할 시간이 줄어든다.
3	영적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 등을 포함한 자기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4	임상 기관의 영적돌봄에 대한 분위기는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5	영적인 부분은 신체와 정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6	기독교대학의 학생은 다른 대학 학생보다 영적 돌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다.
7	채플교과목은 영적 돌봄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돌봄의 일환이다.
9	영적돌봄에 대한 이해는 간호사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10	죽음을 바라보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영적 돌봄은 필수적 요소이다.
11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이해해야 한다.
12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
13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
14	영적 돌봄은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행위이다.
15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므로 종교와 영적 돌봄과는 무관하다.
16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는 대상자가 긍정적 삶의 방향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7	영적 돌봄은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18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는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9	전인 간호를 위해서 영적 돌봄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20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 이후의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영적 돌봄이다.
21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22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3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필수적이다.
24	영적 돌봄은 대상자의 우울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25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
26	영적돌봄을 위해 대상자의 종교의식 및 종교 행위를 도와야 한다.
27	대상자-간호사 간 종교의 차이는 영적돌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8	영적 돌봄 수행은 전문적 행위이며, 이를 임상 기관에서는 인정해야 한다.
29	영적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30	영적돌봄을 위해 다른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31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
32	영적 돌봄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돌봄의 교육이 중요하다.
33	간호사가 영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할 때, 영적 돌봄의 질이 향상된다.
34	대상자-간호사 간 강한 치료적 관계는 대상자의 영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3. Q 표본 분류와 자료 분석 방법

P 표본 연구대상자에게 최종 선정된 34개의 Q 표본이 인쇄된 카드를 제시하고 진술문에 대해 설명한 이후, Q 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Q진술문을 연구대상자가 먼저 읽은 후 동의(+), 중립(0), 비동의(-)의 세 부분으로 초기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 바깥쪽에서 중앙을 향하여 분류하여 중립(0)에서 분류를 끝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Figure 1). 각 연구대상자에게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2가지와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 2가지의 선정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Q요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딩 시 가장 동의하는 경우에 4점, 중립인 경우에 0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4점을 부여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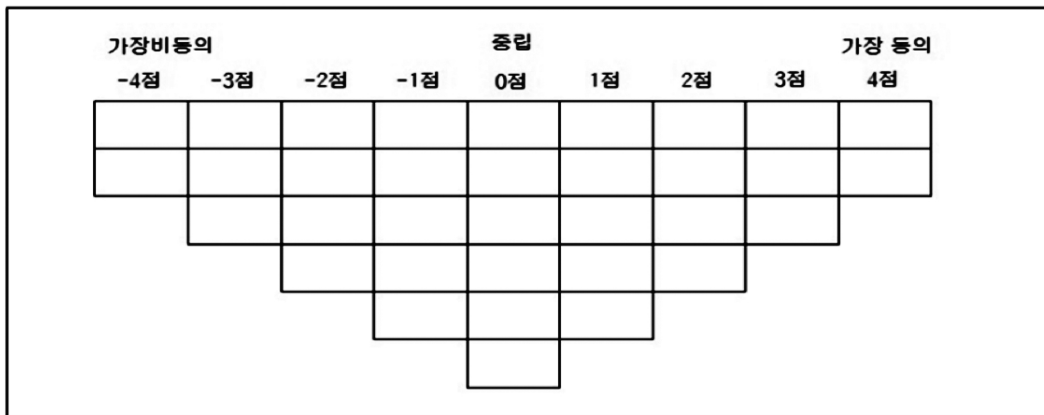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s of Q-sorting

IV.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영적 돌봄에 대한 기독교 대학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요인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이 추출되었다.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 15.6%, 제 2유형 6.6%, 제 3유형 14.1%, 제 4유형 7.8%로, 전체 변량의 약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2), 유형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The eigenvalue and variance for each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igenvalue	5.3129	2.2400	4.7771	2.6409
variance	0.1562	0.0658	0.1405	0.0776
cumulative variance	0.1562	0.2220	0.3625	0.44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actor scor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1.000	0.204	0.552	0.255
Factor 2		1.000	0.159	-0.071
Factor 3			1.000	0.175
Factor 4				1.000

2. 유형별 특성

본 연구의 P표본 총 38명 중, 4명(14번, 18번, 28번, 30번)의 대상자는 적재치가 유의미하지 않아 무효 케이스로 처리하였고, 최종 결과분석은 34명의 P표본 자료를 포함하였다. 각 유형별 분포된 연구대상자 수는 제1유형 11명, 제2유형 5명, 제3유형 11명, 제4유형 7명으로 나타났고, P 표본 3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 sample

Type	Subject No.	Age	Sex	Grade	Religion	Level of knowledge in spiritual care (self-evaluation)	Number of courses completed in Christianity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Type 1 (N=11)	1	21	female	2nd	Christianity	Low	6	No
	7	22	female	3rd	no religion	Low	6	Yes
	8	24	male	2nd	Catholicism	Low	6	No
	9	21	female	2nd	no religion	Low	6	No
	11	22	female	2nd	no religion	Low	6	No
	12	24	female	3rd	no religion	Low	10	Yes
	13	20	female	1st	Catholicism	Moderate	2	No
	16	20	female	1st	no religion	Low	2	No
	17	24	male	3rd	no religion	Low	10	Yes
	34	23	female	4th	Christianity	Low	14	Yes
	37	24	male	3rd	Christianity	Low	10	Yes

Type 2 (N=5)	5	28	female	2nd	Christianity	Moderate	2	No
	23	25	male	3rd	Christianity	Moderate		Yes
	31	21	female	2nd	Christianity	Moderate		No
	33	22	female	3rd	Christianity	Moderate		Yes
	35	25	male	4th	Christianity	Moderate		Yes
Type 3 (N=11)	3	21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4	21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6	21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10	21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15	20	female	1st	Buddhism	Moderate	2	No
	20	22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21	22	female	1st	Christianity	Low	2	No
	22	24	female	3rd	no religion	Low	10	Yes
	24	24	male	3rd	no religion	Moderate	10	Yes
	25	24	male	3rd	no religion	Moderate	10	Yes
	26	33	male	3rd	Christianity	Low	10	Yes
Type 4 (N=7)	2	21	female	2nd	no religion	Moderate	6	No
	19	21	female	2nd	Christianity	Moderate	6	No
	27	22	female	3rd	no religion	Moderate	10	Yes
	29	23	female	3rd	no religion	High	10	Yes
	32	22	female	3rd	Christianity	Moderate	10	Yes
	36	22	female	3rd	no religion	High	6	Yes
	38	22	female	3rd	no religion	High	10	Yes

(1) 제1유형: 치료적 관계 중시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한 명을 제외한 10명의 대상자가 자신의 영적 돌봄 지식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이수한 기독교 관련 교과목 수는 2개에서 14개로 다양하였다. 이 유형은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z=1.916$)”,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z=1.549$)”,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필수적이다($z=1.549$)”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등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z=-1.794$)”, “채플교과목은 영적 돌봄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z=-1.683$)”,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z=-1.503$)에 강

한 비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영적 돌봄이 간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이지만, 채플교과목이 이러한 영적 돌봄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5.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for Type 1 ($\geq |\pm 1.00|$)

No.	Statements	Standard scores
25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	1.916
22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1.549
23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필수적이다.	1.549
34	대상자-간호사 간 강한 치료적 관계는 대상자의 영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1.435
11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이해해야 한다.	1.025
26	영적돌봄을 위해 대상자의 종교의식 및 종교 행위를 도와야 한다.	-1.157
12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	-1.159
13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	-1.168
6	기독교대학의 학생은 다른 대학 학생보다 영적 돌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다.	-1.381
18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는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463
1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	-1.503
7	채플교과목은 영적 돌봄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83
31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	-1.794

이 유형을 대표하는 37번 대상자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 학생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 정도를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현재까지 채플을 포함한 10개의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이었다. 이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하다 (Q25)”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대상자가 겪고 있는 증상,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간호사가 가져야 하는 필수적 역량이며, 이것을 통하여 대상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치료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영적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영적 돌봄을 위해 치료적 의사소통 역량을 우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Q31)”를 가장 비동의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는데, 건강의 범주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인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유지·증진시키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영적 돌봄이 간호의 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적 돌봄의 직접적 역할이 간호사의 몫이며,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 오히려 종교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영적 돌봄을 간호의 영역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무엇보다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어 ‘치료적 관계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종교적 접근 수용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모두 기독교인이며, 모두 자신의 영적 돌봄 지식수준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다. 이수한 기독교 관련 교과목 수는 2개에서 12개로 다양하였으며, 학년범주도 2학년에서 4학년까지 포함되었다. 이 유형은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이해해야 한다($z=1.976$)”,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z=1.816$)”,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z=1.723$)”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는 공감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종교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믿음의 정도는 대상자의 영적 안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는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여, 종교적 신념 및 믿음에 대한 영적 돌봄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강한 비동의를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z=-1.544$)”,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z=-1.336$)”를 선택함으로써, 영적 돌봄이 간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라고 인식했던 제1유형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6.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for Type 2 ($\geq|\pm 1.00|$)

No.	Statements	Standard scores
11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이해해야 한다.	1.976
12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	1.816
13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	1.723
8	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돌봄의 일환이다.	1.238
10	죽음을 바라보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영적 돌봄은 필수적 요소이다.	1.202

27	대상자-간호사 간 종교의 차이는 영적돌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102
28	영적 돌봄 수행은 전문적 행위이며, 이를 임상 기관에서는 인정해야 한다.	-1.137
32	영적 돌봄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돌봄의 교육이 중요하다.	-1.208
29	영적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1.286
31	영적 돌봄은 간호사보다는 종교지도자의 몫이며, 간호사는 이를 조력하는 역할이다.	-1.336
1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	-1.554

이 유형을 대표하는 35번 대상자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 학생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 정도를 중간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현재까지 채플을 포함한 12개의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이었다. 이 대상자는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Q13)”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목적이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종교적 믿음과 신념정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믿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의 종교적 신념을 지지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종교인에게 의뢰하여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기독교인으로 자신이 임상 간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영적 돌봄을 실현할 때에는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대상자에게 자신이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영적 돌봄은 모든 대상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케어가 아니다(Q1)”에 가장 비동의하였는데, 영적 돌봄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케어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돌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죽음에 임박하여 영적 고통이 심한 대상자에게는 영적 돌봄의 정도를 높여 집중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종교지도자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대상자의 안위를 위해 함께 협력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 종교적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여, 영적 돌봄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접근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선택적 수행형

제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8명의 대상자가 자신의 영적 돌봄 지식에 대해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3명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수한 기독교 관련 교과목 수

는 채플을 포함하여 2개에서 10개였으며, 3명(기독교 2인, 불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무교로 응답하였다. 이 유형은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z=1.951$)”,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z=1.808$)”,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z=1.747$)”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대상자의 니즈와 가치를 중시여기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제1유형인 치료적 관계 중시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나, 강한 비동의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적 돌봄 수행은 전문적 행위이며, 이를 임상기관에서는 인정해야 한다($z=-1.663$)”, “영적돌봄을 증진하는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z=-1.572$)”에 강한 비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영적 돌봄이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에서도 벗어난다고 보고 있었으며, 영적 돌봄 증진방법은 환자를 위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able 7).

이 유형을 대표하는 3번 대상자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간호 학생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 정도를 중간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현재까지 채플을 포함한 6개의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임상 실습경험과 종교가 없었다. 이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Q25)”와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Q21)”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는데, 영적 돌봄을 수행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상자와의 신뢰감 형성이며,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환자 맞춤형 영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영적돌봄을 증진하는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Q29)”에 가장 비동의하였는데,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의 영적 돌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한 대상자를 위한 간호 우선순위에서도 낮은 순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업무보다 영적 돌봄이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환자가 영적 요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영적 돌봄을 수행함에 앞서 대상자에게 경청하고, 대상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영적 돌봄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돌봄의 종류는 아닌 대상자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선택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for Type 3 ($\geq |\pm 1.00|$)

No.	Statements	Standard scores
25	대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	1.951
22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1.808
21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1.747
23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영적 돌봄에서 필수적이다.	1.402
3	영적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 등을 포함한 자기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277
11	대상자의 영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이해해야 한다.	1.109
15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므로 종교와 영적 돌봄과는 무관하다.	-1.132
10	죽음을 바라보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영적 돌봄은 필수적 요소이다.	-1.263
19	전인 간호를 위해서 영적 돌봄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1.266
7	채플교과목은 영적 돌봄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01
29	영적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1.572
28	영적 돌봄 수행은 전문적 행위이며, 이를 임상 기관에서는 인정해야 한다.	-1.663

(4) 제4유형: 비종교적 돌봄 중시형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7명으로, 기독교인 2명을 제외하고 5명이 무교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대상자가 자신의 영적 돌봄 지식에 대해 중간 정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이 중 3명은 자신의 영적 돌봄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수한 기독교 관련 교과목 수는 채플을 포함하여 6개와 10개로 나뉘었으며, 2학년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임상 실습경험이 있었다. 이 유형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는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z=2.206$)”,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므로 종교와 영적 돌봄과는 무관하다($z=1.415$)”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영적 고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종교와 영적 돌봄 수행은 별개의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 이후의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영적 돌봄이다($z=-2.146$)”,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z=-2.111$)”,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z=-1.565$)”에 강한 비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영적 돌봄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고, 종교적 믿음의 크기와 영적 안녕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종교 유무가 영적 돌봄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Table 8).

Table 8.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for Type 4 ($\geq|\pm 1.00|$)

No.	Statements	Standard scores
18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는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206
15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므로 종교와 영적 돌봄과는 무관하다.	1.415
21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1.374
10	죽음을 바라보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영적 돌봄은 필수적 요소이다.	1.354
34	대상자-간호사 간 강한 치료적 관계는 대상자의 영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1.060
2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위한 케어에 시간적 소모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적돌봄을 수행할 시간이 줄어든다.	1.049
8	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돌봄의 일환이다.	-1.163
29	영적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1.445
12	종교를 갖는 것은 영적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도움이 된다.	-1.565
13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	-2.111
20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 이후의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영적 돌봄이다.	-2.146

이 유형을 대표하는 29번 대상자는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간호 학생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 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현재까지 채플을 포함한 10개의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임상 실습경험이 있고, 종교는 없었다. 이 대상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는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Q18)”와 “대상자 각자의 상황, 신념, 영적 요구는 다르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Q21)”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하였다. 이 대상자는 임상에 있는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녕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 혹은 가치감 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영적 안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질병에 대한 고통이 영적 고통에도 영향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적 생각과 신념이 모두 다른 것처럼 영적 요구도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신체 사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영적 사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 이후의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영적 돌봄이다(Q20)”와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클수록 영적 안녕이 향상된다(Q13)”에 가장 비동의하였는데, 죽음 이후의 희망을 갖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력하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느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영적 안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비 광신도들의 경우, 올바른 방식은 통하여 종교를 갖는 사람으로 영적 안녕과 관계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질병 고통이 영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모든 대상자는 영적 존재로, 종교와는 무관하게 대상자를 대해야 하며, 대상자마다 영적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영적 사정을 통해 현재에서의 영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종교와 영적 돌봄과는 별개의 것으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의 크기가 영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없고,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영적 돌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비종교적 돌봄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치료적 관계 중시형’, ‘종교적 접근 수용형’, ‘선택적 수용형’, ‘비종교적 돌봄 중시형’의 4개 유형이 확인되었다. ‘치료적 관계 중시형’은 제1유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영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영적 돌봄을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경청·공감·인정·함께 있기 등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돌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는 전인적 관점에서 영적 돌봄이 신체적·정신적 간호만큼 중요한 간호업무로 판단하는 고명숙(2003)의 연구를 뒷받침하며, 대상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being의 관점(정진옥 외, 2016)에서 영적 돌봄을 바라본다. 또한, 치료적 자기사용을 간호사의 영적 돌봄 역량의 한 요소로 보고 연구한 윤매옥과 심정하(2018)의 연구 및 암병동 간호사가 수행하는 영적 돌봄 중재 중 치료적 상담 수행의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Semerci et al.(2021)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영적 돌봄은 환자의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적 안녕을 충족시키는 간호 활동으로, 3가지 관계의 차원(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내면적 관계)을 포함하는데(강성례, 2006), 이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적 욕구가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고 타인과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것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1유형은 3가지 관계적 차원 중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의 의사소통 또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교양 교과목과는 별도의 영적 돌봄과 관련된 교과 혹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간호학생의 영적 돌봄에서의 치료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제1유형의 영적 돌봄의 중시부분을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영적 돌봄은 한 가지 관계의 차원에 대한 접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강성례, 2006 ; Ellison, 1983 ; Connerton & Moe, 2018), 초월적 존재 및 내면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제1유형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대상자

가 자신의 영적 돌봄의 지식수준을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를 영적 돌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영적 돌봄에 인식과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성례(2006)의 연구와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기술 등의 부족이 영적 돌봄 수행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송유리와 박영숙(2020)의 연구를 근거로 판단해볼 때, 영적 돌봄에 대한 지식수준 향상에 따라 초월적 존재 및 내면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독교 대학에서는 매 학기 채플 혹은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영적 돌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해당 교과에서 반영한다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제2유형인 ‘종교적 접근 수용형’은 영적 돌봄에서 종교적 가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형으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영적 안녕을 향상시키며, 종교를 갖는 것이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유익하다고 인식한다. 이 유형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종교인이 갖는 영성의 경우,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Cohen, 2008 ; Shaw, 2016), 종교적 안녕과 영적 안녕 간의 높은 상관관계(Folta, 1995)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종교를 가진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종교적 안녕이 높다는 이도영 외(2016)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을 근거로, 종교를 가진 간호사의 높은 종교적 안녕 수준은 자신의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간호사의 영적 안녕이 영적 돌봄 수행을 향상시키는 필수 요소(송유리·박영숙, 2000)임을 고려할 때, 종교를 갖는 것이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유익하다는 제2유형의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타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행위가 영적 돌봄 중재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영적 돌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그들의 영적 안녕을 증진하게 하는 긍정적 중재로 보고 있었다. 다양한 영적 간호 혹은 영적 돌봄 프로그램 속에는 기도·찬송·성경 읽기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서세레나, 2013 ; 윤매옥, 2009b ; Deal, 2010 ; Ross et al., 2022), 이는 기도를 비롯한 종교적 행위가 대상자의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종교적 안녕이 영적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교내 학생 종교활동(기도, 찬양, 성경읽기, 관련 독서활동 등)과 관련된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거나 필요 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주기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유형이 추구하는 영적 돌봄 행위를 교내·외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실천하게 한다면, 이들의 영적 돌봄역량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교육·상담·활동적 전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유형이라 하겠다.

제3유형은 ‘선택적 수용형’으로, 영적 돌봄에 있어 대상자의 가치 인정 및 요구파악에 무게를 두

고 대상자에게 경청하는 것을 중시하며, 필요 시에 수행하는 간호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영적 돌봄의 과정 중 영적 사정(강성례, 2006)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자마다 영적 요구가 다를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영적 돌봄 중재를 수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Hu et al., 2019)를 지지한다. 이로 인해 이 유형의 대상자는 간호의 업무 중 영적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고, 신체적·정신적 간호와 비교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음의 당위성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적 요구의 크기가 다를 뿐 존재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Connerton & Moe, 2018), 죽음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만이 영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니라, 모든 간호대상자가 영적 돌봄의 대상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호스피스 환자나 암환자 경우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 요구가 현저히 높으며(윤매옥, 2009a ; Murray et al., 2004), 영적 돌봄의 집중도가 일반 환자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들만이 영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적 안녕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문헌(윤매옥, 2009a ; Kim & Yeom, 2018)과 삶의 질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영적 건강을 보고하는 문헌(Bredle et al., 2011 ; Lee & Salman, 2018 ; Pantuso, 2015)으로부터 영적 돌봄이 신체적·정신적 돌봄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영적 사정·영적 중재·영적 평가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영적 돌봄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영적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경험치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기독교적 영적 돌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상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상담 및 교목실 내 상담 등이 포함된다면 체계적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유형인 ‘비종교적 돌봄 중시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의 상관성 및 영적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영적 돌봄과 종교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간호사의 종교 유무는 영적 돌봄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는다. 이는 영적 안녕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윤매옥, 2009A ; Kim & Yeom, 2018)와 영적 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영적 고통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Taylor(2005)의 의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영적 돌봄은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영적 갈등을 해소하고 영적 안녕을 획득하는 행위(Highfield, 2000)이며, 이때 영적 요구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타인과의 관계·내면적 관계의 3가지 관계 차원에 따라 분류됨으로써(강성례, 2006), 신앙 혹은 종교와의 연관성이 존재하였고, 영적 돌봄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적 돌봄의 종교성이 포함되어 있어(Veloza-Gomes et al., 2016), 영적 돌봄을 종교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물론 영적 돌봄을 종교적 개념과 혼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나(McSherry, 2008), 아예 분리할 수 없음과 영적 돌봄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영적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체계적인 영적 간호교육의 부재는 영적 돌봄에 대한 간호사의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 장벽일 수 있음을 근거로(Baldacchino, 2008 ; McSherry, 2008), 이 유형은 영적 돌봄에 대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적 돌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유형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가장 반하는 형태로, 종교인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종교 진리 강요에 대한 반동성 등에 따라 종교에 대한 부정 인식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조용훈, 최영근, 2015 ; 윤성민, 2016). 따라서 단기간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멘토링·소그룹·프로젝트·봉사 등의 활동 위주의 삶과 연계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생활관을 통한 사역이 학원 내 복음화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므로(조용훈·최영근, 2015), 생활 환경에서의 중재에 대한 다각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유형별 기독교적 접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영적 돌봄역량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확인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전국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교수-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교수자의 인식이기 때문에 기독교대학 간호학과 교수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과 영적 돌봄역량 증진 전략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 유형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의 기독교적 영적 돌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전략에 대한 추후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성례 (2006). 영적간호의 개념분석. **한국간호과학회지**, 36(5), 803-812.
- [Kang, S. R. (2016).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5), 803-812.]
- 고명숙 (2003). 간호 대학생의 영적 간호 경험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175-185.
- [Koh, M. S. (2003). A study of nursing students' spiritual care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2), 175-185.]
- 공병혜 (2002). 돌봄의 윤리를 위한 미감적-윤리적 패러다임. **대한간호학회지**, 32(3), 364-372.
- [Kong, B. H. (2002).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3), 364-372.]
- 김명자·양남영 (2009). 고통(Suffering)과 영적 간호. **가정간호학회지**, 16(1), 40-48.
- [Kim, M. J. & Yang, N. Y. (2009). Suffering and spiritual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16(1), 40-48.]
- 김소남·이상복 (201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영적안녕,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9(2), 196-204.
- [Kim, S. N. & Lee, S. B. (2013).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86-194.]
- 김정남·송미옥 (2004). 영적간호중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안녕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1), 132-144.
- [Kim, J. N. & Song, M. O. (2004). Effect of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on spiritual well being and depression of hospice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1), 132-144.]
- 김홍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H. K. (2008). *Q methodology :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CB]
- 김희경 (199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교회 호스피스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Kim, H. K. (1998). *A study on the church hospice about death and dying*. Master Disser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서세레나 (2013). 치매노인 돌봄 전문가를 위한 기독교 영성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교회와 사회 복지**, 23, 75-108.
- [Seo, S. (2013). A study on develop a Christian spiritual program for professional care-manager for demented elderly. *Church Social Welfare*, 23, 75-108.]
- 송유리·박영숙 (2020).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학회지**, 28(4), 246-253.
- [Song, Y. & Park, Y. (2002).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on spiritual nursing by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Stress*, 28(4), 246-253.]
- 신연순·송정아 (2011). 호스피스 상담과 기독교적 영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2(1), 129-154.
- [Shin, Y. S. & Song, J. (2011). A study of hospice counseling and Christian spiritual ca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2(1), 129-154.]
- 안경승 (2015). 성경적 목적적 돌봄을 위한 청교도의 자원. **복음과 상담**, 23(1), 233-258.
- [Ahn, K. S. (2015). Puritan Resources for Biblical Pastoral Care. *The Gospel and Counseling*, 23(1), 233-258.]
- 유양숙·한성숙·이선미·박재순·홍진희·서민정 (2006). 호스피스 팀원들의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수행도. **기본간호학회지**, 13(2), 285-293.
- [Yoo, Y. S., Han, S. S., Lee, S. M., Park, C. S., Hong, J. & Seo, M. (2006). Spiritual care and spiritual wellness of hospice team member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2), 285-293.]
- 윤매옥 (2009a).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수행.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2(2), 72-79.
- [Yoon, M. O. (2009a). The spiritual well-being and the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for cancer patients.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2(2), 72-79.]
- 윤매옥 (2009b). 영적 간호중재가 노인 말기 암환자의 삶의 의미와 영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가정간호학회지**, 16(2), 135-144.
- [Yoon, M. O. (2009b). Effect of spiritual nursing care on meaning of life and spiritual well-being of terminal cancer older adult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16(2), 135-144.]
- 윤매옥·심정하 (2018). 기독교대학 간호학생의 영적간호교육의 효과. **신학과 사회**, 16(1), 221-255.
- [Yoon, M. O. & Sim, J. H. (2018). The effects of spiritual nursing care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y nursing students. *Theology and Society*, 16(1), 221-255.]
- 윤성민 (2016).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강남대학교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1(0), 199-226.

- [Yoon, S. M.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chapel and Christian liberal education in Kangnam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0), 199-226.]
- 이도영·박진경·최애숙 (2016).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5), 59-68.
- [Lee, D. Y., Park J. K. & Choi, A. S. (2016). Convergence factors of spirituality affecting on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59-68.]
- 이영은·박혜선·강양희 (2007).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학술지**, 7(1), 5-14.
- [Lee, Y. E., Park, H. S. & Kang, Y. H. (2007). A study of spiritu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ospice Care*, 7(1), 5-14.]
- 정진욱·조현숙·김상희 (2016). 간호사의 '영적간호모듈'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1), 51-62.
- [Jeong, J. O., Jo, H. S. & Kim, S. H. (2016). Effect of the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1), 51-62.]
- 조용훈·최영근 (2015). 기독교대학 학원복음화 전략을 위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28(0), 7-40.
- [Jo, Y. H. & Choi, Y. K. (2015). A Study on Strategies for the Campus Evangelization in the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8(0), 7-40.]
- Balboni, T. A., Paulk, M. E., Balboni, M. J., Phelps, A. C., Loggers, E. T., Wright, A. A., Block, S. D., Lewis, E. F., Peteet, J. R. & Prigerson, H. G. (2010). Provision of spiritual care to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associations with medical care and quality of life near death.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8(3), 445-452.
- Baldacchino, D. R. (2008). Spiritual care: is it the nurse's role? *Spirituality and Health International*, 9(4), 270-284.
- Bredle, J. M., Salsman, J. M. & Debb, S. M. (2011). Spiritual well-being as a compon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spiritual well-being scale. *Religions*, 2(1), 77-94.
- Cohen, H. L., Thomas, C. L. & Williamson, C. (2008). Religion and spirituality as defined by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1(3-4), 284-299.
- Connerton, C. S. & Moe, C. S. (2018). The Essence of Spiritual Care [Internet]. *Creative Nursing*, 24, 36-41.
- Deal, B. (2010). A pilot study of nurses' experience of giving spiritual care. *The Qualitative Report*, 15(4), 852-863.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11, 330-340.

- Folta, R. H. (1995). *Spiritual care*. (Chung, J. S. translate). Seoul: Hyunmoon Publishing.
- Highfield, M. E. (2000). Providing spiritual care to patients with cancer.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4(3), 115-120.
- Hu, Y., Jiao, M. & Li, F. (2019). Effectiveness of spiritual care training to enhance spiritual health and spiritual care competency among oncology nurses. *BMC palliative care*, 18(1), 104.
- Kim, H. S. & Yeom, H. A.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burnout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 descriptive study.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46, 92-97.
- Lee, Y. H. & Salman, A.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depressive symptom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2(3), 418-424.
- Leininger, M. M. (1978). The phenomenon of caring: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detroid: Wayne State Univ. Press.
- McSherry, W. (2008). The principal components model: A model for advancing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e within nursing and health care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7), 905-917.
- Murray, S. A., Kendall, M., Boyd, K., Worth, A. & Benton, T. F. (2004). Exploring the spiritual needs of people dying of lung cancer or heart failure: a prospective qualitative interview study of patients and their carers. *Palliative medicine*, 18(1), 39-45.
- Pantuso, T. (2015). Spiritual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cancer. *Integrative medicine alert*, 18(7), 79-81.
- Puchalski, C. M., Blatt, B., Kogan, M. & Bytler, A. (2014). Spirituality and health: the development of a field. *Academic Medicine*. 89(1), 10-16.
- Ross, L., Giske, T., Boughey, A. J., van Leeuwen, R., Attard, J., Kleiven, T. & McSherry, W. (2022). Development of a spiritual care education matrix: Factors facilitating/hindering improvement of spiritual care competency in student nurses and midwives. *Nurse Education Today*, 11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0691722001393>.
- Semerici, R., Uysal, N., Bagcivan, G., Dogan, N., Kostak, A. M., Tayaz, E., Koyu, H. O., Seref, F. C. & Kunter, N. (2021). Oncology nurses' spiritual care competence and perspective about spiritual care services. *Turkish Journal of Oncology*, 36(2), 222-230.

- Shaw, R., Gullifer, J. & Wood, K. (2016). Religion and spirituality: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adults. *Ageing international*, 41(3), 311-330.
- Taylor, E. J. (2005). Spiritual care nursing: What cancer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wa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3), 260-267.
- Veloza-Gomez, M., Guevara-Armenta, C. & Mesa-Rodriguez, S. (2016). The importance of spiritual car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5(2), 1-14.
- Watson, J. (1979). *Nursing: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Little, Brown.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식

Subjective cognition of spiritual care among Christian college nursing students

정미란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 P표본 38명을 대상으로 34개의 Q표본을 분류하게 하였으나, 적재치가 유효하지 않은 4명의 데이터를 무효처리하여 최종 34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영적 돌봄에 대한 4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치료적 관계 중시형'으로 치료적 의사소통 및 치료적 관계를 영적 돌봄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였고, 제2유형은 '종교적 접근 수용형'으로 영적 돌봄에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영적 안녕향상에 기여하고 종교는 간호사가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유익하다고 인식하였다. 제3유형은 '선택적 수용형'으로 대상자마다 다른 영적 요구 확인을 중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간호로 종류로 인식하였고, 제4유형은 '비종교적 돌봄 중시형'으로 영적 돌봄과 종교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종교 유무가 영적 돌봄에 영향하는 바를 배제하고자 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간호대학생의 유형별 기독교적 접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영적 돌봄역량 증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확인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영적 돌봄, 간호학생, 인식, Q방법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교과 건강영역*

Physical Education Lesson Planning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박영진 (Young Ji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whole person education failure in physical education and to suggest a Christian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body view of the current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defined the meaning of the whole person in physical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and then reinterpreted the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aught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In addition, a hiking activity lesson under the health unit from 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as reconstructed. The hiking lesson was designed to learn and practice loving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whole person education that aims to nurture healthy members of socie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can be achieved by designing physical activities to love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construction, physical activity knowledge, health area, love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 장대현중고등학교(Jangdaehyun Middle & High School) 교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76번길 71, loy2ka725@gmail.com

I. 서론

2023년 1월 한국야구대표팀은 WBC(World Baseball Classic) 대회를 준비하며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유명 선수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었었다. 메이저리그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 선수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한인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대표팀 선발에서 영구 제명된 후배 선수를 안타까워하며 용서가 쉽지 않은 한국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발언으로 인해 팬들과 여론의 못매를 맞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소위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날로 악해져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마땅한 예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행위들이 국민을 분노케 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제를 대할 때 ‘신체활동을 통해 지식을 가르치는 체육교과가 인간의 폭력성을 자극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온다. 매년 반복되는 스포츠계와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를 바라보며 과연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그리고 체육교과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체육교과 수업은 오랫동안 운동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순화 등 각종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써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정택, 2015).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신체활동이 폭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최의창(2010)은 스포츠가 보편화 됨에 따라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준다(Sports build character)”라는 상투적인 표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오락의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때문에 체육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인성과 관련된 여러 자질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학교체육현장에서의 ‘기능적 수업’, ‘아나공 수업’ 등의 체육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체육교과를 통한 다양한 자질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체육을 중요하지 않은 교과로 분류하고, 아동들에게 할 일을 주고 ‘내버려 두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류태호, 2001 ; 최의창, 2004).

이러한 학교체육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으로 학습되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통한 전인교과으로써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팀워크, 페어플레이 정신 등 활동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신체활동 가치를 도입하여 체육교과의 목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을 획득한 전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정애, 2009: 13; 최의창, 2007). 또한 최의창(2020b)은 인문적 체육을 통해 체육활동에서 운동을 하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운동을 향유하는 것이며 “스포츠 교육(체육)은 학생들이 운동소양을 길러서 운동 향유력을 최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인 양성을 위한 체육교과의 지향점이 인간을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의 양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 신체활동과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정응근(1987)은 체육교과가 전인을 양성하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 정체성을 상실한 체육학의 학문성과 신체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체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분설과 삼분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손수 만드신 사람을 신체와 영, 혼으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통일체, 전인격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1 ; 김옥태, 2012). 그리고 강용원(2015)은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로 규정한 기독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으로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며 전인 양성을 추구하는 체육교과의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교과에서 가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여, 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위 재구성을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재해석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학교체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은 “신체활동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구현되는 지식으로 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의 3가지 구조로 되어있으며, 개념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 수행 지식은 방법적 지식, 관계 지식은 신체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유정애, 2009: 15-16).” 유정애(2009)가 분류한 체육교과의 개념적 지식과 수행 지식은 길버트 라일(G. Ryle)의 분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수 있다. Ryle은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명제적 지식’은 ‘무엇 무엇임을 아는 것’ 또는 명제로 진술되는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며, ‘방법적 지식’은 ‘무엇 무엇을 할 줄 아는 것’ 말 그대로 방법을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였다(나현규, 2020).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체육교과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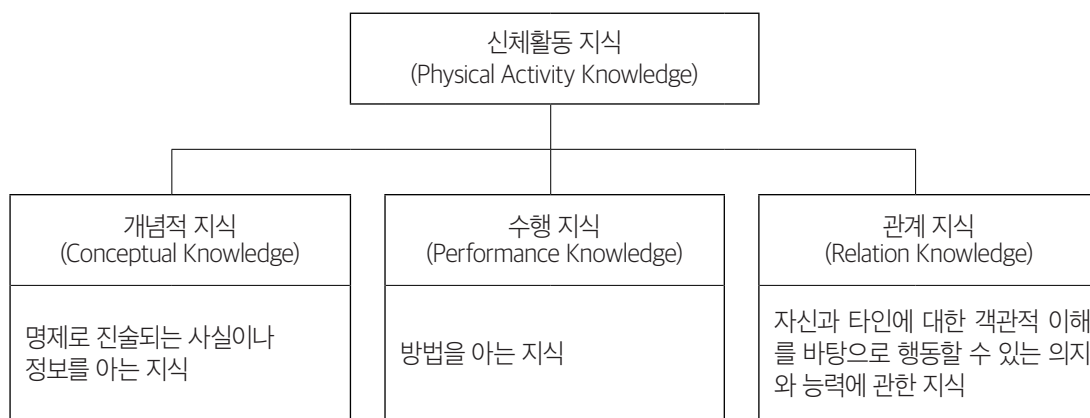


Figure 1. The Structure of Knowledge of Physical Activity

최의창(2020a)은 체육교과에서 전인적 발달은 “신체활동 지식이 속한 인지적, 심동적(신체적), 정의적 학습영역의 고른 발달을 의미하며, 전인이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며 체육은 학습영역의 전 측면을 개발, 함양, 증진 시켜주는 교과목”이라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문적 체육을 강조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¹⁾”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전인을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로 규정하였다. 그가 주장한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는 “운동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를 좋아하고, 신체적으로 운동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속으로 운동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특징을 지닌 학습자”이며, 학습의 영역을 운동지, 운동능, 운동심으로 분류 하였다(유정애, 2003 ; 최의창, 2019).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구조적으로 나뉜 학습영역의 전 측면이 고르게 발달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세명(2011)은 체육교과의 통합적 접근의 목적이 “체육활동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체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기능’ 지향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 지향으로 전환되었다(유정애, 2007).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 신체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의 달성에 있으며, 5가지 가치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유정애, 2007). 체육교과에 있어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의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기술’로 체육교육의 철학이 옮겨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였다(강신복, 2007).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는 기존의 여가영역이 건강영역에 포함되고, 안전영역이 신설되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개 신체활동 가치로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유창완·윤기준, 2019 ; 신기철, 2016). 이러한 변화는 통합적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신념과 경험 즉, 체육교과를 실제 수업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량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Table 1은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향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이다(조기희·오승현, 2020).

1) 영국의 체육교육학자인 Margaret Whitehead에 의해서 2000년에 제안된 개념으로 학술적 관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적 자질만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에까지 체육교육의 목적이 포괄해야 한다는 체육교육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최의창, 2020b)

Table 1. Change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1)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2) 통합적 교수·학습활동 (예: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을 함께 제공 (3)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1)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 (2)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3)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4) 통합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5) 효율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가) 체육과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다)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마)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바) 정과 외 체육 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추구를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정애, 2003 ; 이정택, 2015). 하지만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과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역량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의 학습영역간 분절된 구조적 측면의 한계이다.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를 인지, 심동, 정의의 학습영역으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지적 영역이 대체적으로 체육학적 지식, 심동적 영역은 운동기능 및 체력, 정의적 영역은 태도로 인식하도록 만든 이 구조는 신체활동을 인지적 측면과 거리가 먼 기능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지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운동기능과 태도는 결코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하나의 보조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의 세 영역을 통합하여 균형있게 교육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절된 학습영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는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됨으로써 전인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류태호, 2001 ; 이정택, 2015).

둘째,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체육교사 역량 측면의 한계이다. 류태호(2001)는 체육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의창(2007)은 체육교과는 전인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교과임을 밝히며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육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량중심의 2015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 교과 역량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조기희·오승현, 2020). 하지만 조기희·오승현(2020)의 연구에서 많은 교사들이 체육교과의 역량을 실제 체육수업에서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의창(2010)은 체육을 가르치는 일은 규범과 가치가 전달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체육교사가 교과외 전문성과 함께 도덕 교육적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교체육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의창, 2007).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전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활동 지식이 가진 분절된 구조적 한계와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한계가 체육교과를 통한 전인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의창(2010)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체육에 인문적 체육의 요소를 통합한 ‘하나로 수업모형’과 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나로 수업모형’이 심신이원론적 관점의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체육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오승현, 2013), ‘운동을 하는 것’의 기법적 차원과 ‘운동을 아는 것’의 심법적 차원의 구분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여전히 운동에 대한 심신이원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유탁 외, 2011). 그 결과 체육교과는 “전인(whole person)”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절되어 있는 신체활동 지식을 통합하여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으로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전인교육

최의창(2020a)은 “체육수업에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학습영역이 고르게 발달되면, 전인적으로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을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성향을 지닌 총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 성향들이 하나로 강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자기 성장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자기 성장을 통한 신체활동 향유체험이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스포츠의 가치

가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향성이 오늘날 체육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김명운 외, 2000 ; 권민정·김경숙, 2006 ; 김성훈·이안수, 2008 ; 강기현·오수학, 2009 ; 이재용, 2013). 과학적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적 체육이 강조되면서 위의 주장은 인성교과로서의 체육교과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지만, 인성교육 중심으로 신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정신’, ‘참모습’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상을 설정하여 가르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최유탁 외, 2011). 이러한 의심들은 전인을 양성하겠다는 체육교과의 목적 달성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권민정·김경숙, 2006).

과학적 체육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를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을 추구한다. 인문적 체육에서는 지덕체, 지정의 등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들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전인’의 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새로운 버전이다(최의창, 2009). 이처럼 과학적 체육과 인문적 체육 모두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육교과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면서 통합교육의 방법을 통해 인간을 전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 자비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최용준, 2020: 62). 또한, 그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이러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체육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된 영적 존재로, 신체와 영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확장 시키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성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게 된다. 체육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양성(삼위) 안에서의 일치성(일체)을 계시하듯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됨”을 이루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최용준, 2020: 61-62). 그리고 “삼중적인 관계(하나님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동료와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땅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Hoekema, 2012: 113).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신체활동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우선적으로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 성장은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돕는 방향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체육교과의 역할이라고 최의창(2020)은 주장하였다. 그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을 강하게 연결하여 신체활동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성경에서의 자기 성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배워가며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강용원, 2015 ; 차건수, 2005).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

과의 전인교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3)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는 전인교육을 추구하지만, 신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정응근(1987)은 지적하였다. 반면 신체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사람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이분설, 삼분설 등의 여러 관점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에서는 사람이 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사람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3-290). 또한, 그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있는 하나의 총체, 전체, 통일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심신 상관적 통일체”로 일컫고 있다(Hoekema, 2012: 283-299). 그리고 전인인 사람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학교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적인 교육이지만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전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성만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도 호소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안에 과목에 대한 사랑과 그 과목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교는 지성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야 한다(Hoekema, 2012: 308).

Hoekema(2012)는 학교란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교체육은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체육교과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수업에서 학생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개념적 지식)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수행 지식). 체육교과에서 수행 지식은 아는 것을 시연할 수 있는 신체활동, 즉 움직임으로 구현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전인격적인 준비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동료, 자연과 상호작용(관계 지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인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이 체육교과를 통해 학습해야 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신체활동 지식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체육교과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최대 명령인 사랑을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은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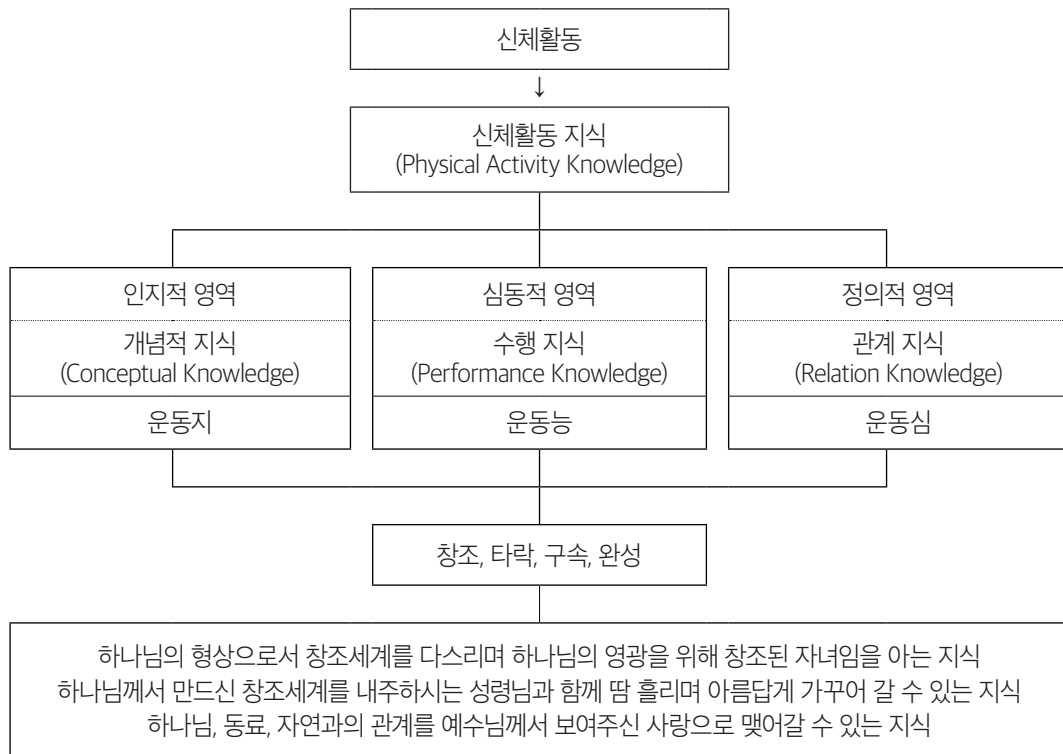


Figure 2. Physical Activity Knowledge Reconstructed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Figure 2의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토대로 가르칠 때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청지기적 삶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 동료,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다.

III.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건강과 신체활동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과 체력 관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제시된 건강영역의 내용은 타 영역(도전, 건강, 경쟁)에 비해 이론적 부분의 내용 제시가 많아 주로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수업으로 실시되고 있다(최효근, 2022).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군의 건강한 생활습관, 5~6학년군의 건강한 성장 발달, 중학교 1~3학년군의 건강한 생활환경 등이 있고, 실기 위주의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체력과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을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건강영역의 구성은 진단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인지적 지식만을 전해줄 뿐,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지속적인 건강 유지와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며 그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체육교과 건강영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육교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홍원준·김영식, 2012).

(2)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인지적 영역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체능력만을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돕는 신체활동은 학생의 일상생활을 염두해 둔 현재 학생의 상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건강영역의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건강의 가치를 진단, 처방, 실천의 과정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성격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역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고,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부, 2015).

2015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영역의 성격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역은 죄로 인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

(2)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목표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교육부, 2015).”

체육과 건강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영역의 목표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창조세계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3)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 지도안

Table 2. Hiking Activity Lesson Plan

영역	건강	수업시간	120분	인원	20명
교과역량	건강관리, 신체수련		신체활동	등산	
성취기준	[9체01-07] 여가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재구성기준1]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연습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관계 맺는 연습을 한다.				
주제진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간다.				
핵심 질문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동료와 자연과 아름답게 관계 맺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개념의 기독교적(성경적) 해석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 버리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학습해야 할 신체활동 지식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녀임을 아는 지식
-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땀 흘리며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식
- 하나님, 동료,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지식

준비물	교사	물, 간식, 구급낭	차시	1/1
	학생	물, 간식	장소	연대봉 ²

2)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왜적을 발견해 불을 피워 올렸던 봉수대가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있는 459.4m 높이의 산이다.

활동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방법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안 내 하 기	동 기 유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연대봉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 질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연훼손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강의식 질문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 등반간 고민해야 할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질문 제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 사고 예방
열 어 보 이 기	찾 아 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을 오르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등반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등반간 동료와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자연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능 력 부 여 하 기	이 해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 정상에서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둠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아픈 부위를 치료한다. •동료와 땀흘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눈다. •창조세계를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동료와 함께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을 정하여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나눔
	찾 아 가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을 내려오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하산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정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찾은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교제하는 법을 실천하면 내려온다. 	질문식 동료 학습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창조세계와 교제하는 모습 확인
	정 리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하기 •정리운동을 실시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등산 활동을 통해 개인/모둠이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구체화하여 발표한다. 	질문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정리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피로 회복

IV. 결론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교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현장 체육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육교과의 이분법적인 신체관으로 인해서 운동기능 중심의 코칭, 인성교육을 위한 도구로 체육수업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체육수업은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체육교과의 문제점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전인교육을 위해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체육과 건강영역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다.

체육과 건강영역의 주된 목적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제 삶에서 건강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은 등산을 통해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동료와 자연과 교제하며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며,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등산 활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 지식은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이며, 체육교과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수업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2-13).”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교과를 단순히 운동기능 발달과 인성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체육교과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체육교과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의 몸(신체)으로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가야 하는 교과이다. 이 지식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죄로 물든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불법과 거짓이 성행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종말의 시대(마24:12)에 체육교과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기현·오수학 (2009). 뉴스포츠를 적용한 체육수업이 중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논문집**, 21, 51-68.
- [Kang, G. H. & Oh, S. H. (2009).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pplying New Sports on Affective Domain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ort Science*, 21, 51-68.]
- 강신복 (2007).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 **스포츠과학리뷰**, 1(2), 1-12.
- [Kang, S. B. (2007).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ports Science Review*(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1(2), 1-12.]
- 강용원 (2015).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교육정보**, 47, 361-398.
- [Kang, Y. W. (2015).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aracter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361-398.]
- 교육부 (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 권민정·김경숙 (2006). 중학교 체육교사의 정의적 영역 수업방식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1), 45-64.
- [Kwon, M. J. & Kim, K. S. (2006). Study on education for affective domai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3(1), 45-64.]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2004). **기독교 교육의 기초**.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그리심.
- [KCBA Literary Agency. (2004).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Grisim. Trans.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Blacktown: NICE.]
- 김기철·박상봉·신기철·안양옥 (2012). 신체활동 가치 중심 체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한국초등교육**, 23(2), 95-110.
- [Kim, K., Park, S. B., Shin, K. C. & Ahn, Y. O. (2012). Development of Learning and Teaching Materials which is Centered the Values of Physic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95-110.]
- 김명운·권옥동·여인성 (2000).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 철학회지**, 8(2), 203-221.
- [Kim, M. W., Kwon, W. D. & Yeo, I. S. (2000). A Study on the Affective Domain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 Dance, & Martial Arts'*, 8(2), 203-221.]
- 김성훈·이안수 (2008).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2), 151-170.
- [Kim, S. H. & Lee, A. S. (2008).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affective domain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5(2), 151-170.]
- 김옥태 (2012). 성경에 나타난 체육-신체관, 스포츠, 여가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2), 93-118.
- [Kim, O. T. (2012). Physical Education in the Bible -A Study of the View of the Body, Sports and Leisure-. *Faith & Scholarship*, 17(2), 93-118.]
- 나현규 (2020). 지식의 특성을 통해 본 교육적 의미 연구. **교육사상연구**, 34(4), 49-78.
- [Na, H. K. (2020). Study on Educational Meaning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Ideas*, 34(4), 49-78.]
- 류태호 (2001). 체육교사의 수업 방식 및 변화과정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1), 161-170.
- [Yu, T. H. (2001). The Study of Teaching Style and it's Change Process in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8(1), 161-170.]
- 신기철 (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우리체육**, (15), 55-58.
- [Shin, K. C. (2016). About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oori Physical Education*. (15), 55-58.]
- 안양옥·신기철·김기철 (2005). 초등학교사의 게임에 관한 개념적 지식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23-43.
- [Ahn, Y. O., Shin, K. C. & Kim, K. C. (2005). An Analysis of the Conceptual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ing Games in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2(2), 23-43.]
- 오승현 (2013). 인문적 체육교육론 정당화 방식의 비판적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 25-49.
- [Oh, S. H. (2013). A critical analysis on the justification of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0(2), 25-49.]
- 유정애 (2003). 체육 교과 지식의 의미 재정립에 따른 학습 영역 구조의 방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3), 81-96.
- [You, J. A. (2003). The Meaning of Knowledge and Directions of Learning Domains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0(3), 81-96.]
- 유정애 (2007). 「2007년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우리체육**, (1), 42-52.
- [You, J. A. (2007).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Field Application of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oori Physical Education*, (1), 42-52.]

- 유정애 (2009).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 [You, J. A. (2009).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ummary*. Seoul: Daehanmedia.]
- 유창완·윤기준. (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개선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1), 1-15.
- [Yu, C. W. & Yoon, K. J. (2019). Explor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document structur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4(1), 1-15.]
-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ee, Y. J. (2012). *Created in God's Image*. Seoul: Revival and Reformation. Trans.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 이재용 (2013). 학교체육을 통한 정의적 영역 발달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47-59.
- [Lee, J. Y. (2013). An Inquiry into Affective Domain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3), 47-59.]
- 이정택 (2015).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 연구의 경향과 발전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2), 69-83.
- [Lee, J. T. (2015). Trends and Development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Stud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1(2), 69-83.]
- 정응근 (1987). 체육학의 학문성과 그 문제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보**, 제19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5-7.
- [Chung, E. K. (1987). Academic Achievements and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No. 19,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5-7.]
- 전세명 (2011).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체육교수-학습과정의 통합적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5-94.
- [Jeon, S. M. (2011).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proces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Hanaro class model. *Korean Society of Sports Education Academic Papers*, 75-94.]
- 조기희·오승현 (2020).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와 지원 방안: 초등 3~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3). 17-39.
- [Jo, K. H. & Oh, S. H. (2020). A Study on the Field Application and Ways to Support the 2015 Revised PE Curriculum: Focused on 3~4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7(3), 17-39.]

- 차건수 (2005). 체육철학: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본 스포츠 윤리성. **한국체육학회지**, 44(1), 31-43.
- [Cha, G. S. (2005). An Analytical Study of Sports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nthropolog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1), 31-43.]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서울: CUP
- [Choi, Y. J. (2020). *Biblical Worldview Lecture*. Seoul: CUP.]
- 최유탍·김영구·오현택 (2011).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논리적 가정에 대한 검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1), 129-143.
- [Choi, Y. T., Kim, Y. K. & Oh, H. T. (2011). A study on the Logical assumptions for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Hanaro teaching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19(1), 129-143.]
- 최의창 (2004). 하나로 수업. **한국스포츠교육학회보**, (34), 5-10.
- [Choi, E. C. (2004). class as o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Education*, (34), 5-10.]
- 최의창 (2007).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23.
- [Choi, E. C. (2007). Character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 Review.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4(4), 1-23.]
- 최의창 (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학회**, 48(6), 243-260.
- [Choi, E. C. (2009).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as a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for whole person: an exploratory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6), 243-260.]
- 최의창 (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Choi, E. C. (2010). Can sportsmanship be taught? -The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of teaching the affective domain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7(1), 1-24.]
- 최의창 (2019). 하나로. **우리체육**, (22), 4-7.
- [Choi, E. C. (2019). Hanaro. *Woori Sports*, (22), 4-7.]
- 최의창 (2020a). 한국체육 개혁의 방향과 스포츠교육의 역할 - 스포츠교육이 이끌어가는 한국체육 4.0을 지향하며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1-21.
- [Choi, E. C. (2020a). The Direction of Korean Sport Reform and the Role of Sport Education - A Thought on the Korea Sport 4.0 led by Sport Education, not Vice Versa -.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7(1), 1-21.]
- 최의창 (2020b).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Choi, E. C. (2020b). *Sport Literacy*. Seoul: Rainbowbooks.]

최효근 (2020). 코로나-19로 변화된 체육수업 현장. **우리체육**, (24), 38-42.

[Choi, H. G. (2020).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class changed by COVID-19. *Woori Sports*, (24), 38-42.]

최효근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현행 초등 체육교과서 인식 및 활용실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5), 57-71

[Choi, H. G. (202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in Preparing fo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5), 57-71.]

최효근·박종률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223-240

[Choi, H. G. & Park, J. L. (2021).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COVID-19: A Case Study on Practic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8(1), 223-240.]

홍원준·김영식 (2012).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실태. **통합교육과정연구**, 6(1), 165-194.

[Hong, W. J. & Kim, Y. S. (2012).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Integrated Curriculum Research*, 6(1), 165-194.]

“안우진 WBC 탈락 비판한 추신수…여전한 ‘학폭 논란’에 팬 반응은 싸늘”, JTBC(2023.1.23.).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031. (2023.3.2.)

[“Choo Shin-soo criticizes Ahn Woo-jin for dropping out of the WBC…Fan reaction to the still’ controversy over school violence’ is cold, JTBC (2023.1.23.).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031(2023.3.2.)]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교과 건강영역

Physical Education Lesson Planning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박영진 (장대현중고등학교, 교사)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체육교과가 전인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신체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체육교과 전인의 개념을 재정의한 다음, 체육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 학습을 위해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가치 영역 중 건강영역의 등산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등산활동 수업은 자기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 과정이 곧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전인 양성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체육교과가 신체활동을 도구로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갈 때에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체육교과 재구성, 신체활동 지식, 건강영역, 사랑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Abraham Kuyper's View of State focusing on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최 용 준(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Abraham Kuyper(1837-1920)'s view of state, focusing on his last two volumes work,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First, Kuyper points out state was not the original plan of God's creation. Rather, it appeared as a result of the fall into sin. In other words, state was first introduced by God's common grace to alleviate the consequence of sin and the curse associated with it. So it is not an organic form of human life, but a surgical procedure authorized by the Divine Physician, for the wound caused by sin. It is like an medical bandage to the injured and is thus inherently abnormal. Therefore, Kuyper emphasizes that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be consummated, state will disappear. After that, the three elements of state, namely, people, land, and sovereignty are dealt with in turn, together with his famous idea of sphere sovereignty. Then the subjects such as central government, the goals of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e discussed, compared with other scholars and evaluated. As a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Kuyper's view of state in Korean society are drawn.

Key Words: Abraham Kuyper, state, common grace, medical bandage, sphere sovereignty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20220121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네덜란드가 낳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교육자, 언론인인 동시에 정치가였다. 지금까지 그의 사상에 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www.allofliferedeemed.co.uk/kuyper.htm, Snel, 2020, 정성구, 2010). 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헌신한 정치 및 국가학 분야에 관해서는 비교적 연구물이 적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정치 신학자 조나단 채플린(Jonathan Chaplain)이 카이퍼의 후계자인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국가 및 사회관에 관한 저서를 출판했으며(Chaplain, 2011), 국내에서는 김종원이 도여베르트의 국가관에 대해 다룬 논문은 있으나(김종원, 2016) 정작 카이퍼의 국가관을 깊이 다룬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없다.

필자는 최근에 카이퍼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방대한 저서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반혁명적 국가학) 중 1권 전체와 2권의 절반(Kuyper, 1916)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그의 국가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책에 나타난 그의 국가관을 다른 저서들과 관련 문헌들을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상 그의 책에 나타난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먼저 국가의 명칭과 본질을 살펴본 후 국가의 세 요소인 국민, 국토 및 주권을 차례로 다루어 보겠다. 그 후에 중앙 정부, 국가의 목표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그의 사상을 논의, 평가하고 그의 국가관이 현대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반혁명적 국가학)을 중심으로

1. 국가라는 명칭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2장에서 ‘국가’라는 명칭은 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보편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가령 성경에도 ‘국가’라는 명칭이 전혀 없으며 단지 민족들(*de volken*)을 말하며, 고임(*מַלְכוּת*: 창 14:1 등) 또는 에트네(*ἔθνη*: 마 6:32 등)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하암(*מַמְלָכָה*: 호 2:1 등) 또는 라오스(*Λάος*: 마 4:16 등)라고 하지만 정치적 맥락을 가진 일반적인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성경에 제국(*Rijk*, *הַמְּלָכָה*)이라는 표현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지상의 군주가 통치

하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세계적 제국도 있지만(단 7:14), ‘국가’라는 단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국가라는 표현은 없었으며 국가들(staten)이 아니라 도시들(steden)이 존재했고 따라서 도시(stad)를 뜻하는 폴리스(πόλις)라는 단어에서 정치(politiek)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로마인들은 왕국(regnum)과 제왕권(imperium), 원로원(Senatus populusque) 또는 공화국(res publica)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외에도 도시(civitas), 시(urbs) 및 지방자치단체(municipium)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916: 87-88).

중세에는 신성로마제국(Heilige Römische Reich)¹이 유럽 전체의 통일을 다시 시도했을 때, 다양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제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하지만 황제와 교황 간 갈등의 결과로 이탈리아에서는 도시 자유 국가가 출현하였고 라틴어로 이것은 civitas(도시)라고도 불리며 고대에는 res publica(공화국)로 불렸고, 이탈리아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엘 스타토(el stato)라고 불렸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사상가요 정치철학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는 이 이탈리아어를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그의 군주론(*Il Principe*) 첫 페이지에서 “모든 국가는… 공화국 또는 군주제이다(Tutti li stati, … sono o repubbliche o principati)”라고 말했다(Machiavelli, 1532: 3).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종교 개혁기의 법학자이자 사상가인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이 1577년에 출판한 그의 공화국에 관한 여섯 권의 책(*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에서 국가(état)에 대해 말하면서 프랑스 문학에도 소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보댕이 그의 작품 제목으로 붙인 공화국(de republiek)은 군주제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게르만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국가(Staat)라는 단어가 정치적 맥락에서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공식적으로는 1794년에 프로이센(Preußen)²의 일반 토지법(algemeene Landrecht)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916: 89).

카이퍼에 따르면 근대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독립된 권력을 차지한 특정 집단을 언급하고 그 집단의 권력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국가(staat)라 불렸다. 따라서 이 지위는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대표권 또는 양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라는 단어가 파생된 라틴어(Status)는 어떤 식으로든 분야나 지위가 아니라 원래 상태(toestand)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그는 강

1) 신성 로마 제국(Sacrum Romanum Imperium)은 중세 초기에 형성되어 1806년 해체될 때까지 중앙 유럽에서 발달한 다민족(이 지만 대부분이 독일계) 영토복합체다. 그 영토 가운데 중 가장 큰 것이 독일 왕국이었고, 그 외 보헤미아, 부르군트 및 이탈리아 왕국 등이 있었다.

2) 프로이센(Preußen)은 1947년까지 독일 북부에 있었던 주로서 1918년까지는 베를린을 수도로 한 호엔촐레른(Hohenzollern)가의 왕국으로 발트족의 일파인 프루사(Prūsia)에서 그 이름을 땀다.

조한다. 즉 전체 인구에서 더 높거나 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한 집단은 그 후 자신의 지위를 형성했고, 국가는 이러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위에 있으며 그 집단에 관계된 권력을 대표한다는 것이다(Kuyper, 1916: 91). 현대에 국가라는 단어는 보통 일정한 영토가 있고 조직된 정치 형태인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내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카이퍼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의 본질: 일반 은총의 산물

카이퍼는 이처럼 국가의 명칭과 기본 개념이 불안정한 것은 죄가 인간의 삶과 세계에 일으킨 혼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국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타락의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란 타락 후 인간 사회가 받아들여야 했던 깨어지고 죄 많은 상태의 결과이며 이것은 타락한 세상이 계속되는 한 지속할 것이다(Kuyper, 1899: 72, 박태현, 2021). 즉, 국가는 타락의 쓰라린 결과와 그와 관련한 죄와 저주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창 9:6) “일반 은총(gemeene gratie)”의 산물로 주어졌으므로 국가는 인류의 삶에 원천적으로 유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죄가 닥친 결과 나타난 파열 이후 신성한 의사인 창조주께서 허용한 외과적 봉대(chirurgisch verband)이며 따라서 어떤 봉대와 마찬가지로 본질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Kuyper, 1902 Eerste Deel: 78-80, Derde Deel: 27). 우리가 봉대를 사용할 경우는 골절, 상처 또는 질병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 때이며 따라서 국가는 이 수술용 봉대처럼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추가, 보존 및 회복하는 치료적 도구라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916: 98). 이는 카이퍼의 성경적 국가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첫 번째 요점이다.

나아가 그는 타락 이후에 파괴된 인간의 삶과 하나님 나라(het Koninkrijk Gods)의 통일성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더이상 국가들의 분열이 없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깨어지지 않는 유기적 통합만 있다고 강조한다. 완성, 즉 완전한 복원이 실현되면 이 봉대는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성가신 것이 되므로 제거될 것이다. 죄와 비참함에서 구속된 인류 사회에서는 더이상 국가, 정부 그리고 판사가 필요 없는데 이는 마치 두 발의 조화로운 사용을 되찾은 지체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그가 의지하던 목발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무시해도 되는가?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경,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마비된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와 같기 때문이다. 지체 장애인에게 목발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 이것들은 인간 사회의 결함이 지속하는

한 도움이 되며 최고의 가치를 갖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폐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한 타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중 하나이지만, 완성 이후에 오는 천국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그리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98-99). 이러한 국가관은 다른 일반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장인데 일반 학자들은 국가의 탄생을 고대 농업 사회가 정착하면서 생겨났다거나(Wang, 2021: 175-198) 전쟁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해, 무역을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또는 각종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설명하는 반면(Spruyt, 2002: 127-149), 카이퍼는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3. 국가의 첫 번째 요소: 국민

국가는 보통 하나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며 어느 정도 정의된 영토와 정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일반적으로 언어, 역사, 민족, 문화 및/또는 사회와 같은 공유된 특징의 조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카이퍼는 국가의 첫 번째 요소인 국민에 대해 『반혁명적 국가학』 1권 5장에서 다루면서 이 ‘국민(het volk)’은 원래 대량, 많음, 다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게르만어에서 국민(volk, folc, fōlk 및 volck)으로 나타나며 라틴어에서 포풀루스(populus)라는 단어는 같은 부족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환은 주로 리투아니아어에서 발생하여 국민(volk)은 pulkas로 적고 고대 슬라브어에서는 더 짧은 pl’k, 보헤미아 또는 체코어는 pluk이라고 적는다. 여기서 이 단어들과 라틴어를 비교해보면 pla, ple에서 plenus, plebes가 유래되었고 populus는 민족(volk)과 같은 어원으로 “다수”라는 의미이다(Kuyper, 1916: 147).

나아가 카이퍼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다른 용도로 구별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중국인, 흑인, 몽골인 등을 말하듯 기원, 특성 및 언어에 의해 구별된 집단을 형성하는 인류의 한 부분이며 둘째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령 독일에 사는 독일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인 집단의 경우가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원과 전혀 상관없이 같은 국가에 사는 거주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Kuyper, 1916: 154).

한 국민의 통일성은 언어의 통일성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데 특히 그 언어가 사람들을 지탱 해주면 생활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이 언어에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독일, 스칸디나비아, 중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자국어(를) 거의 혼합하지 않은 국민이 있고 둘째로는 자신의 언어를 관리할 수 있었으나 네덜란드 경우처럼 혼합을 허용했던 국민이 있으며 셋째로는 영어처럼 두 언어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낳은 국민이 있고, 마지막으로 원래

의 언어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교체한 국민이 있는데 특히 불가리아 국민이 그런 경우로 원래 그들의 언어는 핀란드어였지만 슬라브족이 되어 현재 불가리아어인 슬라브어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Kuyper, 1916: 162-163).

카이퍼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국민을 가족, 성별 및 개인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은 각각 농업, 무역, 산업 등의 영역에 종사하며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de maatschappij)라고 부르며 여기서 각 영역으로 나뉜다(Kuyper, 1904: 80-81). 이러한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다양한 권리와 자유(de rechten en de vrijheden)를 가진다(Kuyper, 1904: 81). 따라서 카이퍼는 국가 주권(Staatssoevereiniteit)을 강조한 국가 절대주의를 비판하였고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80년간 치른 후(1567-1648)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국민 주권(Volkssouvereiniteit)을 주장했다(Kuyper, 1904: 82). 결국, 정부가 가진 권위(het Gezag)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Kuyper, 1904: 84).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카이퍼가 칼뱅과 같이 군주제나 귀족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주 공화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 근거로 카이퍼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통치자)으로 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Kuyper, 1904: 84-87). 이것은 그가 강조한 영역 주권(So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과도 연결된다. 즉 오직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며 국가, 교회, 학교, 가정, 기업 등은 각각 그 영역에 위임받은 주권만 가지므로 다른 영역 위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Kuyper, 1880).

4. 국가의 두 번째 요소: 국토

국가의 두 번째 요소인 국토(國土)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이라는 인적 자산의 존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이며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국토(het land)에 대해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토는 국경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다른 나라의 주권이 지배하지만 그 경계 안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과거 수 세기 동안 네덜란드인 조상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네덜란드인의 땅이고 곧 그들 자녀의 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토에 관심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 국토는 태양 아래에서 살도록 그 국민에게 할당된 장소이며 시대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국토, 조국 그리고 조국의 토양은 그대로 머물면서 대대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견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세대를 이어온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의 이미지인 국토는 국민이 대대로 거주하면서 삶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들이 영원히 안식할 때에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 거주하게 될 것이므로 국토는 세대를 이어가는 국민의 단결을 보여준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916: 170).

또한, 카이퍼는 각 민족이 거주하는 영토의 특성과 상태가 그 민족성의 형성과 국가 생활의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영토의 일반적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토가 위치한 영역(de zone)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의 형성에 관한 토양의 상태, 상황을 통제하는 도로와 수로 그리고 국경의 반대편 영토와 국민의 상태와 같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토 자체, 국토 아래, 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Kuyper, 1916: 171-172).

국민 생활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먼저 국토의 토양이 지하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석탄, 금속, 석유 등의 지하자원은 수 세기 동안 국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풍부한 광산도 깊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Kuyper, 1916: 175-176). 둘째로 토양의 비옥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Kuyper, 1916: 177). 그리고 셋째로는 토지가 평지인지 아니면 산지인지도 국민의 삶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178).

나아가 카이퍼는 국토의 위치와 상태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가령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실제로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는 영광을 누렸던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문명은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평원에서 일어난 문명도 곧 사라졌다. 이집트는 한동안 강력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계시가 이슬람 아래 들어간 이후에 쇠퇴했으며 오직 그리스와 로마인들, 켈트족과 독일인들에 의한 유럽만이 마침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은 그 패권을 다시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에서 아시아의 부흥이 이미 우려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20세기 이상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유럽에 거주할 땅을 찾은 민족들은 온대 지역의 땅이며, 평범하지만 비옥한 땅이고, 광산이 너무 많지는 않은 땅이지만, 평범한 평야와 산악이 가장 다양한 땅으로 이들은 여전히 세계의 주인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들이 거주한 지형 때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180-181).

그 외에도 국민이 거주하는 영토의 영향은 육지와 수로에 의해 다른 곳에 접근하고 국토를 관통하는 교통망을 통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916: 181-182). 또한, 육지에서의 통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호수, 개울과 운하, 특히 수로라고 그는 말한다(Kuyper, 1916: 182-183). 그러나 강과 하천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축복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해변에 거하는 주민들이 항해를 통해 얻게 되는 고도의 생활 수준임을 그는 주목한다(Kuyper, 1916:

185-188). 이는 그가 네덜란드 출신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국제 해상 교역을 통해 세계 무역을 제패한 소위 ‘황금시대(Gouden Eeuw)’를 구가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최용준, 2014: 153-181). 마지막으로 카이퍼는 국토의 중요한 요소는 이웃 국가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치에서 발생하며(Kuyper, 1916: 188-191) 동시에 이와 관련된 언어적 요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Kuyper, 1916: 191-193). 물론 이것이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싫든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일의 영향력은 점점 더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임은 틀림없다.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네덜란드와 중국, 일본 및 러시아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5. 국가의 세 번째 요소: 주권

주권(主權, sovereignty)이란 국민, 국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반혁명적 국가학』 1권 8장에서 카이퍼는 이 국가의 주권에 대해 다루는데 이 주권의 개념은 행정적 의미에서 정부의 권위에 점점 더 한정되어 있으며 이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주권(Souveraineté)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라틴어 Superanitas에서 왔고 이것은 다시 추악한 중세 단어인 과도한 권력(Supra-potestas)에서 나왔다고 그는 설명한다. 따라서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우월한 권력이나 권위가 없는데 결국, 이것은 전능자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간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261). 이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권을 국민의 양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사회계약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카이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게 이전되는 것은 단지 국토와 국민의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되어 행사된다고 설명한다(Kuyper, 1916: 263).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모든 무생물에 대해서도 미치며,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부도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전능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진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항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왜냐하면, 카이퍼에게 있어 국가의 전능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견딜 수 없는 폭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육 간의 경쟁이 급격히 심화 되었는데 기독교가 학문의 자유를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정부가 다양하게 제한하는 것을 카이퍼는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개교 당시 초대 총장으로 시내에 있는 신교회(Nieuwe Kerk)에서 개교 연설을 위해 선택한 주

제가 바로 ‘영역주권(領域主權,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었다(Kuyper, 1880: 265-268, 박태현, 2020). 즉,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국가, 교회, 학교, 기업 등 사회의 각 영역은 나름대로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독특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영역이 절대화되어 다른 영역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유대학교는 1880년 10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명칭은 국가와 교회로부터 대학이 독립됨을 뜻한다. 나아가 카이퍼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Kuyper, 1916: 268-271). 이 영역주권 사상은 카이퍼 이후에도 계속 발전, 적용되어 네덜란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최용준, 2022: 187-205).

이처럼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지만, 신정정치(théocratie)는 배격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권, 즉 자신보다 높은 권력이 없는 권력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며, 따라서 국민 주권의 기원도 그분에게 있고 이 권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한 여러 국민과 그에 따른 기관이 될 사람들의 지정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따라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인간에 의한 이러한 정치도 그것이 군주제 통치로 이어지든 연방의 형성으로 이어지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Kuyper, 1916: 273, 289).

6. 중앙 정부

중앙 정부(Hooge Overheid)에 관해서는 카이퍼가 『반혁명적 국가학』 1권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Kuyper, 1916: 259-260).

- 1) 원래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아버지를 통해 가족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제정되었다.
- 2) 부계의 권위는 최초 세대에 의해 가부장적으로 계속될 운명이었다.
- 3) 하지만 이 질서는 죄로 왜곡되었다.
- 4) 그 결과 인류는 점점 더 분열되었다.
- 5) 따라서 정부의 권위는 완전히 해체될 수 있는 외과적 봉대와 같았다.
- 6)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권위의 도구이므로 지상에서 그 이상의 권위가 없고, 법과 통치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긴급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유와 생명도 제한할 수 있다.
- 7) 이 신성한 권위의 소유자로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초자연적 지정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 항상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시며 사건의 과정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8)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할수록 그 결과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더 많이 좌우한다.

나아가 정부 형태에 관해 카이퍼는 군주제, 귀족정 그리고 민주 공화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 13-14절에 대한 주석을 통해 군주제와 귀족정을 반대한 칼뱅의 입장에 동의했다. 칼뱅은 왕이 권한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보다는 귀족정이 나올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반대했다(Kuyper 1916: 631-632). 나아가 카이퍼는 칼뱅이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마지막 20장 8절(Calvin, 2014, 김대웅, 2022)에서 이미 공화정 형태의 정부가 군주제보다 그에게 더 매력적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을 지적했다(Kuyper 1916: 630) 이처럼 제네바에서 실현된 민주적 공화정은 네덜란드가 독립할 당시 세계 최초로 공화국으로 1581년에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 사상은 미국이 독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설립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카이퍼는 예리하게 분석했다(Kuyper 1916: 709).

7. 국가의 목표

국가에 목표에 관해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9장에서 다루면서 먼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귀도 드 브레(Guido de Bres, 1522-1567)가 1561년에 작성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36조를 인용한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왕, 군주와 국가의 관리들을 세우셨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법과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사람들의 무법성이 억제되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 안에 운영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지위나, 환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국가에 순종하여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고, 그 관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품위 안에서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Kuyper, 1916: 290)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종족의 통일은 그 후 수많은 민족으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고정된 관계를 구축하여 각 국가에서 단결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생겨났으며 국민의 단결은 국가 형태로 정부의 권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두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첫째 의견은 국가란 개인을 사적인 개인으로 섬기거나 집단적 개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국가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유일하고도 유효한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반면에

다른 의견은 1789년 이후부터 국가의 목표가 개인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며 공익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Kuyper, 1916: 291-292). 즉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카이퍼는 다시금 국가의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Kuyper, 1916: 302-304). 인류가 타락한 후 죄와 비참에 빠져 삶의 외적 행복과 내적 완전성이 모두 왜곡되었으며 인류는 악마의 영향을 받고 저주의 결과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전체 가족의 일관성이 깨어지고 가족, 친족과 개인으로 분열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었다면, 인류는 더 높은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비열함, 소유욕, 탐욕, 살인이 우세했을 것이고 결국 인간 사회는 완전한 파산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으로 방지되었는데, 먼저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비하신 것과 둘째로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은총이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일반 은총이다. 이 보편 은총에는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정부의 등장도 포함한다. 그 결과 국가는 교정과 원조기관으로 국민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삶을 발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언젠가는 만물이 그의 왕권 아래 굴복하며, 악마의 교란적인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함을 고귀한 형태의 낙원으로 보여줄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인류의 구세주가 아님이 증명되고 오히려 무력함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참된 구주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국가는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이고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남을 것이며 국가는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되돌릴 힘이 없음을 증명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만이 고귀한 영광의 상태로 우리에게 낙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299-302).

그러나 그사이에는 임명된 정부 아래 국민이 함께 지속하는 사회가 발전했고 정부는 점점 더 국가의 형태를 취하여 아픈 사람의 육체에 임시로 감은 붕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다리를 부러뜨린 불행한 사람에게 목발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체 장애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며 마침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부러진 다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증가시키나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류가 스스로 걸을 수는 없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알아야 할 국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i Gloria)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303-308).

이러한 그의 입장은 홉스가 그의 책 *Leviathan*(리바이어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결코 국가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질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므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군주가 속세의 일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해서도 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Hobbes, 1651) 것과는 다르며, 로크가 *Two Treatises of Government*(통치론)에서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면서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계약으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Locke, 1689) 것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루소가 *Du Contract Social*(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일반의지야말로 절대적이며 주권의 기초이고 법이나 정부도 여기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인간 주권론을 주장한(Rousseau, 1762)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8. 국제 관계

카이퍼의 국가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 관계이다. 여기에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한 주권이나 탐욕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꺾으려는 유혹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Kuyper, 1916: 316-317). 그러면서 그는 당시 두 번이나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논하였는데 평화주의는 너무나 이상적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중재 재판소(De Arbitrage) 또는 중재 법원(het Scheidsgerecht)에 대해 제안한다. 먼저 이 중재 재판소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러시아의 차르(Czaar)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다른 한편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거대한 수도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시골이나 다름없는 헤이그의 평화궁(het Paleis)³에 자리 잡았음을 그는 지적한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Пётр I Великий, 1672-1725)⁴는 이미 17세기에 러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확립했는데, 네덜란드가 인구는 작지만, 과거에 세계 무역을 제패하며 황금시대를 구가한 민족임을 인정한 이 황제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모두 옳았지만, 현실을 똑바로 파악하는 사람은 평화회의나 중재 재판소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고 카이퍼는 진단한다(Kuyper, 1916: 318-321).

3) 평화궁(Peace Palace)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건물로 국제사법재판소, 상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평화궁 도서관이 있다. 미국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가 당시 금액으로 150만 달러를 기부하여 1913년 8월 23일에 개관했다.

4) 표트르 1세 벨리키(Пётр I Великий, 1672-1725)는 러시아 제국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로서 서구화 정책과 영토 확장으로 루스 차르국을 러시아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혹은 수 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 조약에 따른 공동 행동을 맹약하는 국제 협정인 동맹(同盟, Alliantie)과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된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인 연방(聯邦, Federatie)에서 해법을 추구하는 완전히 다른 기원과 의미의 행동도 있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916: 336-338). 먼저 역사상 유명한 동맹의 예로서는 대 나폴레옹 동맹(1793-1814),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3국 동맹, 영·일 동맹, 불·소 동맹, 일본·독일·이탈리아의 3국 동맹 등이 있는데 동맹에서 첫 번째 단계는 협상(Entente)이고, 이 모든 행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는 연방적 유대를 통해 효과적이며 결국 국가의 독립을 폐지하게 될 최고 권위의 단일화이다. 이 과정의 결과 특히 유럽의 작은 국가가 점점 더 자신의 안전을 찾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중립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점 더 전면에 부각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 결과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룡고는 당시 중립국으로 인정받았다(Kuyper, 1916: 340).

연방은 더 작은 민족 단위들이 있었을 때,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출현한 자체 합의 시스템이었다. 이에 대한 동기는 군주나 왕실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일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압도당하고 독립을 강탈당하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어 같은 위험에 처한 이웃 국가와 공동 방어를 위해 힘을 합치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동기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비록 같은 군주가 두 국가를 다스리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 확립된 인적 유대감 자체는 여전히 완전한 연방 성격이 부족했으나 그 연방의 성격은 양국 간에 동맹 조약이 체결되고 이 조약이 내구성을 획득했을 때만 존재한다(Kuyper, 1916: 341-344).

국가 간 연합의 마지막 범주는 당시에 적지 않던 식민지들인데 이 식민지화는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원래 흑해를 포함한 고대 세계의 바다로 이동하여 현재 크림반도 남서부에 있는 최대의 항구도시인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에서 지중해의 대서양 방향 입구로, 이베리아반도 남부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이며 북쪽으로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과 접하고 있는 지브롤터(Gibraltar)로 이동했다. 이 지중해 지역이 식민지화를 촉발한 동기는 두 가지인데, 먼저 페니키아인은 무역을 원했고 그리스인은 하나의 강력한 공화국에서 새로운 연방을 계속해서 낳으려는 경향 때문이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916: 358). 그 후 포르투갈이 케이프 주변을 향해하기 시작하고 대서양 반대편에 새로운 대륙이 발견된 것이 15세기와 16세기였다(Kuyper, 1916: 361).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세 개의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인도 이전의 무굴제국, 미카도(천황)⁵가 있는 일본, 그리고 황제가 있는 중국이다. 아시아에서 결정적인 것은 원래 인구를

5)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별칭으로 ‘御門’이라고도 표기한다. 일본의 대중문화 작품에서 천황을 등장시킬 때는 미카도라 에둘러 표기하는 예가 많으며 한국어로 임금님과 유사하다. 오카야마, 시즈오카, 이와테 등지에 있는 지명이기도 하며, 일본 전국에 미카도란 지명은 수없이 존재한다.

대체하기 위한 이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첫째, 인구가 너무 밀집하고 많아서 대체할 수 없었고 둘째, 남쪽의 기후가 모든 중요한 이주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홀로 남겨졌으며 잉글랜드는 인도에서 투쟁을 벌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무역에 집중하여 저항이 없는 한 정치를 그대로 두었으며 인내와 신중함을 통해 점진적으로 군도 전역에서 실제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독립을 잃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Kuyper, 1916: 362-364). 기타 카이퍼는 식민지와 관련하여 보호령(Protectoraat)과 종주권(Suzereiniteit)에 대해서도 설명한다(Kuyper, 1916: 371-384).

국제법은 그 본질과 특성을 바꿀 수 없고 신성하더라도 문제는 국가 간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카이퍼는 보았다. 따라서 결론은 법이 국가 간에 매우 명확한 의미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의미의 국제법이 있으며, 법적 관계가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가족, 사회, 민족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국가 간의 관계도 결정하실 수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법이 국제법이다. 이 절대적 법은 심의 및 합의를 통해 열방 간에 표현되지만, 그것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부족하다고 카이퍼는 말한다(Kuyper, 1916: 398-400). 이러한 카이퍼의 견해는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반 국제법학자들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카이퍼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역작인 『반혁명적 국가학』 및 이와 관련된 저서들을 통해 그의 국가관에 대해 다른 학자들과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에 제정된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후 일반 은총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외과적 봉대’이다. 그리고 국가의 세 요소가 되는 국민, 영토 및 주권에 대해 논한 후 그는 ‘영역 주권’을 강조했다. 그것은 당시에 국가주의, 즉 국가를 절대시하는 사상이 만연하면서 교회, 교육 및 가정의 영역도 국가가 통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정부 형태로는 칼뱅과 같이 민주 공화정을 선호함도 보았다. 나아가 카이퍼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관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관은 일반 다른 학자의 국가관과 매우 다름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국가관에 기초하여 그는 네덜란드에서 1879년에 최초의 전국적인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을 설립하였으며 이 당은 1980년, 가톨릭 인민당(Katholieke Volkspartij) 및 기독교역사연합(Christelijk-Historische Unie)과 통합하여 기독교 민주연합(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당이 기독교 정당적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본 일부 기독교 정치인들은 1975년에 개혁정치연합(Reformatorische Politieke Federatie)을 설립한 후 2000년에 개혁정치연맹(Gereformeerd Politiek Verbond)과 통합하여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으로 개명하여 규모는 작지만 충실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 및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하여 다른 많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깊이 성찰해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많은 기독교 대학이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 분야는 세속적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될 영역인 것처럼 간주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 기독교 정치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 주님의 주권이 영역마다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연합 또는 기독교 연합당과 같은 건전한 기독교 정당이 한국사회에도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공교육에 대한 실망으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었으나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채플 대신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기독교 사립학교 교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이 학교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것은 분명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 사상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하여 정부에 올바른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여러모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카이퍼도 기독교 학교의 정부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80년간 동역자들과 함께 노력하여 마침내 헌법까지도 개정한 점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대웅 역. (2022). **기독교 강요**, Calvin, J. (2014).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복 있는 사람.
- [Kim, D. W. (2022).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Blessed Man. Trans. Calvin, J. (2014).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hite, R. (Ed.) London: Banner of Truth]
- 김종원 (2016). 개혁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예베르트 철학에서 국가 개념 연구: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신앙과 학문**. 21(3), 61-89.
- [Kim, J. W. (2016). Dooyeweerd's concept of the state based on the reformational worldview: Is the state a result of sin or a institution of the creation order? *Faith & Scholarship*. 21(3), 61-89.]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손기화 역 (2018).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 Kuyper, A. (1880). *Ons Program*. 서울: 새물결 플러스.
- [Son, K. H. (2018). *Our Program*. Seoul: New Wave Plus. Trans. Kuyper, A. (1880). *Ons Program*. Amsterdam: J. H. Kruyt. Harry Van Dyke (Ed.) *Our Program: A Christian Political Manifesto*. Bellingham, WA: Lexham Press]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서울: 부흥과 개혁사.
- [Im, W. J. (2017).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Vol. I. Seoul: Revival & Reformed Press. Trans.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ampen: J. H. Kok. Ballor, J. J. et. al. (Eds), Kloosterman, N. D. & Van der Maas, E. M. (Trans.),

- (2016). *Common Grace*. (Vols. 1-3):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Bellingham, WA: Lexham Press]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Chung, S. K. (2010). *The Life and Thought of Abraham Kuyper*. Yongin: Kingdom Books.]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 153-181.
- [Choi, Y. J. (2014).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research. *Faith & Scholarship*. 19(1), 153-181.]
- 최용준 (20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3), 187-205.
- [Choi, Y. J. (2014).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Faith & Scholarship*. 27(3), 187-205.]
- Bodin, J. (1577)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Paris: J. Du Puys.
- Chaplin, J. (2011). *Herman Dooyeweerd: Christian Philosopher of State and Civil Socie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obbes, T.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London.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Delen, Kampen: J.H. Kok.
-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 Machiavelli, N. (1532). *Il Principe*, Firenze: Per Bernardo di Giunta.
- Rousseau, J. J. (1762). *Du Contrac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msterdam.
- Snel, J. (2020). *De Zeven Levens van Abraham Kuyper: Portret van een Ongrijpbaar Staatsman*. Amsterdam: Prometheus.
- Spruyt, H. (2002). The Origins, Development, and Possible Decline of the Modern Stat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5(1), 127-149.
- Wang, Y. (2021). State-in-Society 2.0: Toward Fourth-Generation Theories of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s*. 54, 175-198.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Abraham Kuiper's View of State focusing on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며 언론인인 동시에 교육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iper, 1837-1920)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저서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반혁명적 국가학) 및 다른 저서들을 통해 그의 국가관을 고찰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카이퍼는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한 결과, 다시 말해, 죄와 그에 따른 저주의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인류의 삶에 유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가 낳은 상처에 대해 신성한 의사이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외과적 붕대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지상의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그다음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을 그의 유명한 영역주권 사상과 함께 차례로 다룬다. 그런 다음 중앙 정부 형태, 국가의 목표, 국제 관계와 같은 주제를 살펴본 후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평가한 후 결론적으로 카이퍼의 국가관이 현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국가, 일반 은총, 외과적 붕대, 영역주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그림책 프로그램 연구*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지상선 (Sang-Sun Ji)**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from a Christian worldview targeting non-Christia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egrate the values of picturebooks and the Bible by using picturebooks that contain a Christian worldview. There were nine participants in the picturebook program stud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gram participants created a Christian worldview and made it their new identity by listening not to the picturebooks themselves containing the Christian worldview but to picturebooks, Bible texts, and stories about great men of faith and by making their own stor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sprouting the seeds of a Christian worldview in non-Christian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discussions were made on how to educate the Christian worldview, spread of Christian worldview contents using mass media, and the development and conversion of Christian symbols and metaphors.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icturebook Program, female college students, narrative identity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14일 최종수정, 3월 15일 게재확정

** 연구법인질적연구HA연구소 책임연구원(Principal Researcher, HA Qualitative Research),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44, 3층, moathink@hanmail.net.

I. 서론

현대인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기술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맹랑함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관계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기술의 원리에 맞춰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술주의는 자연과 문명 그리고 인간을 객체로 전락시키고 기술은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기술 사회에서는 인간은 물론 하나님도 사라지고 오로지 기술문명만 남게 된다(Punzo, 1996; Ellul, 2008; 이상민, 2021). 이와 같은 기술주의는 허무주의적 자녀라고 할 수 있다. 허무주의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초월성만 인정하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있는 내재성을 부인하며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는 이신론([理神論, deism)과 물질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에 기초하고 있다(최용주, 2019: 96). 허무주의와 기술주의 연합은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허무주의는 인간의 의미 있는 행동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을 기계로 환원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인간은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윤리적 삶은 물론 궁극적인 관심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Sire, 2020: 123). 이처럼 기술주의와 허무주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용준, 2019: 98-100). 기술주의, 허무주의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또한 윤리적 인간의 근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통상적으로 모더니즘(modernism)의 대안으로 나타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후 인간의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조라 할 수 있다(전광식, 1994: 21-29).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이어(Sire, 2020)의 책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6th, ed.』의 chapter 9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사라진 수평선(The Vanished Horizon: Postmodernism)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해체했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 준칙의 부재와 진화론, 문화적 상대주의 그리고 무신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용준, 2022: 90-91). 이와 같은 기술주의, 허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 전도 대상인 비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철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들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세상을 보는 삶의 조망이다(신국원, 2004: 133-140). 따라서 세계관은 항해자의 나침판이나 운전자의 지도와 같으며 세계관에 따

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계관은 삶의 목적을 찾고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올바른 사고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천 윤리로서 삶의 목적과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비전,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Holme, 1983 ; 조용훈, 2005). 이처럼 세계관은 Sire(1990: 116-36)에 의하면 일곱 가지 질문들과 관련된다. 그 일곱 가지 질문은 궁극적 실재, 인간, 피조세계의 본질, 죽음 및 사후 세계, 지식과 이성, 옳고 그름의 판단, 역사의 의미이다. 세계관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 실재가 물질인지 신인지,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인지 또 다른 시작의 통로인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지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지, 도덕의 근거가 인간과 문화인지 신인지, 역사의 의미가 변증법적 권력 투쟁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근본적 물음을 다룬다. 세계관은 이론이나 과학보다 앞선 것이며 철학적 사고 이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문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행동의 근거가 되는 신념이나 태도이다(신국원, 2005: 18). 전광식에 의하면 세계관의 본질은 사고 이전의 것이며 실재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조명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들이 가지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전광식, 1998: 37-40). 이처럼 세계관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회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과 특성이 규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지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 소득 양극화, 계층과 세계관의 투쟁,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등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행동 지침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간의 본질적 사랑은 점차 희박해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한국교육의 문제와 기독교 대안 모색(고영삼, 2022),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개념과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 핵심역량 도출 방안(유재경, 2018), 기독교 대학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대한 모색(김홍근, 2011),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돌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교육의 원리(유경상, 2016),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정대현 외, 2014) 등이 이뤄졌다. 기독교 세계관 그림책 연구는 그림책 출판과 보급의 시급함을 시사한 연구(강은주, 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현은자, 2003),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 (2016) 해석(현은자·김주아, 2019), 뉴에이지(new age) 그림책의 기독교 조명(이수형·현은자, 2022) 등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그림책 연구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한편, 기독교 그림책 관련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였으며 상대적으로 질적연구의 비율이 낮았고 연구대상은 유아의 분포가 높았다(김민정, 2021: 245-246).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일터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세상 속 일터라는 곳에 복음 전파의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 활동과 실천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탐구심이 연구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인 독서치료사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그림책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접하게 하고 자기 삶의 지향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 속 문화 매체인 그림책을 도구로 삼은 것은 그림책의 치유 능력과 이야기가 가진 세계의 구성 능력 때문이다.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과 함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를 이야기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Bolt, 2006: 167). 본 연구는 그림책을 매개로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이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세계관의 발현과 이를 구체적인 삶의 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림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고 유연하게 삶의 장으로 연결하였다. 연구결과는 비기독교인들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울 수 있다는 통찰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그림책 선정

본 연구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태동과 발현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모두 8권의 그림책이다. 그림책의 분류방식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현은자 외 2019). 기독교 세계관의 태동과 발현을 위해 기독교육전문가, 그림책 전문가의 자문과 목사님의 감수를 받아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그림책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전문가 3인을 통해 20-30권을 1차 선정하였고 상호주관성(간주관성, inter 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최종 그림책을 2차 선정하게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그림책들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Final Selected Picturebook

구분	국내제목	작가	출판연도	성령의 열매
1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	Nancy Tillman	2010	사랑
2	앵무새 해럴드	Courtney Dicmas	2013	사랑과 양선
3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2015	양선
4	온 세상을 노래해	Liz Garton Scanlon & Marla Frazee	2015	희락
5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다나카 우사	2005	사랑
6	리디아의 정원	Sarah Stewart	2007	사랑
7	미스 럽피우스	Barbara Cooney	1985	화평과 양선
8	토끼의 의자	가키모토 고우조 & 고우야마 요시코	2006	양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첫 번째 그림책은 「앵무새 해럴드」이다. 코트니 디마스(Courtney Dicmas)의 작품이다. 그림책의 주인공 앵무새 해럴드는 어떤 소리든 한 번 들으면 똑같이 흉내는 재주 많은 새이다. 앵무새 해럴드가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찾기 위해 해럴드는 바깥세상으로 나가야만 한다. 익숙한 환경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과 본토를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갔듯이(창 11:29-12:9)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익숙한 현재 상황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모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낸 앵무새 해럴드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럴드는 다양한 소리를 직면하며 자기 소리를 낼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성찰하게 된다. 이렇듯 세계 내 소리를 통해 자기만의 세상을 채워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번째 그림책은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이다. 낸시 틸먼(Nancy Tillman)의 작품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상상하면서 일기를 썼다. 본 그림책은 인간이 태어난 날은 그 자체가 축복이며 기적임을 담고 있다. 기독교의 예수탄생은 온 인류에게는 축복이며 기적인 동시에 서양 역사가 기원 전후로 구분되는 기점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며 생물학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번째 그림책은 「두더지의 고민」이다. 김상근 작가의 작품이다. 본 그림책에는 걱정 많은 두더지가 등장한다. 머리 위로 눈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눈덩이를 굴린다.

하지만 두터지는 자신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써 족하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온전히 보라고 하신다(마 6:25-33). 새들은 씨뿌리는 걱정, 거두는 걱정, 곳간에 모아 두는 무거운 걱정을 하지 않기에 하늘을 가볍게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메시지처럼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족하다(마 6:34).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고민을 만들어 가며 그 고민을 두터지가 굴린 눈덩이처럼 굴린다. 본 그림책에서 걱정과 고민, 불안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 번째 그림책은 「온 세상을 노래해」이다. 리즈 카튼 스캔런(Liz Garton Scanlon)와 말리 프레이지(Marla Frazee)의 작품이다. 본 그림책은 세계가 다양하다는 이해와 함께 자신의 세계 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위치 지울 것인가를 탐구하게 한다. 어느 여름날 해변, 오빠와 여동생은 돌을 나르고 모래성을 쌓는다.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가족의 따사로움과 온 세상을 이루는 풍경이 그림처럼 교차된다. 본 그림책은 긍정적인 수용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본다. 따라서 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책에서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본다는 것은 사물의 위치를 정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음(마 18:20)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번째 그림책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이다. 다나카우사(田中うき)작품이다. 별뿔별, 귀여운 햄스터 등이 등장한다. 본 그림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준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오늘은 현재이고 그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6:1-2) 따라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이 축적한 재산이나 재물 등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개인은 청지기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철저히 하고 진지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섯 번째 그림책은 「리디아의 정원」이다. 본 그림책은 사라 스튜와트(Sarah Stewart)와 데이비드스몰(David Small)의 작품이다. 주인공 리디아는 부모에게 떨어져 도시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간다. 외삼촌은 무뚝뚝하고 정을 주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리디아는 아름다운 리디아만의 정원을 가꾸며 외삼촌을 변화시킨다. 리디아의 정원 속에 등장하는 리디아는 요셉(창 37:2-50:26)을 떠오르게 한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 땅으로 가지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사의 위기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바로 왕을 변화시킨다. 본 그림책은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리디아는 대공황 시절 가난을 피해 도시로 갔지만 도시의 화려함

과 풍족함보다는 암울한 회색빛 도시를 밝은 정원으로 바꾸어 간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한 곳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양한다.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데까지 복음과 사랑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든 땅을 떠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간다. 요셉과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리디아 역시 차가운 도시로 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곱 번째 그림책은 「미스 럽피우스」이다. 본 그림책은 바바라 쿠니(Barbara Cooney)의 작품이다. 그림책의 주인공 미스 럽피우스는 자기 집을 떠나 여행을 했고 가는 곳마다 바위 틈새에 작은 꽃씨를 뿌렸다. 그는 들판, 고속도로, 언덕, 학교, 교회 뒷마당에도 꽃을 뿌렸다. 미스 럽피우스가 뿌린 꽃씨는 활짝 피워 환한 꽃밭이 되었다. 미스 럽피우스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과업이자 의무로 가르치고 있다.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은 미스 럽피우스와 유사하다. 사도바울은 다양한 위험이 득실거리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 미스 럽피우스가 바위 틈새에 뿌린 꽃씨가 뿌리를 내려 활짝 꽃을 피웠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로 1:1-7)은 이방인들에게 강팍(剛愎)한 가슴 속에 꽃을 뿌렸고 꽃이 피었다. 이렇듯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꽃을 피우는 존재, 꽃 뿌리기라는 작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덟 번째 그림책은 「토끼의 의자」이다. 본 그림책은 가키모토 고우조(かきもと こうぞう:柿本 幸造)와 고우야마 요시코(かやまみこ:香山 美子)의 작품이다. 그림책에서는 나누는 기쁨을 통해 긍정적인 수용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토끼는 작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라는 팻말을 만들어 작은 의자 옆에 두었다. 그리고 작은 의자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본 그림책에는 토끼의 의자를 두고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동물들은 의자에 놓인 음식들을 먹는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놓아두고 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五餅二魚—奇蹟)(마 14:17-21)을 담고 있다. 배고픔에 줄인 사람들에게 예수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서 배를 불리게 먹인다. 이러한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써 귀중하지만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귀한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의 확인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을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겨자씨의 비유(마 17: 20)와도 유사하다.

2.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각 대학과 학회 사무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App)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공고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은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다. 선정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2명 참여자 중 3명은 개인적 이유로 탈락하였고 최종 9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대인관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들보다 사회문화적인 젠더(gender)의 차이에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되었다(유재언 외, 2019: 17). 특히 여성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실천적 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도전, 희망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개인들은 낯선 곳으로의 여행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불안하고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닌 도전 정신과 희망, 진취적 기상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려는 메시지는 이들의 자아정체성 강화와 자기 앞에 놓인 생을 직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번호	프로그램 참여자 별칭	성별	연령	교회 관련 경험
1	똑바로	여	20	없음
2	사랑	여	21	없음
3	너울	여	22	없음
4	도닥이	여	22	초등학교 때 엄마의 강요
5	토끼	여	21	없음
6	우주	여	20	친구 따라 딱 한 번 가 본적 있음
7	별	여	20	없음
8	아롱이	여	21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를 다님
9	햇살	여	22	없음

3. 프로그램 진행 과정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연구자는 그림책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도록 하였으며 그림책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림책을 읽은 후 그림책의 내용 분석과 비판은 물론 자기 이야기를 그림책 내용과 연결하여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였으며 프로그램은 총 9회기, 회당 1시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rogram Progress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목적	그림책	주요 활동	성령의 열매
1	만남	워크지	- 그림책들을 소개하기 - 별명 짓기 및 수업 약속	절제
2	긍정적 스트로크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 내 이름의 의미 - '내가 태어난 날엔' 상상 일기글쓰기 - 떠오른 이야기 나누기	사랑
3	긍정적 자기수용	앵무새 헤럴드	- 나만의 소리 찾기 발견하기 - 동료들의 소리 관찰하기 -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랑과 양선
4	존재의 의미 발견	두더지의 고민	-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 발상의 전환 및 오늘의 수업 느낌표 - 온전히 말김의 의미 탐구	양선
5	긍정적 수용 & 존재의 의미 강화	온 세상을 노래해	- 세계 내 존재 탐구 - 이름 불러주기를 통한 의미 발견 - 기독교 세계관이 던지는 삶의 질문	희락
6	자기문제 구분 및 발상의 전환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 그림책 관찰하기 - 서로에게 은혜의 편지 선물하기 -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의미	사랑
7	자기 분석을 통한 의미발견 1	리디아의 정원	- 닳아 간다는 의미 발견 - 인물이입을 통한 변화의 달란트 발견 - 에스더와 요셉 이야기	사랑
8	자기 분석을 통한 의미발견 2	미스 럼피우스	- 기억에 남는 장면과 문장 -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상상 - 사도바울과 조선의 선교사 꽃씨	화평과 양선
9	긍정적 통합수용	토끼의 의자	-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 - 넓은 안목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	양선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원자료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프랑스의 개신교 철학자인 폴 리코르(Paul Ricœur)의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인 미메시스(mimesi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현실의 재현 모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눴고 현상계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이데아의 모방으로 보았다. 현상계는 이데아에 비해 가짜세계, 열악한 세계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은 하나의 플롯 구성을 통해 의미 있는 또 다른 세계로 형상화하는 것으로써 중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사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았다(Ricœur, 1985).

리코르는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하지만 그는 문학이나 예술, 역사적 이야기는 텍스트가 매개하지 않은 정체성은 허구라고 하였다. 이것은 리코르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그의 저서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마태복음 16장 24~25절을 인용하였다. 그는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고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하기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구술하였다. 자기를 버린 이후 자기 이야기를 새롭게 쓸 때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삶과 이야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은 리코르(Ricœur, 1985)의 「시간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림책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새롭게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삶의 기획 등을 분석하였다.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I, II, III의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riple mimesis I, II, III

Triple mimesis	단계	단계 내용	분석 관점
모방(mimesis) I	전(前)이해 단계	-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 자기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지닌 기본적인 자기인식 드러내기	살아 온 이야기와 환경, 주변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
모방(mimesis) II	형상화 단계	- 전이해 단계에서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지닌 단계라면 형상화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러내기 - 모방(mimesis) II는 모방(mimesis) I의 확장	그림책을 매개로 한 정체성
모방(mimesis) III	재형상화 단계	- 형상화 단계에서 구성한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며 수정해 나가기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 한 삶의 이야기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고 학교 등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이를 서명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모든 구술데이터는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당한 사례로 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2) 질적연구의 타당성 제고 전략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Flick(2018)이 제시한 동료 지지집단으로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그림책 전문가 1인,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을 지지 집단으로 위촉했고 목사님 1인에게 감수를 받았으며 연구자의 해석이 객관적이며 공감적 이해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둘째, Stake(2008)가 제시한 다원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자료 이외에도 그림책 자료, 그들의 개인들의 기록물들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현상학적 수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생한 표현을 구술 데이터 형식으로 제시했고 일화(anecdote) 중심의 글쓰기를 실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스토리의 전개와 구성에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이야기 중심의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III. 연구 결과

1.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 사랑



Figure 1. The picturebook: On the Night You Were Born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상상하면서 일기를 쓰라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그 전 세계적 사건을 연결 지었다. 이는 개인의 탄생은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날을 단순히 년 월일로만 기억하다가 이를 ‘기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자신의 출생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1 <뚝바로>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무지개가 뜨고 지구에서 향기가 난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2 <사랑>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 인사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고 구술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 3 <너울>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타났다고 구술하였다. 그 길 옆에서는 고래가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큰 바다 조개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구술하였다. 조개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은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교회를 다녀 본 경험이 없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그가 모세의 기적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 또 다른 질문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7 <별>은 매스컴에서 모든 차량이 정체되어있을 때 응급차량이 지나가며 길을 비켜주는 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했다고 구술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책 표지들의 출처는 온라인 서점, YES24(<http://www.yes24.com>, 2023년 2월 27일 접속)이다.



Figure 2. The birth of Venus by Botticelli

“모세를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서 모세의 기적이 자주 나와요. 차들이 정체되어 꼼작도 못 할 때 구급차가 지나가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싹 옆으로 비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도 그런 기적 같은 날로 글을 썼어요.” (별)

이처럼 대중 매체 또는 영화 등에서 표현하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이나 상징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프로그램 참여자 5 <토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병원에서 같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구술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스스로 만든 탄생의 서사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파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 9 <햇살>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초록이 빛나는 여름날 햇살이라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보기 전 자신의 탄생을 생물학적인 사건으로 보았지만,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하며 연구자의 탄생은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존재로 아름답게 세상을 꾸며야 한다는 의미로 구술하였다.

“그림책에서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은 신비롭고 축복이고 기적 인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곰까지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잘 몰라도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거.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성경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건전한 대중 매체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상징을 자신들의 의식 안에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과학주의 속에서 인간의 탄생을 남녀염색체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부여된 생명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프로그램 참여자 2 <사랑>이가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첫 절을 함께 노래 불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2. 앵무새 해럴드 : 사랑과 양선



Figure 3. The picturebook: Harold Finds a Voice

『앵무새 해럴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림책의 내용처럼 자신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야만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살아왔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학 선택과 직업까지 부모 또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며 심지어 결혼까지도 세속적인 관점의 남자를 찾으려고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읽어가면서 순수함을 소환하여 사회에 물든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 스트레스, 실존적 방황 등 모두 존재론적 모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앵무새 해럴드를 통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어 왔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구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아브

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아브라함을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앵무새 해럴드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앵무새 해럴드가 안정된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감으로 새로운 자기를 얻었듯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향을 버림으로써 더 큰 세계를 얻었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1 <똑바로>는 자신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편안함과 안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하겠다는 의미의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을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불안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현재 것을 지키려 했기에 불안했으며 지키려는 스트레스가 자신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앵무새 해럴드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만나는 소리가 공포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적을 만났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잖아요. 그 당시는 치안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고.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도 없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잖아요. 그건 신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부모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어 부모를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신이 있다면 저를 진짜 도울까요? 도전하는 용기, 새로운 길을 나서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떨쳐버리자. 새로운 길을 나서자. 이런 생각을..., 아직 용기가 필요하지만 졸업하고 계속 도전하려고 해요.” (똑바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구성한 세계관은 자신의 애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양선의 모험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두더지의 고민 : 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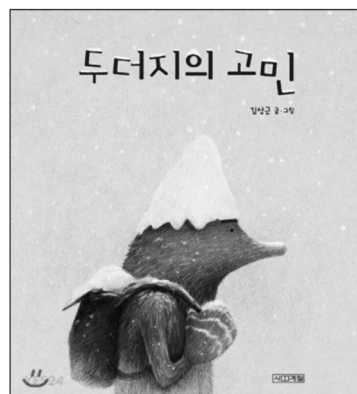


Figure 4. The picturebook: The Mole's Troubles

「두더지의 고민」은 걱정 많은 두더지가 등장한다. 그는 걱정을 달고 사는 존재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두더지의 고민과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들은 실체도 없는 고민을 자신 또한 두더지처럼 지니고 살았다고 구술하였다. 취업불안 결혼, 자녀양육, 주택 마련 등 아직까지 닦쳐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왔고 그 무게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이러한 고민은 미래를 향하여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고민 자체에 깔려 죽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부모나 교수들도 자신들의 고민을 맡아 줄 대상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모든 고민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경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오늘의 고민을 내일의 고민, 일 년 후의 고민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눈 후, 인간들이 가진 모든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술하였다. 그러한 공간을 해방된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 해방공간에 생명력과 함께 건강한 자기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자신들은 두더지처럼 미련하게 고민이라는 눈덩이 짐을 굴리고 살지 않을 거라고 구술하였다. 4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든 고민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고민하는 존재의 기쁨을 이야기 나누었다.

“고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상담센터 등 고민 상담을 해도 답은 찾기 힘들어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저랑 그림책 두더지랑 비슷해요. 자신에게 무엇이 닦쳐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덩이만 굴렸던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줄 존재를 찾기보다 고민을 맡아 줄 존재는 있다. 아직 신앙을 잘 모르지만 전 세계 독자들이 읽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 고민과 인류의 고민을 맡아 주면 좋겠어요. 핵 위험, 기아와 전쟁 등 이러한 고민도 해결이요. 여튼 오늘 고민을 내려놓은 날이에요.” (도닥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실체도 모르고 그림자처럼 지고 왔던 걱정과 불안, 고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란 절대적 타자에 온전히 맡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통해 비로소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온 세상을 노래해 : 희락



Figure 5. The picturebook: All the world

「온 세상을 노래해」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다양함과 동시에 존재 하나하나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본 그림책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다. 그림책을 읽은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론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은 자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더 나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온 세상을 노래해」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낸다. 사물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김춘수 시 ‘꽃’의 내용 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의 구절을 나눈 후,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동물들은 그 이름의 속성대로 자신의 존재 양식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공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 주거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구술하였다. 자신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지만 언제나 집에서 ‘딸’ 학교에서는 ‘학생’ 그리고 남자친구에게서는 ‘여친’으로만 불려졌다. 이름과 함께 자기의 존재 의미도 사라졌다고 구술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자신의 행복과 꿈보다는 ‘학점 따기’ 기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듯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감동하였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구술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지옥 같은 세계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제목에서 보듯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은 중요하다. 유대인의 학살을 다룬 다른 책들과 달리 극한 상태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지옥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과학주의 시대 물질의 시대에 의미는 사라졌고 자신들 역시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미를 회복한 다는 것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용기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breath)되었다고 보았다.

“의미라는 단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나치(Nazi)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이 없었던 것보다 더 지독한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만 된다. 하지만 그 의미란 나 혼자 잘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주)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 고민 등은 모두 의미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미의 부재라는 것을 구술하였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듯 자신들 역시 부모, 친지 등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졌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 이면서 삶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 사랑



Figure 6. The picturebook: It's a gift to you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림책에서 선물은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자기에게로 와서 의미화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재물이나 노력으로 보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무차별적이며 탈젠더적이고 경계를 뛰어넘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두 여대생들이다. 자신이 여성이기에 받았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양성평등이란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과거 가부장적 질서와 남녀 차별은 사라지고 있으나 문화적 규범은 일종의 모세 혈관 담론(정해갑, 2005: 354)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는 이와 더불어 액체불안²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액체처럼 형태도 없이 곳곳에 스며든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정에서는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차별받았다고 구술하였다.

“아파트는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방 깊은 곳을 쓰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남동생이 써요. 나는 현관 앞이에요. 학교 갈 때도 남녀공학이었는데 좋은 것은 그들이 하고 생색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아요. 저보다 학습 참여율도 낮고 답안지도 잘 쓰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보다 성적이 높은 거예요. 교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래요. K는 취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말이 되나요?” (똑바로)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여성으로서 배려나 권리보다는 차별을 더 많이 받았음을 구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값없이 나누어 주지만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선물은 또한 현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현재를 통해 가장 자신에게 은혜로운 존재의 언어로 서로에게 편지를 선물하였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성경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특히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장 시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노년의 지혜와 경륜도 찬양하지만 혈기 왕성한 헌신과 노력, 도전을 중시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너에게 주는 선물

2) ‘모호한 불안과’ 유동하는 공포’를 주제로 한 오은경(2016)의 연구에서 바우만(Zygmunt Bauman)의 이론을 근거로 ‘노스페라투-영화’의 분석을 통해 근대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안의 원인을 가부장적 해체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불안의 실체를 액체화의 과정으로 나타내었다.

야」그림책을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과 함께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술하였다.

“빠빠용³이란 영화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는 빠빠용이 왜 벌을 받는지 잘 안 나와요. 판사가 당신의 죄가 뭔지 아냐고 물었죠. 빠빠용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했어요. 판사는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했던 말이죠.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친구들과 함께한 지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 중 태양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아롱이)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값없이 받은 것들의 실제 의미와 모호한 불안의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적 사유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화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죄에 눈을 뜰 수 있고 매 순간 선물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6. 리디아의 정원: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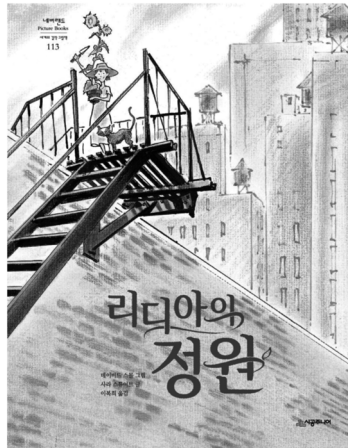


Figure 7. The picturebook: The Gardener

「리디아의 정원」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주인공 리디아가 도시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다. 주인공 리디아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무뎌진 외삼촌을 변화시킨다. 주인공 리디아는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 중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요셉과

3) 앙리 샤리에르(Henri Charrière, 1906-1973)가 쓴 반(半)자전적 소설인 ‘빠빠용(Papillon)’(1969)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떠올릴 수 있다.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은 ‘하닷사(Hadassah)’이고 ‘도금양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도금양나무의 꽃은 별과 비슷하다. 그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에스더는 후일 성장하여 왕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였다. 에스더는 뛰어난 용기와 지혜를 지닌 인물이었다. 리디아 역시 에스더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지녔다. 경제공황 시대에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기보다 도금양나무의 꽃처럼 여러 사람의 행복의 꽃이 되었다. 그리고 무뚝뚝한 외삼촌을 변화시켰다.

리디아는 요셉을 떠올리게 한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이란 낯선 땅에 유배되었지만 총리대신이 되었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근동에 수많은 사람을 기아의 고통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그는 왕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디아와 대치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과 요셉을 동일시하거나 에스더를 동일시하였고 리디아의 주변 인물들과 연결시켰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에스더와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땅은 인간의 소유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고 가꾸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 구술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언제나 불안하였다. 그들은 취업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에서 그들은 도피하고 싶어 하였다. 자신과 문제를 분리시켰다. 하지만 에스더와 요셉이 자신의 선 땅에서 자신의 민족과 많은 이방인을 구했듯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딛고 있는 현재에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자 빛이 되겠다는 의미로 구술하였다.

“종종 이민 가고 싶었고 왜 이런 땅에서 내가 태어났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원망도 하고, 이왕 부잣집이나 미국 같은 곳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전 요셉보다 에스더에게 끌려요. 포로였지만 왕비가 되고 여자지만 용기와 지혜가 있잖아요. 자신의 영화를 자기와 가족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잖아요, 자기 민족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썼죠. 리디아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몹시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에스더도 리디아도 해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독립해서 많은 돈을 벌 생각만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떡바로>님이 어려운 가정에서 봉사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에스더가 준 교훈이에요.” (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선 땅에서 우리 사회가 지닌 불평등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보다 직면하고 분리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리디아와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진 성경 인물들과 동일시를 통해 낙심과 교만에서 벗어나 내가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었다.

7. 미스 럼피우스 : 화평과 양선



Figure 8. The picturebook: Miss Lumpius

「미스 럼피우스」의 주인공 미스 럼피우스는 자신이 밟길 닿는데 마다 꽃씨를 뿌렸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었다. 이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마가복음 16:15)하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땅끝까지 기독교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전투적 메시아니즘(messianism)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를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의 생애가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개화기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과 미스 럼피우스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들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능력 밖이라며 공통적인 구술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구술을 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것은 세계를 화평으로 넘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미스 럼피우스가 꽃을 피우는 걸 저는 그냥 꽃씨를 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미스 럼피우스의 꽃길 여행과 바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 고

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연한 이야기가 확 밝아 왔죠. 그 사람들이 제가 바로 선교사가 뿌린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곳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들을 돕는 것을 보았어요, 개화기 때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는 한국에 오기 위해 약혼자와 파혼했다고 해요. 저도 거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씨를 뿌려야겠다. 꽃씨를 잘 가꾸어야겠다. 생각해요.” (아롱이)

위의 기술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꽃씨를 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스 럽피우스와 사도바울 그리고 조선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구성하였다. 그들 스스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찾아 제시하여 함께 읽어보았고 선교사들의 꽃씨가 어떻게 꽃 피워졌는지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 역시 척박한 우리 사회에 작은 꽃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개인의 삶도 사회, 정치 등도 화평과 양선을 지닌 종교적 세계관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를 구성하였다.

8. 토끼의 의자: 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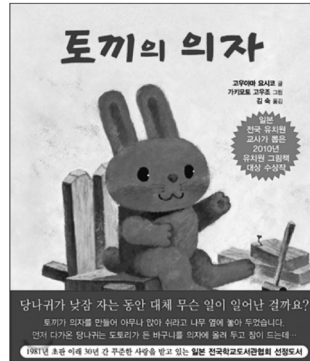


Figure 8. The picturebook: The Giving Chair

「토끼의 의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면 그 총량은 늘어난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을 내어 주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자기 것을 내어 준다는 양선의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사랑과 물질도 나누면 더 커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끼의 의자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유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앞선 것은 굶주려 지친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유형을 배격하지 않았다.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된 것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영과 육, 물질과 정신의 통합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물질의 나눔은 고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사유를 확장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정신적 풍요와 함께 물질적인 만족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하였다.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성공만을 바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신세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듯 양극단을 통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시키는 힘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왜 신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성까지 동시에 지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통합되어야 하듯 자신들의 이분법적 사고도 통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라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고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고 지역을 구분하는 구별짓기라고 구술하였다. 구별짓기는 양극단의 한쪽에 서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분법적인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라고 낙인찍혔다.

“극단적으로 갈라졌어요. 친구 사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편이든 저편이든 서야 되어요. 지금 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게 취업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게 남녀 갈등이에요. 서로 협조하긴커녕 서로 혐오해요. 정치 이야기도 그래요. 양쪽을 절충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저쪽 편이냐며 이상하게 보아요. 절충주의자, 기회주의자라고 해요. 마음과는 다르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편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지고. 토끼의 의자는 그냥 가진 것을 나누면 도토리알밤이 되듯, 총 효용의 증가를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똑바로)

위의 기술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끼의 의자」에서 나눔의 중요성과 함께 물질과 정신 통합의 중요성을 동시에 깨달았다고 구술하였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만을 중시하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중요한 만큼 이 땅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하늘과 땅의 통합, 이원론 극복과 모색의 방안인 의미의 변증법적인 세계관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통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양극단을 통합하고 분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긴 그림책을 이용하여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의 세계관 내용과 그 변화를 보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비기독교인이었으나 그림책을 읽고 이와 연계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사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그들이 새롭게 구성한 세계관과 기독교적 정체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심령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이 뿌려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장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에 대한 논의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인간이 학습하지 않고 깊게 사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본유관념(本有觀念)인 아이디어⁴라고 구술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는 선형적으로 주어진 고유관념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세계를 파악한다고 기술하였으며 칸트 역시 인간은 외계의 사물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열두 가지 범주를 통해 판단한다고 보았다(Descartes, 1981 ; Kant, 197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성경에는 문외한(門外漢)이었으나 그림책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사유를 전개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씨앗의 발아 배경에는 자유스러운 토론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재귀적 자기성찰(self-reflection) 과정이 있었다. 재귀적 성찰의 과정은 그림책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화하고 그것에 빚대어 자기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데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씨앗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으로 구조화되어있다(고영삼, 2020: 98 ; 유재경, 2018: 123).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들에게는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비유(마 13:1-23)를 사용했듯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그림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와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idea'는 일반적으로 관념, 아이디어 등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 인식의 대상으로 '관념'과, 대상 파악의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아이디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 확립에 있어서 건전한 대중문화의 중요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회에 다닌 적이 없지만 그들의 언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모세의 기적’과 같은 언어들이 표출되었다. ‘모세의 기적’은 응급차나 소방차와 같이 위급한 현장에 출동한 차량에 의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길을 터주는 장면과 같다고 구술하였다. 최근 기사나 방송에서 그러한 장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사용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지칭하다.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법(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법 제5조의 2항에 담고 있다. 이는 타인의 위험을 구함에 있어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들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않은 법 제도이다(김천수, 2014 ; 31-32). 이처럼 대중문화에 안에서 공동체 사유는 중요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통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은유이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 상징이나 은유를 만들고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모세의 기적’은 대표적인 은유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상징이나 은유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계층 분열, 소득 양극화는 물론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무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사회통합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타포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는 시대에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메타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외에도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 장치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메타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는 인간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물신주의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다. 성경은 창조력의 보고이다. 무수한 메타포가 담겨 있다. 이러한 메타포를 좀 더 발굴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그림책은 물론 동화,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스 미디어(mass media) 발굴의 노력이다. 현재 매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이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할 수 있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에 생산하는 비생산적이고 비윤리적인 담론 등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는 순결성을 잃고 과학주의, 경제주의와 같은 바빌론의 음녀와 관계를 맺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의 순수함을 내포한 흥미로운 매체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접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매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협의회 또는 교회가 연합하여 펀드나 단체 등을 조성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매체를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세계관이 내포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그림책과 성경의 가치를 통합한 토대를 구축했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여대생이라는 점이다. 비기독교인 여대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경험은 살피지 못하였다. 남녀 성별에 따른 기독교 세계관의 성향의 차이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의 발견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00). 기독교 그림책의 필요성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 115-132.
- [Kang, E. J. (2000). A Study on Need of Christian Picturebooks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1), 115-132.]
- 고영삼 (2020).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 교육의 문제와 기독교 대안 교육 모색. **통합연구**, 22(1), 97-119.
- [Go, Y. S. (2020). Education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Alternative Education from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2(1), 97-119.]
- 김천수 (2014).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5(2), 31-60.
- [Kim, C. S. (2014).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15(2), 31-60.]
- 김홍근 (2011). 191-218 : 소그룹모임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형성 방안 : 한세대학교 동지모임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6), 191-218.
- [Kim, H. K. (2011).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 Formation Plan through Activation of Small Group Meeting for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Nest Meeting" in Hansei University. *Theology and Praxis*, -(26), 191-218.]
- 신국원 (2004).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전망. **總神大論叢**, 24(-), 130-150.
- [Shin, K. W. (2004). A view of the Reformed Christian Worldview.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4(-), 130-150.]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Seoul: IVP.]
- 유경상 (2020).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원리. **통합연구**, 22(1), 52-75.
- [Yue, K. S. (2020). The Principle of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2(1), 52-75.]
- 유재경 (2018).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 세계시민교육.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 [You, J. Y.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 World-view.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2(-), 95-123.]
- 유재연·변수정·이소영·최인선·배은경·이지연 (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3.

- [Yu, J. E., Byeon, S. J., Lee, S. C., Choi, I. S., Bae, E. K. & Lee, J. Y. (2019). *Analysis of Population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9-23.]
- 이수형·현은자 (2022).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적 조명. **신앙과 학문**, 27(2), 105-135.
- [Lee, S. Y. & Hyeon, E. J. (2022).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7(2), 105-135.
- 이상민 (2021).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뤼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6(1), 227-248.
- [Lee, S. M. (2021). Analysis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Faith & Scholarship*, 26(1), 227-248.
-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 [Jeon, J. G. (1998). *The Joy of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Learning*. Seoul: CUP.]
- 정대현·신원애·임희수 (2014). 기독교 세계관적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42), 161-194.
- [Jung, D. H., Shin, W. A. & Im, H. S. (2014).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Model by a Christian Worldview : Focusing on the Art Experience Part of 5-Years-Old Nuri Curriculum.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2), 161-194.
- 정해갑 (2005). Foucault, Discourse, and the Technology of Power. **비평과이론**, 10(2), 333- 356.
- [Jeoung, H. G. (2005). Foucault, Discourse, and the Technology of Power.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10(2), 333- 356.]
- 조용훈 (2005).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문화연구**, 10(-), 7-23.
- [Hn, J. Y. (2005). What is the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cultural Studies*, 10(-), 7-23.]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 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 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 (2003).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서울: 학지사.
- [Hyun, E. J. (2003). *Viewing Children's Literature from a Christian Worldview*, Seoul: Hakjisa.]
- 현은자·김정준·연혜민·김민정·김현경·장시경 (2019). **어린이 교육전문가가 엄선했던 100권의 그림책**. 서울: CUP.

- [Hyun, E. J., Kim, J. J., Yeon, H. M., Kim, M. J., Kim, H. K. & Jang, S. K. (2019). *100 Picturebooks Carefully Selected by Children's Education Experts*. Seoul: CUP.]
- Ellul, J. (2008).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Economica.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CA: Sage Publication.
- Holmes, A.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Grand Rapids: Eerd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 Kant, I. (1976), *Kritik der Reinen Vernunft, Nach der Ersten und Zweiten Origianl-Ausgabe neu Herausgegeben von Raymund Schmidt*, Hamburg: Meiner Verlag.
- Punzo, V. (1996). Jacques Ellul on the Technical System and the Challenge of Christian Hop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Association*, 70, 17-31.
- Ricoeur, P. (1985). *Temps et ré cit 3*. Paris: ÉDITIONS DU SEUIL.
- Stake, R. E. (2008).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pp. 119-149). CA: Sage Publications, Inc
- Sire, J. (2020).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6th, ed. Westmont, Illinois: IVP Academic.
- Sire, J. (1990). *Discipleship of the mind: Learning To Love God In The Ways We Think* (Paperback). Westmont, Illinois: IVP Academic.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그림책 프로그램 연구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지상선 (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그림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이 내포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그림책과 성경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다. 본 그림책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9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그림책 자체가 아니라 그림책과 성경 텍스트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감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을 생성하였고 이를 새로운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할 수 있는 논의와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콘텐츠의 보급, 기독교 상징과 은유의 개발과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적 세계관, 그림책 프로그램, 여자대학생, 이야기 정체성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에서 인용 출처는 APA 방식으로 표시하며, 본문 내 직접 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하고, 한글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명,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여백 30으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⑥ 저자가 2인일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 Lee, 2008: 20)

⑦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⑧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이윤리, 2007b: 27)

⑨ 영문으로 된 원서의 한글 번역서일 경우 (원저자의 성, 번역자의 성명, 번역서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Volf, 김철학 역, 2010: 12), (Volf, 김철학·이희계 역, 2010: 12), (Volf, 김철학 외 역, 2010: 12)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은 영문으로 하고 내용은 한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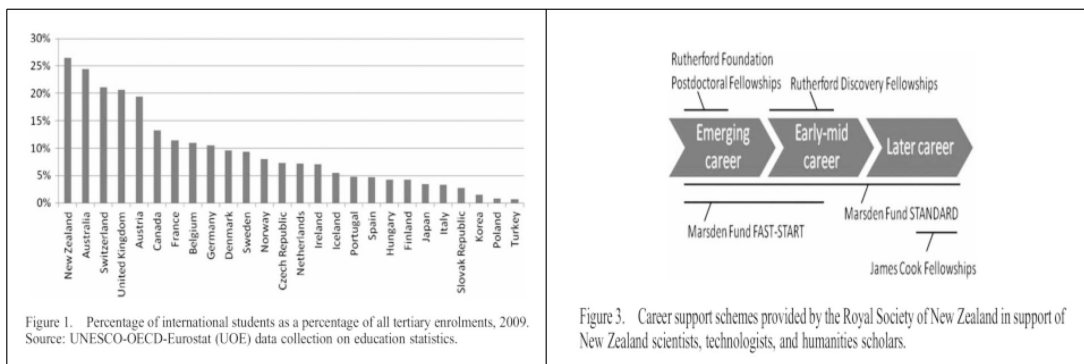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논문: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③ 번역서:

Meargham, P., Weimer, D. & Vining A.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Kim, J. S. & Kwon J. S.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 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송재일 (명지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통권 94호), 2023년 3월호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환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